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박종서

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연구보고서 2021-50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알림】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발간 이후, 2023년 3월 20일자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사항

- 출생아수 관련 내용 pp.150-154
- 부표 <5-8>, <5-9>

발|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오랜 연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며, 이 조사를 통하여 인구 동태 변화의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조사의 최초 출발은 1964년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였다. 그 이후 조사의 목적과 내용 변화에 따라 명칭도 변경되었다. 조사가 도입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대체로 당시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생산·활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복지 정책과 가족정책의 확장에 따른 정책 기초자료로 생산·활용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이 조사자료가 활용되어왔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과 인구 행동은 점차 다변화되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애과정의 다양한 경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규범은 더 이상 확고한 신념이 아니다. 개인들 또는 부부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연구의 방향 및 정책 추진 방향도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런 변화의 맥락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직접적 정책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책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역시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1년부터 조사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대상과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였다. 개편의 핵심은 개인의 다양한 생애경로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 조사에서 당연하게 전제하였던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을 제거하였다. 결혼-임신-출산 이행을 연속된 생애경로로 전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대상 표본을 기존의 기혼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미혼자와 남성을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가족과 개인의 생애경로의 다양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드러날 것이다.

2021년 조사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방법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COVID-19의 확산은 조사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86명의 조사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부록에 전체 조사원의 명단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전체 조사팀을 이끌어준 김인숙, 김예숙 두 분의 전문 조사지도원과 조사관리 총괄책임을 맡아준 사회조사팀 조남주 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조사 실무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과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조사 방법	18
제3절 2021년도 조사의 특징	24
제2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35
제1절 표본 설계	37
제2절 가중치	48
제3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51
제1절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53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59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64
제4장 동거와 결혼	77
제1절 법률혼 배우자 관계	87
제2절 사실혼과 동거 관계	93
제3절 무배우자의 미래 결혼	112
제4절 이혼과 헤어짐	130
제5절 소결	134

제5장 임신과 출산 경험	137
제1절 임신과 출산 경험	139
제2절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154
제3절 소결	169
제6장 임신과 출산 건강	173
제1절 생식 건강	178
제2절 산전·산후관리와 분만	200
제3절 수유	218
제4절 소결	223
제7장 자녀 양육	229
제1절 부부의 가사·육아 분담	234
제2절 미취학 자녀 돌봄	243
제3절 초등 학령기 자녀 돌봄	252
제4절 양육비용	262
제5절 소결	276
제8장 일과 일·생활 균형	279
제1절 경제활동	283
제2절 시간활용과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290
제3절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308



제4절 소결	312
제9장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주거 실태	315
제1절 청년기 주거독립 실태	318
제2절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	336
제3절 소결	361
제10장 가치관과 인식	365
제1절 성역할 태도	369
제2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376
제3절 자녀에 대한 태도	382
제4절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389
제5절 소결	393
참고문헌	397
부록	405
[부록 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표	405
[부록 2]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표	437
[부록 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원 명단	444

표 목차

〈표 1-1〉 조사표 내용 구성	19
〈표 1-2〉 장별 교차표 분석 프로그램과 사용 명령어(Syntax) 및 해당 표 번호	23
〈표 1-3〉 2021년 조사의 주요 변경 사항	32
〈표 1-4〉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설계를 위해 검토한 해외 조사 사례	33
〈표 2-1〉 2021년 조사 표본 조사구 결과	38
〈표 2-2〉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주요 항목 CV값	39
〈표 2-3〉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39
〈표 2-4〉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지출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40
〈표 2-5〉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출생아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40
〈표 2-6〉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이상자녀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40
〈표 2-7〉 2018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값	41
〈표 2-8〉 2018년, 2021년 CV값	41
〈표 2-9〉 2018년 조사와 2021년 조사 가구소득 CV	42
〈표 2-10〉 지역별 가구수 분포(2019년 인구총조사 기준)	44
〈표 2-11〉 2019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19~49세 여성인구	45
〈표 2-12〉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최종 시·도별 총별 표본 배정 결과	46
〈표 3-1〉 전체 개인 응답자의 표본 특성(50세 이상 포함)	54
〈표 3-2〉 전체 응답 가구의 표본 특성	54
〈표 3-3〉 응답자(19~49세)의 일반특성	56
〈표 3-4〉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일반특성	58
〈표 3-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소득	60
〈표 3-6〉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지출	61
〈표 3-7〉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자산	62
〈표 3-8〉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	63
〈표 3-9〉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	65
〈표 3-10〉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67
〈표 3-11〉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임대주택 여부	68



〈표 3-12〉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시가: 자가의 경우	70
〈표 3-1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임대보증금	71
〈표 3-14〉 대표응답자 특성별 월세 또는 사글세 금액	72
〈표 3-1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대출 여부	74
〈표 3-16〉 대표응답자 특성별 타 주택 소유 여부	76
〈표 4-1〉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 유무	84
〈표 4-2〉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 혼인신고 여부	86
〈표 4-3〉 현 배우자와 결혼식 여부	88
〈표 4-4〉 현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90
〈표 4-5〉 현 배우자와 결혼 당시 기대: 전체	91
〈표 4-6〉 현 배우자와 결혼 당시 기대(기대하였음+매우 기대하였음): 특성별	92
〈표 4-7〉 응답 가구의 혼인 및 동거 특성 분포	94
〈표 4-8〉 사실혼 및 동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15-49세)	94
〈표 4-9〉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및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 결혼식 여부	95
〈표 4-10〉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의 관계	97
〈표 4-11〉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의 부부(혼인)관계 시작 시점 ...	99
〈표 4-12〉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동거 시작 당시 기대: 전체 ·	100
〈표 4-13〉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동거 시작 당시 기대 (기대하였음+매우 기대하였음): 특성별	101
〈표 4-14〉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주된 이유	103
〈표 4-15〉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낀 경험	105
〈표 4-16〉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	106
〈표 4-17〉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불편: 전체	108
〈표 4-18〉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불편(있었음+자주 있었음): 특성별	109
〈표 4-19〉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의 혼인신고 계획	111
〈표 4-20〉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 없는 경우 혼인상태	113
〈표 4-21〉 현재 교제 중인 상대 여부	114

〈표 4-22〉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생각	116
〈표 4-23〉 결혼(재혼)하기 원하는 시기(나이)	118
〈표 4-24〉 결혼(재혼) 전 동거 의향	120
〈표 4-25〉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기대: 전체	121
〈표 4-26〉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기대(기대+매우 기대): 특성별	122
〈표 4-27〉 향후 동거 의향	124
〈표 4-28〉 향후 결혼(재혼) 및 동거하지 않을 경우 함께 살 대상(복수 응답, 모두 선택) ..	126
〈표 4-29〉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제약: 전체	127
〈표 4-30〉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제약(느낌+크게 느낌): 특성별	129
〈표 4-31〉 이혼(별거·헤어짐)의 주된 이유	131
〈표 4-32〉 이혼·별거·헤어짐 직후 함께 생활한 대상(복수 응답, 모두 선택)	132
〈표 4-33〉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 유무	132
〈표 4-34〉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 수	133
〈표 4-35〉 본인이 양육하게 된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수	133
〈표 5-1〉 임신 횟수(19-49세 여성)	142
〈표 5-2〉 임신 방법(19-49세 여성)	144
〈표 5-3〉 임신 결과(19-49세 여성)	146
〈표 5-4〉 원한 임신 여부(19-49세 여성)	147
〈표 5-5〉 임신 시기의 적절성(19-49세 여성)	148
〈표 5-6〉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빠른 정도(19-49세 여성)	149
〈표 5-7〉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19-49세 여성)	149
〈표 5-8〉 출생아 수(19-49세 여성)	152
〈표 5-9〉 출생 코호트별 출생아 수(19-49세 여성)	154
〈표 5-10〉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여부, 계획 자녀 수 평균	157
〈표 5-11〉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1) 자녀 출산 여부	160
〈표 5-12〉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2) 자녀 출산 시기	161
〈표 5-13〉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3) 자녀 수	162



〈표 5-14〉 (추가)출산 의향, (추가)출산 계획 자녀 수 평균	164
〈표 6-1〉 생식계 증상 경험	179
〈표 6-2〉 증상 대처 방법(복수 응답)	181
〈표 6-3〉 증상으로 병의원에 가지 않은 이유	183
〈표 6-4〉 피임 경험	185
〈표 6-5〉 피임 지식 획득 경로(복수 응답)	186
〈표 6-6〉 현재의 피임 실천	188
〈표 6-7〉 피임 방법(복수응답)	190
〈표 6-8〉 피임하지 않는 주된 이유	192
〈표 6-9〉 피임 관련 결정의 주도권	194
〈표 6-10〉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경험 여부	196
〈표 6-11〉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검사 경험 여부	197
〈표 6-12〉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 경험 여부	198
〈표 6-13〉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 중 힘들었던 점	198
〈표 6-14〉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마지막 난임 시술 결과	199
〈표 6-15〉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장소	201
〈표 6-16〉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초진 시기	203
〈표 6-17〉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 수진 횟수	205
〈표 6-18〉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장소	206
〈표 6-19〉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방법	208
〈표 6-20〉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	209
〈표 6-21〉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경험	211
〈표 6-22〉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평균 산후 수진 횟수	213
〈표 6-23〉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 경험 ..	215
〈표 6-24〉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	216
〈표 6-25〉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여성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217
〈표 6-26〉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모유수유 경험	219

〈표 6-27〉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221
〈표 6-28〉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 양상	223
〈표 7-1〉 가사시간 비교	235
〈표 7-2〉 가사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236
〈표 7-3〉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237
〈표 7-4〉 육아시간 비교	239
〈표 7-5〉 육아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240
〈표 7-6〉 육아분담에 대한 만족도	242
〈표 7-7〉 영유아기 연령별 이용 희망서비스 1순위	244
〈표 7-8〉 영유아기 연령별 실제 이용서비스 1순위	246
〈표 7-9〉 영유아기 연령별 긴급돌봄 제공자	247
〈표 7-10〉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 만족도	249
〈표 7-11〉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250
〈표 7-12〉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251
〈표 7-13〉 초등 학생자녀 방과후 이용 희망서비스 1순위	253
〈표 7-14〉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실제 이용서비스 1순위	255
〈표 7-15〉 초등학생 자녀 학년별 긴급돌봄 제공자	257
〈표 7-16〉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만족도	258
〈표 7-17〉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259
〈표 7-18〉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261
〈표 7-19〉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263
〈표 7-20〉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 응답자 특성별	264
〈표 7-21〉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266
〈표 7-22〉 세부 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267
〈표 7-23〉 영유아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비용	269
〈표 7-24〉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금액	271
〈표 7-25〉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금액	273



〈표 7-26〉 대학생 이상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비용	275
〈표 8-1〉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	283
〈표 8-2〉 응답자(19~49세)의 주당근로시간	284
〈표 8-3〉 응답자(19~49세)의 직종	284
〈표 8-4〉 응답자(19~49세)의 업종	285
〈표 8-5〉 응답자(19~49세)의 직장유형	286
〈표 8-6〉 응답자(19~49세)의 종사상 지위	286
〈표 8-7〉 응답자(19~49세)의 정규직 여부	287
〈표 8-8〉 응답자(19~49세)의 시간제 여부	287
〈표 8-9〉 응답자(19~49세)의 지난주 노동 시간 의향	289
〈표 8-10〉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배분 현황: 평일	292
〈표 8-11〉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배분 현황: 주말	293
〈표 8-12〉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적절성(평일기준)	295
〈표 8-13〉 응답자(19~49세)의 일하는 시간 적절성(평일기준)	296
〈표 8-14〉 응답자(19~49세)의 육아시간 적절성: 평일	298
〈표 8-15〉 응답자(19~49세)의 가사시간 적절성: 평일	300
〈표 8-16〉 응답자(19~49세)의 여가시간 적절성: 평일	302
〈표 8-17〉 응답자(19~49세)의 기타시간 적절성: 평일	304
〈표 8-18〉 응답자(19~49세)의 필수시간 적절성: 평일	305
〈표 8-19〉 응답자(19~49세)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307
〈표 8-20〉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 비율	309
〈표 8-21〉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	310
〈표 8-2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연속 이용 비율	311
〈표 8-23〉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	312
〈표 9-1〉 부모 존재 여부	320
〈표 9-2〉 부모와의 동거여부	321
〈표 9-3〉 부모존재유형에 따른 부모동거여부	323

〈표 9-4〉 만 15세 무렵에 살았던 지역의 동, 읍, 면 구분	324
〈표 9-5〉 만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 여부	325
〈표 9-6〉 시점별 주관적 계층 점수	326
〈표 9-7〉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 및 독립한 나이	328
〈표 9-8〉 부모로부터 독립한 주된 이유	330
〈표 9-9〉 부모와 다시 동거 여부 및 다시 동거한 이유	332
〈표 9-10〉 첫 결혼 전 함께 산 사람 (복수응답)	333
〈표 9-11〉 첫 결혼 직전 거주하던 집의 점유형태	334
〈표 9-12〉 첫 결혼 후 첫 주택의 점유형태	336
〈표 9-13〉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빈도	338
〈표 9-14〉 일상적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는 대상 (복수 응답)	340
〈표 9-15〉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정기적/비정기적 경제적 자원과 돌봄 지원 경험 · 343	
〈표 9-16〉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월간) 분포	345
〈표 9-17〉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월간) 분포	347
〈표 9-18〉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여부 및 지원금액(월간) 분포 · 349	
〈표 9-19〉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비정기적 경제적 자원과 돌봄 수혜 경험 · 352	
〈표 9-20〉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수혜 금액(월간) 분포	354
〈표 9-21〉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수혜 금액(월간) 분포	356
〈표 9-22〉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 경험 여부와 수혜금액(월간) 분포 .. 358	
〈표 9-23〉 부모의 현재 경제적 상황	360
〈표 10-1〉 가족·사회에서의 성역할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371
〈표 10-2〉 자녀 양육 분담에 관한 성역할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373
〈표 10-3〉 이상적인 부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	375
〈표 10-4〉 결혼에 대한 태도	377
〈표 10-5〉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379
〈표 10-6〉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5점 척도 평균)	381
〈표 10-7〉 본인 자녀의 필요성	383



〈표 10-8〉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5점 척도 평균)	385
〈표 10-9〉 이상적인 자녀 수	386
〈표 10-10〉 자녀에 대한 태도(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388
〈표 10-11〉 사회의 안전에 대한 태도	390
〈표 10-12〉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신뢰함+매우 신뢰함)	391
〈표 10-13〉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신뢰함+매우 신뢰함)	392
〈부표 5-1〉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횟수	437
〈부표 5-2〉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방법	438
〈부표 5-3〉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결과	439
〈부표 5-4〉 원한 임신 여부(기혼 여성(19-49세))	440
〈부표 5-5〉 임신 시기의 적절성(기혼 여성(19-49세))	440
〈부표 5-6〉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빠른 정도(기혼 여성 19-49세) ..	441
〈부표 5-7〉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기혼 여성 19-49세) ..	441
〈부표 5-8〉 기혼 여성(19-49세)의 출생아 수	442
〈부표 5-9〉 기혼 여성(19-49세) 출생 코호트별 출생아 수	443



Abstract

The 2021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Project Head: Park, Jongseo

The 2021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s the only nationally-representative survey in Korea that systematically identifies the history of childbirth and marriage behavi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data that can observe changes in an individual's life course and family path, focusing on demographic behavi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adults aged 19-49 and their spouses living in sample households extracted from 700 survey districts nationwide. The final sample was 9,999 households and 14,538 people, and the response rate of spouses and partners was 57.1%.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Of those in a common-law marriage or cohabitation relationship, 96.7% thought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 was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People in a common-law marriage and cohabitation relationships were found to experience inconveniences or discrimination because they did not register

Co-Researchers: Lim, Ji-young · Kim, Eun-jung · Byoun, Soo-Jung · Lee, So-Young ·
Chang Insu · Cho, Sung-ho · Choi, Sun-Young, Lee, Hyejung,
Song, Ji-eun

their marriage legally. This is because most policies in Korea provide support based on legal relationships and do not recognize family members outside of marriage.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birth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regnancies. The average number of abortions differed significantly across predictor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age at first marriage,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As in many existing studies explaining the low fertility pattern, a negative association was observed in this study between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fertility rate. The younger the cohort, the smaller the proportion of those with two or more births. Remarkable features were observed in the responses to questions regarding whether and when the respondent had childbirths, and how many. Compared to other categories, in the number of children category, the ratio of self and the other person making decisions together was higher.

Third,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prevalence of experiencing reproductive health symptoms over the past year. The prevalence of reproductive health symptoms was higher in women by 29.8 percentage points, but a large percentage of women who had the symptoms was found to have done nothing about their symptoms or used a pharmacy, without seeking help from a doctor. When asked about the sources they drew on for

information about contraception, 59.4 percent of the respondents cited media such as the Internet, where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objectivity of information. Regarding contraceptive decision making, there was a marked gender difference. While 30.3% of men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self-initiation, only 16.6% of women answered that they had self-initiation. 17.2% of women in legal and common-law marriages experienced infertility. As the age of first marriage increased, the rate of infertility increased, and 33.1% of married women over 35 experienced infertility.

Fourth,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 rearing environment and expenditure item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ren. A large percentage of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were found to use private facilities, despite their wish to use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for their children. In addition, a review must be undertaken as to whether facil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enough for 0-year-olds, as a large share of parents of infants were foun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mselves despite their wish to use facility services.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roportion of parents who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are situation was lower than that of infants, indicating that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s insufficient.

Fifth,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of time allocated to daily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enough time was

allocated to work, childcare, and housework, but time spent on other activities, such as self-developmen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It was analyzed that about 2/3 of the respondents did not have much difficulty in work-life balance. The maternity leave system was used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women with childbirth experience for both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but less often for second childbirths. On the other hand, the parental leave system was used by less than half of the women with childbirth experience, and in particular, only about 40% used it for a second child.

Sixth,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becam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from the age of 18 to their mid-30s. It seems that the period of residential independence spreads widely from the age of 18 to the late 30s, because housing changes through life events such as college admissions, employment, and marriage rather than living independently according to biological ag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reasons for housing independence was found to be marriage. Of those who experienced marriage, 61.4% answered that the person they lived with before marriage was their parent. Those who lived alone accounted for 26.4%. Women were more likely to live with their parents before marriage than me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economic vulnerability and gender norms of the unmarried youth group have an effect on the high parental cohabitation rate in

pre-marriage housing.

Seventh,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have values that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rather than supporting traditional values. Rather than classifying roles by gender, men and women perform roles jointly, and even if it is family-related, there is a tendency to value individual opinions. A high percentage agreed with the claim that marriage is now optional.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cluding child rearing, also suggested a shift to the need to work together regardless of gender. These changed values showed a distinct difference by age.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percentage supporting the existing values, and the lower the age group, the more support the changed values.

Keyword : pregnancy, childbirth, fertility, marriage, partnership, family chang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과 출산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산과 결혼 행동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표본구성과 조사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개편의 초점은 기혼자와 미혼자를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여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함께 사는 배우자, 애인 및 파트너도 함께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4,538명이었고, 배우자, 애인 및 파트너의 응답율은 57.1%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첫째 동거와 결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 한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96.0%이고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34.9%로 결혼식 여부에서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 중 상대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6.0%에 해당해 사실혼 및 동거 관계도

대부분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 한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혼인신고 한 시점(10.6%)이나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21.4%)보다 결혼식을 한 시점(67.8%)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 또한 법적 혼인을 선택하는 집단에 있어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동거 및 사실혼 관계에서는 현재 배우자나 애인·파트너와 부부관계를 시작한 시점으로 결혼식을 한 시점(22.3%)보다는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76.7%)을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아 한국 사회에서 법률혼을 선택하는 집단과 동거 및 사실혼을 선택하는 집단은 결혼의 시작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사실혼 및 동거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지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의 대부분 정책이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혼인 밖의 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임신과 출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출생 횟수의 차이는 총임신허수의 차이와 대체로 정(+)의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평균 인공임신중지 횟수는 연령, 교육수준, 초혼연령, 취업여부, 가구소득과 같은 예측변수의 범주에 따라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저출산 양상을 설명하는 많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출생아 수는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 부적(-) 연관성이 관측되었다. 출산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결과가 관측되었는데, 이것은 출생아 수 3명 이상의 범주에서 가구소득과 출생아 수 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2명 이상의 출생아 수 범주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 수에 대한 응답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다른 범주에 비해 자녀 수 범주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남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이 있는 비율은 8.1%이었지만, 미혼자는 14.4%로 기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신과 출산 건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식 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생식 건강 관련 증상 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29.8%p 높게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증상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하거나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생식 건강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임 지식의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피임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 등 언론 매체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누가 주로 하는지의 주도권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는 30.3%가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고 8.5%만이 주로 상대방이 피임에 관해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6.6%만이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성과 재생산권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성의 17.2%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임 경험률은 증가하여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난임 경험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을 고려

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 양육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연령에 따라 양육환경 및 지출항목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관련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해 국공립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만0세의 경우 시설 이용을 원하지만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해당 연령에 대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현재 돌봄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기보다 낮아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돌봄이나 지역사회돌봄이용을 희망하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지만, 사교육 등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돌봄 이외에 활용하고 있는 사교육은 학습 및 예체능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마을돌봄을 통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생활 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일 8.9시간, 육아 3.4시간, 가사 1.6시간, 여가 3.9시간, 자기 계발 등 기타시간 1.5시간, 필수시간은 9.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은 일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타시간 이외의 시간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생활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 육아, 가사의 경우는 적당하였으나, 자기계발 등 기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2/3는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해당 자녀 출산 경험 여성의 약 2/3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보다 이용률이 낮았다. 반면,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은 해당 자녀 출산 경험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특히 둘째 자녀는 약 40%의 여성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한 여성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전히 이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세대간 자원 이전과 주거 실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만 18세 이후 30대 중반까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주거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의 생애 사건을 통해 주거가 변화하기 때문에, 주거독립시기는 만 18세부터 30대 후반까지 넓게 퍼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주거독립 사유 중 하나가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의 61.4%가 결혼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했다. 혼자 살았다는 응답은 26.4%를 차지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전 주거형태에서 나타나는 높은 부모동거율에는 미혼 청년집단의 경제적 취약성과 젠더 규범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독립 비율은 결코 높지 않지만, 일단 따로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거 독립상태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비동거부모로부터의 '부양'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연령집단에서만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다. 25-29세에서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9.9%였으며, 취업자의 3.5%, 비취업자의 13.6%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가치관과 인식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지하기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역할을 구분하기보다, 역할을 남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가족과 관련된 일이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은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포함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역시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변화된 가치관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된 가치관은 연령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존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변화된 가치관을 더 많이 지지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에서 가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생애경로에서 가족 형성 시점은 지연되고, 결혼 이후의 가족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자녀 양육 기능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의 제반 제도와 구조적 요인에 적응하는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 맥락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변화도 이해되어야 하며, 향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 임신, 출산, 출산력, 결혼, 동거, 가족변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조사 방법

제3절 2021년도 조사의 특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이하 가족과 출산 조사)는 그동안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이하 출산력 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출산력 조사는 1964년 ‘전국 가족계획실태 조사’로 시작하여 2018년까지 이어져 왔다. 197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며,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 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로 개편되었다. 조사 내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한 체계로 지속되고 있었다.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율 변화와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 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 해소를 위해 가족복지 측면이 강화되었다. 2015년부터 조사 대상 표본을 기혼 여성으로 더 분명히 하고 표본 규모도 확대하였다. 또한 조사 내용을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경제활동 중심으로 더 체계화하였다.

‘출산력 조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조사로써 사회 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과 명칭이 변화해왔지만, 다른 한편 문항의 시계열과 조사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의 복지영역이 확대되면서 ‘출산력 조사’의 내용도 가족복지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가족의 전형성을 고려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행동의 원인을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분석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을 조사 대상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2015년 이후 내용 구성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인구와 가족 문제의 원인을 응답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조사 내용에서도 일부 과도하게 민감한 정보를 조사하고 문항의 연관 관계가 복잡하여 응답 부담도 크게 남아 있었다.

기존 조사의 표본설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 조사와 개인 조사, 남성과 여성, 기혼 여성과 유배우 여성, 연령기준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 표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혼자는 과학적 표본 설계에 근거하지 않고 부가조사의 성격으로 기혼 여성 가구에 동거하는 일부의 미혼 남녀를 조사하여 별도의 자료(data set)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미혼 조사 자료는 대표성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결혼 및 출산 행동관련 사항이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어 가임기의 해당 연령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출산력 조사’는 기존의 조사 목적과 내용의 일관성을 단순히 유지하고자 하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가족과 인구 행동은 점차 다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규범은 더 이상 확고한 신념이 아니다. 개인들 또는 부부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도 조사부터 이와 같은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 하였다. 우선 이 연구는 가족구성과 임신·출산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의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구학적 생애 사건의 자기 결정권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개인의 역동적 생애 맥락에서 인구 행동의 결정/비결정의 사회 조건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피임, 임신, 난임, 출산 등과 관련되는 재생산건강과 권리는 혼인 여부,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모든 인구의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조사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까지 결혼제도 내외부의 생활 모두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 조사는 민감한 사적 영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행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구학적 행동 및 재생산건강과 가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조사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결혼과 출산 행동의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인구현상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조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인 생애 경로는 다양성과 선택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인구 행동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남녀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항을 통하여 선택 과정의 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

-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단위와 가족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생산 행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건강의 문제와 건강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인구현상과 생애과정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료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조사 방법

1. 연구 내용

조사 항목은 가구 및 가구원 사항과 가구 일반특성, 그리고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 새롭게 구성된 영역이 부모와의 관계, 성장기와 주거이동 부분이며, 나머지 영역은 당초의 내용을 보완 또는 확장하였다. 최종 수집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표본 설계와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며, 제3장은 응답자와 가구의 일반특성을 서술하였다.

제4장은 동거와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동거 경험, 결혼 경험,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사항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혼이나 사실혼의 헤어짐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조사부터 미혼자를 표본에 통합함으로써 결혼 이전의 파트너십 상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 조사와 달리 임신과 출산의 최종 결과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 결정과정에서 배우자 및 파트너 관계에 있는 쌍방의 의견을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은 임신과 출산관련 건강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피임, 난임 등의 생식 건강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그리고 산전 후 관리와 분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1-1〉 조사표 내용 구성

구분	주요 항목
가구 및 가구원 사항	-이름, 관계,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교, 국적, 동거여부 -주거,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부모와의 관계	-부모 연령, 학력, 생존여부, 직업, 경제상황 -세대간 자원의 교환 및 세대관계
동거와 결혼	-유배우자: 결혼시점, 동거시점, 혼인신고시점, 결혼식 시점, 결혼기대 척도, 결혼이력 -동거 중: 시작시기, 동거기대 척도, 결혼이행, 차별 -미혼(기혼싱글): 결혼의향, 결혼기대 척도, 동거의향 등 -이혼경험자: 자녀유무, 양육비 지급 사항
임신 출산 건강	-피임: 생식계 건강, 대처방안, 피임인지도, 경험, 방법, 이유, 의사결정 -임신출산: 임신횟수, 계획여부, 결과, 총출생아수, 결혼당시 출산계획, 향후 출산의향, 의사결정척도 -난임(불임): 경험, 검사, 원인, 시술경험, 결과, 기간 등
산전 산후 관리	-산전, 분만: 진찰장소, 횟수, 초진시기, 불편사항, 분만장소, 자연분만여부, 분만시기와 체중 -산후관리: 산후진찰경험, 산후조리 장소, 산후우울 경험 및 치료 -수유: 방법, 정보취득, 모유여부 및 계획, 이력
자녀양육	-분담: 육아와 가사 시간 분담, 만족도 -미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양육비: 돌봄기관, 공/사교육비, 돌봄인력비용, 기타
일	-본인과 배우자 현취업, 항목별 시간 량과 적정성, 생애사건 시 취업이력
성장기와 주거이동	-(15세 당시) 거주지역, 동거부모, 분거경험, 15세 때 경제형편 -주거독립, 자립인식, 결혼전후 주거
가치관과 인식	-성역할태도와 가치, 자녀출산 태도, 사회 신뢰

자료: 저자 작성

제7장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여기서 부부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살펴보고, 미취학 및 초등 학령기 자녀 돌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양육비용의 규모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제8장은 일과 생활영역으로 보고서는 일과 노동시간, 생활 시간의 활용,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 자료는 일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조사 대상자의 직업이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 중 하나이다. 다만 현 취업상황을 포함하여 직업이력 부분까지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분석을 위한 통제 변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제9장은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주거 실태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년기 공간적 독립과정을 파악하여 이후 파트너십 형성과정까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가치관과 인식을 다루었는데, 크게 성역할 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 조사 방법과 분석 방법

이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의 자원이 동원되었다. 그 과정에는 모두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항이 조사 지침으로 적용된다. 여기서는 전체 과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매년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대다수가 매년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숙련도가 매우 높다. 보통 2개의 패널 조사가 끝나면 참여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반조사에 참여한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도 2개의 패널 조사에 참여했던 고숙련 조사원 대부분이 참여하였다.¹⁾ 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과 일부 신규 조사원을 포함하여 총 86명의 조사원을 선발·채용하였고, 채용된 조사원이 표본 추출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용 조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CAPI)를 진행하였다. 전용 조사프로그램은 2018년도 조사부터 이용하였으며,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프로그램을 기초로 2021년 조사를 위해 재개발하였다.

본 조사(main survey)에 앞서 전용 조사프로그램 시험운영과 조사 문항 점검을 위하여 1회 사전조사(pre-test)와 2회 전용 조사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와 전용 조사프로그램 점검에는 연구진, (주)한국리서치 프로그램 개발자, 조사지도원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문항과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총 86명의 조사원이 2-5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총 20개 팀이 표본으로 추출된 700개 조사구를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일 동안 조사원 전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표본설계와 조사구 특성, 조사의 목적과 조사 문항, CAPI 프로그램 이용방법, 입력 자료 오류 수정방법, 안전사항, COVID-19 방역지침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역할을 구분하였고, 팀장은 조사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구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리고 조사 대상

1) 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조사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이력을 “부록 3-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원 명단”으로 제시하였다.

가구에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팀장이 각 조사구에서 조사와 관련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각 조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통장이나 마을 이장에게 조사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협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 시작 전부터 전 세계에서 COVID-19가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통 이 조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완료하였는데, COVID-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계속 조사를 미루다가 결국 10월 5일부터 시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았던 지방부터 시작하여 점차 수도권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다행히도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었다.²⁾ 조사는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점은 2021년 9월 2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COVID-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이 조사표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종이 조사표를 이용하여 유치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용 조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입력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로 내용을 보완 검증하였다. 각 팀의 팀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전체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입력 자료(data)는 (주)한국리서치 Data-base에 저장된다. 각 팀장은 조사 기간 중 계속 관리자

2) 조사를 시작하던 10월 초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였으며, 지방은 3단계였다.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거리두기 기준을 단계적으로 점차 완화해 갔다. 1단계에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 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방향으로 완화해 갔다.

권한으로 Data-base에 접근하여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나고 오류 점검(error-check)을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류 점검 전담자가 문항 간, 영역 간, 가구원 관계 등의 논리적 오류, 변수 값의 범위와 최댓값, 최솟값 등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오류는 각 조사 팀장들이 Data-base 자체에 접근하여 원자료를 수정하였다. 1차 분석용 자료(data-set)를 구축하여 연구진이 기초분석을 실시하면서 재차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와 STATA이다. SPSS의 경우 교차표 분석 명령어 CROSSTABS와 CTABLES는 가중치 처리 방법의 차이³⁾로 인해 분석 값이 서로 다르다. 이 보고서는 여러 특성을 한 표로 구성하는 데 편리한 CTABLES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SPSS의 CTABLES 분석 값과 STATA iweight 분석 값은 동일하다.

〈표 1-2〉 장별 교차표 분석 프로그램과 사용 명령어(Syntax) 및 해당 표 번호

구분	프로그램	명령어	해당 표 번호
3장	SPSS	CTABLES	전체
4장	SPSS	CROSSTABS	4-8
		CTABLES	4-1~4-4, 4-6, 4-9~4-11, 4-13~4-16, 4-18~4-24, 4-26~4-28, 4-30~4-31, 4-33
5장	STATA		전체 (가중치=iweight)
6장	SPSS	CTABLES	전체
7장	SPSS	CROSSTABS	7-1, 7-2, 7-4, 7-5, 7-7~7-9, 7-13~7-15
		CTABLES	7-3, 7-6, 7-10, 7-16, 7-20
8장	SPSS	CTABLES	전체
9장	SPSS	CTABLES	전체
10장	SPSS	CTABLES	전체

자료: 저자 작성

3) Crosstabs and Custom Tables return different Pcts. with fractional weights (<https://www.ibm.com/support/pages/crosstabs-and-custom-tables-return-different-pcts-fractional-weights>)

제3절 2021년도 조사의 특징

1. 조사명칭과 관점의 변화

2021년도 조사는 기존 조사와 비교해서 많은 점이 변화되었다. 우선 조사의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조사’로 변경하였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사의 기본 방향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과거에도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약 20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직전 명칭 변경은 2003년에 있었으며, 올해를 기준으로 18년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명칭 변경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이었다. 기존 조사 명칭에서 핵심 용어는 ‘출산력’이었다. 이 조사의 기원은 1964년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때는 1968년이었다. 당시 조사 명칭은 ‘전국 출산력 조사’였다. 이후부터 2018년 조사까지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왔다(신창우, 이삼식, 박종서, 2011, p.20). 1960년대부터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하여 출산율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산출하였고, 2015년 조사부터 더 이상 출산율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계산을 위해서는 인구동태신고 자료(Vital Statistics by Civil Registration) 또는 전국 표본조사 자료(National sample Survey data)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자료는 1980년대까지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1984년까지도 출생신고를 하는 비율이 80%를 넘지 못하였다(이흥탁, 1994, p.143).

전국 표본조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이용되었다. 이 조사도 1960년대부터 출산율 측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민들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 동태 신고가 정확해지고, 통계청의 자료 품질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서 통계청의 자료가 매우 정확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조사 자료를 통한 출산율 계산을 중단한 것이다.

2021년도 조사 개편과정에서, 연구진이 조사의 방향성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출산율 측정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측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조사 명칭에 계속 사용할 사회적 맥락은 약화된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조사의 주요 초점은 출산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출산’ 행동에 관한 용어를 명칭에 포함할 필요는 있었다. 다른 한편 이 조사는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일련의 가족 구성 과정 및 생활을 담고 있다. 국내의 인구 및 가족 관련 사회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조사가 전통적으로 인구 행동과 가족구성 및 생활에 초점을 두었던 특징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사의 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명명하게 되었다.

2021년도 조사 개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또 하나의 초점은 조사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이 조사는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행동의 결과에 집중해온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 구성 및 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기혼 여성의 출산 행동만으로 인구행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청년기부터 결혼으로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성의 제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행동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애 경로가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이제는 결혼, 출산, 가족과 관련된 전형적 규범과 형태를 전제하고 조사를 설계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우자 및 파트너 관계의 유연성, 누가 부모인지에 대한 유연성,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는 유연성, 비혼 출산의 가능성 등을 조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과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생애 사건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전 조사처럼 최종 행동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이나 임신 및 피임 결정 과정에서 배우자 및 애인과 파트너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임, 임신, 난임, 출산 등과 관련되는 재생산건강과 권리는 혼인 여부,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재생산 건강은 출산억제 정책 추진 시기와 같이 출산조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더 초점을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사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 매우 민감한 사적 영역에 대해 조사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행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구 행동 및 재생산건강과 가족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조사 내용의 변화

2021년도 조사 내용 개편에서 고려한 몇 가지 초점이 있다(표 1-1 참조). 우선 이 조사의 중심 내용은 시계열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임신과 출산, 결혼 관련 기본적 사항은 대체로 유지하되, 피임이나 출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을 추가하였고, 과도하게 민감한 정보 일부는 제외하여 이번 개편에서 고려한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편에서 고려한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청년기부터 가족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가족제도 안팎에서 동시에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청년기 생애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성장기와 주거 이동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동거와 결혼 관련 내용에서 기존에는 결혼 이력을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2021년 조사부터는 19-49세 응답자의 현재 결혼 및 동거 관련 파트너십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률적 혼인상태뿐만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인 경우와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상태까지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문항을 설계하였다.

또한 가치관과 인식에 관련되는 문항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 인식을 나타내는 질문도 일부는 유지하였다. 전통적 가치나 규범을 나타내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전문가 자문의견도 있었지만, 현재의 가치와 인식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비교의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직업이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다소 한계는 있지만 가급적 첫 직장부터 현재 직장까지 주요 직업

력을 조사하였다. 직업력에서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 이벤트 전후의 직업 상황은 최대한 정확히 조사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력을 조사한 이유는 자료의 패널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조사대상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해당 이벤트 발생 전후의 취업 상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출산 이벤트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패널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산전, 산후 관리와 자녀 양육 영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3. 가구와 가구원의 기준

2021년 조사 개편과정에서 가구와 가족 및 가구원의 정의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이 조사는 가구원 및 가족사항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원에 한해서 개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과 가족 및 개인조사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존 조사에서는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가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되면서 가구와 가족 및 가구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했다. 우선 가구원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비동거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였고, 비동거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가구원과 비동거 배우자, 그리고 비동거 미혼자녀는 ‘가구원 및 가족 사항’으로 기본적인 성, 연령, 교육, 경제활동 상태, 국적 등 기본항목만 조사하고, 19-49세 개인과 그의 배우자는 개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자녀는 개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자녀 모두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배우자가 가구의 경제적 주체로 역할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구원에 포함하였고, 미혼자녀는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비동거 성인 미혼자녀는 경제적으로 원가구에 의존되어 있더라도 이 조사에서는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독립가구로 분류하였다. 2021년 조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 중 하나는 청년세대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거 공간적으로는 원가구와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원가구에 의존하고 있는 성인 자녀를 독립가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가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가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독립가구로 분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시킨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경제상태보다 공간적 주거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경제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런 경우 독립가구로 분류하였다. 대신 원가구와의 경제적(현금 및 현물) 자원의 교환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독립가구로 분류하되, 부모에게 받는 지원금을 가구 소득의 사적이전소득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세대 간 자원의 이전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주거에서 독립한 미혼 청년세대를 독립가구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들을 독립 가구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부모와 같이 살게 될 가능성보다는 본인의 가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삶의 측면에서 일상생활은 이미 독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적

의존 상태는 한국의 초기 성인 독립가구의 한 특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독립가구로 분류하면 정책적 쟁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들을 원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가구주가 부양해야 할 가구원으로 판단한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전제를 인정하게 된다. 이들을 독립가구로 분류하고 정책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재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독립가구로 분류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래 가족과 가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어떤 특성으로 전개되는 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하는 경로가 분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주거 독립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들이 점차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으로 얼마나 빨리 이행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집단과 함께 전체 청년세대의 인구행동 관련 맥락을 향후 20-30년 동안 이 조사를 통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조사 대상의 변화

2021년도 조사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사 대상의 변화이다. 기존 조사는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남성이 일부 포함되거나, 미혼자가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기혼 부인이 제일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이 조사의 정체성이었던 ‘출산력’ 또는 ‘출산 행동’ 측정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 사회 특성상 비혼 출산율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미혼자를 제외해 왔기 때문이다.

2021년 조사부터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

다. 표본설계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미혼자와 기혼자가 모두 한 표본에 통합되었다. 표본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많다. 우선 미혼자를 포함함으로써 출산율 측정에서 기존 조사의 미혼자 배제로 발생하는 한계가 사라진다. 또한 미혼에서 혼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사가 패널 조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행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연령 코호트에 따른 추세 변화는 관찰 가능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혼이나 출산 행동은 두 사람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그동안 출산력조사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남성의 입장이나 선택을 알 수 없었다. 이번 조사부터 남성을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인구학적 이벤트 발생 및 행위 선택 과정에서 남녀 모두의 변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대상 연령 또한 조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가임기를 15~49세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혼 미성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하한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15~18세 출산율이 극히 미미한 점을 고려하였고, 조사 거부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상한 연령은 49세를 유지하였다. 상한 연령은 44세로 제한해도 출산 행동의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양육 환경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 성장기를 포함하는 49세까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2021년도 조사의 연령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연령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조사대상을 19-49세로 할 경우, 배우자 정보가 누락되는 일부 연령층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 연하 남성 연상 혼인 관행을 고려하면 45세 이상 여성의 배우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45세

이상 여성의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등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구학적 행동 결정 요인 분석에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혼자의 배우자 상한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배우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하였다. 다만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19-49세 연령층으로 한정하고, 개인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3〉 2021년 조사의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대상 연령	15-49세	19-49세
조사대상 성별/혼인상태	기혼 여성	미혼/기혼 남녀
기혼/미혼 표본 특성	기혼/미혼 표본 분리	통합 표본
완료 표본규모	기혼 11,207명(미혼 2,400명)	가구: 9,999가구 개인: 14,538명

자료: 저자 작성.

조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한정된 조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을 다양화할수록 기혼 여성의 표본 수는 감소하게 된다. 기혼여성 표본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인구학적 이벤트, 특히 임신 및 출산의 발생 사례수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사전에 임신 및 출산 발생 사례수를 추정해본 결과, 기혼 여성 표본이 5,000~6,000명일 경우 임신과 출산 사례수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분석 가능한 사례수도 확보하였다.

2021년 조사 전반의 개편을 위해서 많은 문헌과 참고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관련 조사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살펴보았다. 참고한 해외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조사명칭

부터 표본설계, 조사 내용과 세부 문항에 대하여 인구학, 사회학, 가족학, 여성학 등의 많은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하여 개편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표 1-4〉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설계를 위해 검토한 해외 조사 사례

국가	6
미국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국제	World Fertility Survey Fertility & Family Survey Gender & Generation Survey
영국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Survey on the Impact of Fertility Problems Pilot national fertility patient survey
독일	Familienleitbilder – Concepts of Family in Germany Population Policy Acceptance Study
네덜란드	Netherlands Kinship Panel Study
호주	Jean Hailer's Women's Health Survey
일본	Annual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rvey Annual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rveys

자료: 저자 작성.

5.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검토사항

2021년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우선 결혼의 개념 또는 의미가 현실에서 다변화되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결혼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며, 결혼 시점은 응답자 본인들이 결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로 측정하였다. 사실혼 관계는 전통적 유산으로 예외적 상황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일반화된 상황이며, 사실혼의 특성 또한 다양해졌다. 과거 처첩제도의 잔재로 유지되던 사실혼 관계가 이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활용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점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혼인관계 파악(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디까지 미혼이고 어디서부터 기혼자로 판단할 것인지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 '배우자'로 설정했던 지위도 불명확해졌다. 이 조사에서는 법률혼 상태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판단하였고, 그 이외의 상대방은 애인 또는 파트너로 분류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한 쌍이 있을 경우 그들의 관계가 실질적인 혼인 관계인지 조사했을 때 둘의 응답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다. 조사에서 이들을 기혼으로 분류할 것인가 미혼으로 분류할 것인가? 한 명은 미혼으로 한 명은 기혼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이들은 서로의 배우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 피임의 상대방을 어떻게 전제해야 할 것인가도 쟁점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성관계하는 배우자는 한 명이고, 미혼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피임 방법과 결정과정 등의 문제에서 복잡성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사례가 발견될지 의문이 들었던 사례로 트랜스젠더가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판단이 쟁점이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이 응답하는 성별로 판단하였다. 만약 이런 경우가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면 표본 대표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표본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 의견을 따랐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제1절 표본 설계

제2절 가중치

제 2 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제1절 표본 설계

1. 표본설계 개요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는 기존 조사와 다르게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조사 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내용은 변화된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가족구성 과정,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한다. 특히 가족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배우자 관계(동거 형태)를 파악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사대상은 미혼과 기혼,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고, 조사대상 연령 기준은 19~49세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틀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다.

층화 기준은 17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층화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이다. 1단계는 조사구 추출로 층별 내재적 층화 변수(조사구 유형, 19~49세 여성인구수, 가구원수)를 정렬한 다음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단계는 가구 추출로 조사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통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 표본 규모는 표본 조사구 700개, 10,000가구로 조사구별 14~15가구를 조사 완료 목표로 하였다. 목표 조사 성공률을 83%로 고려하여 20% 과대 추출하여 최종 표본 규모는 12,000가구이다.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 조사구 분포는 <표 2-1>과 같다.

<표 2-1> 2021년 조사 표본 조사구 결과

(단위: 개)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700	578	122				
서울	73	73	-	강원	44	30	14
부산	55	52	3	충북	46	30	16
대구	42	37	5	충남	32	18	14
인천	50	49	1	전북	33	27	6
광주	25	25	-	전남	20	11	9
대전	32	32	-	경북	39	24	15
울산	24	20	4	경남	36	25	11
세종	13	10	3	제주	20	15	5
경기	116	100	16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2021년 표본 규모 결정을 위한 2018년 조사 결과 분석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표본설계에서는 적정 표본 규모 산정 작업 전에, 우선하여 2018년 조사의 주요 항목(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 등)에 대한 CV(상대표준오차)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후 분석하였다.

2018년 조사 지역 구분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층화집락효과를 고려한 CV값을 산출해 보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주요 항목 CV값

(단위: 가구, %)

항목	전체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주요 항목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11,205	1.02	4,516	1.78	4,236	1.55	2,453	1.47
	월평균 가구지출(만 원)	11,205	0.88	4,516	1.53	4,236	1.38	2,453	1.27
	출생아수(명)	11,207	0.61	4,517	0.96	4,237	1.02	2,453	1.30
	이상자녀수(명)	10,647	0.36	4,239	0.56	4,070	0.58	2,338	0.77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3〉부터 〈표 2-6〉은 각 지역 구분별 항목(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출생아수, 이상자녀수)의 표준오차와 95% 신뢰수준에 대한 것이다.

〈표 2-3〉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 원)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5.32	513.06	533.95
대도시	9.97	540.51	579.64
중소도시	8.10	505.42	537.21
농어촌	6.78	446.65	473.26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0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2-4〉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월평균 가구지출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 원)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3.53	393.81	407.67
대도시	6.47	409.67	435.09
중소도시	5.55	390.77	412.55
농어촌	4.58	350.32	368.29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5〉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출생아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명)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11	1.723	1.765
대도시	0.016	1.612	1.674
중소도시	0.018	1.727	1.798
농어촌	0.025	1.848	1.945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6〉 2018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 이상자녀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명)

지역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08	2.141	2.172
대도시	0.012	2.105	2.151
중소도시	0.012	2.112	2.161
농어촌	0.017	2.209	2.277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적정 조사구 규모 산정을 위해 2018년 조사의 17개 시·도별 조사구수와 가구소득의 CV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울산, 대전의 가구소득 CV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 서울의 CV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7〉 2018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값

(단위: 개, 가구, %)

지역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지역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전국	700	11,205	1.02	전국	700	11,205	1.02
서울	97	1555	2.99	강원	26	415	3.83
부산	46	736	3.05	충북	34	545	3.52
대구	35	560	5.45	충남	57	912	3.10
인천	40	639	4.32	전북	43	688	3.33
광주	29	464	5.08	전남	22	352	3.37
대전	18	289	8.79	경북	36	577	3.93
울산	17	273	9.60	경남	62	993	3.14
세종	8	128	6.13	제주	10	160	5.42
경기	120	1919	2.47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21년 조사에서 표본 가구를 10,000가구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18년 분석 결과와 표본 규모를 다르게 한 경우의 CV값을 비교해 보았다. 2018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완료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2018년, 2021년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8		2021	
	표본	CV	표본	목표 CV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11,205	1.02	12,000	0.99
			10,000	1.08
			7,000	1.29
월평균 가구지출(만 원)	11,205	0.88	12,000	0.85
			10,000	0.93
			7,000	1.11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n_1 CV_1^2 = n_2 CV_2^2$$

n_1 : 2018년 조사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CV_1^2 : 2018년 조사 결과 상대표준오차

n_2 : 2021년 조사 산출된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CV_2^2 : 2021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규모에 따른 목표 CV값을 보면, 10,000가구 이상(완료 기준)이면 2%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및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 적정 표본 규모(완료 기준)는 10,000가구로 결정하였다.

2021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7개 시·도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2018년 조사와 2021년 조사 가구소득 CV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8년 조사			2021년 조사			지역	2018년 조사			2021년 조사		
	조사 구	가구	CV(가구 소득)	조사 구	가구	CV(가구 소득)		조사 구	가구	CV(가구 소득)	조사 구	5가 구	CV(가구 소득)
전국	700	11,205	1.02	700	10,500	1.05							
서울	97	1555	2.99	73	1,095	3.56	강원	26	415	3.83	44	660	3.04
부산	46	736	3.05	55	825	2.88	충북	34	545	3.52	46	690	3.13
대구	35	560	5.45	42	630	5.14	충남	57	912	3.10	32	480	4.27
인천	40	639	4.32	50	750	3.99	전북	43	688	3.33	33	495	3.93
광주	29	464	5.08	25	375	5.65	전남	22	352	3.37	20	300	3.65
대전	18	289	8.79	32	480	6.82	경북	36	577	3.93	39	585	3.90
울산	17	273	9.60	24	360	8.36	경남	62	993	3.14	36	540	4.26
세종	8	128	6.13	13	195	4.97	제주	10	160	5.42	20	300	3.96
경기	120	1919	2.47	116	1,740	2.59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표본설계 세부 내용

가. 모집단

목표모집단은 조사대상 전체 집합적 개념으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모집단은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조사모집단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보통(1)’에 해당하는 조사구의 가구를 표본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모집단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등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이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자료이므로 2021년의 상황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모집단에서는 조사의 현실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가 있다.

지역별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가구수 모집단 분포는 17개 시·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서울은 전체의 1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4.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지역별 가구수 분포(2019년 인구총조사 기준)

지역	계		동부		읍·면부	
	가구	%	가구	%	가구	%
전국	20,248,191	100.00	16,397,534	80.98	3,850,657	19.02
서울	3,885,015	19.19	3,885,015	19.19	-	-
부산	1,373,410	6.78	1,311,786	6.48	61,624	0.30
대구	966,541	4.77	871,259	4.30	95,282	0.47
인천	1,111,180	5.49	1,081,419	5.34	29,761	0.15
광주	586,208	2.90	586,208	2.90	-	-
대전	607,889	3.00	607,889	3.00	-	-
울산	435,806	2.15	351,578	1.74	84,228	0.42
세종	129,367	0.64	86,465	0.43	42,902	0.21
경기	4,891,213	24.16	4,072,764	20.11	818,449	4.04
강원	631,983	3.12	378,486	1.87	253,497	1.25
충북	652,801	3.22	373,525	1.84	279,276	1.38
충남	860,417	4.25	394,471	1.95	465,946	2.30
전북	735,758	3.63	512,907	2.53	222,851	1.10
전남	716,218	3.54	309,529	1.53	406,689	2.01
경북	1,099,325	5.43	565,636	2.79	533,689	2.64
경남	1,314,152	6.49	827,728	4.09	486,424	2.40
제주	250,908	1.24	180,869	0.89	70,039	0.35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 분석.

나. 모집단 총화 기준

본 조사에서는 가구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 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사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19~49세 여성의 규모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배분하고자 한다. 2019년 인구총조사 결과 지역별 19~49세 여성 인구수 분포는 동부의 경우 경기(26.98%)와 서울(23.8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2-11〉 참조). 읍·면부의 경우 경기가 25.72%로 가장 높고 경남(12.51%)이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11〉 2019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19~49세 여성인구

지역	동부		읍·면부		지역	동부		읍·면부	
	명	%	명	%		명	%	명	%
전국	9,241,147	100.00	1,499,872	100.00					
서울	2,288,176	23.84	-	-	강원	177,506	1.99	83,171	5.75
부산	640,306	7.04	33,348	2.13	충북	196,290	2.19	105,987	7.17
대구	446,100	4.93	54,351	3.52	충남	228,505	2.51	172,600	11.54
인천	629,258	6.86	8,575	0.71	전북	263,136	2.89	63,027	4.31
광주	325,724	3.54	-	-	전남	152,761	1.72	130,247	9.04
대전	324,197	3.60	-	-	경북	279,695	3.12	170,734	11.65
울산	189,119	2.15	42,416	2.75	경남	435,794	4.88	190,113	12.51
세종	62,220	0.66	17,402	1.21	제주	102,297	1.10	30,426	2.00
경기	2,500,063	26.98	397,475	25.72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다. 시도별 표본 규모

2018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지역별 CV 목표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2-9〉 참조). 2019년 인구총조사 추출틀에서 19~49세 여성인구수를 기준으로 1차 층화는 17개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배분 및 설계효과비를 고려하고, 2차 층화인 동부/읍·면부로 나눌 때 비례배분하여 산출한 표본 규모를 산출하였다. 참고로 설계효과는 출생아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라. 층별 표본 배정

2021년 조사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제곱근비례배분 및 설계효과를 고려하여 1차 층화한 다음, 동부/읍·면부로 나누어 비례배분으로 2차 층화하고, 최종 확정된 표본 규모를 조사구별로 15가구 배정하였다(〈표 2-12〉 참조). 추출 단위와 조사 단위로는 1차 추출단위는 표본 조사구이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최종 조사 단위는 가구 내 거주하는 19~49세 가구원 전원이다.

〈표 2-12〉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 배정 결과

(단위: 가구)

지역	표본 가구수			지역	표본 가구수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전국	10,500	8,670	1,830				
서울	1,095	1,095		강원	660	450	210
부산	825	780	45	충북	690	450	240
대구	630	555	75	충남	480	270	210
인천	750	735	15	전북	495	405	90
광주	375	375		전남	300	165	135
대전	480	480		경북	585	360	225
울산	360	300	60	경남	540	375	165
세종	195	150	45	제주	300	225	75
경기	1,740	1,500	240				

자료: 저자 작성.

층별 할당 결과는 목표 표본 규모로 작성하였으며, 표본 조사 구당 14~15가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으로 표본 가구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대한 최종 표본 조사구 배정 결과는 조사구 내 목표 가구수는 15가구, 전체 표본 조사구수는 700개(동 578개, 읍·면부 122개)이다.

마. 표본 조사구 추출

표본 조사구 선정을 위하여 2019년 인구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조사구 유형, 19~49세 여성인구수, 가구원수를 층별 내재적 층화 변수로 선정하였다.

층별 조사구 유형, 19~49세 여성인구수, 가구원수 순으로 정렬한 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바. 표본 가구 선정

본 조사를 위해 추출된 700개의 표본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 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가구를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한다. 조사구 당 15가구를 조사 완료 목표로 하였다. 가구 명부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으므로, 가구 명부 순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 가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 대체

2019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표본 가구 선정은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 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 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제2절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가중치는 가중표본 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한다.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가중치 부여는 조사구 추출이 1단계,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이다.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한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m_{hi}}$$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 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 크기로 나누어 조정한다. 최초 표본 단위를 대체 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제3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제1절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제 3 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제1절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1. 응답 표본 특성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표본 특성이 많이 달라졌다. 제1장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 조사가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 조사는 혼인상태와 성별 구분 없이 19-49세 성인을 대상으로 그의 배우자까지 표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19-49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 남녀의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배우자로서 조사하였다. 49세 남성과 50세 이상의 여성이 부부일 경우, 반대로 49세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이 부부일 경우도 두 사람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최종 조사 완료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14,538명으로, 남자 7,498명이고 여자는 7,040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미혼 1인 응답자는 6,038명, 미혼 동거 응답자는 11명이었다.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전체 응답자도 14,538명이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할 때 통계프로그램 또는 명령어(syntax)에 따라서 사례수 및 분석 값은 차이가 날 수 있다.

4) 미혼 동거 응답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10명으로, 5가구에서 각 2명이 응답하였으나, 가중치를 적용하면 빈도가 11명으로 제시된다.

〈표 3-1〉 전체 개인 응답자의 표본 특성(50세 이상 포함)

(단위: %, 명)

구 분	미혼 1인 응답	단순 동거 2인 응답	이혼별거 사별 1인 응답	법률혼 1인 응답	법률혼 2인 응답	사실혼 1인 응답	사실혼 2인 응답	합계	사례수
전체	48.6	0.1	1.9	0.4	47.0	0.0	2.0	100.0	7498
남자	34.0	0.1	4.4	25.6	33.4	0.9	1.5	100.0	7040
여자	41.5	0.1	3.1	12.6	40.4	0.5	1.8	100.0	14,538
(사례수)	(6,038)	(11)	(453)	(1,827)	(5,881)	(69)	(259)		
배우자 등 있음		0.2		0.7	94.9	0.1	4.1	100.0	3,714
남자		0.1		41.6	54.4	1.5	2.5	100.0	4,332
여자		0.1		22.7	73.1	0.9	3.2	100.0	8,047
(사례수)		(11)		(1,827)	(5,881)	(69)	(259)		
배우자 등 없음	96.3		3.7					100.0	3,783
남자	88.5		11.5					100.0	2,708
여자	93.0		7.0					100.0	6,491
(사례수)	(6,038)		(45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등'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애인과 파트너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번 조사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배우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었다. 가구 단위로 볼 때, 배우자 등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4,016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배우자가 조사에 응답한 비율은 57.1%였다.

〈표 3-2〉 전체 응답 가구의 표본 특성

(단위: %, 가구)

구 분	미혼 1인 응답	단순 동거 2인 응답	이혼별거 사별 1인 응답	법률혼 1인 응답	법률혼 2인 응답	사실혼 1인 응답	사실혼 2인 응답	합계
전체	51.2	0.1	8.6	16.1	21.1	1.1	1.7	100.0 9,999
배우자 등 있음		0.2		40.1	52.6	2.8	4.3	100.0 4,016
배우자 등 없음	85.6		14.4					100.0 5,98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등'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애인과 파트너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응답자의 일반 특성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19-49세 응답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이 조사의 핵심 조사대상 연령을 인구학적 가임연령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응답자의 정보는 향후 추가분석에서 배우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조사에 응답한 19~49세의 응답자는 총 1만 4,149명이며, 동부와 읍면부에 각각 83.0%, 17.0%로 분포하였다. 응답자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동부 거주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근소하게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초반의 동부 거주 비율이 제일 높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과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가 각각 기혼과 취업한 응답자보다 동부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부 거주 비율이 높고, 전체 응답자 중 종교가 없는 비율이 70.9%⁵⁾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82.4%가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교에서 동부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중에서 천주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적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83.2%가 동부에 거주하였고, 귀화하거나 외국 국적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지만 동부 거주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귀화한 경우는 읍면부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5) $10,027/14,149 \times 100 = 70.9\%$

〈표 3-3〉 응답자(19~49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전체	83.0	17.0	14,149	100.0
성별($\chi^2=5.0^*$)				
남자	82.3	17.7	7,117	100.0
여자	83.7	16.3	7,032	100.0
연령($\chi^2=15.3^{**}$)				
19-24세	83.6	16.4	2,430	100.0
25-29세	83.5	16.5	2,318	100.0
30-34세	85.1	14.9	2,077	100.0
35-39세	82.7	17.3	2,358	100.0
40-44세	82.1	17.9	2,578	100.0
45-49세	81.1	18.9	2,387	100.0
교육($\chi^2=134.1^{***}$)				
고졸이하	77.6	22.4	3,914	100.0
대졸	84.6	15.4	9,561	100.0
대학원졸	91.5	8.5	673	100.0
혼인상태($\chi^2=8.7^{**}$)				
미혼	84.0	16.0	6,049	100.0
기혼	82.2	17.8	8,099	100.0
취업여부($\chi^2=11.7^{**}$)				
취업	82.2	17.8	9,704	100.0
비취업	84.6	15.4	4,445	100.0
가구소득($\chi^2=66.0^{***}$)				
60% 미만	82.9	17.1	2,902	100.0
60-80% 미만	80.1	19.9	2,087	100.0
80-100% 미만	81.3	18.7	2,348	100.0
100-120% 미만	81.7	18.3	2,147	100.0
120-140% 미만	82.2	17.8	1,379	100.0
140-160% 미만	85.1	14.9	1,083	100.0
160% 이상	88.2	11.8	2,202	100.0
종교($\chi^2=35.6^{***}$)				
없음	82.4	17.6	10,027	100.0
개신교	85.9	14.1	2,338	100.0
불교	79.2	20.8	1,076	100.0
천주교	87.0	13.0	672	100.0
기타	80.1	19.9	36	100.0
국적($\chi^2=32.5^{***}$)				
대한민국(출생 시)	83.2	16.8	13,967	100.0
대한민국	63.5	36.5	104	100.0
외국	74.4	25.6	78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이 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총 9,999가구로 동부에 82.4%, 읍면부에 17.6%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거주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대부분의 세부 특성에서 동부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구 대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는 동부 평균의 비율보다 낮고, 여자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중반 미만의 동부거주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높고, 45세 이상의 동부 거주 비율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고, 기혼보다 미혼,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는 가구 대표 응답자의 동부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구 대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4〉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일반특성

(단위: %, 가구)

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전체	82.4 (8,241)	17.6 (1,758)	9,999	100.0
성별($\chi^2=8.8^{**}$)				
남자	80.6	19.4	2,806	100.0
여자	83.1	16.9	7,193	100.0
연령($\chi^2=66.5^{***}$)				
19-24세	86.4	13.6	1,253	100.0
25-29세	83.7	16.3	1,844	100.0
30-34세	85.2	14.8	1,735	100.0
35-39세	81.0	19.0	1,612	100.0
40-44세	82.6	17.4	1,743	100.0
45-49세	76.8	23.2	1,797	100.0
50세 이상	75.0	25.0	16	100.0
교육($\chi^2=96.3^{***}$)				
고졸이하	77.4	22.6	3,094	100.0
대졸	84.1	15.9	6,440	100.0
대학원졸	92.1	7.9	465	100.0
혼인상태($\chi^2=12.0^{**}$)				
미혼	83.7	16.3	5,130	100.0
기혼	81.1	18.9	4,869	100.0
취업여부($\chi^2=23.8^{***}$)				
취업	81.1	18.9	6,651	100.0
비취업	85.0	15.0	3,348	100.0
가구소득($\chi^2=28.0^{***}$)				
60% 미만	83.3	16.7	3,851	100.0
60-80% 미만	79.8	20.2	1,558	100.0
80-100% 미만	80.3	19.7	1,425	100.0
100-120% 미만	81.5	18.5	1,119	100.0
120-140% 미만	82.4	17.6	670	100.0
140-160% 미만	83.8	16.2	477	100.0
160% 이상	86.9	13.1	900	100.0
종교($\chi^2=28.0^{***}$)				
없음	82.3	17.7	7,210	100.0
개신교	85.0	15.0	1,545	100.0
불교	76.5	23.5	760	100.0
천주교	84.8	15.2	454	100.0
기타	81.4	18.6	30	100.0
국적($\chi^2=8.8^*$)				
대한민국(출생 시)	82.5	17.5	9,871	100.0
대한민국	72.7	27.3	87	100.0
외국	72.3	27.7	4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1. 가구소득

응답가구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33.4%, 300~400만원 미만 16.7%, 400~500만원 미만 13.3%, 500~600만원 미만 12.7%, 600~800만원 13.2%, 800만원 이상 10.7%로 분포하였다.

가구 대표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는 앞서 일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이들의 특성이 전체 특성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부의 800만원 이상 비율이 읍면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동부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가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구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낮은 연령대일수록 낮은 소득 구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높은 연령대에서는 높은 소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낮은 교육수준에서 소득이 낮고, 높은 교육수준에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에서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 기혼에서 소득이 높은 구간의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한 경우가 비취업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소득

(단위: %, 가구)

구분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합계
전체	33.4	16.7	13.3	12.7	13.2	10.7	9,999 100.0
지역($\chi^2=31.1^{***}$)							
동부	33.9	16.0	13.0	12.6	13.1	11.3	8,241 100.0
읍면부	31.1	19.6	14.9	12.8	13.4	8.2	1,758 100.0
성별($\chi^2=323.5^{***}$)							
남자	41.8	21.9	12.1	9.7	7.8	6.7	2,806 100.0
여자	30.1	14.6	13.8	13.8	15.2	12.3	7,193 100.0
연령($\chi^2=698.1^{***}$)							
19~24세	58.7	12.8	9.0	7.1	5.7	6.7	1,253 100.0
25~29세	42.2	14.5	11.2	12.1	10.5	9.6	1,844 100.0
30~34세	28.3	22.3	13.7	13.4	12.9	9.4	1,735 100.0
35~39세	22.8	18.6	15.5	15.8	15.8	11.5	1,612 100.0
40~44세	24.7	16.8	14.1	15.9	15.4	13.1	1,743 100.0
45~49세	29.7	14.4	15.5	10.6	16.8	13.1	1,797 100.0
50세 이상	23.1	10.6	19.2	6.8	24.9	15.4	16 100.0
교육($\chi^2=359.0^{***}$)							
고졸이하	39.9	19.3	14.4	11.0	10.0	5.5	3,094 100.0
대졸	31.4	15.5	12.8	13.7	14.4	12.1	6,440 100.0
대학원졸	17.5	15.7	13.4	9.3	17.4	26.7	465 100.0
혼인상태($\chi^2=1437.9^{***}$)							
미혼	48.6	18.6	11.3	8.0	7.3	6.3	5,130 100.0
기혼	17.4	14.6	15.5	17.6	19.4	15.5	4,869 100.0
취업여부($\chi^2=169.8^{***}$)							
취업	29.9	16.6	13.3	13.0	14.9	12.4	6,651 100.0
비취업	40.4	16.9	13.5	12.0	9.7	7.5	3,34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가구지출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300만원 미만 49.2%, 300~400만원 미만 19.1%, 400~500만원 미만 14.6%, 500만원 이상 17.1%로 분포하였다. 지역별 가구지출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부에서는 높은 금액의 가구지출 비율이 높고, 읍면부에서는 낮은 금액의 가구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지출 수준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고, 높은 금액 구간에서는 높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지출 금액이 크고, 낮을수록 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 기혼,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의 가구지출 금액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금액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지출

(단위: %, 가구)

구분	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합계	
	미만	미만	미만			
전체	49.2	19.1	14.6	17.1	9,999	100.0
지역($\chi^2=23.3^{***}$)						
동부	48.7	19.0	14.4	17.9	8,241	100.0
읍면부	51.8	19.4	15.6	13.2	1,758	100.0
성별($\chi^2=447.0^{***}$)						
남자	65.4	16.1	9.5	9.0	2,806	100.0
여자	42.9	20.3	16.6	20.2	7,193	100.0
연령($\chi^2=642.3^{***}$)						
19-24세	68.6	12.0	7.9	11.5	1,253	100.0
25-29세	60.9	17.1	11.2	10.8	1,844	100.0
30-34세	53.4	22.0	12.6	12.0	1,735	100.0
35-39세	39.8	24.0	17.9	18.2	1,612	100.0
40-44세	38.1	20.9	17.7	23.3	1,743	100.0
45-49세	39.0	17.2	18.7	25.1	1,797	100.0
50세 이상	32.7	16.2	18.8	32.3	16	100.0
교육($\chi^2=160.2^{***}$)						
고졸이하	54.8	20.5	13.1	11.6	3,094	100.0
대졸	47.3	18.6	15.3	18.8	6,440	100.0
대학원졸	37.8	17.2	15.0	30.1	465	100.0
혼인상태($\chi^2=1847.6^{***}$)						
미혼	69.8	14.1	7.7	8.5	5,130	100.0
기혼	27.5	24.4	21.9	26.2	4,869	100.0
취업여부($\chi^2=26.0^{***}$)						
취업	49.5	17.8	14.8	17.9	6,651	100.0
비취업	48.7	21.6	14.3	15.4	3,348	100.0
가구소득($\chi^2=10543.2^{***}$)						
60% 미만	95.3	4.0	0.5	0.1	3,851	100.0
60-80% 미만	49.0	45.8	5.0	0.3	1,558	100.0
80-100% 미만	23.2	38.6	33.8	4.4	1,425	100.0
100-120% 미만	9.2	25.6	39.9	25.3	1,119	100.0
120-140% 미만	5.3	16.5	33.3	45.0	670	100.0
140-160% 미만	2.1	11.2	23.6	63.2	477	100.0
160% 이상	1.2	4.5	10.9	83.4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가구자산

응답가구의 가구자산은 1억 미만이 35.5%, 1~2억 미만이 16.1%, 2~3억 미만이 12.9%, 3~5억 미만이 14.6%, 5~9억 미만이 11.2%, 9억 이상이 9.7%로 분포하였다.

〈표 3-7〉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자산

(단위: %, 가구)

구분	1억 미만	1~2억 미만	2~3억 미만	3~5억 미만	5~9억 미만	9억 이상	합계	
전체	35.5	16.1	12.9	14.6	11.2	9.7	9,999	100.0
지역($\chi^2=128.1^{***}$)								
동부	35.9	14.9	12.6	14.2	11.5	10.9	8,241	100.0
읍면부	34.0	21.6	14.1	16.6	9.8	3.9	1,758	100.0
성별($\chi^2=284.1^{***}$)								
남자	45.5	19.1	10.9	9.5	8.9	6.0	2,806	100.0
여자	31.6	14.9	13.6	16.6	12.1	11.1	7,193	100.0
연령($\chi^2=891.9^{***}$)								
19-24세	62.7	10.3	6.9	9.2	6.4	4.5	1,253	100.0
25-29세	47.8	16.1	11.7	10.1	7.3	7.1	1,844	100.0
30-34세	32.3	20.1	15.4	14.6	9.8	7.8	1,735	100.0
35-39세	23.3	18.3	15.6	18.5	13.0	11.3	1,612	100.0
40-44세	26.0	15.9	12.5	18.8	14.4	12.3	1,743	100.0
45-49세	27.5	14.5	13.8	15.4	15.0	13.7	1,797	100.0
50세 이상	24.8	15.3	0.0	33.8	9.1	17.0	16	100.0
교육($\chi^2=513.9^{***}$)								
고졸이하	46.8	18.3	11.6	11.7	7.8	3.8	3,094	100.0
대졸	31.3	15.4	13.6	15.8	12.4	11.5	6,440	100.0
대학원졸	19.3	11.7	11.1	17.5	16.1	24.3	465	100.0
혼인상태($\chi^2=980.3^{***}$)								
미혼	48.8	16.6	10.6	10.8	7.4	5.7	5,130	100.0
기혼	21.5	15.6	15.2	18.6	15.2	13.9	4,869	100.0
취업여부($\chi^2=27.9^{***}$)								
취업	35.7	17.0	13.3	14.4	10.7	8.9	6,651	100.0
비취업	35.1	14.4	12.1	15.1	12.0	11.2	3,348	100.0
가구소득($\chi^2=5188.8^{***}$)								
60% 미만	66.6	16.1	7.9	5.4	2.8	1.3	3,851	100.0
60-80% 미만	34.7	23.1	16.8	15.1	7.3	3.0	1,558	100.0
80-100% 미만	19.3	20.8	17.8	21.4	14.1	6.6	1,425	100.0
100-120% 미만	9.7	18.2	19.6	23.0	17.8	11.6	1,119	100.0
120-140% 미만	5.4	10.7	16.6	28.8	20.2	18.2	670	100.0
140-160% 미만	3.8	7.4	14.2	24.2	26.6	23.8	477	100.0
160% 이상	1.2	3.0	7.5	16.5	26.0	45.9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가구부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는 없는 경우가 48.3%, 5천만원 미만이 16.3%, 5천~1억원 미만은 11.8%, 1억 이상은 23.6%의 분포를 보였다.

〈표 3-8〉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

(단위: %, 가구)

구분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전체	48.3	16.3	11.8	23.6	9,999 100.0
지역($\chi^2=19.5^{***}$)					
동부	47.6	16.0	11.8	24.6	8,241 100.0
읍면부	51.3	17.4	12.0	19.2	1,758 100.0
성별($\chi^2=247.0^{***}$)					
남자	59.3	16.3	10.7	13.7	2,806 100.0
여자	44.0	16.3	12.3	27.5	7,193 100.0
연령($\chi^2=578.5^{***}$)					
19-24세	73.7	11.7	5.0	9.7	1,253 100.0
25-29세	54.1	17.0	11.5	17.3	1,844 100.0
30-34세	45.0	13.6	13.5	27.9	1,735 100.0
35-39세	37.8	14.9	14.2	33.2	1,612 100.0
40-44세	41.1	19.0	12.7	27.1	1,743 100.0
45-49세	44.3	19.7	12.5	23.5	1,797 100.0
50세 이상	32.7	28.0	1.1	38.2	16 100.0
교육($\chi^2=180.2^{***}$)					
고졸이하	50.0	20.8	11.7	17.5	3,094 100.0
대졸	48.3	14.4	11.9	25.4	6,440 100.0
대학원졸	36.9	11.9	12.0	39.2	465 100.0
혼인상태($\chi^2=1010.7^{***}$)					
미혼	62.8	14.8	9.2	13.2	5,130 100.0
기혼	33.0	17.8	14.6	34.6	4,869 100.0
취업여부($\chi^2=16.2^{**}$)					
취업	46.9	16.9	12.5	23.8	6,651 100.0
비취업	51.1	15.1	10.6	23.3	3,348 100.0
가구소득($\chi^2=1223.6^{***}$)					
60% 미만	63.4	18.6	8.8	9.1	3,851 100.0
60-80% 미만	45.7	18.6	14.9	20.8	1,558 100.0
80-100% 미만	39.7	16.9	14.4	28.9	1,425 100.0
100-120% 미만	36.9	14.8	13.2	35.1	1,119 100.0
120-140% 미만	35.9	12.6	15.0	36.6	670 100.0
140-160% 미만	31.1	11.9	13.7	43.3	477 100.0
160% 이상	34.2	7.8	10.1	47.9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읍면부보다 동부,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의 부채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가구 부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30대 후반의 가구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 및 취업한 경우 가구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1. 주택 유형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27.7%, 아파트 45.6%, 연립주택 2.7%, 다세대 주택 16.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공장 등) 0.8%, 오피스텔 6.4%, 기타 0.0%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특성에서는 혼인상태와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에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동부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령대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경향, 즉 U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는 타 연령대에 비하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미혼 및 취업한 경우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와 기혼 및 비취업인 경우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9〉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

(단위: %, 가구)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합계	
전체	27.7	45.6	2.7	16.6	0.8	6.4	0.0	9,999	100.0
지역									
동부	24.4	47.6	2.5	17.2	0.5	7.7	0.0	8,241	100.0
읍면부	43.3	36.6	3.6	13.9	2.3	0.3	0.0	1,758	100.0
성별									
남자	37.7	35.0	2.5	16.2	0.9	7.6	0.1	2,806	100.0
여자	23.9	49.8	2.8	16.8	0.8	5.9	0.0	7,193	100.0
연령									
19-24세	41.7	33.7	1.9	13.8	0.8	8.0	0.1	1,253	100.0
25-29세	32.6	36.2	2.2	17.3	1.1	10.7	0.0	1,844	100.0
30-34세	26.2	44.2	2.9	17.6	0.7	8.4	0.0	1,735	100.0
35-39세	21.6	52.0	3.1	16.4	0.3	6.6	0.1	1,612	100.0
40-44세	20.8	55.8	3.2	15.9	1.2	3.1	0.0	1,743	100.0
45-49세	26.6	49.8	3.0	17.9	0.8	2.0	0.0	1,797	100.0
50세 이상	46.4	28.3	2.7	22.6	0.0	0.0	0.0	16	100.0
교육									
고졸이하	31.8	39.0	3.8	20.8	1.2	3.4	0.0	3,094	100.0
대졸	26.7	47.8	2.4	15.0	0.7	7.5	0.0	6,440	100.0
대학원졸	15.8	60.2	1.1	11.2	0.2	11.6	0.0	465	100.0
혼인상태($\chi^2=737.6^{***}$)									
미혼	35.6	34.2	2.3	17.1	0.9	9.8	0.0	5,130	100.0
기혼	19.5	57.7	3.2	16.1	0.8	2.8	0.0	4,869	100.0
취업여부($\chi^2=127.3^{***}$)									
취업	29.8	41.8	2.9	17.3	1.0	7.2	0.0	6,651	100.0
비취업	23.6	53.3	2.4	15.2	0.6	4.8	0.0	3,348	100.0
가구소득									
60% 미만	40.8	29.9	2.9	15.9	0.9	9.6	0.0	3,851	100.0
60-80% 미만	26.2	44.0	2.8	19.9	1.0	6.1	0.0	1,558	100.0
80-100% 미만	22.7	50.6	2.8	18.5	0.6	4.8	0.0	1,425	100.0
100-120% 미만	17.6	57.6	3.6	17.2	0.8	3.2	0.1	1,119	100.0
120-140% 미만	13.2	63.0	2.3	16.9	1.1	3.4	0.0	670	100.0
140-160% 미만	11.3	65.3	2.1	17.8	0.5	2.9	0.2	477	100.0
160% 이상	14.7	69.6	1.6	9.9	0.8	3.5	0.0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주택 점유 형태 및 임대 주택 여부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42.1%, 월세 없는 전세 21.5%, 보증금 있는 월세 29.5%, 보증금 없는 월세 1.0%, 사글세 0.4%, 무상 5.5%로 분포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자가와 무상은 읍면부에서 높고,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는 동부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자가의 경우, 낮은 연령대에서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 높은 V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세는 이와 반대로 역 V자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금 있는 월세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가는 대졸 및 대학원졸의 비율이 높고, 전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의 경우 자가와 전세의 비율이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미혼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에서 자가 비율이 높고, 전세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고,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낮았으나, 특히 보증금 있는 월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비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임대주택 여부를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동부, 고졸 이하, 기혼, 비취업, 낮은 가구소득의 경우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관계는 도출되지 않았다.

〈표 3-10〉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가구)

구분	자가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부모님댁 등)	합계
전체	42.1	21.5	29.5	1.0	0.4	5.5	9,999 100.0
지역($\chi^2=282.8^{***}$)							
동부	39.3	22.9	31.8	1.0	0.3	4.6	8,241 100.0
읍면부	54.9	14.8	18.8	1.2	0.7	9.6	1,758 100.0
성별($\chi^2=201.7^{***}$)							
남자	35.3	17.5	37.6	1.5	0.7	7.4	2,806 100.0
여자	44.7	23.0	26.4	0.8	0.3	4.8	7,193 100.0
연령							
19-24세	27.8	12.8	50.0	1.7	1.1	6.6	1,253 100.0
25-29세	29.2	27.8	32.8	1.3	0.4	8.5	1,844 100.0
30-34세	35.6	29.8	28.1	1.2	0.0	5.4	1,735 100.0
35-39세	46.5	25.3	22.6	0.8	0.3	4.5	1,612 100.0
40-44세	52.7	15.6	26.9	0.7	0.4	3.6	1,743 100.0
45-49세	57.1	15.6	22.0	0.5	0.3	4.6	1,797 100.0
50세 이상	61.4	7.4	26.5	2.9	0.0	1.8	16 100.0
교육($\chi^2=219.8^{***}$)							
고졸이하	39.1	15.9	37.7	1.7	0.4	5.3	3,094 100.0
대졸	43.7	23.5	26.2	0.7	0.4	5.5	6,440 100.0
대학원졸	40.0	31.2	21.6	0.1	0.3	6.7	465 100.0
혼인상태($\chi^2=577.4^{***}$)							
미혼	32.9	20.0	38.9	1.4	0.5	6.4	5,130 100.0
기혼	51.8	23.1	19.7	0.5	0.2	4.6	4,869 100.0
취업여부($\chi^2=46.6^{***}$)							
취업	40.0	22.9	29.8	1.0	0.3	5.9	6,651 100.0
비취업	46.2	18.7	28.9	1.0	0.5	4.7	3,348 100.0
가구소득($\chi^2=2028.0^{***}$)							
60% 미만	21.3	19.0	48.9	1.9	0.8	8.1	3,851 100.0
60-80% 미만	36.4	27.7	28.2	1.1	0.3	6.2	1,558 100.0
80-100% 미만	52.6	22.2	21.1	0.2	0.2	3.7	1,425 100.0
100-120% 미만	60.0	23.1	12.4	0.1	0.0	4.4	1,119 100.0
120-140% 미만	64.0	22.8	9.8	0.2	0.0	3.1	670 100.0
140-160% 미만	68.4	18.4	11.3	0.0	0.0	1.8	477 100.0
160% 이상	71.5	19.0	8.0	0.3	0.0	1.2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1〉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임대주택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1.3	88.7	5,791 100.0
지역($\chi^2=29.0^{***}$)			
동부	12.2	87.8	4,999 100.0
읍면부	5.7	94.3	792 100.0
성별($\chi^2=.0$)			
남자	11.3	88.7	1,816 100.0
여자	11.3	88.7	3,975 100.0
연령			
19-24세	7.0	93.0	905 100.0
25-29세	6.9	93.1	1,306 100.0
30-34세	9.6	90.4	1,117 100.0
35-39세	10.3	89.7	862 100.0
40-44세	20.6	79.4	824 100.0
45-49세	17.4	82.6	771 100.0
50세 이상	13.5	86.5	6 100.0
교육($\chi^2=138.3^{***}$)			
고졸이하	18.3	81.7	1,886 100.0
대졸	7.7	92.3	3,626 100.0
대학원졸	10.9	89.1	279 100.0
혼인상태($\chi^2=56.1^{***}$)			
미혼	8.7	91.3	3,445 100.0
기혼	15.1	84.9	2,346 100.0
취업여부($\chi^2=69.9^{***}$)			
취업	9.0	91.0	3,990 100.0
비취업	16.5	83.5	1,801 100.0
가구소득($\chi^2=36.7^{***}$)			
60% 미만	12.9	87.1	3,029 100.0
60-80% 미만	11.6	88.4	990 100.0
80-100% 미만	11.2	88.8	676 100.0
100-120% 미만	8.7	91.3	448 100.0
120-140% 미만	5.7	94.3	241 100.0
140-160% 미만	9.9	90.1	151 100.0
160% 이상	2.8	97.2	25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주택시가 및 보증금

가. 주택시가

앞서 주택 점유 형태를 자가로 응답한 이들의 주택시가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인 11.3%, 1~2억원 미만인 25.1%, 2~3억원 미만인 18.8%, 3~5억 미만이 18.2%, 5억 이상이 26.6%로 분포하였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읍면부보다 동부에서의 주택시가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경우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의 주택시가가 높았다. 연령대의 경우, 일관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이르는 연령대의 경우는 대체로 주택시가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20대 초반은 주택시가가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50대 이상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 비취업의 경우 주택시가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아도 주택시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임대보증금

응답가구가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 거주할 경우의 임대보증금 금액을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이 29.5%, 1천만~5천만원 미만이 25.2%, 5천만~1억원이 13.9%, 1억~2억원 미만이 17.3%, 2억원 이상이 14.0%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부보다 동부,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 미혼보다 기혼의 임대보증금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보증금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와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

으나,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보증부 월세 보증금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시가: 자가의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합계	
전체	11.3	25.1	18.8	18.2	26.6	4,208	100.0
지역($\chi^2=677.4^{***}$)							
동부	5.6	22.6	19.1	19.6	33.0	3,242	100.0
읍면부	30.5	33.3	17.8	13.3	5.2	966	100.0
성별($\chi^2=112.7^{***}$)							
남자	18.4	30.1	18.6	12.7	20.2	990	100.0
여자	9.1	23.5	18.9	19.9	28.6	3,219	100.0
연령($\chi^2=67.4^{***}$)							
19~24세	16.0	27.5	14.1	20.4	22.0	348	100.0
25~29세	7.9	30.3	19.0	15.5	27.3	538	100.0
30~34세	8.6	25.0	22.1	17.4	26.8	618	100.0
35~39세	11.5	21.5	20.5	17.9	28.7	750	100.0
40~44세	9.5	24.1	18.9	20.5	27.0	919	100.0
45~49세	14.4	25.2	16.9	17.4	26.1	1,025	100.0
50세 이상	11.1	6.1	46.8	26.7	9.3	10	100.0
교육($\chi^2=307.9^{***}$)							
고졸이하	20.8	30.8	18.6	15.5	14.3	1,209	100.0
대졸	7.7	23.6	19.0	19.4	30.3	2,813	100.0
대학원졸	4.0	9.8	17.4	17.0	51.8	186	100.0
혼인상태($\chi^2=109.6^{***}$)							
미혼	13.7	31.9	17.7	15.2	21.6	1,685	100.0
기혼	9.6	20.5	19.6	20.2	30.0	2,523	100.0
취업여부($\chi^2=31.3^{***}$)							
취업	12.4	26.5	18.9	18.0	24.2	2,662	100.0
비취업	9.3	22.7	18.7	18.5	30.9	1,546	100.0
가구소득($\chi^2=812.4^{***}$)							
60% 미만	25.8	34.9	18.9	10.1	10.3	822	100.0
60-80% 미만	14.4	33.8	22.6	17.0	12.1	568	100.0
80-100% 미만	11.7	27.3	19.4	21.7	19.8	749	100.0
100-120% 미만	5.9	22.0	22.2	21.5	28.4	671	100.0
120-140% 미만	4.7	23.8	19.8	20.7	31.0	428	100.0
140-160% 미만	3.9	15.4	17.6	21.0	42.0	327	100.0
160% 이상	3.0	11.2	11.2	18.7	55.8	643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임대보증금

(단위: %, 가구)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합계
전체	29.5	25.2	13.9	17.3	14.0	5,101 100.0
지역($\chi^2=67.5^{***}$)						
동부	29.3	24.1	13.8	17.6	15.3	4,511 100.0
읍면부	31.1	34.2	15.3	14.9	4.5	590 100.0
성별($\chi^2=210.0^{***}$)						
남자	37.5	28.5	15.1	14.2	4.7	1,546 100.0
여자	26.0	23.8	13.4	18.7	18.1	3,555 100.0
연령($\chi^2=469.4^{***}$)						
19-24세	54.7	24.0	8.6	6.6	6.1	787 100.0
25-29세	28.0	26.6	18.2	17.5	9.8	1,118 100.0
30-34세	23.3	23.4	13.9	24.3	15.1	1,003 100.0
35-39세	18.4	21.4	14.4	23.2	22.6	772 100.0
40-44세	27.3	27.4	12.3	15.1	18.0	741 100.0
45-49세	27.1	29.0	14.5	14.8	14.6	674 100.0
50세 이상	0.0	56.7	0.0	43.3	0.0	5 100.0
교육						
고졸이하	37.8	29.4	13.5	13.4	5.8	1,659 100.0
대졸	26.4	23.7	14.2	18.8	17.0	3,196 100.0
대학원졸	13.2	17.0	13.7	24.8	31.4	246 100.0
혼인상태($\chi^2=510.0^{***}$)						
미혼	36.8	28.7	14.3	13.5	6.8	3,017 100.0
기혼	18.9	20.2	13.4	22.9	24.5	2,084 100.0
취업여부($\chi^2=47.5^{***}$)						
취업	28.0	25.5	16.0	17.4	13.2	3,508 100.0
비취업	32.7	24.7	9.5	17.2	15.9	1,593 100.0
가구소득($\chi^2=1436.3^{***}$)						
60% 미만	44.6	27.7	13.4	10.2	4.1	2,613 100.0
60-80% 미만	19.0	27.7	18.1	22.2	13.0	870 100.0
80-100% 미만	17.0	24.0	17.5	24.9	16.6	617 100.0
100-120% 미만	6.9	22.6	12.9	31.4	26.2	396 100.0
120-140% 미만	8.8	14.4	8.1	27.6	41.1	219 100.0
140-160% 미만	8.3	16.8	10.4	21.1	43.3	142 100.0
160% 이상	3.5	12.8	5.0	22.5	56.2	243 100.0
현 주택 점유 형태						
전세	0.3	9.4	23.3	34.9	32.2	2,149 100.0
보증부 월세	50.7	36.8	7.1	4.5	0.8	2,95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월세 및 사글세

응답자가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할 경우의 금액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20.0%, 20만~40만원 미만이 41.6%, 40만원 이상이 38.4%이다.

〈표 3-14〉 대표응답자 특성별 월세 또는 사글세 금액

(단위: %, 가구)

구분	20만원 미만	20만~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합계	
전체	20.0	41.6	38.4	3,091	100.0
지역($\chi^2=15.8^{***}$)					
동부	20.1	40.4	39.5	2,726	100.0
읍면부	19.2	50.7	30.1	364	100.0
성별($\chi^2=2.5$)					
남자	19.6	43.4	37.0	1,116	100.0
여자	20.2	40.5	39.2	1,974	100.0
연령($\chi^2=130.3^{***}$)					
19-24세	10.3	50.8	39.0	662	100.0
25-29세	14.6	42.4	43.0	636	100.0
30-34세	21.2	39.4	39.4	508	100.0
35-39세	20.6	35.1	44.3	381	100.0
40-44세	29.0	36.6	34.4	490	100.0
45-49세	31.0	40.6	28.4	409	100.0
50세 이상	44.5	0.0	55.5	5	100.0
교육($\chi^2=64.4^{***}$)					
고졸이하	25.6	43.2	31.2	1,231	100.0
대졸	16.2	41.0	42.9	1,758	100.0
대학원졸	18.5	32.3	49.2	102	100.0
혼인상태($\chi^2=59.0^{***}$)					
미혼	16.2	44.2	39.5	2,095	100.0
기혼	27.9	36.0	36.0	995	100.0
취업여부($\chi^2=45.2^{***}$)					
취업	16.8	42.2	41.1	2,074	100.0
비취업	26.6	40.4	33.0	1,016	100.0
가구소득($\chi^2=157.4^{***}$)					
60% 미만	20.6	47.4	32.0	1,986	100.0
60-80% 미만	20.5	36.2	43.3	462	100.0
80-100% 미만	23.1	25.5	51.3	306	100.0
100-120% 미만	14.4	38.2	47.4	140	100.0
120-140% 미만	17.4	25.6	57.0	67	100.0
140-160% 미만	15.6	31.0	53.4	54	100.0
160% 이상	5.2	13.9	80.8	7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지역별로는 읍면부보다 동부,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 미혼보다 기혼, 비취업보다 취업한 경우의 월세 및 사글세 금액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월세 및 사글세 금액이 높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명확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대출 및 타 주택 소유 여부

가. 대출 여부

응답가구의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34.8%의 가구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읍면부보다 동부,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 미혼보다 기혼, 비취업보다 취업한 경우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30대의 대출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출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60% 이상의 구간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 점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및 전세에서 대출비율이 50% 전후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도 8.7%로 나타났으나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에서의 대출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대출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다	합계
전체	34.8	64.0	1.2	9,999 100.0
지역($\chi^2=37.3^{***}$)				
동부	36.1	62.7	1.2	8,241 100.0
읍면부	28.5	70.2	1.2	1,758 100.0
성별($\chi^2=321.5^{***}$)				
남자	21.7	76.1	2.3	2,806 100.0
여자	39.9	59.3	0.8	7,193 100.0
연령				
19-24세	14.9	81.2	4.0	1,253 100.0
25-29세	30.1	67.6	2.3	1,844 100.0
30-34세	40.8	58.6	0.6	1,735 100.0
35-39세	46.3	53.5	0.2	1,612 100.0
40-44세	38.4	61.3	0.4	1,743 100.0
45-49세	33.8	65.8	0.4	1,797 100.0
50세 이상	43.3	56.7	0.0	16 100.0
교육($\chi^2=46.1^{***}$)				
고졸이하	30.6	68.5	0.9	3,094 100.0
대졸	36.4	62.2	1.4	6,440 100.0
대학원졸	39.8	59.9	0.2	465 100.0
혼인상태($\chi^2=767.8^{***}$)				
미혼	22.3	75.6	2.1	5,130 100.0
기혼	48.0	51.8	0.2	4,869 100.0
취업여부($\chi^2=25.5^{***}$)				
취업	35.5	63.6	0.8	6,651 100.0
비취업	33.3	64.7	1.9	3,348 100.0
가구소득($\chi^2=532.4^{***}$)				
60% 미만	21.7	76.9	1.4	3,851 100.0
60-80% 미만	37.4	61.9	0.7	1,558 100.0
80-100% 미만	42.7	56.3	1.0	1,425 100.0
100-120% 미만	45.8	53.1	1.1	1,119 100.0
120-140% 미만	46.3	53.0	0.7	670 100.0
140-160% 미만	52.9	45.0	2.2	477 100.0
160% 이상	42.0	56.7	1.3	900 100.0
현 주택 점유형태				
자가	47.8	50.4	1.7	4,208 100.0
전세(월세 없음)	56.3	43.6	0.1	2,149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8.7	90.9	0.4	2,952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0.0	100.0	0.0	100 100.0
사글세	0.0	100.0	0.0	38 100.0
무상(관사, 사택, 부모님 댁 등)	0.0	94.3	5.7	55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타 주택 소유 여부

응답한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보다 여자가 대표응답자인 가구, 미혼보다 기혼의 경우 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경우와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6〉 대표응답자 특성별 타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0.6	89.4	9,999 100.0
지역($\chi^2=.5$)			
동부	10.4	89.6	8,241 100.0
읍면부	11.1	88.9	1,758 100.0
성별($\chi^2=14.2^{***}$)			
남자	8.7	91.3	2,806 100.0
여자	11.3	88.7	7,193 100.0
연령($\chi^2=110.5^{***}$)			
19-24세	5.5	94.5	1,253 100.0
25-29세	7.2	92.8	1,844 100.0
30-34세	9.3	90.7	1,735 100.0
35-39세	13.5	86.5	1,612 100.0
40-44세	12.1	87.9	1,743 100.0
45-49세	14.6	85.4	1,797 100.0
50세 이상	18.7	81.3	16 100.0
교육($\chi^2=111.9^{***}$)			
고졸이하	6.5	93.5	3,094 100.0
대졸	11.8	88.2	6,440 100.0
대학원졸	20.6	79.4	465 100.0
혼인상태($\chi^2=124.4^{***}$)			
미혼	7.2	92.8	5,130 100.0
기혼	14.1	85.9	4,869 100.0
취업여부($\chi^2=2.8$)			
취업	10.9	89.1	6,651 100.0
비취업	9.8	90.2	3,348 100.0
가구소득($\chi^2=565.3^{***}$)			
60% 미만	3.2	96.8	3,851 100.0
60-80% 미만	9.1	90.9	1,558 100.0
80-100% 미만	12.6	87.4	1,425 100.0
100-120% 미만	14.9	85.1	1,119 100.0
120-140% 미만	17.6	82.4	670 100.0
140-160% 미만	18.1	81.9	477 100.0
160% 이상	26.7	73.3	9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장

동거와 결혼

- 제1절 법률혼 배우자 관계
- 제2절 사실혼과 동거 관계
- 제3절 무배우자의 미래 결혼
- 제4절 이혼과 헤어짐
- 제5절 소결

제4장 동거와 결혼

이 장에서는 동거와 결혼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한다. 보통 사회조사에서 혼인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고, 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애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혼인상태가 미혼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혼인상태의 기혼에 사실혼을 포함하였지만, 혼인관계의 복잡성을 현실에 기반하여 더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함께 사는 배우자, 애인 또는 파트너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함께 사는 배우자, 애인 또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에게 혼인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관계가 실질적 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법률혼, 사실혼, 단순 동거 관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이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혼인지 또는 이혼, 별거, 사별 상태인지 추가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각 질문을 조합하면 기혼자 중에서도 함께 사는 배우자, 애인 또는 파트너가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미혼자 중에서도 함께 사는 애인 또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서는 19-49세 연령 집단으로 한정하여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이나 파트너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 관계가 있는 집단(7,322명)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제2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거나 애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336명)로 사실혼과 동거 관계에 대해 다룬다. 제3절은 현재 미혼이거나 혼인 경험이 있지만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현재 배우자나 같이 사는 애인 및 파트너가 없는 경우(6,491명)에 해당하는 집단을 다룬다. 마지막 제4절은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이혼과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서의 헤어짐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대상자(503명)의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기존 조사나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동거 및 결혼에 대한 관련 현상을 먼저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실천의 변화로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혼인율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감소하였는데, 1990년 9.3%이었던 조혼인율(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이 2000년에는 7.0%, 2020년에 4.2%로 1990년과 비교해 현재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통계청, 각연도).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 45.9%에서 2020년에는 59.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이렇게 결혼의 대전제와 당위성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률혼이 다수인 상황에서 결혼 상태는 크게 미혼, 기혼으로 나누고 기혼은 다시 유배우, 이혼, 사별, 별거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생활에서 결혼 방식은 다양화되었지만 행정통계나 조사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관련 조사 결과나 연구가 사람들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법적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다양한 혼인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의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인상태를 세분화해 동거 상태를 추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용의

추가 및 변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다수 있다.

최근 결혼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경향은 지속되는 동시에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변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사회조사의 혼인상태 선택항목을 미혼, 배우자 있음, 동거, 사별, 이혼, 별거로 구분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동거에 응답한 비율은 0.3%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또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의 만 25-39세 미혼 44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12.8%가 과거 동거 경험이 있거나 현재 동거 중이라고 응답했다(진미정, 성미애, 2021). 이 두 조사를 보면, 후자의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라는 조사방식을 택하고 있어 전자인 사회조사와의 대상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동거 비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동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두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의 높은 동거 선택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한국의 동거 현상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거 인구에 집중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동거 경험자 253명의 동거 선택의 이유를 구분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동거를 결혼 과정 중 일부, 결혼의 대안,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혼 과정의 하나로 하는 동거는 향후 결혼 의향과 임신 및 출산 의향이 있는 반면, 결혼 대안으로 동거를 하거나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에서는 그러한 의향이 약한 것을 발견하였다(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또한 최근에는 가족실태 조사의 부가조사로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동거 비혼동거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21).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법·제도의 불이익이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여성과 고연령층의 정책관련 욕구와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책적 반영을 강조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앞으로 이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동거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조사나 대규모 조사에서는 전체 중 동거 인구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동거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비혼동거 실태조사와 같이 동거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거 인구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으로는 다른 혼인상태 집단과 비교가 불가하다. 현대화된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결혼의 특징에서 동거 현상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 조사나 대규모 조사에서 동거 관련 문항을 지속적으로 다룸으로써 동거 비율 파악과 결혼 상태 사이의 특성 비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함께 사는 애인이나 파트너가 있으면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법률혼 상태(혼인신고 한 경우)와 사실혼 및 동거(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구분한다. 법률혼 관계에 대해서는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및 결혼 시점, 배우자에 대한 기대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실혼 및 동거는 법적 혼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결혼과 동일한 생활을 하는 수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결혼 생활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준의 관계도 있다. 즉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모두 동거로 본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수준의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거 관계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혼인신고의 필요성이나 결혼 계획 및 동거 경험 등을 파악한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미혼과 미혼·별거·사별인 경우를 대상으로 현재 교제 상태와 향후 결혼의향, 결혼 전 동거 의향, 그리고 상대에 대한 기대 이외에 결혼의향이 없으면 생애미혼 생활에

대한 예상 등을 파악한다. 추가적으로 이혼·별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 이유와 그 이후에 함께 생활한 사람 및 자녀 양육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과거 결혼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결혼 시기, 해당 결혼의 혼인신고 여부, 결혼 종료 시기 및 형태 등을 파악한다.

기존에 혼인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에서 크게 혼인하지 않은 집단과 혼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법률혼, 동거, 미혼, 이혼 및 별거 등 각각의 상태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 혼인상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동거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큰 구분을 하기 위해 현재 배우자나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9-49세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비율은 54.1%, 없는 비율은 45.9%로 나타났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 비취업 집단보다는 취업집단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과 40대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낮은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4-1〉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 유무

(단위: %, 명)

구 분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 있음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 없음	합계	
전체	54.1	45.9	14,149	100.0
지역($\chi^2=9.8^{**}$)				
동부	57.0	43.0	11,738	100.0
읍면부	53.5	46.5	2,410	100.0
성별($\chi^2=305.8^{***}$)				
남자	46.8	53.2	7,117	100.0
여자	61.5	38.5	7,032	100.0
연령($\chi^2=5635.0^{***}$)				
19-24세	3.1	96.9	2,430	100.0
25-29세	21.3	78.7	2,318	100.0
30-34세	57.2	42.8	2,077	100.0
35-39세	79.6	20.4	2,358	100.0
40-44세	82.2	17.8	2,578	100.0
45-49세	79.7	20.3	2,387	100.0
교육($\chi^2=139.9^{***}$)				
고졸이하	53.6	46.4	3,914	100.0
대졸	52.8	47.2	9,561	100.0
대학원졸	76.3	23.7	673	100.0
취업여부($\chi^2=217.9^{***}$)				
취업	58.3	41.7	9,704	100.0
비취업	45.0	55.0	4,445	100.0
가구소득($\chi^2=1617.8^{***}$)				
60% 미만	21.4	78.6	2,902	100.0
60-80% 미만	59.4	40.6	2,087	100.0
80-100% 미만	63.9	36.1	2,348	100.0
100-120% 미만	67.6	32.4	2,147	100.0
120-140% 미만	62.9	37.1	1,379	100.0
140-160% 미만	63.4	36.6	1,083	100.0
160% 이상	58.6	41.4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95.6%로 높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는 4.4%로 나타났다.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3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90% 이상이며,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97% 이상으로 배우자나 애인 및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가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으며,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혼인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4-2〉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 혼인신고 여부

(단위: %, 명)

구 분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안 함	합계	
전체	95.6	4.4	7,657	100.0
지역($\chi^2=4.8^*$)				
동부	95.4	4.6	6,283	100.0
읍면부	96.7	3.3	1,374	100.0
성별($\chi^2=2.1$)				
남자	95.2	4.8	3,333	100.0
여자	95.9	4.1	4,324	100.0
연령($\chi^2=658.2^{***}$)				
19-24세	65.8	34.2	74	100.0
25-29세	77.5	22.5	494	100.0
30-34세	92.5	7.5	1,188	100.0
35-39세	97.6	2.4	1,878	100.0
40-44세	98.2	1.8	2,119	100.0
45-49세	98.6	1.4	1,904	100.0
교육($\chi^2=4.0$)				
고졸이하	94.9	5.1	2,099	100.0
대졸	95.8	4.2	5,045	100.0
대학원졸	96.6	3.4	513	100.0
취업여부($\chi^2=8.4^{**}$)				
취업	95.2	4.8	5,658	100.0
비취업	96.8	3.2	1,999	100.0
가구소득($\chi^2=48.6^{***}$)				
60% 미만	90.9	9.1	622	100.0
60-80% 미만	97.3	2.7	1,240	100.0
80-100% 미만	96.0	4.0	1,500	100.0
100-120% 미만	95.3	4.7	1,452	100.0
120-140% 미만	96.3	3.7	867	100.0
140-160% 미만	94.3	5.7	687	100.0
160% 이상	96.5	3.5	1,29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1절 법률혼 배우자 관계

현재 배우자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식 여부, 결혼한 시점에 대한 생각, 결혼 당시 여러 상황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보았다.

1. 결혼식 여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96.0%가 결혼식을 하였고 나머지 4.0%만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동부에 거주할수록 결혼식을 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특성에서는 19-24세 연령 집단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61.9%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하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과 반대의 경향으로,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허례허식 및 혼인과정 간소화 분위기에 따라 결혼식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의 특성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업한 집단이 비취업 집단보다 결혼식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다른 소득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4-3〉 현 배우자와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결혼식 함	결혼식 안 함	합계	
전체	96.0	4.0	7,322	100.0
지역($\chi^2=16.9^{***}$)				
동부	96.4	3.6	5,993	100.0
읍면부	94.0	6.0	1,329	100.0
성별($\chi^2=1.0$)				
남자	96.3	3.7	3,174	100.0
여자	95.8	4.2	4,148	100.0
연령($\chi^2=692.4^{***}$)				
19-24세	38.1	61.9	49	100.0
25-29세	81.1	18.9	383	100.0
30-34세	94.7	5.3	1,098	100.0
35-39세	97.1	2.9	1,832	100.0
40-44세	98.2	1.8	2,082	100.0
45-49세	97.7	2.3	1,877	100.0
교육($\chi^2=169.6^{***}$)				
고졸이하	91.2	8.8	1,992	100.0
대졸	97.6	2.4	4,833	100.0
대학원졸	99.6	0.4	496	100.0
취업여부($\chi^2=37.4^{***}$)				
취업	96.8	3.2	5,387	100.0
비취업	93.6	6.4	1,935	100.0
가구소득($\chi^2=213.7^{***}$)				
60% 미만	86.3	13.7	566	100.0
60-80% 미만	93.1	6.9	1,206	100.0
80-100% 미만	96.1	3.9	1,439	100.0
100-120% 미만	97.1	2.9	1,383	100.0
120-140% 미만	98.6	1.4	835	100.0
140-160% 미만	98.4	1.6	648	100.0
160% 이상	98.7	1.3	1,2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결혼 시점에 대한 생각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결혼식을 한 시점'으로 67.8%로 나타났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4%,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 대한 응답은 10.6%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시점에는 '결혼날짜 잡은 날', '부모님께 인사드린 날', '약혼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결혼의 시작 시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식을 한 시점'과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은 실질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결혼의 시작 시점을 바라보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등과 같이 주변에 알리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시점에 대한 기준을 결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연령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는 결혼 시점을 '결혼식'으로 보는 기준이 확고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결혼 시점으로 보는 경향(30.6%)이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대졸: 18.3%, 대학원졸: 15.2%)보다 강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같이 살기 시작한 때'를 결혼 시점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결혼 시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4〉 현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단위: %, 명)

구 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혼인신고 한 시점	기타	합계	
전체	21.4	67.8	10.6	0.2	7,322	100.0
지역($\chi^2=36.3^{***}$)						
동부	20.4	69.4	10.0	0.2	5,993	100.0
읍면부	25.9	60.8	13.0	0.3	1,329	100.0
성별($\chi^2=16.8^{**}$)						
남자	23.4	66.8	9.6	0.2	3,174	100.0
여자	19.8	68.6	11.3	0.2	4,148	100.0
연령						
19-24세	48.9	24.1	27.0	0.0	49	100.0
25-29세	33.9	42.0	24.0	0.0	383	100.0
30-34세	25.9	61.5	12.5	0.1	1,098	100.0
35-39세	19.9	69.8	10.1	0.2	1,832	100.0
40-44세	19.2	71.5	9.2	0.1	2,082	100.0
45-49세	19.5	71.8	8.3	0.4	1,877	100.0
교육($\chi^2=187.9^{***}$)						
고졸이하	30.6	55.9	13.2	0.3	1,992	100.0
대졸	18.3	71.9	9.6	0.2	4,833	100.0
대학원졸	15.2	75.4	9.4	0.0	496	100.0
취업여부($\chi^2=7.7$)						
취업	21.2	68.4	10.2	0.2	5,387	100.0
비취업	21.9	66.1	11.7	0.4	1,935	100.0
가구소득						
60% 미만	31.1	55.8	13.2	0.0	566	100.0
60-80% 미만	23.3	64.4	11.9	0.4	1,206	100.0
80-100% 미만	21.8	67.3	10.8	0.2	1,439	100.0
100-120% 미만	21.5	67.3	11.0	0.2	1,383	100.0
120-140% 미만	21.5	68.9	9.6	0.0	835	100.0
140-160% 미만	18.6	72.3	8.5	0.6	648	100.0
160% 이상	16.0	74.6	9.2	0.2	1,2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결혼 당시 기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때 ①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②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③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④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는 약 78.0%로 다른 기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5〉 현 배우자와 결혼 당시 기대: 전체

(단위: %, 명)

구 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 하였음	매우 기대하였음	합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2.3	19.7	64.1	13.9	7,322 100.0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0.5	3.7	65.8	30.0	7,322 100.0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1.9	7.4	66.2	24.5	7,322 100.0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0.8	8.2	70.5	20.5	7,32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특성별 분포는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에 대한 응답 비율을 더해 기대한 편에 속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즉, 현 배우자와 결혼 당시 경제, 심리 및 정서, 자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측면에 대해 기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한 집단보다 취업하지 않은 집단이 이에 대한 기대가 결혼 당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서 가졌던 경제적인 기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이에 대한 기대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현 배우자와 결혼 당시 기대(기대하였음+매우 기대하였음):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 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사례수
전체	78.0	95.8	90.7	91.0	7,322
지역					
동부	78.1	95.8	90.5	91.1	5,993
읍면부	77.6	95.9	91.4	90.5	1,329
성별					
남자	73.8	96.6	92.9	95.9	3,174
여자	81.2	95.2	88.9	87.2	4,148
연령					
19-24세	73.7	88.7	91.5	84.1	49
25-29세	75.3	95.3	84.0	91.1	383
30-34세	78.0	95.7	87.8	90.8	1,098
35-39세	78.8	96.6	92.0	92.0	1,832
40-44세	77.6	95.7	91.2	91.3	2,082
45-49세	78.3	95.5	91.9	90.0	1,877
교육					
고졸이하	76.6	93.7	89.4	88.4	1,992
대졸	78.5	96.6	91.6	92.0	4,833
대학원졸	78.8	96.2	87.1	91.3	496
취업여부					
취업	76.9	95.9	90.9	92.3	5,387
비취업	81.2	95.5	89.9	87.4	1,935
가구소득					
60% 미만	69.8	93.5	86.1	89.5	566
60-80% 미만	79.7	96.5	91.7	90.9	1,206
80-100% 미만	75.8	94.3	91.0	89.5	1,439
100-120% 미만	78.5	96.2	89.3	90.3	1,383
120-140% 미만	79.1	96.7	92.6	93.5	835
140-160% 미만	81.1	96.5	90.3	90.5	648
160% 이상	79.8	96.6	91.7	92.7	1,245

주: 1) 표에 제시한 비율은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는 집단마다 기대가 고르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24세 이하인 집단에서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집단인 경우가 이에 대한 기대가 낮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 기대 항목인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기대가 높았다. 또한 연령이 24세 이하인 집단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이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제2절 사실혼과 동거 관계

이 절의 분석 대상은 현재 배우자, 애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이다. 현재 교제 상대인 애인이나 파트너가 있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되는 무배우자 중 교제 상대가 있는 집단에 속한다. 이번 절의 사실혼과 동거 관계에 포함되는 집단은 함께 사는 커플이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및 동거 관계를 의미한다.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사실혼 및 동거 관계의 비율을 파악해 보면, 사실혼 및 동거 가구가 전체 조사 가구 중 2.9%를 차지한다. 이 조사에서 사실혼과 단순동거 가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부부관계라고 생각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4-7〉 응답 가구의 혼인 및 동거 특성 분포

(단위: %, 가구)

혼인분류	동거특성	비율	사례수
미 혼	미혼 1인 가구	51.2	5,122
	이혼별거사별 1인 가구	8.6	861
기 혼	법률혼 가구	37.2	3,725
	사실혼 가구	2.8	283
미 혼	단순동거 가구	0.1	8
전 체		100.0	9,9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실혼 및 동거 생활을 하는 응답자 개인의 성별과 연령 분포를 교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실혼 및 동거 생활은 25~34세 집단에 6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남성은 25~29세, 30~34세 두 집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여성은 25~29세 집단에 34.5%, 30~34세 집단에 22.0%가 분포해 있다. 또한 더 낮은 연령인 19~24세 집단에서 10.2%로 나타나, 여성 사실혼 및 동거 응답자는 남성보다 낮은 연령에 분포해 있다.

〈표 4-8〉 사실혼 및 동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15-49세)

(단위: %, 명)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전체	7.7	33.2	26.7	13.4	11.0	8.0	100.0(337)
남성	5.0	31.9	31.9	13.1	10.6	7.5	100.0(160)
여성	10.2	34.5	22.0	13.6	11.3	8.5	100.0(177)

주: 분석 명령어(syntax)에 따라 소수점 가중치 계산 방법의 차이로 각 표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 결혼식 여부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 또는 파트너가 있고, 상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집단에서 결혼식을 한 비율이 34.9%, 하지 않은 비율이 65.1%로 나타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표 4-9〉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및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결혼식 함	결혼식 안 함	합계	
전체	34.9	65.1	336	100.0
지역($\chi^2=9.2^{**}$)				
동부	38.1	61.9	290	100.0
읍면부	14.5	85.5	45	100.0
성별($\chi^2=0.5$)				
남자	36.8	63.2	159	100.0
여자	33.2	66.8	177	100.0
연령($\chi^2=17.0^{**}$)				
19-24세	2.4	97.6	25	100.0
25-29세	33.8	66.2	111	100.0
30-34세	45.5	54.5	90	100.0
35-39세	36.0	64.0	46	100.0
40-44세	39.8	60.2	37	100.0
45-49세	25.7	74.3	27	100.0
교육($\chi^2=29.2^{***}$)				
고졸이하	15.8	84.2	106	100.0
대졸	45.6	54.4	212	100.0
대학원졸	21.0	79.0	17	100.0
취업여부				
취업	38.8	61.2	271	100.0
비취업	18.3	81.7	65	100.0
가구소득($\chi^2=61.4^{***}$)				
60% 미만	17.3	82.7	57	100.0
60-80% 미만	9.4	90.6	34	100.0
80-100% 미만	19.8	80.2	61	100.0
100-120% 미만	64.1	35.9	69	100.0
120-140% 미만	57.6	42.4	32	100.0
140-160% 미만	21.9	78.1	39	100.0
160% 이상	47.1	52.9	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혼 및 동거 상대와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의 집단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대졸 집단이 고졸이하나 대학원을 마친 집단보다 결혼식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을 소득에 따라서 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고 소득 중간 집단은 낮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나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의 관계

현재 배우자나 함께 사는 애인 및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집단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함께 생활을 하는 상대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재 상대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6.7%, 그렇지 않은 비율은 3.3%로 대부분 부부관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마다 사례수가 작은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35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는 모두 현재 생활하는 상대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이 중간 수준 이상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10〉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의 관계

(단위: %, 명)

구 분	부부(혼인)관계라 생각함	부부(혼인)관계라 생각 안 함	합계	
전체	96.7	3.3	336	100.0
지역				
동부	97.7	2.3	290	100.0
읍면부	90.6	9.4	45	100.0
성별($\chi^2=0.2$)				
남자	96.1	3.9	159	100.0
여자	97.3	2.7	177	100.0
연령				
19-24세	81.1	18.9	25	100.0
25-29세	96.2	3.8	111	100.0
30-34세	97.9	2.1	90	100.0
35-39세	100.0	0.0	46	100.0
40-44세	100.0	0.0	37	100.0
45-49세	100.0	0.0	27	100.0
교육				
고졸이하	97.2	2.8	106	100.0
대졸	96.3	3.7	212	100.0
대학원졸	100.0	0.0	17	100.0
취업여부				
취업	96.9	3.1	271	100.0
비취업	96.2	3.8	65	100.0
가구소득				
60% 미만	95.7	4.3	57	100.0
60-80% 미만	95.6	4.4	34	100.0
80-100% 미만	88.4	11.6	61	100.0
100-120% 미만	100.0	0.0	69	100.0
120-140% 미만	100.0	0.0	32	100.0
140-160% 미만	100.0	0.0	39	100.0
160% 이상	100.0	0.0	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부부(혼인)관계 시작 시점에 대한 생각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부(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부부(혼인)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76.9%, ‘결혼식을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님께 인사한 날’, ‘임신한 날’ 등이 있었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19-24세 집단과 45-49세 집단인 경우, 고졸이하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부부관계의 시작이라고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앞의 질문에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사례수가 작아 각각의 이유를 비율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같이 살지만 혼인과는 관계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혼인)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혼인 신고를 안 해서’, ‘결혼식을 안 해서’라는 이유 등이 있었다.

〈표 4-11〉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의 부부(혼인)관계 시작 시점

(단위: %, 명)

구 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기타	합계	
전체	76.9	22.1	1.0	325	100.0
지역					
동부	75.3	23.9	0.8	284	100.0
읍면부	87.4	9.7	2.8	41	100.0
성별					
남자	78.0	21.5	0.4	153	100.0
여자	75.8	22.6	1.6	172	100.0
연령					
19-24세	98.1	0.0	1.9	21	100.0
25-29세	75.7	22.7	1.6	107	100.0
30-34세	69.8	30.2	0.0	88	100.0
35-39세	80.9	19.1	0.0	46	100.0
40-44세	70.5	27.5	2.0	37	100.0
45-49세	90.2	8.0	1.9	27	100.0
교육					
고졸이하	92.1	6.5	1.4	103	100.0
대졸	68.9	30.1	0.9	204	100.0
대학원졸	79.0	21.0	0.0	17	100.0
취업여부					
취업	73.3	25.5	1.1	262	100.0
비취업	91.7	7.7	0.6	62	100.0
가구소득					
60% 미만	95.7	3.6	0.7	54	100.0
60-80% 미만	88.1	9.8	2.0	33	100.0
80-100% 미만	88.9	11.1	0.0	53	100.0
100-120% 미만	70.5	28.4	1.1	69	100.0
120-140% 미만	46.7	53.3	0.0	32	100.0
140-160% 미만	75.3	21.9	2.7	39	100.0
160% 이상	64.3	34.6	1.1	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동거 시작 당시 기대

앞서 법적 혼인 한 경우 결혼 당시의 기대에 대해 알아본 항목과 동일하게 현재 사실혼 및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의 기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해 기대하였던 편의 응답 비율로 살펴보았다.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해 기대했던 비율이(93.3%) 가장 높았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86.5%)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각각 65.9%와 63.8%로 심리·정서면에 대한 기대나 성적 친밀감에 대한 기대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도 법적 혼인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동거 시작 당시 기대: 전체
(단위: %, 명)

구 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 하였음	매우 기대하였음	합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4.4	29.6	56.3	9.6	336	100.0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1.4	5.3	65.1	28.2	336	100.0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15.0	21.2	55.3	8.5	336	100.0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1.3	13.3	68.6	16.8	33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초반 집단의 경우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령대가 법적 혼인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로 혼인과 유사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될 가능성을 가진 경우가 다수 포함된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3〉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동거 시작 당시 기대(기대하였음+매우 기대하였음):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사례수
전체	65.9	93.3	63.8	85.4	336
지역					
동부	66.2	94.2	63.4	86.2	290
읍면부	64.0	87.5	66.4	79.5	45
성별					
남자	64.9	92.8	71.3	90.0	159
여자	66.8	93.7	57.1	81.2	177
연령					
19-24세	58.2	93.6	59.0	94.9	25
25-29세	59.3	89.2	70.9	82.5	111
30-34세	76.6	99.5	70.8	92.9	90
35-39세	81.2	95.4	68.9	93.5	46
40-44세	70.3	95.9	48.5	80.7	37
45-49세	33.5	82.2	28.0	55.3	27
교육					
고졸이하	56.9	88.9	53.1	76.8	106
대졸	68.8	95.0	67.8	88.7	212
대학원졸	86.2	100.0	81.3	97.2	17
취업여부					
취업	64.4	93.8	65.7	85.0	271
비취업	72.4	91.2	55.7	86.7	65
가구소득					
60% 미만	56.3	89.6	49.8	85.4	57
60-80% 미만	73.2	92.6	62.8	89.1	34
80-100% 미만	57.9	91.0	58.8	79.6	61
100-120% 미만	72.3	96.2	73.1	90.3	69
120-140% 미만	64.3	100.0	82.4	84.2	32
140-160% 미만	66.4	89.7	64.0	82.6	39
160% 이상	74.1	95.5	61.2	85.8	45

주: 1) 표에 제시한 비율은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매우 높은 기대치를 보이는 영역이며, 대학원 졸업 집단과 소득 중상위 일부 집단에서는 동거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를 했다는 비율이 100.0%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의 기대 비율을 보인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녀 출산은 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63.8%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은 이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5-39세 집단이 자녀에 대한 기대도 약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연령 집단, 특히 4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낮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현 배우자나 애인 또는 파트너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연령 집단 중 45세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

현재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보면,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은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고,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다.

〈표 4-14〉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20.7	28.7	4.7	32.2	3.7	5.1	5.0	336	100.0
지역($\chi^2=7.9$)									
동부	20.4	28.0	5.4	31.9	3.1	5.5	5.7	290	100.0
읍면부	23.1	32.9	0.0	33.9	7.3	2.5	0.5	45	100.0
성별($\chi^2=8.7$)									
남자	22.4	25.1	2.8	35.9	2.2	5.7	5.9	159	100.0
여자	19.2	31.9	6.3	28.8	5.0	4.6	4.1	177	100.0
연령									
19-24세	11.8	32.5	3.7	44.5	0.0	1.7	5.9	25	100.0
25-29세	30.0	27.3	0.4	28.5	0.0	7.4	6.4	111	100.0
30-34세	15.6	33.5	0.9	39.0	0.4	3.2	7.4	90	100.0
35-39세	24.1	28.1	7.3	33.8	3.4	0.0	3.3	46	100.0
40-44세	13.5	22.2	11.2	32.6	14.9	5.6	0.0	37	100.0
45-49세	12.1	24.9	22.3	9.2	18.1	13.3	0.0	27	100.0
교육									
고졸이하	21.3	24.4	7.4	32.5	4.1	8.5	1.7	106	100.0
대졸	19.3	29.9	3.7	33.5	3.8	3.8	6.1	212	100.0
대학원졸	34.4	40.2	0.0	14.3	0.0	0.0	11.1	17	100.0
취업여부($\chi^2=15.3^*$)									
취업	23.4	28.4	4.6	32.3	2.3	3.9	4.9	271	100.0
비취업	9.5	29.9	4.7	31.3	9.3	9.9	5.3	65	100.0
가구소득($\chi^2=96.8^{***}$)									
60% 미만	6.1	28.4	2.5	42.4	6.8	7.5	6.4	57	100.0
60-80% 미만	16.2	27.7	9.3	30.0	4.8	6.0	6.0	34	100.0
80-100% 미만	33.6	13.2	3.4	41.7	2.5	2.6	3.0	61	100.0
100-120% 미만	8.5	40.7	6.3	35.8	3.9	4.8	0.0	69	100.0
120-140% 미만	35.3	19.4	5.4	39.8	0.0	0.0	0.0	32	100.0
140-160% 미만	26.2	16.0	4.0	20.4	0.0	15.3	18.1	39	100.0
160% 이상	28.7	50.0	3.1	7.4	6.0	0.0	4.8	45	100.0

주: 1) ①결혼제도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②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③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④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⑤아이,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⑥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⑦기타('결혼식을 먼저 하려고',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어서' 등)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그 외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또는 '아이나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은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35.9%)'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 (31.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혼인신고는 의미 없어서)'라는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경우는 이 이유에 대한 응답이 23.4%로 취업하지 않은 집단의 이에 대한 응답 비율(9.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간인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4%로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혼인신고 필요성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0%, 없다는 응답은 57.0%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거주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할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취업한 경우에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30세부터 44세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40-44세 집단에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전체적인 경향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표 4-15〉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낀 경험

(단위: %, 명)

구 분	혼인신고 필요성 느낀 적 있음	혼인신고 필요성 느낀 적 없음	합계	
전체	43.0	57.0	336	100.0
지역($\chi^2=2.3$)				
동부	41.4	58.6	290	100.0
읍면부	52.8	47.2	45	100.0
성별($\chi^2=2.9$)				
남자	47.8	52.2	159	100.0
여자	38.6	61.4	177	100.0
연령($\chi^2=12.3^*$)				
19-24세	43.4	56.6	25	100.0
25-29세	33.7	66.3	111	100.0
30-34세	49.8	50.2	90	100.0
35-39세	46.7	53.3	46	100.0
40-44세	58.3	41.7	37	100.0
45-49세	30.3	69.7	27	100.0
교육($\chi^2=1.9$)				
고졸이하	48.1	51.9	106	100.0
대졸	40.3	59.7	212	100.0
대학원졸	43.7	56.3	17	100.0
취업여부($\chi^2=2.4$)				
취업	44.9	55.1	271	100.0
비취업	34.7	65.3	65	100.0
가구소득($\chi^2=8.6$)				
60% 미만	37.3	62.7	57	100.0
60-80% 미만	47.6	52.4	34	100.0
80-100% 미만	42.5	57.5	61	100.0
100-120% 미만	54.7	45.3	69	100.0
120-140% 미만	26.9	73.1	32	100.0
140-160% 미만	47.6	52.4	39	100.0
160% 이상	36.8	63.2	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표 4-16〉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전체	11.1	41.9	5.3	39.6	1.5	0.5	144	100.0
지역								
동부	12.5	39.5	5.5	40.6	1.2	0.6	120	100.0
읍면부	4.4	54.0	3.9	34.6	3.1	0.0	24	100.0
성별								
남자	14.6	41.5	2.8	39.4	1.6	0.0	76	100.0
여자	7.3	42.4	8.0	39.9	1.5	1.0	68	100.0
연령								
19-24세	5.5	38.2	5.0	51.4	0.0	0.0	11	100.0
25-29세	16.4	36.8	7.2	39.5	0.0	0.0	37	100.0
30-34세	1.7	48.8	2.7	44.0	2.8	0.0	45	100.0
35-39세	30.1	27.4	1.0	38.0	3.5	0.0	21	100.0
40-44세	10.0	51.7	13.4	25.0	0.0	0.0	22	100.0
45-49세	0.0	44.9	0.0	43.3	3.1	8.7	8	100.0
교육								
고졸이하	10.1	44.6	11.5	29.6	2.9	1.4	51	100.0
대졸	12.8	42.0	2.0	42.3	0.9	0.0	85	100.0
대학원졸	0.0	22.9	0.0	77.1	0.0	0.0	8	100.0
취업여부								
취업	11.3	44.7	3.4	38.3	1.8	0.6	122	100.0
비취업	10.6	27.1	15.4	46.9	0.0	0.0	22	100.0
가구소득								
60% 미만	4.8	54.4	18.3	22.5	0.0	0.0	21	100.0
60-80% 미만	2.6	13.6	5.8	78.0	0.0	0.0	16	100.0
80-100% 미만	15.3	39.6	5.0	39.1	1.0	0.0	26	100.0
100-120% 미만	14.6	45.8	1.0	34.7	2.0	1.9	37	100.0
120-140% 미만	36.3	46.3	4.6	12.8	0.0	0.0	9	100.0
140-160% 미만	6.2	27.6	0.0	66.2	0.0	0.0	19	100.0
160% 이상	5.8	62.4	4.4	20.0	7.4	0.0	17	100.0

주: 1) ① 가족이나 주위에서 권해서 ②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제도적 제약과 정책 혜택(복지와 주거 정책 혜택 등)과 서비스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 ③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이 부담스러워 ④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⑤ 함께 사는 상대가 원해서 ⑥ 기타('심리적으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자녀의 결혼')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을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제도적 제약과 정책 혜택(복지와 주거 정책 혜택 등)과 서비스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41.9%)’라는 응답과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39.6%)’라는 응답이다. 이 두 이유에 대한 응답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의 특성별 차이는 집단별 사례수가 작은 경우가 많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7.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 및 불편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차별이나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차별이나 불편의 내용은 1) 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인 점, 2) 병원 방문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역할 제약 경험, 3)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이나 요금제 결합 등 일상생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에서의 제한, 그리고 4)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지원 혜택 제한에 대한 경험(28.3%)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제한(21.2%)으로 나타나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국가적 지원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했다는 응답과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자격이나 역할에 제약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4-17〉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불편: 전체

(단위: %, 명)

구 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합계	
정부지원 혜택 제한	24.5	47.2	24.7	3.6	336	100.0
보호자 자격 및 역할 제약	30.8	56.7	10.1	2.4	336	100.0
서비스 혜택 제한	31.9	46.9	16.3	4.9	336	100.0
부정적 시선	39.4	46.7	10.4	3.5	33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차별이나 불편을 경험한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정부지원에 대한 혜택에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거나 자주 있었다는 경우를 더한 비율이 28.3%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40대 이상에서 그 이하의 연령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 생활의 기간이 길어서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의 집단에서 높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다음은 병원 방문이나 응급 상황 발생시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역할에 있어서의 제약 경험인데,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의 필요성이 빈번해지는 연령대의 특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과 두 번째로 낮은 집단에서 이에 대한 경험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이나 요금제 결합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서비스 혜택에 있어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34세 연령대에서는 경험 비율이 낮고, 4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났다. 고졸이하인 경우 서비스 혜택 제한을 경험한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8〉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불편(있었음+자주 있었음):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정부지원 혜택 제한	보호자 자격 및 역할 제약	서비스 혜택 제한	부정적 시선	사례수
전체	28.3	12.5	21.2	13.9	336
지역					
동부	28.8	13.0	20.6	13.7	290
읍면부	24.9	9.7	25.3	15.4	45
성별					
남자	27.4	11.6	17.4	12.8	159
여자	29.1	13.4	24.7	14.9	177
연령					
19-24세	25.5	11.1	22.5	23.0	25
25-29세	24.6	4.2	12.9	4.4	111
30-34세	20.7	10.2	19.4	14.3	90
35-39세	30.2	16.0	22.2	15.0	46
40-44세	45.1	27.5	36.1	27.9	37
45-49세	44.9	30.0	38.9	22.2	27
교육					
고졸이하	44.4	15.7	30.7	23.1	106
대졸	20.8	10.5	16.5	10.4	212
대학원졸	21.1	17.8	21.1	0.0	17
취업여부					
취업	27.3	11.8	21.8	11.9	271
비취업	32.4	15.8	18.8	22.2	65
가구소득					
60% 미만	45.8	12.6	26.7	27.9	57
60-80% 미만	16.5	6.2	18.2	5.7	34
80-100% 미만	40.2	18.5	23.8	19.1	61
100-120% 미만	18.8	13.0	17.0	9.0	69
120-140% 미만	14.3	15.2	14.9	3.8	32
140-160% 미만	36.9	13.5	34.7	14.6	39
160% 이상	16.2	5.6	12.9	9.7	45

주: 1) 표에 제시한 비율은 '있었음'과 '자주 있었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24세 미만 집단과 40대 이상 집단에서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집단과 취업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8. 혼인신고 계획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앞으로 혼인신고 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높았고, 30.3%는 ‘아마 할 것’이라고 응답해 향후 혼인신고의 가능성이 있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4세 이하 집단은 ‘모르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혼인신고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반면, 30대 집단에서는 ‘확실히 할 것’이라는 비율이 높아 결혼 전 단계로의 동거 생활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0대 이상의 집단은 혼인신고를 확실하게 할 가능성이 약화되고, 특히 45세 이상의 경우는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여 동거 이유나 단계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19〉 현 배우자 및 애인·파트너와의 혼인신고 계획

(단위: %, 명)

구 분	전혀 할 계획이 없다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할 것이다	확실히 할 것이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2.4	3.0	30.3	60.8	3.5	336	100.0
지역							
동부	1.2	3.0	32.3	60.1	3.4	290	100.0
읍면부	9.8	3.4	17.5	65.3	3.9	45	100.0
성별							
남자	1.5	1.1	24.8	70.7	1.8	159	100.0
여자	3.1	4.8	35.2	51.8	5.1	177	100.0
연령							
19-24세	0.0	0.0	28.4	58.9	12.7	25	100.0
25-29세	4.9	0.0	33.1	58.9	3.1	111	100.0
30-34세	0.0	0.0	22.2	77.4	0.4	90	100.0
35-39세	1.5	2.3	28.7	64.8	2.8	46	100.0
40-44세	2.5	6.6	41.8	44.4	4.7	37	100.0
45-49세	3.5	25.2	34.2	30.7	6.3	27	100.0
교육							
고졸이하	2.5	7.6	28.1	54.1	7.6	106	100.0
대졸	2.5	1.0	32.4	62.3	1.7	212	100.0
대학원졸	0.0	0.0	16.9	83.1	0.0	17	100.0
취업여부							
취업	2.6	1.9	28.5	64.5	2.5	271	100.0
비취업	1.4	7.8	37.9	45.4	7.5	65	100.0
가구소득							
60% 미만	0.4	7.3	37.4	48.1	6.9	57	100.0
60-80% 미만	2.8	2.0	21.2	60.5	13.5	34	100.0
80-100% 미만	8.2	2.6	35.9	51.4	2.0	61	100.0
100-120% 미만	1.1	0.4	11.9	86.6	0.0	69	100.0
120-140% 미만	0.0	0.0	49.9	50.1	0.0	32	100.0
140-160% 미만	0.0	7.6	18.3	70.9	3.3	39	100.0
160% 이상	2.6	1.4	45.0	49.3	1.7	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무배우자의 미래 결혼

1. 혼인상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는 응답자에 대해 현재의 혼인상태를 알아보았다. 미혼이 93.0%로 가장 높고, 이혼은 5.9%, 별거와 사별은 각각 0.4%, 0.7%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인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이혼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 혼인상태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한 경우(91.7%)보다는 미취업의 경우(95.2%)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교제 상대 유무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는 경우에 대해 교제 상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28.5%가 교제 상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읍면부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 이혼 및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보다는 미혼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취업한 경우에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연령 집단 중 25세에서 34세까지의 집단이 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35% 이상으로 높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그 이하의 학력 집단보다 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 두 집단과 상위 두 집단보다 중간 세 집단의 경우 교제 상대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수준이 낮거나 높은 집단보다는 중간 집단이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4-20〉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 없는 경우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전체	93.0	5.9	0.4	0.7	6,491	100.0
지역($\chi^2=0.2$)						
동부	93.1	5.8	0.4	0.7	5,455	100.0
읍면부	92.7	6.2	0.4	0.7	1,036	100.0
성별($\chi^2=160.5^{***}$)						
남자	96.3	3.4	0.1	0.2	3,783	100.0
여자	88.5	9.3	0.8	1.4	2,708	100.0
연령						
19-24세	99.8	0.2	0.1	0.0	2,356	100.0
25-29세	99.2	0.5	0.2	0.0	1,824	100.0
30-34세	97.6	2.0	0.1	0.3	889	100.0
35-39세	89.6	9.2	0.7	0.6	480	100.0
40-44세	72.5	25.2	0.8	1.4	459	100.0
45-49세	51.2	39.4	2.3	7.1	483	100.0
교육						
고졸이하	85.3	12.2	0.7	1.8	1,815	100.0
대졸	96.2	3.3	0.2	0.3	4,516	100.0
대학원졸	89.7	8.9	0.5	1.0	160	100.0
취업여부($\chi^2=29.9^{***}$)						
취업	91.7	7.0	0.4	0.9	4,046	100.0
비취업	95.2	4.1	0.4	0.4	2,445	100.0
가구소득						
60% 미만	88.0	10.1	0.7	1.2	2,280	100.0
60-80% 미만	92.3	6.1	0.6	0.9	847	100.0
80-100% 미만	93.7	5.6	0.3	0.5	848	100.0
100-120% 미만	95.3	3.8	0.1	0.8	695	100.0
120-140% 미만	96.8	2.5	0.3	0.3	512	100.0
140-160% 미만	99.0	1.0	0.0	0.0	397	100.0
160% 이상	99.1	0.9	0.0	0.0	91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21〉 현재 교제 중인 상대 여부

(단위: %, 명)

구 분	교제 상대 있음	교제 상대 없음	합계	
전체	28.5	71.5	6,491	100.0
지역($\chi^2=7.5^{**}$)				
동부	29.2	70.8	5,455	100.0
읍면부	25.0	75.0	1,036	100.0
성별($\chi^2=4.7^*$)				
남자	27.5	72.5	3,783	100.0
여자	30.0	70.0	2,708	100.0
연령($\chi^2=167.8^{***}$)				
19-24세	24.1	75.9	2,356	100.0
25-29세	36.7	63.3	1,824	100.0
30-34세	35.7	64.3	889	100.0
35-39세	28.6	71.4	480	100.0
40-44세	19.4	80.6	459	100.0
45-49세	14.7	85.3	483	100.0
교육($\chi^2=33.8^{***}$)				
고졸이하	24.1	75.9	1,815	100.0
대졸	29.9	70.1	4,516	100.0
대학원졸	41.5	58.5	160	100.0
혼인상태($\chi^2=29.5^{***}$)				
미혼	29.4	70.6	6,038	100.0
이혼·별거·사별	17.4	82.6	453	100.0
취업여부($\chi^2=158.5^{***}$)				
취업	34.0	66.0	4,046	100.0
비취업	19.5	80.5	2,445	100.0
가구소득($\chi^2=17.3^{**}$)				
60% 미만	29.1	70.9	2,280	100.0
60-80% 미만	31.8	68.2	847	100.0
80-100% 미만	23.9	76.1	848	100.0
100-120% 미만	27.3	72.7	695	100.0
120-140% 미만	25.9	74.1	512	100.0
140-160% 미만	30.3	69.7	397	100.0
160% 이상	30.1	69.9	91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생각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또는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50.8%로 과반이었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3.9%로 그다음 순이었다.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다는 응답은 11.9%,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는 응답은 8.3%, 그리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크게 분류해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50.8%, 현재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율은 20.2%, 생각해 본 적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29.0% 정도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 집단이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60.0%로 가장 높고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학력이 낮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감소하며, 미혼인 경우보다 이혼·별거·사별한 경우는 재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게 (14.5%) 나타났으며, 이혼·별거·사별 집단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보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인 경우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4-22〉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결혼(재혼) 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전체	50.8	8.3	11.9	5.1	23.9	6,491	100.0
지역($\chi^2=12.5^*$)							
동부	50.5	8.0	12.3	5.3	23.9	5,455	100.0
읍면부	52.5	9.8	9.2	4.4	24.0	1,036	100.0
성별($\chi^2=151.5^{***}$)							
남자	56.1	8.4	9.1	3.7	22.7	3,783	100.0
여자	43.4	8.0	15.7	7.1	25.7	2,708	100.0
연령($\chi^2=810.1^{***}$)							
19-24세	52.9	4.1	10.1	3.9	29.0	2,356	100.0
25-29세	60.0	5.9	9.7	2.8	21.7	1,824	100.0
30-34세	56.3	7.2	10.2	3.5	22.9	889	100.0
35-39세	45.3	14.9	12.9	4.5	22.3	480	100.0
40-44세	31.7	19.3	18.1	11.0	19.9	459	100.0
45-49세	19.9	22.2	24.9	18.2	14.8	483	100.0
교육($\chi^2=115.5^{***}$)							
고졸이하	42.1	11.3	14.2	7.7	24.7	1,815	100.0
대졸	54.1	7.0	11.0	4.1	23.9	4,516	100.0
대학원졸	58.4	9.4	9.5	4.8	17.9	160	100.0
혼인상태($\chi^2=828.7^{***}$)							
미혼	53.6	7.9	10.8	3.2	24.5	6,038	100.0
이혼·별거·사별	14.5	13.1	25.5	30.4	16.5	453	100.0
취업여부($\chi^2=51.6^{***}$)							
취업	53.3	9.1	11.3	4.9	21.5	4,046	100.0
비취업	46.8	6.9	12.8	5.5	27.9	2,445	100.0
가구소득($\chi^2=114.2^{***}$)							
60% 미만	46.4	10.5	13.4	6.5	23.2	2,280	100.0
60-80% 미만	49.9	9.4	11.8	5.5	23.4	847	100.0
80-100% 미만	48.4	7.3	12.9	5.2	26.2	848	100.0
100-120% 미만	52.8	6.2	11.6	3.7	25.8	695	100.0
120-140% 미만	55.8	7.7	7.8	5.9	22.8	512	100.0
140-160% 미만	61.7	3.1	8.3	4.6	22.2	397	100.0
160% 이상	56.0	6.8	10.9	2.0	24.3	91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 있는 경우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 결혼 전 동거 의향, 결혼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보았다.

가. 결혼(재혼)하고자 하는 연령

결혼(재혼)을 한다면 몇 세에 결혼할 생각인지 알아본 결과, 해당 응답자 중 25.7%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4.3%는 만 연령을 제시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연령을 제시한 응답자의 평균을 확인해보면, 평균 만 33.2세(표준편차 4.63)였으며 최소 연령은 만 22세, 최대 연령은 만 60세로 나타났다.

향후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의 평균은 남성이 만33.8세이고 여성은 만 32.1세로 나타났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재혼)하고자 하는 연령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원 졸업 집단은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이 만 35.9세로 다른 학력 집단과 비교해 높다. 미혼만 따로 보았을 때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은 만 33.0세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23〉 결혼(재혼)하기 원하는 시기(나이)

(단위: 세, 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33.2	4.6	2,450
지역(t=-1.2)			
동부	33.1	4.4	2,040
읍면부	33.5	5.4	410
성별(t=9.1***)			
남자	33.8	4.7	1,591
여자	32.1	4.2	859
연령(F=1371.2***)			
19-24세	30.6	2.6	917
25-29세	32.1	2.2	860
30-34세	34.8	2.0	399
35-39세	39.1	1.9	134
40-44세	44.3	2.3	87
45-49세	50.1	2.4	52
교육(F=16.6***)			
고졸이하	33.5	5.9	560
대졸	33.0	4.1	1818
대학원졸	35.9	4.3	71
혼인상태(t=-14.2***)			
미혼	33.0	4.3	2,415
이혼·별거·사별	46.7	5.6	35
취업여부(t=8.5***)			
취업	33.7	4.9	1,638
비취업	32.2	3.6	812
가구소득(F=19.1***)			
60% 미만	33.4	5.0	818
60-80% 미만	35.2	5.5	308
80-100% 미만	33.5	4.8	310
100-120% 미만	33.1	4.5	263
120-140% 미만	32.4	3.5	206
140-160% 미만	32.6	3.4	174
160% 이상	31.8	3.3	371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결혼(재혼) 전 동거 의향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 중 결혼(재혼) 전에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면, 있는 경우가 48.5%이고 없는 경우가 51.5%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 전 동거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는 52.0%가 동거 의향을 보여 바로 법적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보다 동거를 한 후 결혼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의 집단과 45세 이상 집단에서 동거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이 상승하면서 동거 의향이 감소하다가 35세 이상 집단부터는 다시 동거에 대한 의향이 상승하는 브이(V)자 모양의 경향을 보인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거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고졸 이하의 집단은 동거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없는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대학원 졸업의 집단은 동거 의향이 28.3%로 매우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 학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낮은 하위 두 집단에서는 동거 후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며, 가구소득이 상승할수록 동거 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다시 약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결혼(재혼) 전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 분	동거 후 결혼 할 생각임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임	합계	
전체	48.5	51.5	3,299	100.0
지역($\chi^2=0.0$)				
동부	48.5	51.5	2,755	100.0
읍면부	48.5	51.5	544	100.0
성별($\chi^2=30.0^{***}$)				
남자	52.0	48.0	2,123	100.0
여자	42.1	57.9	1,176	100.0
연령($\chi^2=45.5^{***}$)				
19-24세	54.4	45.6	1,246	100.0
25-29세	47.1	52.9	1,094	100.0
30-34세	37.4	62.6	500	100.0
35-39세	44.2	55.8	218	100.0
40-44세	48.5	51.5	145	100.0
45-49세	53.3	46.7	96	100.0
교육($\chi^2=27.2^{***}$)				
고졸이하	54.3	45.7	764	100.0
대졸	47.4	52.6	2,442	100.0
대학원졸	28.3	71.7	93	100.0
혼인상태($\chi^2=2.7$)				
미혼	48.3	51.7	3,234	100.0
이혼·별거·사별	58.5	41.5	66	100.0
취업여부($\chi^2=1.2$)				
취업	47.8	52.2	2,155	100.0
비취업	49.8	50.2	1,144	100.0
가구소득($\chi^2=57.6^{***}$)				
60% 미만	56.3	43.7	1,059	100.0
60-80% 미만	51.4	48.6	422	100.0
80-100% 미만	47.5	52.5	410	100.0
100-120% 미만	45.8	54.2	367	100.0
120-140% 미만	40.8	59.2	285	100.0
140-160% 미만	36.3	63.7	245	100.0
160% 이상	42.5	57.5	51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기대

앞으로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 그 결혼(재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기대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기대할 것이라는 응답을 더해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해 기대했던 비율이 96.7%로 가장 높았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91.8%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각각 84.9%와 80.4%로 나타났다.

〈표 4-25〉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기대: 전체

(단위: %, 명)

구 분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임	기대하지 않을 것임	기대 할 것임	매우 기대할 것임	합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0.9	14.2	70.0	14.9	3,299 100.0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0.3	2.9	65.1	31.6	3,299 100.0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4.6	15.0	63.5	16.9	3,299 100.0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0.9	7.4	74.5	17.3	3,29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향후 결혼(재혼)에 대해 각 영역에 대해 기대를 하는 편(기대할 것이다 + 매우 기대할 것이다)에 대한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35-44세 이하인 집단에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고, 대학원 졸업 집단과 이혼이나 별거 및 사별한 집단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4-26〉 향후 결혼(재혼)에 대한 기대(기대+매우 기대):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 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사례수
전체	84.9	96.7	80.4	91.8	3,299
지역					
동부	85.1	96.6	80.3	91.8	2,755
읍면부	83.8	97.3	81.4	91.9	544
성별					
남자	81.7	96.3	84.7	93.7	2,123
여자	90.7	97.6	72.7	88.5	1,176
연령					
19-24세	87.3	97.9	82.1	91.3	1,246
25-29세	86.9	97.9	83.8	94.0	1,094
30-34세	83.4	95.5	80.5	91.7	500
35-39세	76.5	88.4	78.5	85.9	218
40-44세	70.0	95.7	63.7	90.5	145
45-49세	80.7	95.9	49.8	89.5	96
교육					
고졸이하	84.9	95.9	79.5	91.7	764
대졸	85.2	97.0	81.1	91.8	2,442
대학원졸	75.8	95.7	70.8	91.6	93
혼인상태					
미혼	85.2	96.7	81.5	91.9	3,234
이혼·별거·사별	73.8	100.0	26.1	86.0	66
취업여부					
취업	83.2	96.3	78.7	91.4	2,155
비취업	88.1	97.7	83.7	92.6	1,144
가구소득					
60% 미만	85.2	97.6	79.7	90.7	1,059
60-80% 미만	79.1	94.5	73.9	91.1	422
80-100% 미만	88.3	97.7	84.1	92.3	410
100-120% 미만	86.7	96.4	82.2	95.3	367
120-140% 미만	85.3	97.7	83.0	91.7	285
140-160% 미만	86.4	95.8	81.2	93.8	245
160% 이상	84.1	96.2	81.4	91.0	511

주: 1) 표에 제시한 비율은 '매우 기대할 것임'을 합산한 수치임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향후 결혼에 대한 기대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는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이미 한 집단,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있는 집단, 앞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집단 모두에서 상대방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의 결혼에 있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낮으며, 40대 이상 그룹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대학원 졸업 집단이 다른 교육 수준 집단보다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혼·별거·사별로 인해 현재 혼자인 집단의 경우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비율이 26.1%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결혼에 대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비율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 없는 경우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이 없다’(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동거 의향, 함께 살 사람, 결혼하지 않을 때의 제약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향후 동거 의향

향후 결혼(재혼)할 생각이 없다면, 동거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알아보았다. 동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9.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전혀 없다는 비율이 27.4%로 전체 77.2%가 동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4-27〉 향후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 분	전혀 없다	없다	있다	매우 많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27.4	49.8	16.8	0.5	5.5	1,306	100.0
지역($\chi^2=8.9$)							
동부	26.6	49.3	17.9	0.6	5.6	1,108	100.0
읍면부	32.0	52.7	10.7	0.0	4.6	198	100.0
성별							
남자	22.9	48.8	21.0	0.5	6.8	664	100.0
여자	32.1	50.8	12.4	0.6	4.1	642	100.0
연령							
19-24세	27.4	45.8	17.7	0.7	8.3	334	100.0
25-29세	20.9	51.7	19.8	0.5	7.2	284	100.0
30-34세	27.9	55.3	11.8	0.4	4.5	154	100.0
35-39세	24.7	50.0	17.4	1.8	6.0	134	100.0
40-44세	34.3	44.4	19.2	0.0	2.0	172	100.0
45-49세	31.8	53.4	12.7	0.0	2.1	228	100.0
교육							
고졸이하	29.1	48.7	15.9	0.0	6.3	464	100.0
대졸	26.8	50.0	17.2	0.8	5.2	811	100.0
대학원졸	20.4	60.9	18.7	0.0	0.0	30	100.0
혼인상태							
미혼	26.3	48.9	18.1	0.6	6.1	1,131	100.0
이혼·별거·사별	34.7	55.6	7.9	0.3	1.6	175	100.0
취업여부($\chi^2=2.5$)							
취업	25.4	50.8	17.5	0.4	5.8	823	100.0
비취업	30.9	48.0	15.5	0.8	4.8	482	100.0
가구소득							
60% 미만	28.8	48.1	17.8	0.5	4.7	545	100.0
60-80% 미만	30.4	48.8	13.9	1.4	5.5	179	100.0
80-100% 미만	22.0	57.2	15.8	0.0	5.1	172	100.0
100-120% 미만	24.8	52.8	17.0	0.0	5.3	124	100.0
120-140% 미만	30.5	55.5	12.9	0.0	1.0	79	100.0
140-160% 미만	25.4	48.9	13.5	0.0	12.2	46	100.0
160% 이상	26.4	43.8	20.0	0.9	8.8	16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남성보다는 여성이 동거 의향이 없다는 편에 응답 비율이 높고, 미혼 보다는 현재 이혼·별거·사별을 한 경우 앞으로 결혼 생각도 없으며 동거 의향도 없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나. 향후 결혼(재혼) 및 동거하지 않을 경우 함께 살 대상

향후 결혼(재혼)하지 않을 생각이며 동거에 대한 의향도 없는 경우, 누구와 함께 살 생각인지 알아보았다. 누구와 같이 살지 않고 본인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본인 부모와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로 높았다. 기타 의견에는 ‘반려동물’, ‘조모’, ‘큰아버지·어머니’가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본인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혼자 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인 경우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향후 결혼(재혼) 및 동거하지 않을 경우 함께 살 대상(복수 응답, 모두 선택)

(단위: %, 명)

구 분	혼자	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자녀	기타	사례수
전체	64.5	24.6	6.1	3.1	6.6	0.4	1,062
지역							
동부	64.3	24.0	6.0	3.4	7.2	0.3	841
읍면부	65.8	27.2	6.3	1.6	3.9	0.9	167
성별							
남자	72.3	22.2	5.0	2.0	1.4	0.8	476
여자	57.5	26.7	7.0	4.2	11.3	0.2	532
연령							
19-24세	66.9	28.0	6.7	4.4	1.1	0.0	245
25-29세	62.8	28.2	11.1	4.8	1.7	0.4	206
30-34세	67.6	19.9	4.6	4.6	5.4	0.0	129
35-39세	67.5	24.0	3.5	0.4	9.3	0.0	100
40-44세	59.4	25.0	3.4	1.1	12.6	1.5	135
45-49세	63.3	19.4	4.1	1.6	14.2	0.8	194
교육							
고졸이하	64.5	21.0	3.9	2.9	10.6	0.8	361
대졸	64.0	27.1	7.5	3.2	4.4	0.2	623
대학원졸	75.7	12.4	1.9	5.5	6.5	0.0	25
혼인상태							
미혼	68.0	25.8	6.8	3.6	0.1	0.4	851
이혼·별거·사별	45.5	17.9	2.1	0.3	41.8	0.6	158
취업여부							
취업	67.1	21.8	5.9	3.4	7.2	0.2	628
비취업	60.3	29.1	6.4	2.6	5.8	0.8	380
가구소득							
60% 미만	64.2	21.2	4.6	1.8	10.5	0.9	419
60-80% 미만	67.4	19.6	9.6	1.7	7.2	0.4	142
80-100% 미만	57.4	33.2	4.0	5.9	4.8	0.0	136
100-120% 미만	59.6	35.8	7.9	3.1	0.9	0.0	96
120-140% 미만	72.7	22.1	3.4	0.0	2.9	0.0	68
140-160% 미만	76.3	12.8	1.1	7.3	2.5	0.0	34
160% 이상	66.4	28.5	11.1	7.0	2.2	0.0	113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중복응답 분석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제약

결혼(재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제약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제약을 느끼지 않는 편에 대한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제약을 느끼지 않는 부분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74.1%가 제약을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 제약을 느끼지 않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73% 정도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 제약을 느끼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70.7%로 나타나 네 가지 영역 중 가장 제약을 느끼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4-29〉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제약: 전체

(단위: %, 명)

구 분	전혀 제약을 느끼지 않음	제약을 느끼지 않음	제약을 느낌	매우 큰 제약을 느낌	합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25.7	45.0	24.3	5.0	1,306 100.0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23.6	49.6	23.6	3.3	1,306 100.0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38.5	35.6	20.9	5.1	1,306 100.0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28.8	44.5	24.0	2.7	1,30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재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 제약을 느끼거나 매우 큰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9.3%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부터 제약을 느낀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집단보

다는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업의 집단에서 제약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고, 미혼보다는 이혼 및 별거나 사별한 집단에서 제약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집단보다는 취업하지 않은 집단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소득 측면에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 제약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는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와 학력이 고졸이하의 집단인 경우, 이혼·별거·사별한 경우에 제약을 느끼는 편에 대한 응답이 30% 이상으로 상승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상위 두 번째 집단에서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제약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30% 이상)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이 중간인 집단들과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제약을 느끼는 편에 대한 응답이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 집단에서 제약을 느끼는 편에 대한 응답 수준이 상승하고, 반대로 45세 이상 집단에서는 제약을 느끼는 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혼·별거·사별한 경우와 가구소득이 상위 두 번째 집단이 결혼하지 않은 삶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0% 이하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제약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성은 제약을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4%로 낮고, 남성은 동일한 응답에 대한 비율이 3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30〉 결혼(재혼)하지 않을 삶에서의 제약(느낌+크게 느낌):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 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사례수
전체	29.3	26.9	26.0	26.7	1,306
지역					
동부	30.2	27.2	26.6	26.6	1,108
읍면부	24.3	25.3	22.5	26.8	198
성별					
남자	22.3	28.8	31.2	34.7	664
여자	36.6	24.9	20.5	18.4	642
연령					
19-24세	21.7	20.3	23.8	23.4	334
25-29세	28.4	28.2	35.2	33.6	284
30-34세	20.1	22.0	24.1	23.8	154
35-39세	32.8	25.5	25.3	23.5	134
40-44세	36.5	32.4	26.2	29.5	172
45-49세	40.3	34.9	19.0	24.5	228
교육					
고졸이하	36.1	34.1	27.1	29.2	464
대졸	25.1	23.2	26.0	25.9	811
대학원졸	38.1	16.9	7.6	8.7	30
혼인상태					
미혼	26.9	25.3	27.4	27.0	1,131
이혼·별거·사별	45.0	37.3	16.5	24.6	175
취업여부					
취업	25.8	25.7	23.9	27.0	823
비취업	35.2	28.8	29.5	26.2	482
가구소득					
60% 미만	39.5	33.5	23.3	29.0	545
60-80% 미만	22.3	26.7	27.4	26.4	179
80-100% 미만	23.1	18.1	28.3	22.8	172
100-120% 미만	22.3	19.5	31.6	26.1	124
120-140% 미만	19.2	21.8	21.7	29.0	79
140-160% 미만	24.9	31.3	19.3	17.7	46
160% 이상	21.0	20.8	30.4	25.2	161

주: 1) 표에 제시한 비율은 '제약을 느낌'과 '매우 큰 제약을 느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이혼과 헤어짐

사별을 제외하고 이혼 또는 별거 및 헤어짐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혼·별거·헤어짐의 이유, 그리고 이후 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혼·별거·헤어짐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결혼 생활이 아니더라도 함께 부부생활을 했던 사이의 헤어짐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인 경우는 첫 번째 경험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특성별 차이는 이혼·별거·헤어짐 당시나 현재 사이에 변함이 없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작을 것으로 간주되는 성별과 학력에 따른 특성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혼·별거·헤어짐의 이유

이혼·별거·헤어짐의 경험이 있던 경우,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성격적 이유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이유가 20.5% 외에도 14.0%, 음주나 폭력의 이유가 11.6%, 본인 가족이나 상대 가족 관련 갈등이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건강상 이유’, ‘사기 결혼’, ‘종교적 이유’,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차이’, ‘가출 및 실종’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성격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과반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이유나 음주·폭력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의 집단은 성격적 이유에 대한 응답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고, 고졸 이하의 경우 음주 및 폭력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이혼(별거·헤어짐)의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 이유	성격적 이유	음주· 폭력	외도	자녀 관련 이유	본인 가족이나 상대 가족 관련 갈등	기타	합계	
전체	20.5	41.8	11.6	14.0	1.2	7.5	3.4	503	100.0
성별($\chi^2=41.6^{***}$)									
남자	18.2	55.0	0.0	11.0	1.9	8.6	5.2	156	100.0
여자	21.5	35.8	16.8	15.3	0.9	7.1	2.6	347	100.0
교육									
고졸이하	22.3	37.4	14.3	13.5	0.9	7.4	4.2	302	100.0
대졸	17.3	48.2	8.1	14.4	1.9	7.7	2.5	186	100.0
대학원졸	24.9	49.5	0.0	17.1	0.0	8.6	0.0	16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이혼·별거·헤어짐 직후 함께 생활한 대상

이혼·별거·헤어짐의 경험 직후 누구와 생활을 했었는지 알아보면, 함께 생활한 사람 중 자녀가 63.3%로 가장 많았고, 혼자였던 비율은 25.3%, 본인 부모는 23.8%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상으로는 ‘미혼모시설’, ‘조모’, ‘조카·형부’,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및 헤어짐 직후에 남성은 여성보다 혼자 또는 본인 부모와 함께 생활했었다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4-32〉 이혼·별거·헤어짐 직후 함께 생활한 대상(복수 응답, 모두 선택)

(단위: %, 명)

구 분	혼자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자녀	교재 중이던 사람	기타	사례수
전체	25.3	23.8	4.6	07	63.3	0.1	1.0	597
성별								
남자	36.7	34.8	1.7	0.4	46.7	0.3	0.6	156
여자	20.1	18.9	5.9	0.8	70.7	0.0	1.1	347
교육								
고졸이하	27.5	21.7	5.4	0.5	61.9	0.0	0.9	302
대졸	21.3	26.9	3.3	1.0	65.6	0.2	1.1	186
대학원졸	29.4	27.1	2.9	0.0	62.0	0.0	0.0	16

주: 중복응답 분석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 및 양육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상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지 알아보면, 있었던 비율이 86.7%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가 남성보다 자녀가 있었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 유무

(단위: %, 명)

구 분	자녀 있었음	자녀 없었음	합계	
전체	86.7	13.3	503	100.0
성별($\chi^2=6.8^{**}$)				
남자	80.8	19.2	156	100.0
여자	89.3	10.7	347	100.0
교육($\chi^2=0.1$)				
고졸이하	87.1	12.9	302	100.0
대졸	86.2	13.8	186	100.0
대학원졸	84.9	15.1	16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상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던 경우, 자녀 수를 알아보았다.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응답이 분포했으며 평균적으로는 1.7명(표준편차 0.79)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던 비율은 98.0%로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가 있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4-34〉 이혼·별거·헤어짐 당시 자녀 수

(단위: 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전체	1.7 (0.79)	436	
성별			
남자	1.6	126	1.3
여자	1.7	3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혼·별거·헤어짐 당시에 상대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경우, 본인이 직접 양육하게 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본인이 양육하게 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경우는 77.5%였으며, 남성이 62.7% 여성이 83.4%로 여성이 양육하게 된 미성년 자녀가 있던 비율이 더 높았다. 직접 양육하게 된 자녀가 있었던 경우, 양육했던 자녀 수는 평균 1.6(표준편차 0.78)명이었다.

〈표 4-35〉 본인이 양육하게 된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수

(단위: %, 명)

구 분	양육하게 된 자녀 유무				양육하게 된 자녀 수		
	없었음	있었음	사례수	χ^2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전체	22.5	77.5	427		1.6 (0.78)	331	
성별							
남자	37.3	62.7	121	21.0**	1.5	76	-1.2
여자	16.6	83.4	306		1.6	255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동거와 결혼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법률혼 집단, 함께 사는 배우자나 애인 및 파트너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및 동거 관계 집단,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사는 애인이나 파트너가 없는 무배우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 한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96.0%이고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34.9%로 결혼식 여부에서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혼 및 동거 집단 중 상대와의 관계가 부부(혼인)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6.7%에 해당해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속한 대부분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혼 집단과 사실혼·동거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연히 혼인신고의 여부이지만, 결혼식 여부 또한 이 두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 한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시점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혼인신고 한 시점(10.6%)이나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21.4%)보다 결혼식을 한 시점(67.8%)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 또한 법적 혼인을 선택하는 집단에 있어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동거 및 사실혼 관계에서는 현재 배우자나 애인·파트너와 부부관계를 시작한 시점으로 결혼식을 한 시점(22.1%)보다는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76.9%)을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아 한국 사회에서 법률혼을 선택하는 집단과 동거 및 사실혼을 선택하는 집단은 결혼의 시작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사실혼 및 동거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지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의 대부분 정책이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혼인 밖의 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호자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불편과 차별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자격은 응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및 동거 관계 당사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및 개인의 상황과 삶이 매우 다양해진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정책적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혜택에서 기본적인 지원이나 유사시의 보호자 역할 등 정책 환경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법적으로 혼인한 집단과 사실혼 및 동거 집단은 현재 상대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상대방에 대해 심리·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현재 법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 순이었다. 반면, 현재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두 번째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법적 혼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배우자 상태이지만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 집단(무배우자 집단 중 절반 수준)이 향후 결혼에 대해 기대하는 점과도 비교해 보았다. 심리·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다음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결혼하지 않은 집단은 현재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과 결혼에 대한 기대의 순서가 동일했다. 그러나 현재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의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과 자녀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반면, 향후 결혼 생각이 있는 무배우자 집단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 생각이 있는 무배우자 집단 내에서 동거를 한 후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재 생각을 바탕으로 한 향후 이행은 결혼에 대한 기대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또는 결혼 상대를 통해 충족되는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법적 혼인을 선택하는 집단과 사실혼 및 동거 관계를 선택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것이다. 무배우자 집단에서 중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삶에서 제약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갖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제약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제약을 느낀다는 비율이 매우 근소하게 높기는 했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각과 이행 실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혼인 및 가족 형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임신과 출산 경험

제1절 임신과 출산 경험

제2절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제3절 소결

제 5 장 임신과 출산 경험

이 장에서는 임신과 출산 경험 영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조사 설문지의 구성을 준용하여, 이 장은 ‘임신, 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의 두 개의 절로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해서는 임신 시기, 원했던 임신 여부, 임신 시기 적절성, 임신 방법, 임신 종결 형태 및 시기, 총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둘째, 과거와 미래의 자녀계획과 관련하여 (추가) 출산 계획 여부와 계획의 확실한 정도, 임신, 출산을 위한 난자 및 정자 냉동보관 경험과 의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1절 임신과 출산 경험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한 최근 연구 사례들은 출산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의 결과적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 출산 경험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Hildingsson, Karlström & Larsson, 2021; Hajizadeh, Vaezi, Meedya, Mohammad & Mirghafourvand, 2020). 구체적으로, Hajizadeh et al.(2020)은 모성 보호 제도 경험에 따른 출산 경험에 대한 특성이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출산 경험에 대한 주된 논의는 전통적으로 출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cKelvin, Thomson & Downe, 2021; Chabbert, Panagiotou & Wendland, 2021)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Chabbert et al.(2021)은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여성의 출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왕절개술 및 진통 등의 산과적 요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불만족, 남편의 도움에 대한 만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한 본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가 단지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예측 변수와의 다양한 결합을 바탕으로 더 풍부한 정보 활용이 가능할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 다양한 예측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어떠한 특성을 띠는 이들이 어떠한 임신, 출산 경험을 어떠한 형태로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임신, 출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원했던 임신을 포함하여, 임신 시기의 적절성(Kumar & Kumar, 2021; Gomez, Arteaga & Freihart, 2021; Hajizadeh & Nghiem, 2020; Amuka, Onyechi, Asogwa & Agu, 2021)을 조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예측변수와의 결합을 통하여 임신 시기에 대한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띠는 이들이 임신을 원했고, 원하지 않았는지, 또한, 임신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느렸는지, 아니면 빨랐는지에 대한 특성은 어떠한 특성과 맞물려 변화되었는지, 여러 특성별 패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절의 분석 대상은 19-49세 여성이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15, 2018년도 조사와 구분되는 특성이다. 이 절에서는 2021년도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미혼 여성을 포함한) 19-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이전 조사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9-49세 기혼 여성⁶⁾의 전반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부표 참조).

6) 2015,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2021년도 조사는 15~18세 연령 기혼 여성이 포

1. 임신 횟수와 임신 결과

가. 임신 횟수

먼저, 분석대상 19-49세 여성의 임신 횟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 횟수의 분포는 0회가 30.9%로 가장 많고, 2회가 3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회가 20.3%, 3회가 12.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분석대상을 19-49세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는데(부표 참조), 즉 최근으로 올수록 임신횟수 0, 1회 범주 분포의 경우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반면, 2회 이상의 분포는 지속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0회는 2015년 4.4%에서 2018년 4.8%, 2021년 9.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의 경우에도 2015년 18.8%, 2018년 21.3%, 2021년 26.2%로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하의 임신 횟수 감소의 특성은 평균 임신횟수의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2015년 2.3회에서 2018년 2.2회, 2021년 1.9회로 지속 감소하는 동시에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0회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1회는 증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2회 이상 범주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을 19-49세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연령 세부범주 중 19-29세의 경우 전체적인 특성과 다소 다른 특성이 관측되고 있는데, 즉, 이들 범주는 임신횟수가 0회인 경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함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으나, 경험적으로 해당 범주의 표본 수가 작음을 상기하여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있는 반면, 1회의 분포가 다른 범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24세, 25-29세 범주가 출산 완결을 이행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령층의 경우 차별적인 특성이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들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의식 및 가치관 등과 관련된 요인과 임신 횟수 분포 간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또한 다른 연령 범주와 어떠한 차이점을 띠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 임신 횟수(19-49세 여성)

(단위: %, 명, 회)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평균	
전체	30.9	20.3	30.0	12.9	4.2	1.8	6,068	100.0	1.4
연령($\chi^2=3,054.6^{***}$)									
19-29세	81.0	11.0	5.5	1.8	0.3	0.4	1,401	100.0	0.3
30-34세	38.6	30.2	23.4	6.4	1.2	0.2	947	100.0	1.0
35-39세	15.5	27.3	37.3	13.4	5.2	1.4	1,139	100.0	1.7
40-44세	8.5	19.4	42.7	18.7	7.4	3.3	1,243	100.0	2.1
45-49세	6.8	17.7	42.3	23.2	6.6	3.5	1,337	100.0	2.2
출생아수($\chi^2=13,262.6^{***}$)									
0명	92.3	5.9	1.4	0.2	0.2	0.1	2,031	100.0	0.3
1명	0.0	75.8	17.4	5.4	1.1	0.2	1,390	100.0	1.3
2명	0.0	2.3	71.7	19.6	5.2	1.2	2,129	100.0	2.3
3명	0.0	0.2	4.4	55.4	24.6	15.4	511	100.0	3.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6)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출생아 수의 경우 출생아 수가 많아질수록 출생아 수 이상의 임신 횟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출생아 수 0명의 경우 1회 이상의 범주가 약 7.7%, 1명의 경우 2회 이상이 약 24.2%, 2명의 경우 3회 이상이 약 26.0%, 3명 이상의 경우 4회 이상이 4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19-49세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출생아 수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여 볼 때, 0명의 경우 임신 횟수 0회 분포가 69.6%에서 76.4%로 증가하였으며, 출생아 수가 1명인 경우 임신 횟수 1회 분포의 경우에도 2018년 70.8%에서 2021년 75.8%로 약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비중이 2018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신 횟수와 출생아 수 간 분포는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난임, 피임 대응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적 대응 및 내, 외적 특성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나. 임신 방법

다음으로, 임신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만을 한정하여 임신 순위별 임신 방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일곱 번째 임신을 제외한 모든 임신 순위에서 자연 임신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난임 시술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49세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이들 대상의 이러한 감소(증가) 양상은 2015년 → 2018년에 비하여 2018년 → 2021년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네 번째 임신 범주까지 난임 시술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특징이 관측되는 바, 이전 조사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난임 시술에 의한 임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임신 순위별 임신 방법 분포에 대한 종단적 특성은 만혼에 따른 기혼 여성의 임신 당시 연령 증가 특성 및 이와 관련하여 추후 살피 불 난임 및 시술 경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 임신 방법(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자연 임신	96.5	97.5	97.8	97.6	99.0	99.1	97.9
난임 시술	3.5	2.5	2.2	2.4	1.0	0.9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194	2,965	1,145	365	110	35	1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임신 결과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19-49세)의 임신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 대상 표본은 평균 2.11회 임신하였고, 출생 횟수는 평균 1.71회였으며,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 임신횟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 결과를 제외한 임신유지율 평균은 8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추가로 기혼 여성(19-49세)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에 대한 이전 연도 조사와의 비교에 따른 종단적 특성과 관련하여, 2018년에 비하여 2021년 출생 횟수, 평균 총 임신횟수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임신유지율이 증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균 임신유지율의 증가 양상은 임신 결과 유형 중 사산/출생과 사산 동시 발생/자연 유산/인공임신중지가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총 임신횟수와 출산횟수가 다소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출생 이외의 결과의 감소에 따라 임신유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음으로, 2021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세부 예측변수별로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한, 지역 범주의 경우 평균 총 임신횟수와 출생횟수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가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공임신중지의 차이에 의하여 평균 임신유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특성은 대체로 연령대와 평균 총 임신횟수, 출생횟수 간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총 임신횟수, 출생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19-29세의 경우 인공임신중지 평균 횟수가 다른 범주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2018년과 비교하여 볼 때도 크게 증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들 연령대는 30대에 비하여 평균 임신유지율도 낮은 특성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의 평균 임신유지율이 84.8%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범주가 8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평균 임신유지율이 높은 특성은 평균 총 임신횟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지 횟수가 가장 적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초혼연령별 특성은 출생 횟수와 평균 총 임신횟수가 연령대 범주와 뚜렷한 부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신유지율의 경우 35세 이상 범주가 82.4%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령대의 낮은 평균임신유지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자연유산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5-3〉 임신 결과(19-49세 여성)

(단위: 회, %, 명)

구분	임신 결과 평균 횟수					총임신 횟수 평균	평균 임신 유지율	사례수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임신 중지				
전체	1.71	0.01	0.00	0.25	0.11	0.04	2.11	87.4	4,194
지역									
동부	1.68	0.01	0.00	0.25	0.11	0.04	2.08	87.5	3,440
읍면부	1.82	0.01	-	0.24	0.15	0.03	2.25	87.3	754
연령									
19-29세	1.18	0.00	-	0.14	0.12	0.18	1.62	87.9	267
30-34세	1.35	0.01	-	0.17	0.03	0.11	1.66	89.8	582
35-39세	1.68	0.01	-	0.21	0.09	0.03	2.02	89.4	962
40-44세	1.83	0.00	-	0.29	0.14	0.00	2.27	86.1	1,137
45-49세	1.89	0.01	0.00	0.29	0.14	-	2.34	86.1	1,246
교육									
고졸이하	1.82	0.01	0.00	0.27	0.20	0.02	2.31	84.8	1,398
대졸	1.66	0.01	-	0.23	0.08	0.04	2.01	88.8	2,571
대학원졸	1.54	0.01	-	0.27	0.04	0.05	1.91	89.1	225
혼인상태									
미혼	0.27	0.05	-	0.23	0.75	0.07	1.37	28.2	22
기혼	1.71	0.01	0.00	0.25	0.11	0.03	2.11	87.7	4,172
초혼연령									
24세이하	2.04	0.01	0.00	0.24	0.21	0.03	2.52	87.0	782
25-29세	1.78	0.01	-	0.22	0.10	0.03	2.14	89.1	1,990
30-34세	1.50	0.00	-	0.27	0.06	0.05	1.89	87.2	1,114
35세이상	1.22	0.00	-	0.35	0.09	0.03	1.69	82.4	287
취업여부									
취업	1.70	0.01	0.00	0.24	0.12	0.03	2.10	87.3	2,291
비취업	1.71	0.01	-	0.26	0.11	0.04	2.12	87.6	1,903
출생아수									
0명	-	0.01	-	0.53	0.30	0.50	1.34	-	157
1명	1.00	0.01	-	0.21	0.07	0.04	1.33	88.4	1,396
2명	1.97	0.01	-	0.24	0.10	0.01	2.32	89.9	2,129
3명 이상	3.07	0.01	0.00	0.28	0.23	0.00	3.59	89.3	511
가구소득									
60% 미만	1.51	0.01	-	0.24	0.16	0.06	1.98	84.4	501
60-80% 미만	1.67	0.01	-	0.23	0.11	0.05	2.07	88.6	686
80-100% 미만	1.72	0.01	-	0.28	0.12	0.02	2.15	86.6	773
100-120% 미만	1.75	0.01	-	0.24	0.10	0.03	2.12	88.3	736
120-140% 미만	1.81	0.01	-	0.29	0.12	0.03	2.26	86.6	458
140-160% 미만	1.75	0.01	0.00	0.20	0.09	0.04	2.09	88.8	353
160% 이상	1.73	0.01	-	0.24	0.09	0.02	2.09	88.3	687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8) 초혼연령 범주는 기혼자에 한정된 것임.

9) 평균임신유지율은 각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회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의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구소득 범주는 가구소득 범주와 임신 결과 세부 범주 간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임신유지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구소득이 가장 적은 범주(중위소득 60% 미만)의 경우 총임신향수, 출생횟수가 다른 범주에 비하여 적으며 동시에 평균 임신유지율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 원한 임신 여부

19-49세 여성의 원한 임신 여부를 임신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여섯 번째 임신까지는 원한 임신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일곱 번째 임신은 원한 임신의 비중이 크게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5-4〉 원한 임신 여부(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원했다	79.7	85.4	71.4	59.5	54.1	46.2	84.3
원하지 않았다	17.8	13.1	26.1	38.6	43.6	51.5	11.6
모르겠다	2.5	1.5	2.5	1.9	2.3	2.3	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194	2,965	1,145	365	110	35	1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대체로 임신 순위가 증가할수록 원하고 계획된 임신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임신 시도가 크게 높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경우보다는 원한 경우가 더 많아질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 임신 시기의 적절성

19-49세 여성의 임신 시기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임신 순위 범주에서 적절했다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했던 것보다 빨랐다는 응답 비중은 첫 번째 임신 범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 임신 범주부터는 늦었다는 응답 비중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임신 시기의 적절성(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원했던 것보다 빨랐다	15.0	8.7	6.4	3.2	1.4	4.5	1.6
적절했다	75.0	80.1	77.5	76.2	80.8	77.0	76.4
원했던 것보다 늦었다	9.9	11.1	15.6	18.3	17.8	18.5	22.0
모르겠다	0.1	0.2	0.6	2.3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344	2,532	818	217	59	16	1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원했던 것보다 늦었다는 응답 비중은 임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횟수 증가가 임신 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응답자의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으로 이어지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개연성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신 횟수별 임신 시기 응답 분포는 향후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 이들이 임신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시기가 늦거나 혹은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관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5-6〉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빠른 정도(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1년	85.1	81.0	79.1	46.5	100.0	100.0	100.0
2년	12.5	15.6	15.4	53.5	0.0	0.0	0.0
3년이상	2.5	3.4	5.5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02	219	52	7	1	1	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임신 횟수별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 분포는 상기 논의와 대체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일정 수준의 임신 횟수 범주까지는 임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늦은 정도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관측되지 않는 바, 이는 각 범주별 표본의 차이 및 표본 수가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것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5-7〉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1년	34.6	33.1	24.4	38.9	45.8	65.2	21.7
2년	25.5	32.6	35.6	24.4	29.5	34.8	37.4
3년이상	40.0	34.3	40.0	36.7	24.6	0.0	4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33	280	128	40	11	3	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출생아 수

가.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 분포는 평균 1.20명 출산하였으며, 0명 33.5%, 1명 23.0%, 2명 35.1%, 3명 이상 8.4%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혼 여성(19-49세)의 출생아 수 분포의 종단적 특성과 관련하여, 2명, 3명 이상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0,1명의 범주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생 자녀가 없는 범주는 2015년 7.1%, 2018년 6.9%, 2021년 12.9%, 출생아 수가 2명인 경우는 2015년 55.9%, 2018년 53.3%, 2021년 46.0%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1명인 경우는 2015년 24.4%, 2018년 26.4%에서 2021년 30.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출생아 수는 1.57명으로 2015년, 2018년의 1.75명에 비하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범주별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먼저,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의 경우 0, 1명의 범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3명 이상의 범주에서는 반대로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관련 사례에서 두루 보고되고 있는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 부적(-) 연관성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경험적 결과로서 이해되고 있다.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는 세부 범주별로 일관성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출생아수의 범주는 1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30-34세 범주의 37.8%보다 높다. 반면, 3명 이상의 범주의 경우 2.0%로

25-29세 범주의 11.1%, 30-34세 범주의 5.2%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은 1명, 2명 범주에서 각각 비교적 뚜렷한 부적(-),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명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2명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가구소득이 출산의 양적(quantity) 측면과 정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3명 이상의 범주에서는 가구소득과 출생아 수 간 연관성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앞서 논의한 가구소득과 출산의 양적 측면과의 정적(+) 연관성 및 출산의 질적(quality) 측면과의 정적(+) 연관성이 혼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여력이 높아서 실제 출산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출생아 양육에 대하여 질적 측면을 제고할 여력이 높아서 실제 출산아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주에 해당되는 이들은 과연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8〉 출생아 수(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33.5	23.0	35.1	8.4	6,068	1.20
지역($\chi^2=76.8^{***}$)						
동부	34.9	22.9	34.8	7.3	5,074	1.16
읍면부	26.0	23.5	36.5	14.0	994	1.41
연령($\chi^2=2.9e+03^{***}$)						
19-29세	83.5	11.5	4.3	0.8	1,401	0.23
30-34세	44.3	31.0	21.0	3.8	947	0.85
35-39세	17.9	30.3	42.2	9.6	1,139	1.45
40-44세	10.4	23.8	53.4	12.5	1,242	1.70
45-49세	8.2	22.6	54.3	15.0	1,337	1.79
교육($\chi^2=163.3^{***}$)						
고졸이하	24.3	23.8	38.4	13.5	1,782	1.44
대졸	37.8	22.2	33.7	6.4	3,976	1.09
대학원졸	30.9	29.8	34.6	4.7	309	1.13
혼인상태($\chi^2=695.5^{***}$)						
미혼	99.6	0.4	0.0	0.0	1,438	0.00
기혼	12.9	30.0	46.0	11.1	4,630	1.57
초혼연령($\chi^2=4.4e+03^{***}$)						
24세이하	6.2	22.3	47.7	23.9	826	1.96
25-29세	10.5	25.7	52.8	11.1	2,171	1.65
30-34세	16.7	37.8	40.4	5.2	1,258	1.35
35세이상	29.9	46.5	21.6	2.0	375	0.96
취업여부($\chi^2=126.0^{***}$)						
취업	39.6	20.3	33.1	7.0	3,648	1.08
비취업	24.2	27.2	38.1	10.5	2,419	1.37
가구소득($\chi^2=504.6^{***}$)						
60% 미만	57.0	21.3	16.2	5.6	1,063	0.72
60-80% 미만	27.2	27.2	37.3	8.3	912	1.28
80-100% 미만	26.6	25.4	38.6	9.4	1,017	1.32
100-120% 미만	26.5	23.8	41.0	8.8	981	1.33
120-140% 미만	29.2	19.6	39.6	11.7	623	1.35
140-160% 미만	32.8	19.9	37.9	9.3	502	1.25
160% 이상	33.5	21.5	39.7	7.8	970	1.25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 < 0.05$, ** $p < 0.01$, *** $p < 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8) 초혼연령 범주는 기혼자에 한정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19-49세 여성 출생코호트별 출생아 수

추가로 출생코호트별 출생아 수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49세 연령은 조사연도인 2021년도 기준 1971년생~2002년생이며, 각 출생연도별 표본의 분포는 1980년대생을 기점으로 약간의 왼쪽 치우침의 분포를 띠고 있다.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2000년대생 포함) 이후의 세 범주로 모의 출생코호트를 구분하여 출생아 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세 범주 간 출생아 수의 분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기 세 범주는 출산 완결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970년생과 1980년대 이후 생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두 범주 역시 출산 완결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있지만, 1명 이상의 모든 출생아 수 범주에서 1970년대 코호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코호트에 비하여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출생아 수 2명 범주에서 약 30.0%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이상 범주에서도 약 9.1%p 차이가 나타났지만, 반면 1명 범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가 1970년대생 코호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역시도 완결 출산 측면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상기 논의 사항은 두 코호트집단 간 비교 결과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9〉 출생 코호트별 출생아 수(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33.5	23.0	35.1	8.4	6,068	1.20
출생코호트($\chi^2=2.7e+03^{***}$)						
1970년대생	8.7	22.3	54.7	14.4	2,099	1.77
1980년대생	22.4	30.0	39.1	8.6	2,259	1.35
1990년 이후	78.5	14.8	5.8	1.0	1,710	0.29
출생코호트($\chi^2=1.0e+03^{**}$)						
1970년대생	8.7	22.3	54.7	14.4	2,099	1.77
1980년 이후	46.6	23.4	24.7	5.3	3,969	0.89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Ajzen(1987; 1991)이 제시한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목표 지향적인 인간 행동이 비교적 잘 정립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여건 및 필요한 조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이론을 출산 과정에 대입하면, 출산에 대한 의도와 계획 그리고 부부의 출산 행위라는 결과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부부가 출산 행위에 도달하기 이전에 출산 및 이후 양육이 가능한 능력과 여건, 그리고 출산 이후 자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복합적으로 인식,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산 행위에 도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출산 계획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미시적 측면에서의 부부 간 의사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 계획 내지는 의도가 과연 (추가)출산 행위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미진한 편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관련 사례는 출산 계획, 의도, 욕구가 후속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homson, 1997; Thomson & Hoem, 1998; Schoen, Astone, Nathanson & Fields, 1999). 특히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의도가 여전히 출산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Schoen et al., 1999), 출산 의도와 출산 행위 간 강건한 연관성과 출산과 관련된 개인(부부) 단위의 동기의 중요성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 또한 Thomson(1997)이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의 출산에 대한 욕구의 영향력이 아내의 욕구 및 의도와 거의 동등하게 실제 출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욕구와 의도에 대한 부부 간 불일치가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로 귀결되었다는 경험적 결과는 실제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출산 계획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자녀 출산 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냉동정자/난자 경험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고려하여 임신 및 출산 시기 조절의 수단으로서의 논의를 포함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적 개선 방향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의 분석 대상은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혼 당시 자녀 계획의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이 있는 19-49세 모든 개인이며, (추가) 출산 계획 및 임신을 위한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경험과 의향에 대한 사항은 19-49세 모든 개인이다.

1. 자녀 계획

가. 결혼 당시 출산 계획

결혼 당시 출산 계획에 대한 논의는 앞서 출산 계획이 어느 정도 출산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바탕으로 출산 계획이 출산 이행의 동인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 행동 이론과 같은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관측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차이가 나타난다면 어떤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시발적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의 결혼 당시 출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의 경우 결혼 당시 출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계획 자녀 수 평균은 약 1.9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낮은 반면,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의 계획 자녀 수 평균은 읍면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범주별 특성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른 연령 범주에 비하여 19-29세의 경우 결혼 당시의 자녀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표본 수가 크게 작은 특징들이 관측되지만, 이들의 자녀 출산 계획 여부 응답 비중은 72.5%로 80%대 근처인 다른 범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0〉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여부, 계획 자녀 수 평균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합계		계획 자녀 수 평균
전체	80.3	19.7	8,096	100.0	1.93
지역($\chi^2=0.8$)					
동부	80.4	19.6	6,651	100.0	1.93
읍면부	79.6	20.4	1,445	100.0	1.97
성별($\chi^2=6.9^{**}$)					
남자	82.0	18.0	3,466	100.0	1.93
여자	78.9	21.1	4,629	100.0	1.94
연령($\chi^2=35.5^{***}$)					
19-29세	72.5	27.5	576	100.0	2.08
30-34세	82.0	18.0	1,208	100.0	1.86
35-39세	82.4	17.6	1,927	100.0	1.95
40-44세	80.1	19.9	2,245	100.0	1.96
45-49세	79.6	20.4	2,140	100.0	1.94
교육($\chi^2=43.8^{***}$)					
고졸이하	75.9	24.1	2,362	100.0	1.99
대졸	82.1	17.9	5,204	100.0	1.9
대학원졸	82.2	17.8	530	100.0	1.98
취업여부($\chi^2=0.9$)					
취업	80.7	19.3	5,982	100.0	1.92
비취업	79.0	21.0	2,114	100.0	1.96
가구소득($\chi^2=94.3^{***}$)					
60% 미만	68.8	31.2	891	100.0	1.97
60-80% 미만	81.4	18.6	1,304	100.0	1.95
80-100% 미만	80.7	19.3	1,546	100.0	1.92
100-120% 미만	82.3	17.7	1,484	100.0	1.92
120-140% 미만	81.9	18.1	883	100.0	1.92
140-160% 미만	82.2	17.8	691	100.0	1.95
160% 이상	82.1	17.9	1,297	100.0	1.93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반면, 출산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 19-29세 연령대의 계획 자녀 수 평균은 약 2.08명으로 다른 연령대 범주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대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코호트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출산 계획 및 출산 계획과 연관된 실제 출산 결과, 가령 출생아 수 등에 대한 연령대별 코호트 차이가 이들 연령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은 공통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과 정적(+)이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당시의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중위소득 60% 미만)의 경우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범주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68.8%)으로 나타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연령층의 상기 특성은 앞서 살펴본 임신 경험과 유사한 맥락에서 정책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 정도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 정도는 출산과 본인-파트너 간 의사결정의 결과 간 연관성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과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기 변인은 특히 지금까지의 관련 사례에서 출산 영향 요인 변인으로서는 다소 간과되어 온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동시에, 출산 결과가 아닌 출산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 정도는 다음과 같이 자녀 출산 여부, 자녀

출산 시기, 자녀 수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각각의 범주는 자녀 출산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인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자녀 출산 이후 자녀 양육과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과 파트너가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크게 많은 특성이 나타나는 한편, 전반적으로 파트너보다는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예측변수별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 양상은 여성의 경우 상대방에 비하여 본인의 의견 반영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경우 30대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동시에, 응답자와 상대방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응답 분포는 앞서 살펴본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대체로 모든 범주에서 자녀 출산 여부 응답 분포에 비하여 응답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수의 경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녀 출산 여부나 자녀 출산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응답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응답에 비하여 본인과 상대방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 수의 경우 출산 이후 자녀 양육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본인과 상대방의 다양한 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5-11〉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1) 자녀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 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 이	주로 상대방 이	합계	
전체	3.9	4.8	86.7	3.4	1.3	8,096	100.0
지역($\chi^2=2.2$)							
동부	3.9	4.8	86.9	3.3	1.2	6,651	100.0
읍면부	3.7	4.9	85.9	3.8	1.7	1,445	100.0
성별($\chi^2=251.4^{**}$)							
남자	1.5	2.7	88.1	5.5	2.2	3,466	100.0
여자	5.7	6.3	85.7	1.8	0.5	4,629	100.0
연령($\chi^2=13.5$)							
19-29세	5.6	3.2	88.1	2.3	0.8	576	100.0
30-34세	3.3	4.1	87.7	3.6	1.3	1,208	100.0
35-39세	3.1	4.4	88.0	3.2	1.2	1,927	100.0
40-44세	3.9	5.2	86.0	3.4	1.6	2,245	100.0
45-49세	4.4	5.4	85.3	3.7	1.1	2,140	100.0
교육($\chi^2=32.0^{***}$)							
고졸이하	4.8	5.9	83.9	4.0	1.5	2,362	100.0
대졸	3.6	4.3	87.9	3.0	1.2	5,204	100.0
대학원졸	2.4	5.0	87.0	4.5	1.1	530	100.0
취업여부($\chi^2=31.8^{***}$)							
취업	3.4	4.3	87.1	3.7	1.5	5,982	100.0
비취업	5.2	6.1	85.6	2.4	0.7	2,114	100.0
가구소득($\chi^2=55.9^{***}$)							
60% 미만	7.0	7.1	79.9	3.9	2.1	891	100.0
60-80% 미만	3.2	3.9	88.2	3.7	1.0	1,304	100.0
80-100% 미만	4.0	4.7	85.7	3.7	1.9	1,546	100.0
100-120% 미만	3.3	4.5	88.6	2.6	0.9	1,484	100.0
120-140% 미만	3.6	4.4	87.5	4.1	0.5	883	100.0
140-160% 미만	3.7	4.4	87.2	3.5	1.2	691	100.0
160% 이상	3.3	5.0	88.0	2.6	1.1	1,29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12〉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2) 자녀 출산 시기

(단위: %, 명)

구분	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 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 이	주로 상대방 이	합계	
전체	4.2	6.5	83.4	4.5	1.5	8,096	100.0
지역($\chi^2=11.8^*$)							
동부	4.1	6.3	84.0	4.2	1.4	6,651	100.0
읍면부	4.4	7.5	80.6	5.8	1.8	1,445	100.0
성별($\chi^2=604.2^{***}$)							
남자	1.2	2.4	85.3	8.4	2.7	3,466	100.0
여자	6.4	9.6	82.0	1.6	0.5	4,629	100.0
연령($\chi^2=25.6$)							
19-29세	5.1	7.8	82.4	3.3	1.5	576	100.0
30-34세	3.6	5.4	85.7	4.2	1.1	1,208	100.0
35-39세	3.6	5.7	85.3	3.7	1.7	1,927	100.0
40-44세	4.2	6.7	82.5	4.8	1.7	2,245	100.0
45-49세	4.7	7.3	81.5	5.3	1.2	2,140	100.0
교육($\chi^2=25.4^{***}$)							
고졸이하	4.8	8.3	80.4	4.8	1.7	2,362	100.0
대졸	4.0	5.8	84.6	4.3	1.4	5,204	100.0
대학원졸	3.4	6.1	84.5	4.7	1.2	530	100.0
취업여부($\chi^2=102.3^{***}$)							
취업	3.5	5.5	83.9	5.3	1.8	5,982	100.0
비취업	5.9	9.5	81.8	2.1	0.6	2,114	100.0
가구소득($\chi^2=49.6^{***}$)							
60% 미만	7.1	9.0	77.4	4.3	2.3	891	100.0
60-80% 미만	3.5	6.3	84.5	4.7	1.0	1,304	100.0
80-100% 미만	4.1	6.7	81.7	5.4	2.1	1,546	100.0
100-120% 미만	3.6	5.9	85.1	4.2	1.2	1,484	100.0
120-140% 미만	3.2	5.9	86.9	3.6	0.4	883	100.0
140-160% 미만	4.9	4.8	84.1	4.7	1.5	691	100.0
160% 이상	3.8	6.8	83.7	4.2	1.5	1,29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13〉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3)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 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 이	주로 상대방 이	합계	
전체	4.0	6.1	84.3	4.3	1.3	8,096	100.0
지역($\chi^2=10.3^*$)							
동부	4.0	5.9	84.9	4.0	1.2	6,651	100.0
읍면부	4.2	6.9	81.6	5.9	1.5	1,445	100.0
성별($\chi^2=235.4^{***}$)							
남자	2.1	3.7	85.3	6.9	2.1	3,466	100.0
여자	5.5	7.9	83.5	2.5	0.7	4,629	100.0
연령($\chi^2=9.9$)							
19-29세	4.3	6.0	85.7	2.7	1.4	576	100.0
30-34세	3.7	5.7	84.8	5.1	0.7	1,208	100.0
35-39세	3.2	5.6	85.0	4.7	1.5	1,927	100.0
40-44세	4.3	6.3	83.8	4.3	1.4	2,245	100.0
45-49세	4.5	6.6	83.5	4.1	1.3	2,140	100.0
교육($\chi^2=30.5^{***}$)							
고졸이하	4.9	7.0	81.3	5.3	1.6	2,362	100.0
대졸	3.8	5.7	85.5	3.8	1.2	5,204	100.0
대학원졸	2.2	6.0	85.6	5.1	1.2	530	100.0
취업여부($\chi^2=30.6^{***}$)							
취업	3.7	5.5	84.5	4.9	1.4	5,982	100.0
비취업	5.1	7.6	83.5	2.9	0.9	2,114	100.0
가구소득($\chi^2=55.6^{***}$)							
60% 미만	7.6	7.0	79.9	4.1	1.4	891	100.0
60-80% 미만	2.6	6.2	84.9	5.2	1.1	1,304	100.0
80-100% 미만	4.5	6.0	83.4	4.0	2.2	1,546	100.0
100-120% 미만	3.6	6.3	85.5	3.5	1.1	1,484	100.0
120-140% 미만	4.0	5.5	85.2	4.8	0.5	883	100.0
140-160% 미만	4.1	4.6	85.3	4.7	1.2	691	100.0
160% 이상	3.0	6.4	85.0	4.6	1.1	1,29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출산 의향, 출산 계획 자녀 수

다음으로, 2021년 출산 의향과 평균 출산 계획 자녀 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49세 성별 무관 모든 응답자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인지, 낳지 않을 생각인지에 대한 것과 낳을 생각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출산 계획 자녀 수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미 출산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과 추가적인 출산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사항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개인 전체 100명 중 약 37.8명만이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출산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은 약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예측변수별 결과와 관련하여, 먼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추가) 출산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출산 완결과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연령과 (추가) 출산 의향 간 부적 연관성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19-24세, 25-29세, 30-34세 연령대의 (추가) 출산 의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 연령대의 높은 (추가)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 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들 연령대의 높은 (추가)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이행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견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표 5-14〉 (추가)출산 의향, (추가)출산 계획 자녀 수 평균

(단위: %, 명)

구분	날을 생각이다	날지 않을 생각이다	합계		(추가) 출산 계획 자녀 수 평균
전체	37.8	62.2	14,149	100.0	1.56
지역($\chi^2=0.8$)					
동부	37.9	62.1	11,738	100.0	1.55
읍면부	37.7	62.3	2,410	100.0	1.62
성별($\chi^2=454.3^{***}$)					
남자	46.1	53.9	7,117	100.0	1.60
여자	29.5	70.5	7,032	100.0	1.48
연령($\chi^2=3,624.6^{***}$)					
19-24세	62.7	37.4	2,430	100.0	1.73
25-29세	65.1	34.9	2,318	100.0	1.65
30-34세	54.8	45.2	2,077	100.0	1.48
35-39세	29.2	70.8	2,358	100.0	1.30
40-44세	14.2	85.8	2,578	100.0	1.27
45-49세	5.5	94.6	2,387	100.0	1.24
교육($\chi^2=106.0^{***}$)					
고졸이하	32.7	67.3	3,914	100.0	1.60
대졸	40.4	59.6	9,561	100.0	1.55
대학원졸	31.2	68.8	673	100.0	1.47
혼인상태($\chi^2=2,624.3^{***}$)					
미혼	61.1	38.9	6,049	100.0	1.69
기혼	20.5	79.5	8,099	100.0	1.26
취업여부($\chi^2=4.2^*$)					
취업	37.5	62.5	9,704	100.0	1.53
비취업	38.7	61.3	4,445	100.0	1.61
가구소득($\chi^2=190.9^{***}$)					
60% 미만	47.9	52.1	2,902	100.0	1.68
60-80% 미만	32.7	67.3	2,087	100.0	1.48
80-100% 미만	33.5	66.6	2,348	100.0	1.52
100-120% 미만	36.6	63.4	2,147	100.0	1.49
120-140% 미만	36.1	63.9	1,379	100.0	1.54
140-160% 미만	36.9	63.1	1,083	100.0	1.45
160% 이상	36.9	63.1	2,202	100.0	1.58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 의향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낮은 가구소득 범주인 중위소득 60% 미만의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인 다른 범주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 범주와 관련된 (추가) 출산 의향 분포는 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임신 및 출산 결과를 포함하여 출산 계획에 이르기까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대상 집단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출산 의향의 확실성 정도

(추가) 출산 의향의 확실성 정도는 앞서 살펴본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출산 의향이 있으며, 이러한 출산 의향의 정도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가) 출산 의향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응답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는 응답과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하다는 응답이 약 52%로 불확실하다는 응답에 비하여 다소 높지만, 두 범주 간 차이는 약 4%에 불과하다. 이는 (추가) 출산 의향이 있지만, 특정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하여 이러한 (추가) 출산 의향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추가)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출산 이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5> (추가)출산 의견의 확실성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불확실	불확실	확실	매우 확실	합계	
전체	5.1	43.0	44.0	7.9	5,354	100.0
지역($\chi^2=3.7$)						
동부	5.1	43.3	44.2	7.5	4,446	100.0
읍면부	5.4	41.5	43.0	10.1	908	100.0
성별($\chi^2=3.12$)						
남자	4.6	42.9	44.5	8.0	3,278	100.0
여자	5.9	43.2	43.2	7.7	2,077	100.0
연령($\chi^2=101.4^{***}$)						
19-24세	5.2	48.9	40.0	5.9	1,522	100.0
25-29세	4.0	40.9	48.0	7.1	1,510	100.0
30-34세	4.6	36.2	48.1	11.0	1,138	100.0
35-39세	5.8	42.3	42.4	9.5	688	100.0
40-44세	7.5	44.6	39.6	8.3	367	100.0
45-49세	11.5	57.2	27.7	3.7	130	100.0
교육($\chi^2=15.4^*$)						
고졸이하	4.9	45.5	41.4	8.3	1,279	100.0
대졸	5.1	42.2	45.3	7.4	3,864	100.0
대학원졸	7.8	42.5	35.1	14.6	210	100.0
혼인상태($\chi^2=142.6^{***}$)						
미혼	5.0	47.2	42.4	5.5	3,694	100.0
기혼	5.5	33.8	47.4	13.3	1,660	100.0
취업여부($\chi^2=30.3^{***}$)						
취업	5.4	40.0	46.1	8.5	3,655	100.0
비취업	4.6	49.3	39.6	6.6	1,720	100.0
가구소득($\chi^2=21.1$)						
60% 미만	4.3	43.1	45.5	7.1	1,390	100.0
60-80% 미만	3.9	41.9	46.9	7.2	682	100.0
80-100% 미만	5.5	39.4	46.2	8.9	785	100.0
100-120% 미만	5.9	44.8	41.0	8.3	786	100.0
120-140% 미만	6.7	47.4	36.5	9.4	497	100.0
140-160% 미만	4.9	40.8	45.2	9.2	400	100.0
160% 이상	5.6	43.8	43.5	7.1	813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즉, (추가) 출산 의향의 확실성 정도는 (추가)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 이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매개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가구소득 범주 내 특정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인 중위소득 60% 미만의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다른 범주에 비하여 크게 높은 반면, (추가) 출산 의향의 확실성은 다른 범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이들 계층의 (추가) 출산 의향과 (추가) 출산 이행 간 연관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부 요인별 차이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5. 남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

남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은 (추가) 출산 의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추가) 출산 의향과 관련된 시간적 정합성이 고려된 것으로 2021년도 조사에서 신규로 반영하였다. 응답자 분포와 관련하여, 대체로 의향이 없다는 응답 분포가 약 90.6%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8.1%)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하였다는 응답은 100명 중 약 0.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경 등의 사유로 비해당인 경우는 약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응답 분포와 관련하여,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남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

(단위: %, 명)

구 분	이미 하였다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비해당 (폐경 등)	합계	
전체	0.7	8.1	90.6	0.6	14,149	100.0
성별($\chi^2=85.0$)						
남자	0.7	9.1	90.2	0.0	7,117	100.0
여자	0.8	7.2	91.0	1.1	7,032	100.0
연령($\chi^2=761.3$)						
19-24세	0.0	12.9	87.1	-	2,430	100.0
25-29세	0.1	13.4	86.5	-	2,318	100.0
30-34세	1.2	11.0	87.9	-	2,077	100.0
35-39세	1.6	6.8	91.6	0.1	2,358	100.0
40-44세	1.4	3.3	94.9	0.4	2,578	100.0
45-49세	0.3	2.3	94.7	2.8	2,387	100.0
혼인상태($\chi^2=682.1$)						
미혼	0.1	14.4	85.5	0.1	6,049	100.0
기혼	1.2	3.5	94.4	0.9	8,099	100.0
가구소득($\chi^2=85.4^{***}$)						
60% 미만	0.6	10.9	88.2	0.3	2,902	100.0
60-80% 미만	0.4	7.9	91.0	0.7	2,087	100.0
80-100% 미만	0.5	6.4	92.7	0.5	2,348	100.0
100-120% 미만	1.2	6.1	92.0	0.8	2,147	100.0
120-140% 미만	0.9	7.7	90.6	0.8	1,379	100.0
140-160% 미만	1.1	8.1	90.1	0.7	1,083	100.0
160% 이상	0.9	8.9	89.8	0.4	2,202	100.0
출생아수($\chi^2=539.0^{***}$)						
0명	0.7	10.7	88.5	0.2	10,112	100.0
1명	2.1	3.0	93.4	1.5	1,396	100.0
2명	0.4	1.1	97.1	1.4	2,129	100.0
3명 이상	0.1	0.4	97.3	2.3	51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35-39세 연령대의 경우 이미 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1.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5-29세가 1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에

비하여 미혼의 경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4.4% > 3.5%), 이는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이 결혼 이후의 출산이라는 소위 전통적인 특성이 완화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인 중위소득 60% 미만인 범주의 경우 다른 범주에 비하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들은 약 10.9%가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보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미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0.6%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아 수와 관련하여, 출생아가 아직 없는 범주의 경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출생아가 1명 이상인 범주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이 출산 의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의미를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49세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15, 2018년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은 특징을 띠고 있는 2021년도 조사 자료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미혼 포함 기혼 여성 모두) 19-49세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추가로, 2015, 2018년도 조사와의 종단적 비교를 위하여 분석대상을 기혼 19-49세 여성으로 한정된 결과 역시 부표에 제시하였다.

주요 관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19-49세 여성의 임신 횟수는 0회가 3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30.0%, 1회

20.3%, 3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이전의 2015, 2018년도 조사와 다르게 기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조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 범주별 임신 결과는 인공임신중지 평균 횟수의 차이가 평균 임신유지율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횟수의 차이는 총임신허수의 차이와 대체로 정적(+)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인공임신중지 횟수는 연령, 교육수준, 초혼연령, 취업여부, 가구소득과 같은 예측변수에 대하여 각 세부범주별 큰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들 임신 결과의 관측 결과는 임신 횟수와 출생 횟수 등의 정보를 활용한 임신 유지율 등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임신 및 출산 정책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특정 계층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

원한 임신 여부와 임신 시기의 적절성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새롭게 고려한 항목으로서, 보다 미시적으로 임신을 원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임신 시기의 늦음과 빠름에 대한 정보 역시 현재의 임신,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컨대, 일정 수준의 임신 횟수 범주까지 임신 횟수와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는,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혜자 집단을 선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생아 수의 경우 경험적으로 저출산 양상을 설명하는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 부적(-) 연관성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관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생아 수 3명 이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뚜렷한 부적 분포가 나타난 반면, 0명, 1명 범주의 경우 정적 분포가 도출된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출산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결과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특히 출생아 수 3명 이상의

범주에서 가구소득과 출생아 수 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경제적 여건이 증가할 개연성과 출생아 수가 아닌 기존 출생아 양육에 대한 인적 자원 측면의 질적 제고를 추진할 여건이 증가할 개연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범주에 해당되는 이들은 과연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생 코호트별 출생아 수 분포의 차이는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2명 이상의 출생아 수 범주가 높을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이들 범주의 표본의 특성, 특히 가치관, 성장배경 등과 같은 예측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통해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먼저, 19-29세 연령층의 결혼 당시 자녀 계획 여부의 분포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연령층의 계획 자녀 수 평균의 분포가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계획 자녀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특히 출산 계획이 있으며, 계획 자녀 수가 많다고 응답한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은 출산 계획과 출산 이행 간 매개 변인으로서, 즉 출산 과정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자녀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수에 대한 응답 분포 중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자녀 수의 경우 특히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볼 때, 본인과 상대방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수가 출산 이후의 자녀 양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본인과 상대방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산 의향은 특정 표본에서 다른 표본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나타났는데, 가령 연령대와 관련하여 19-24세, 25-29세, 30-34세가 그러하다. 보다 심층적으로 이들 연령층의 상대적인 높은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 이행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은 2021년도 조사에서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추가) 출산 의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예측변수와의 조합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 출산 의향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6장

임신과 출산 건강

제1절 생식 건강

제2절 산전·산후관리와 분만

제3절 수유

제4절 소결

제 6 장 임신과 출산 건강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은 성·재생산권 및 생식건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정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산 건강 또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은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의 국제행동계획을 통해 개념화되었다. 재생산 건강 또는 생식건강은 ‘생식 체계와 생식 기능, 생식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의 안녕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건강’이다(이소영, 오수영, 손인숙, 2021, p.3).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헌장(Constitution)을 기본으로 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쿠틀마허-랜셋 위원회(Guttmacher-Lancet Commiss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가 정리한 개념에 따르면 성과 재생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기능 장애(dysfunction)나 허약함(infirmity)이 없는 상태가 아닌 성과 재생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물리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Starrs et al., 2018. p. 2642; 이소영, 오수영, 손인숙, 2021, p.2에서 재인용). 권리로서 재생산 건강권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한 제 36조 제3항에 따라 보장 받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임, 월경, 생식기질환, 난임, 임신의 유지·종결, 임신, 출산 등 모든 생식 과정과 관련된 건강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적 대응이 미흡하고 환경호르몬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또한 ‘성지식 부족과 정확하지 않은 피임 실천은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지의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건강한 임신, 출산까지 저해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p.84).

임신과 출산과 관계된 생식 건강을 위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우선 임신 전부터 생식 건강을 위한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 청년 시기에 생식 건강에 관해 제대로 알고, 생식기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 임신, 출산을 위해 중요하다(이소영 외, 2021).

본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임신·출산 건강 영역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식 건강과 피임에 관한 문항으로 시작한다. 피임 관련 문항에서는 피임 지식을 얻은 경로, 피임 방법, 피임에 대한 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난임에 관한 문항을 다루었다. 난임(불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WHO 홈페이지, 2018).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난임 경험, 검사와 시술 경험 등에 관해 질문한다. 건강한 분만과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위한 산전관리(prenatal care)와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산후관리(postnatal care)는 필수적이다. 산후 관리는 분만 후 6주간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를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후관리는 문화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와도 유사하다. 본 조사의 임신·출산 건강 영역에서는 분만에 관한 사항, 산전관리, 산후관리, 수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출산 건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거시적인 연구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국제 정책의 추세에 관한 연구(김새롬, 2021),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산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재구성한 연구(백미록, 2021),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인프라의 공급에 관한 연구

(이소영, 김가희, 2021)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피임도구 사용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양하영, 김문정, 2021) 등이 있고, 난임 관련 연구로 생활적 요인이 난임 여성의 향후 출산에 미치는 영향(김민영, 한규은, 2021), 난임 진단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과 신체활동이 향후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규은, 김민영, 2021),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와 부부관계 변화 정도, 여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 성향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김미옥, 박점미, 홍주은, 반민경, 2021), 난임 커플의 난임 스트레스와 난임과 관련된 삶의 질 간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관한 연구(김성희, 이가연, 전해정, 2021) 등이 있다.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임신부의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 임신 중 우울 경험에 관한 연구(Lee, Park, 2021), 고위험 임신부의 임신스트레스, 태아와의 애착,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이 산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최재희, 2021), 임부의 임신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황란희, 2021),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연구(박한송, 이도은, 윤인애, 서효원, 서주희, 2021), 산후 우울과 산후비만에 관한 연구(Ku, Kim, 2021). 수유와 관련된 연구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로의 이행을 분석한 연구(박설희, 류세양, 2021), 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모유수유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변정희, 이주석, 김태홍, 2021) 등이 최근에 수행되었다.

제1절 생식 건강

이 절에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생식 건강과 관련되어 이상 증상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 피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의 경험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생식 건강

조사에 응답한 성인(19~49세) 남녀 14,149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생식 건강과 관련된 증상(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 등 생리 관련 증상,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 등이며 남성의 경우 성기능장애,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등)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4%가 해당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29.8%p 높게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식 건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17.7%)는 그렇지 않은 경우(15.6%)보다 2.1%p 높게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에 있어서는 25~29세의 19.7%가 관련 증상을 경험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인 경우(18.8%)가 미혼인 경우(15.5%)에 비해 3.3%p 높게 해당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비취업인 경우(22.3%)가 취업 상태(15.1%)에 있는 경우보다 7.2%p 높게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생식계 증상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17.4	82.6	14,149	100.0
지역($\chi^2=6.1^*$)				
동부	17.7	82.3	11,738	100.0
읍면부	15.6	84.4	2,410	100.0
성별($\chi^2=2186.8^{***}$)				
남자	2.6	97.4	7,117	100.0
여자	32.4	67.6	7,032	100.0
연령($\chi^2=22.3^{***}$)				
19-24세	18.0	82.0	2,430	100.0
25-29세	19.7	80.3	2,318	100.0
30-34세	16.5	83.5	2,077	100.0
35-39세	15.5	84.5	2,358	100.0
40-44세	16.0	84.0	2,578	100.0
45-49세	18.6	81.4	2,387	100.0
교육($\chi^2=1.1$)				
고졸이하	17.7	82.3	3,914	100.0
대졸	17.3	82.7	9,561	100.0
대학원졸	16.0	84.0	673	100.0
혼인상태($\chi^2=25.2^{***}$)				
미혼	15.5	84.5	6,049	100.0
기혼	18.8	81.2	8,099	100.0
취업여부($\chi^2=111.5^{***}$)				
취업	15.1	84.9	9,704	100.0
비취업	22.3	77.7	4,445	100.0
가구소득($\chi^2=3.8$)				
60% 미만	16.8	83.2	2,902	100.0
60-80% 미만	16.8	83.2	2,087	100.0
80-100% 미만	17.2	82.8	2,348	100.0
100-120% 미만	18.2	81.8	2,147	100.0
120-140% 미만	17.9	82.1	1,379	100.0
140-160% 미만	18.5	81.5	1,083	100.0
160% 이상	17.2	82.8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최근 1년간 생식 건강과 관련된 증상(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 등 생리 관련 증상,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 등이며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등)을 경험한 성인(19~49세) 남녀 2,485명을 대상으로 해당 증상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의 질문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전체의 54.7%는 병의원을 방문했고 26.2%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한 반면, 전체 응답자의 21.8%는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증상에 아무 대처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한 경우가 5.0%p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가 증상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던 집단은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으로 33.8%가 증상에 대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160%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6.9%만이 증상에 대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높았으나 증상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한의원을 이용하거나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54.0%로 남성의 경우보다 11.9%p 낮게 나타난 반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한 비율은 27.3%로 남성의 경우보다 15.1%p 높게 나타났고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남성의 경우보다 6.4%p 낮게 나타났다.

〈표 6-2〉 증상 대처 방법(복수 응답)

(단위: %, 명)

구 분	병의원 방문	(비처방) 약국방문	한의원 방문	민간요법 등 적용	대처하지 않음	기타	사례수
전체	54.7	26.2	2.9	2.2	21.8	0.1	2,485
지역							
동부	55.3	26.5	2.9	2.2	21.1	0.1	2,081
읍면부	51.9	24.5	3.0	1.8	26.1	0.2	377
성별							
남자	64.1	12.2	3.1	0.2	27.8	0.0	183
여자	54.0	27.3	2.9	2.3	21.4	0.1	2,276
연령							
19-24세	41.9	33.8	2.1	3.2	26.2	0.0	437
25-29세	51.2	36.1	2.7	0.7	20.6	0.0	456
30-34세	62.5	28.7	1.7	1.1	13.0	0.0	343
35-39세	58.8	24.0	2.7	2.7	17.8	0.2	365
40-44세	55.5	20.0	3.3	1.7	25.7	0.0	412
45-49세	61.0	14.1	4.7	3.4	25.4	0.4	445
교육							
고졸이하	53.9	24.5	2.2	2.7	25.0	0.1	692
대졸	55.6	27.1	3.4	2.0	19.8	0.1	1,658
대학원졸	46.9	23.2	1.1	0.9	33.8	0.0	108
혼인상태							
미혼	47.3	33.2	2.5	2.3	22.4	0.0	939
기혼	59.4	21.8	3.2	2.1	21.5	0.2	1,519
취업여부							
취업	56.7	25.9	3.0	1.9	20.6	0.0	1,465
비취업	51.8	26.5	2.8	2.6	23.6	0.2	993
가구소득							
60% 미만	54.5	21.2	2.1	0.9	26.2	0.0	487
60-80% 미만	57.3	24.9	2.7	1.9	20.4	0.3	350
80-100% 미만	52.9	26.7	2.7	2.8	23.5	0.2	404
100-120% 미만	54.0	27.9	4.1	3.1	22.2	0.2	392
120-140% 미만	54.5	25.8	2.6	1.5	20.5	0.0	247
140-160% 미만	56.4	25.8	3.7	5.1	20.5	0.0	201
160% 이상	54.9	31.8	2.9	1.3	16.9	0.0	379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생식 건강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병의원과 약국 방문을 한 비율이 각각 3.4%p, 2.0%p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30~40대와 비교해서 병의원 방문의 비율이 낮고 약국 방문의 높은 특징을 보인다.

혼인 상태에 있어서 기혼인 경우는 미혼인 경우보다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이 12.1%p 높고 약국을 이용한 비율이 11.4%p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취업한 경우는 비취업한 경우보다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이 4.8%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 생식 건강과 관련된 증상(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 등 생리 관련 증상,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 등이며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등)을 경험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성인(19~49세) 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80.4%는 ‘금방 회복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8.0%)’, ‘시간이 부족해서(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응답한 비율은 14.0%로 응답자 특성별 집단 중 가구소득 60% 미만인 경우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3〉 증상으로 병의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1.6	8.0	1.8	6.5	0.8	80.4	0.8	1,113 100.0
지역								
동부	1.7	7.9	1.8	5.7	0.9	81.2	0.8	931 100.0
읍면부	1.2	8.8	2.0	10.4	0.2	76.8	0.5	182 100.0
성별								
남자	4.7	14.0	2.0	19.4	1.3	58.6	0.0	66 100.0
여자	1.4	7.7	1.8	5.7	0.8	81.8	0.8	1,047 100.0
연령								
19-24세	3.3	7.8	2.1	5.3	1.0	79.5	1.0	254 100.0
25-29세	1.4	6.0	2.4	7.5	1.4	80.4	0.9	223 100.0
30-34세	0.3	8.2	2.2	5.5	0.6	83.2	0.0	129 100.0
35-39세	0.8	10.6	1.6	5.5	0.2	80.1	1.3	150 100.0
40-44세	1.1	7.9	1.6	7.8	0.3	80.9	0.4	183 100.0
45-49세	1.5	8.7	1.1	7.2	1.0	79.7	0.9	173 100.0
교육								
고졸이하	2.0	9.1	2.3	5.8	1.1	79.3	0.5	319 100.0
대졸	1.6	7.6	1.8	6.4	0.8	81.0	0.8	736 100.0
대학원졸	0.0	7.1	0.0	11.1	0.0	80.0	1.7	57 100.0
혼인상태								
미혼	2.6	8.2	1.8	6.2	1.0	79.1	1.1	495 100.0
기혼	0.7	7.9	1.9	6.7	0.7	81.5	0.5	617 100.0
취업여부($\chi^2=17.2$)								
취업	1.2	7.9	1.5	8.4	1.1	79.6	0.3	634 100.0
비취업	2.1	8.2	2.3	4.0	0.4	81.5	1.4	479 100.0
가구소득								
60% 미만	2.8	14.1	3.3	6.9	0.7	70.6	1.6	222 100.0
60-80% 미만	0.0	5.8	0.8	6.3	0.5	86.2	0.4	150 100.0
80-100% 미만	0.3	7.4	2.6	7.8	1.6	79.2	1.0	190 100.0
100-120% 미만	1.9	8.4	2.4	4.6	0.8	80.5	1.5	180 100.0
120-140% 미만	0.4	6.0	0.0	6.5	0.0	87.0	0.0	112 100.0
140-160% 미만	3.8	2.6	1.8	9.1	0.9	81.8	0.0	88 100.0
160% 이상	2.2	6.5	0.7	5.2	0.9	84.5	0.0	171 100.0

주: 1) 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②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③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⑥ 금방 회복될 것 같아서 ⑦ 기타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피임

조사를 완료한 성인(19~49세) 남녀 14,149명을 대상으로 생애기간 동안의 피임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8%가 피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험이 있는 만 19~49세 남녀의 96.4%는 피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만 19~49세 남녀는 응답자 특성별 집단의 차이 없이 모두 약 94.6~97.7%가 피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를 완료한 성인(19~49세) 남녀 14,149명을 대상으로 피임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등 언론 매체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교육)(45.6%),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32.4%), 병원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은 인터넷 등 언론 매체(52.5%), 학교(교육)(43.8%)로부터 피임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원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이 30.6%로 다른 비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병원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로부터의 피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기혼의 경우 병원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로부터 피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로 미혼인 경우와 비교해 18.7%p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및 애인 등 상대방으로부터 피임에 대한 지식을 획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미혼인 경우와 비교해 14.1%p 높게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6-4〉 피임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성경험 없음	합계	
전체	83.8	3.1	13.1	14,149	100.0
지역($\chi^2=3.9$)					
동부	83.9	3.0	13.1	11,738	100.0
읍면부	83.2	3.8	13.0	2,410	100.0
성별($\chi^2=11.7^*$)					
남자	84.6	2.7	12.7	7,117	100.0
여자	82.9	3.6	13.6	7,032	100.0
연령($\chi^2=4104.8^{***}$)					
19-24세	46.2	2.7	51.2	2,430	100.0
25-29세	80.7	2.6	16.7	2,318	100.0
30-34세	91.1	3.3	5.6	2,077	100.0
35-39세	95.5	2.9	1.6	2,358	100.0
40-44세	95.5	3.2	1.3	2,578	100.0
45-49세	94.3	4.2	1.5	2,387	100.0
교육($\chi^2=65.5^{***}$)					
고졸이하	83.3	3.4	13.3	3,914	100.0
대졸	83.2	3.1	13.7	9,561	100.0
대학원졸	94.3	2.6	3.1	673	100.0
혼인상태($\chi^2=2863.7^{***}$)					
미혼	66.4	2.9	30.7	6,049	100.0
기혼	96.7	3.3	0.0	8,099	100.0
취업여부($\chi^2=862.9^{***}$)					
취업	89.6	2.9	7.5	9,704	100.0
비취업	71.0	3.7	25.3	4,445	100.0
가구소득($\chi^2=91.6^{***}$)					
60% 미만	79.9	4.6	15.6	2,902	100.0
60-80% 미만	88.1	2.7	9.2	2,087	100.0
80-100% 미만	84.0	3.1	12.9	2,348	100.0
100-120% 미만	86.3	2.4	11.3	2,147	100.0
120-140% 미만	82.9	3.3	13.8	1,379	100.0
140-160% 미만	85.0	2.0	13.0	1,083	100.0
160% 이상	82.0	2.9	15.1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6-5〉 피임 지식 획득 경로(복수 응답)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례수
전체	19.6	3.0	13.4	59.4	45.6	17.5	4.4	32.4	0.1	27,641
지역										
동부	19.6	2.8	13.6	59.8	45.3	17.1	4.2	31.6	0.1	11,738
읍면부	19.6	3.9	12.5	57.4	46.9	19.4	5.2	36.2	0.1	2,410
성별										
남자	8.7	3.1	15.6	66.3	47.3	15.5	3.2	36.7	0.2	7,117
여자	30.6	2.8	11.3	52.5	43.8	19.5	5.6	28.0	0.1	7,032
연령										
19-24세	6.5	3.0	7.7	60.7	71.9	7.7	8.3	27.9	0.3	2,430
25-29세	13.5	3.4	11.7	64.7	59.9	14.0	5.4	30.1	0.1	2,318
30-34세	19.7	3.7	11.0	64.2	51.5	17.6	3.3	30.4	0.2	2,077
35-39세	23.9	2.9	14.8	63.3	37.1	20.7	3.3	30.6	0.0	2,358
40-44세	25.0	2.4	16.4	56.8	28.6	22.8	3.0	35.4	0.0	2,578
45-49세	28.7	2.6	18.6	47.8	26.2	21.8	3.1	39.2	0.2	2,387
교육										
고졸이하	20.4	3.2	12.0	52.5	41.5	18.3	5.0	37.0	0.1	3,914
대졸	18.9	3.0	13.6	61.8	47.7	17.2	4.3	30.9	0.1	9,561
대학원졸	25.5	2.1	18.8	65.2	38.1	16.7	2.5	26.9	0.1	673
혼인상태										
미혼	8.9	3.1	11.7	64.6	60.8	9.4	5.8	30.6	0.2	6,049
기혼	27.6	2.9	14.8	55.6	34.2	23.5	3.3	33.7	0.0	8,099
취업여부										
취업	19.0	3.0	14.8	61.2	42.4	18.6	3.9	34.7	0.1	9,704
비취업	20.8	2.9	10.4	55.6	52.4	15.1	5.4	27.3	0.1	4,445
가구소득										
60% 미만	13.4	3.9	12.6	58.8	50.6	15.0	3.8	32.6	0.2	2,902
60-80% 미만	21.4	2.9	12.6	59.6	43.3	18.3	4.2	34.1	0.0	2,087
80-100% 미만	22.0	2.8	12.6	58.9	42.6	17.6	3.5	31.2	0.1	2,348
100-120% 미만	21.8	2.9	14.3	58.6	44.1	18.4	5.3	33.8	0.1	2,147
120-140% 미만	20.8	3.2	15.0	59.9	44.0	18.1	4.5	32.3	0.1	1,379
140-160% 미만	22.3	3.0	14.0	62.0	46.2	19.8	5.2	35.0	0.0	1,083

주: 1) ① 병의원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 ②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③ 잡지, 책 ④ 인터넷 등 언론 매체 ⑤ 학교(교육) ⑥ 배우자·애인 등 상대방 ⑦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친척 ⑧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 ⑨ 기타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를 완료한 성인(19~49세) 남녀 14,149명 중 성경험이 없거나 상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9,550명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 및 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53.8%는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28.6%는 대부분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24세는 64.0%, 25~29세는 58.3%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미혼인 경우는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6.5%로 기혼인 경우(50.8%)보다 높게 나타나 15.7%p의 차이를 보인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2.6%로 나타났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은 13.7%로 남성의 경우(11.3%)보다 2.4%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집단 중에서는 19~24세의 경우는 3.5%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경우는 9.3%만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15.5%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미혼인 경우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0.8%로 다른 모든 집단 보나 낮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15.4%)보다 14.6%p 높게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6-6〉 현재의 피임 실천

(단위: %, 명)

구 분	항상 함	대부분 하는 편임	하지 않는 편임	전혀 하지 않음	합계	
전체	53.8	28.6	4.9	12.6	9,550	100.0
지역($\chi^2=1.4$)						
동부	53.8	28.8	5.0	12.5	7,896	100.0
읍면부	54.0	27.9	4.8	13.4	1,654	100.0
성별($\chi^2=12.9^{**}$)						
남자	54.3	29.2	5.2	11.3	4,442	100.0
여자	53.4	28.2	4.8	13.7	5,108	100.0
연령($\chi^2=153.9^{***}$)						
19-24세	64.0	29.9	2.6	3.5	585	100.0
25-29세	58.3	29.5	2.8	9.3	1,203	100.0
30-34세	50.0	27.9	5.1	17.0	1,521	100.0
35-39세	49.8	31.6	5.2	13.4	2,034	100.0
40-44세	54.3	29.2	5.3	11.1	2,217	100.0
45-49세	54.5	24.6	6.1	14.7	1,990	100.0
교육($\chi^2=32.1^{***}$)						
고졸이하	53.2	26.2	5.1	15.5	2,547	100.0
대졸	54.2	29.5	4.9	11.5	6,426	100.0
대학원졸	52.1	29.6	5.5	12.8	577	100.0
혼인상태($\chi^2=360.3^{***}$)						
미혼	66.5	30.8	1.9	0.8	1,813	100.0
기혼	50.8	28.1	5.7	15.4	7,737	100.0
취업여부($\chi^2=1.0$)						
취업	53.7	28.8	5.0	12.5	7,091	100.0
비취업	54.0	28.0	4.9	13.1	2,459	100.0
가구소득($\chi^2=24.8$)						
60% 미만	54.3	28.4	3.9	13.4	1,321	100.0
60-80% 미만	52.5	29.0	4.7	13.8	1,508	100.0
80-100% 미만	54.2	26.6	5.5	13.6	1,716	100.0
100-120% 미만	53.7	29.0	5.5	11.8	1,650	100.0
120-140% 미만	52.6	30.8	5.0	11.6	988	100.0
140-160% 미만	51.0	30.4	5.5	13.1	80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피임 방법은 피임을 실천하는 사람의 피임 목적, 피임 효과, 개인의 선호,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배우자 및 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는지에 대해 ‘항상 한다’, ‘대부분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즉 현재 피임을 하고 있는 성인(19~49세) 남녀 8,345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피임 방법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콘돔의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질외사정(20.9%), 월경주기(18.5%), 정관절제수술 및 정관결찰수술 등 남성의 반영구 피임술(8.7%)의 방법의 순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19~24세의 경우는 91.3%가 콘돔을 사용하고 있으며 25~29세의 경우는 86.7%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일시적 피임 방법인 콘돔의 사용 비율은 감소하고 반영구적 피임 방법인 자궁내 피임장치와 난관절제수술 및 난관결찰수술 등 여성 반영구 피임술과 정관절제수술 및 정관결찰수술 등 남성의 반영구 피임술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연령층인 경우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연령층인 경우는 터울 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7〉 피임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사례수
전체	41.5	0.2	0.3	0.2	3.6	0.3	3.4	0.3	2.1	8.7	18.5	20.9	0.0	12,168
지역														
동부	61.9	0.3	0.5	0.3	5.4	0.4	4.3	0.4	2.6	12.4	27.4	31.0	0.1	6,912
읍면부	53.4	0.4	0.7	0.3	4.9	0.5	7.9	0.4	5.3	13.9	25.0	28.3	0.0	1,433
성별														
남자	67.6	0.1	0.3	0.3	4.0	0.3	3.2	0.2	2.3	11.0	20.6	31.8	0.0	3,938
여자	54.0	0.4	0.7	0.3	6.5	0.5	6.5	0.6	3.7	14.1	32.7	29.4	0.0	4,406
연령														
19-24세	91.3	2.0	0.8	0.2	9.0	0.4	1.1	1.4	0.0	.1	17.3	16.1	0.0	565
25-29세	86.7	0.1	0.4	0.4	11.4	0.2	1.5	1.3	0.2	1.0	21.6	23.2	0.0	1,091
30-34세	71.6	0.3	0.2	0.2	7.0	0.7	3.1	0.4	0.7	6.8	29.6	32.3	0.0	1,262
35-39세	59.5	0.1	0.5	0.2	4.2	0.1	3.5	0.2	2.0	12.8	30.5	35.1	0.0	1,760
40-44세	49.0	0.2	0.7	0.4	3.1	0.5	6.3	0.1	4.0	18.5	29.2	34.2	0.0	1,970
45-49세	39.3	0.1	0.6	0.3	2.6	0.5	9.7	0.2	7.6	21.6	25.4	29.5	0.2	1,697
교육														
고졸이하	50.1	0.4	0.9	0.4	5.8	0.4	8.7	0.6	6.1	13.5	22.6	29.0	0.0	2,151
대졸	64.5	0.2	0.4	0.3	5.2	0.3	3.7	0.4	2.0	12.2	28.3	31.0	0.1	5,690
대학원졸	58.4	0.4	0.3	0.2	4.3	1.0	2.9	0.0	1.6	14.2	30.4	31.5	0.0	503
혼인상태														
미혼	93.3	0.7	0.5	0.4	9.7	0.3	.7	1.1	0.0	.1	16.7	17.0	0.0	1,799
기혼	51.4	0.2	0.5	0.2	4.1	0.4	6.1	0.2	3.9	16.1	29.8	34.2	0.1	6,546
취업여부														
취업	61.6	0.2	0.5	0.2	5.0	0.3	5.0	0.4	3.0	12.6	25.9	31.4	0.0	6,207
비취업	57.2	0.6	0.7	0.5	6.1	0.6	4.7	0.5	3.2	12.7	30.2	27.9	0.0	2,138
가구소득														
60% 미만	74.0	0.6	0.5	0.7	9.0	0.3	2.6	1.4	2.3	3.6	23.4	27.0	0.1	1,144
60-80% 미만	59.8	0.2	0.6	0.1	4.9	0.3	4.8	0.2	3.4	11.7	27.7	28.8	0.0	1,300
80-100% 미만	58.3	0.2	0.4	0.3	5.0	0.3	5.5	0.3	3.5	15.9	24.0	30.1	0.0	1,482
100-120% 미만	58.7	0.2	0.9	0.1	4.3	0.2	5.2	0.3	2.6	14.0	27.8	31.2	0.0	1,455
120-140% 미만	56.7	0.1	0.3	0.1	4.5	0.1	6.6	0.4	4.2	14.9	28.8	31.3	0.3	874
140-160% 미만	58.4	1.0	0.7	0.8	4.0	0.5	4.9	0.2	3.5	14.6	29.0	32.2	0.0	701
160% 이상	57.6	0.1	0.2	0.3	5.1	1.0	5.0	0.1	2.4	13.6	29.5	33.3	0.0	1,388

주: 1) ① 콘돔(남성용) ② 페미돔(여성용) ③ 질내삽입기구 ④ 살정제 ⑤ 경구 피임약(사전) ⑥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 ⑦ 자궁 내 피임장치 ⑧ 응급피임약(사후) ⑨ 여성 반영구 피임술 ⑩ 남성 반영구 피임술 ⑪ 월경주기 ⑫ 질외사정 ⑬ 기타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배우자 및 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전혀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19~49세) 남녀 1,205명을 대상으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이유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6.5%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가 피임의 필요가 없어서(난임 등)(20.9%)', '임신 중이어서(19.1%)',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12.7%)' 등의 순서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미혼인 경우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를 주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32.0%로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6-8〉 피임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합계	
전체	36.5	0.9	20.9	0.7	0.0	-	1.7	19.1	12.7	2.2	5.3	1,205	100.0
지역													
동부	35.2	0.8	21.4	0.9	0.0	-	1.9	19.8	12.0	2.1	5.9	984	100.0
읍면부	42.0	1.2	18.7	0.0	0.1	-	0.9	16.3	15.6	2.6	2.6	221	100.0
성별													
남자	41.6	0.0	15.1	1.2	0.1	-	3.0	20.4	12.7	2.4	3.5	504	100.0
여자	32.8	1.5	25.0	0.4	0.0	-	0.8	18.2	12.6	2.0	6.6	702	100.0
연령													
19-24세	24.6	0.0	0.0	0.0	0.0	-	0.0	68.0	0.0	7.4	0.0	20	100.0
25-29세	51.5	0.0	0.0	0.0	0.0	-	0.0	40.3	4.3	1.0	2.9	112	100.0
30-34세	46.6	0.7	3.7	0.0	0.0	-	2.4	36.1	6.4	0.3	3.9	259	100.0
35-39세	44.0	0.3	10.1	2.7	0.0	-	2.6	23.6	11.0	0.6	5.0	273	100.0
40-44세	40.8	2.5	22.1	0.2	0.0	-	2.3	4.2	16.2	5.6	6.1	247	100.0
45-49세	12.0	0.6	54.5	0.2	0.1	-	0.7	1.0	20.9	2.5	7.5	293	100.0
교육													
고졸이하	33.8	1.1	26.8	0.1	0.1	-	1.3	14.8	13.3	3.3	5.4	395	100.0
대졸	37.4	0.5	18.4	1.1	0.0	-	2.1	21.4	12.1	1.3	5.7	736	100.0
대학원졸	42.2	3.0	14.1	0.0	0.0	-	0.0	19.4	14.8	5.4	1.1	74	100.0
혼인상태													
미혼	25.5	0.0	7.9	0.0	0.0	-	3.0	10.1	7.8	32.0	13.6	15	100.0
기혼	36.6	0.9	21.0	0.7	0.0	-	1.7	19.2	12.7	1.8	5.2	1,190	100.0
취업여부													
취업	38.5	1.0	21.4	1.0	0.0	-	1.9	17.9	12.8	1.9	3.6	884	100.0
비취업	30.8	0.6	19.3	0.1	0.0	-	1.2	22.6	12.4	2.9	10.1	321	100.0
가구소득													
60% 미만	32.5	2.2	12.2	0.1	0.0	-	1.9	30.6	12.1	2.9	5.4	177	100.0
60-80% 미만	38.1	0.3	23.5	0.3	0.0	-	0.3	21.5	10.3	1.6	4.1	208	100.0
80-100% 미만	47.0	0.3	17.9	0.9	0.0	-	1.3	13.3	14.2	2.6	2.4	234	100.0
100-120% 미만	34.1	1.4	26.7	1.7	0.0	-	0.7	14.4	13.3	1.7	5.9	195	100.0
120-140% 미만	38.7	0.2	20.1	1.4	0.0	-	2.5	22.0	11.0	2.2	1.9	114	100.0
140-160% 미만	22.3	2.1	25.4	0.0	0.0	-	4.7	18.5	10.5	1.2	15.3	105	100.0
160% 이상	34.2	0.0	21.7	0.4	0.2	-	2.7	16.2	15.9	2.7	6.1	172	100.0

주: 1) ① 내가 임신을 원해서 ② 나의 건강 문제 ③ 내가 피임의 필요가 없어서(난임 등) ④ 내가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 ⑤ 내가 피임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⑥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⑦ 임신 중 ⑧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⑨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⑩ 기타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성경험이 있는 성인(19~49세) 남녀 12,243명을 대상으로 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누가 주로 하는 지 피임의 결정의 주도권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2.0%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라고 응답하였고 23.6%는 ‘주로 내가’를 응답하였으며 14.4%는 ‘주로 상대방이’를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30.3%가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고 8.5%만이 주로 상대방이 피임에 관해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6.6%만이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력이 고학력이 될수록 ‘나와 상대방이 함께’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며 ‘주로 내가’ 피임 관련 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여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취업자는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주로 내가’ 피임 관련 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p 높게 나타났고 ‘주로 상대방이’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p 낮게 나타나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피임 관련 결정의 주도권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9〉 피임 관련 결정의 주도권

(단위: %, 명)

구 분	주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주로 상대방이	합계	
전체	23.6	62.0	14.4	12,243	100.0
지역($\chi^2=12.7^{**}$)					
동부	23.1	62.7	14.2	10,161	100.0
읍면부	25.8	58.6	15.6	2,082	100.0
성별($\chi^2=551.2^{***}$)					
남자	30.3	61.2	8.5	6,186	100.0
여자	16.6	62.9	20.5	6,057	100.0
연령($\chi^2=135.7^{***}$)					
19-24세	27.4	61.7	10.9	1,159	100.0
25-29세	23.5	66.8	9.7	1,918	100.0
30-34세	22.2	65.0	12.8	1,956	100.0
35-39세	20.4	63.6	16.0	2,320	100.0
40-44세	23.7	61.1	15.2	2,538	100.0
45-49세	25.7	55.2	19.2	2,352	100.0
교육($\chi^2=65.1^{***}$)					
고졸이하	28.0	56.7	15.3	3,381	100.0
대졸	22.1	63.9	14.1	8,210	100.0
대학원졸	19.3	66.0	14.7	652	100.0
혼인상태($\chi^2=231.1^{***}$)					
미혼	29.9	61.0	9.1	4,148	100.0
기혼	20.3	62.5	17.2	8,096	100.0
취업여부($\chi^2=25.0^{***}$)					
취업	24.5	61.9	13.7	8,950	100.0
비취업	21.1	62.4	16.5	3,294	100.0
가구소득($\chi^2=53.0^{***}$)					
60% 미만	26.9	61.1	11.9	2,433	100.0
60-80% 미만	23.3	62.2	14.5	1,889	100.0
80-100% 미만	24.4	59.5	16.1	2,042	100.0
100-120% 미만	22.3	62.1	15.6	1,898	100.0
120-140% 미만	22.5	62.8	14.8	1,183	100.0
140-160% 미만	22.6	60.0	17.4	941	100.0
160% 이상	20.9	66.1	13.0	1,85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난임

세계보건기구(WHO)⁷⁾에서는 난임(infertility)을 남녀가 임신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어떤 피임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교를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3,429명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난임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17.2%는 본인과 현재의 배우자가 임신을 하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혼 연령과 기혼 여성의 연령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경험이 없는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38.7%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경우의 난임 경험률은 19.1%로 나타났고 출생아 수가 2명인 경우는 12.3%로 출생아 수가 3명 이상인 경우는 9.3%로 출생아 수가 증가할수록 난임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7)WHO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infertility>에서 2021. 10. 30. 인출.

〈표 6-10〉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17.2	82.8	3,429	100.0
초혼 연령($\chi^2=76.4^{***}$)				
24세 이하	9.4	90.6	518	100.0
25-29세	16.0	84.0	1,616	100.0
30-34세	18.9	81.1	996	100.0
35세 이상	31.9	68.1	300	100.0
출생아 수($\chi^2=344.3^{***}$)				
0명	38.7	61.4	395	100.0
1명	19.1	80.9	1,091	100.0
2명	12.3	87.7	1,598	100.0
3명 이상	9.3	90.7	344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을 경험한 여성 59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난임 검사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난임 검사를 받은 경우는 48.4%로 나타났고 여성만 받은 경우는 10.5%로 나타났으며 남성만 받은 경우는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난임을 경험했으나 난임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도 3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난임을 경험한 경우의 60.9%가 난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할수록 난임검사를 받은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검사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나만 받았다	배우자만 받았다	모두 받았다	모두 받지 않았다	합계	
전체	10.5	2.0	48.4	39.1	590	100.0
가구소득($\chi^2=25.9$)						
60% 미만	7.7	2.9	45.4	44.0	52	100.00
60-80% 미만	9.5	2.4	47.0	41.1	88	100.00
80-100% 미만	11.2	1.3	49.5	38.0	124	100.00
100-120% 미만	19.8	1.1	44.6	34.6	102	100.00
120-140% 미만	5.3	1.9	50.8	42.0	66	100.00
140-160% 미만	9.8	5.4	51.5	33.3	50	100.00
160% 이상	6.6	1.5	50.4	41.4	107	100.00
출생아 수($\chi^2=12.3$)						
0명	11.6	1.5	49.5	37.4	153	100.00
1명	10.8	2.5	52.4	34.3	209	100.00
2명	10.4	2.3	43.1	44.2	197	100.00
3명 이상	3.4	0.0	49.8	46.8	32	100.00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을 경험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경험한 여성 360명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경험에 관해 질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은 여성의 65.7%는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생아가 0명인 경우 난임 시술 경험률은 53.8%, 1명인 경우는 66.8%, 2명인 경우는 72.2%, 3명 이상인 경우는 80.9%로 나타났고 이러한 출생아 수에 따른 시술 경험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에 따른 경향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나 대체로 난임 시술에 성공한 경우 또 다시 난임 시술을 시도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6-12〉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65.7	34.3	360	100.0
가구소득($\chi^2=4.7$)				
60% 미만	63.7	36.3	29	100.0
60-80% 미만	65.4	34.6	52	100.0
80-100% 미만	65.2	34.8	77	100.0
100-120% 미만	58.2	41.8	67	100.0
120-140% 미만	61.3	38.8	38	100.0
140-160% 미만	77.7	22.3	34	100.0
160% 이상	71.6	28.4	63	100.0
출생아 수($\chi^2=12.0^{***}$)				
0명	53.8	46.2	96	100.0
1명	66.8	33.2	137	100.0
2명	72.2	27.8	110	100.0
3명 이상	80.9	19.1	17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은 여성 236명을 대상으로 시술 과정에서의 힘들었던 점에 관해 질문한 결과, 정신적인 고통과 고립감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어려움(26.6%), 경제적 부담(2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3〉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 중 힘들었던 점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6	100.0
경제적 부담	48	20.4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97	40.9
배우자 등의 비협조와 무관심	0	0.1
가족 간 갈등	1	0.3
사회적 편견	4	1.5
신체적 불편감 또는 고통	63	26.6
시간 부족	10	4.0
직장(결근, 비협조적 분위기 등)	11	4.8
기타	3	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은 여성 236명의 마지막 난임 시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후 출산인 경우(68.0%)와 현재 임신 중인 경우(6.5%)를 포함하여 난임 시술한 여성의 74.5%가 시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되었으나 출산이 안 된 경우는 4.8%, 임신이 안 된 경우는 18.6%로 나타났다.

〈표 6-14〉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마지막 난임 시술 결과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6	100.0
임신 후 출산하였다	161	68.0
현재 임신 중이다	15	6.5
임신되었으나 출산하지 못했다	11	4.8
임신이 안 되었다	44	18.6
현재 시술 중이다	5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산전·산후관리와 분만

이 절에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2018년 9월 2일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 및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와 분만 방법과 임신 결과, 그리고 산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는 1건의 미혼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1. 산전관리

대한산부인과학회⁸⁾에 따르면 산전관리(임신 전 관리)란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서 임신 전에 기본적인 진찰과 검사를 시행하고 특정 기왕력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여성 811명은 모두 산전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산전관리 장소를 살펴보면, 대부분(89.8%)이 병원 및 의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종합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는 9.6%로 나타났고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산전관리를 받는 경우는 0.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출산 시 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20대(18~24세 2.7% 및 25~29세 6.9%)와 비교해서 종합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특히 30대 초반은 초산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위험 임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졸 이하인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8) 대한산부인과학회 <https://ksog.org/public/index.php>에서 2021. 10. 30. 인출.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5.2%에 불과했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은 비율(대졸 10.0% 및 대학원 졸 17.4%)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15〉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장소

(단위: %, 명)

구 분	종합병원	병의원	기타	받은 적 없음	합계	
전체	9.6	89.8	0.6	0.0	811	100.0
지역						
동부	9.9	89.8	0.2	0.1	654	100.0
읍면부	7.9	90.2	1.9	0.0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2.7	94.7	2.6	0.0	62	100.0
25-30세 미만	6.9	92.2	0.8	0.2	207	100.0
30-35세 미만	13.4	86.2	0.4	0.0	338	100.0
35-40세 미만	6.9	93.1	0.0	0.0	183	100.0
40-45세 미만	16.5	83.5	0.0	0.0	22	100.0
교육						
고졸이하	5.2	93.6	1.1	0.0	174	100.0
대졸	10.0	89.8	0.2	0.1	573	100.0
대학원졸	17.4	80.2	2.4	0.0	64	100.0
가구소득						
60% 미만	3.2	95.8	1.1	0.0	91	100.0
60-80% 미만	7.1	92.9	0.0	0.0	179	100.0
80-100% 미만	7.5	91.1	1.1	0.2	149	100.0
100-120% 미만	10.5	88.1	1.4	0.0	139	100.0
120-140% 미만	14.5	85.5	0.0	0.0	68	100.0
140-160% 미만	16.7	83.3	0.0	0.0	59	100.0
160% 이상	13.0	87.0	0.0	0.0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9.0	90.3	0.6	0.1	425	100.0
둘째아 이상	10.1	89.4	0.5	0.0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산전관리는 임신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전관리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산전 초진 시기를 토대로 산출된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여성 811명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기관에서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진 시기는 평균 임신 5.3주로 나타났다. 출산한 여성의 31.4%가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가 임신 5~8주 사이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진 시기가 가장 늦은 여성 집단은 18~25세의 여성 집단으로 평균 임신 5.64주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일찍 초진을 받은 집단은 첫째아 출산 여성 집단으로 평균 임신 5.17주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초진 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인 경우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27.4%로 첫째아의 경우(35.0%)보다 7.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아 이상의 경우는 임신 9주 이후에 초진을 받은 경우도 4.5%로 나타나 첫째아의 경우보다 2.8%p 높게 나타났다. 즉, 출생 순위가 늦을수록 산전관리를 위한 보건 의료기관의 방문이 늦어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의 평균 초진 시기는 임신 5.48주로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초진 시기와 비교해서 다소 늦은(0.31주)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전관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나 첫째아 출산 시기와 비교해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전관리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표 6-16〉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초진 시기

(단위: %, 명, 주)

구 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합계	평균 초진 시기
전체	31.4	65.6	2.5	0.5	100.0 811	5.32
지역						
동부	31.2	65.6	2.5	0.7	100.0 653	5.33
읍면부	32.1	65.5	2.4	0.0	100.0 157	5.27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30.0	63.3	4.2	2.6	100.0 62	5.64
25-30세 미만	32.9	65.9	0.8	0.3	100.0 206	5.19
30-35세 미만	29.3	67.9	2.4	0.4	100.0 338	5.32
35-40세 미만	32.8	63.5	3.4	0.3	100.0 183	5.31
40-45세 미만	41.0	52.3	6.7	0.0	100.0 22	5.60
교육						
고졸이하	34.4	60.3	4.1	1.3	100.0 174	5.43
대졸	30.4	67.7	1.5	0.4	100.0 573	5.24
대학원졸	32.0	61.5	6.5	0.0	100.0 64	5.72
가구소득						
60% 미만	32.0	66.5	1.4	0.0	100.0 91	5.18
60-80% 미만	36.1	61.3	2.1	0.5	100.0 179	5.21
80-100% 미만	29.3	67.3	2.4	1.0	100.0 149	5.41
100-120% 미만	27.1	70.7	1.7	0.5	100.0 139	5.32
120-140% 미만	28.7	68.0	2.0	1.4	100.0 68	5.37
140-160% 미만	21.7	76.9	1.4	0.0	100.0 59	5.50
160% 이상	37.3	56.9	5.6	0.2	100.0 126	5.34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9.6^*$)						
첫째아	35.0	63.3	1.3	0.4	100.0 424	5.17
둘째아 이상	27.4	68.2	3.8	0.7	100.0 386	5.48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산전관리를 위해서는 초진 시기 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의 횟수도 중요하다. 산전 수진 횟수는 산전관리 수준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여성 811명의 산전관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산전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방문한 평균 횟수는 13.4회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5회 이하의 산전 수진을 받은 경우는 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 여성의 특성에 따른 산전 수진 횟수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과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산전 수진이 5회 이하인 비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고졸이하의 경우 6.6%가 5회 이하의 산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산전 수진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평균 14.0회의 산전 진찰을 받은 반면,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평균 12.8회의 산전 진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첫째아 출산의 경우 5회 이하의 산전 진찰을 받은 여성은 1.6%에 불과했으나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3.0%의 여성이 5회 이하의 산전 진찰을 받아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한 산전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17〉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전 수진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합계	평균
전체	2.3	27.5	48.1	17.9	4.3	100.0 811	13.42
지역($\chi^2=4.9$)							
동부	1.9	27.4	48.1	17.8	4.9	100.0 653	13.51
읍면부	3.9	27.8	48.5	18.0	1.9	100.0 157	13.04
출산 시 모연령($\chi^2=9.3$)							
18-25세 미만	1.9	36.2	44.6	14.6	2.8	100.0 62	12.71
25-30세 미만	3.3	26.2	47.6	19.4	3.6	100.0 206	13.25
30-35세 미만	2.7	25.7	48.6	18.2	4.8	100.0 338	13.63
35-40세 미만	0.3	29.3	48.0	17.7	4.8	100.0 183	13.56
40-45세 미만	3.0	26.3	57.8	8.7	4.2	100.0 22	12.48
교육							
고졸이하	6.6	31.3	43.6	13.3	5.1	100.0 174	12.76
대졸	1.2	26.1	49.6	19.5	3.6	100.0 573	13.55
대학원졸	0.0	29.1	46.9	15.4	8.7	100.0 64	14.00
가구소득							
60% 미만	2.6	28.2	56.8	10.8	1.7	100.0 91	12.77
60-80% 미만	3.5	26.5	48.5	17.0	4.5	100.0 179	13.21
80-100% 미만	3.5	33.0	49.2	12.7	1.6	100.0 149	12.32
100-120% 미만	1.8	19.9	44.0	27.3	7.0	100.0 139	14.54
120-140% 미만	0.0	26.1	49.8	16.0	8.1	100.0 68	14.41
140-160% 미만	1.1	28.6	45.4	21.6	3.3	100.0 59	13.51
160% 이상	1.0	30.3	45.0	19.2	4.6	100.0 126	13.65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20.8^{***}$)							
첫째아	1.6	21.8	50.3	21.6	4.8	100.0 424	13.98
둘째아 이상	3.0	33.7	45.7	13.7	3.8	100.0 386	12.8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분만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19~49세 여성 811명을 대상으로 분만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5.6%는 병의원(여성전문병원 포함)에서 분만하였고 다음으로 13.5%는 종합병원에서 분만하였다. 적은 수의 여성은 보건의료원(0.6%)과 조산원(0.2%)에서 분만하였다.

〈표 6-18〉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장소

(단위: %, 명)

구 분	종합 병원	병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합계	
전체	13.5	85.6	0.2	0.6	0.0	811	100.0
지역							
동부	13.7	85.9	0.3	0.0	0.0	654	100.0
읍면부	12.7	84.3	0.0	3.0	0.0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9.9	86.0	0.0	4.0	0.0	62	100.0
25-30세 미만	9.1	90.0	0.0	0.9	0.0	207	100.0
30-35세 미만	16.8	82.8	0.1	0.2	0.1	338	100.0
35-40세 미만	11.2	88.0	0.8	0.0	0.0	183	100.0
40-45세 미만	33.7	66.3	0.0	0.0	0.0	22	100.0
교육							
고졸이하	10.6	87.3	0.0	2.1	0.0	174	100.0
대졸	13.3	86.3	0.3	0.0	0.0	573	100.0
대학원졸	23.1	74.8	0.0	1.5	0.5	64	100.0
가구소득							
60% 미만	4.7	94.2	0.0	1.1	0.0	91	100.0
60-80% 미만	13.5	86.3	0.2	0.0	0.0	179	100.0
80-100% 미만	11.7	86.7	0.0	1.3	0.2	149	100.0
100-120% 미만	13.6	84.8	1.1	0.6	0.0	139	100.0
120-140% 미만	14.8	85.2	0.0	0.0	0.0	68	100.0
140-160% 미만	20.6	79.0	0.0	0.4	0.0	59	100.0
160% 이상	17.9	81.4	0.0	0.7	0.0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12.4	87.1	0.1	0.4	0.0	425	100.0
둘째아 이상	14.7	84.0	0.4	0.8	0.1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응답자 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거주 지역, 출산 시 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할 비율이 1.0%p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0대 이하인 경우에 비해 30대 이상인 경우에 종합병원에서의 분만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종합병원에서의 분만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140% 이상)인 경우, 둘째아 출산인 경우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이 높고 종합병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령 출산인 경우에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할 19~49세 여성 811명의 분만 방법(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분만)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자연분만율은 50.3%, 제왕절개분만율은 49.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제왕절개분만율이 12.2%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출산 시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50% 미만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다가 3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은 25~29세 여성의 경우 49.4% 및 30~34세의 경우 47.3% 수준에서 35~39세의 경우 55.9%로 8.6%포인트 증가하였고, 40~44세 여성의 경우는 65.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9〉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방법

(단위: %, 명)

구 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합계	
전체	50.3	49.7	811	100.0
지역($\chi^2=7.6^{***}$)				
동부	52.7	47.3	654	100.0
읍면부	40.5	59.5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chi^2=8.8$)				
18-25세 미만	60.6	39.4	62	100.0
25-30세 미만	50.6	49.4	207	100.0
30-35세 미만	52.7	47.3	338	100.0
35-40세 미만	44.1	55.9	183	100.0
40-45세 미만	34.1	65.9	22	100.0
교육($\chi^2=1.2$)				
고졸이하	53.8	46.2	174	100.0
대졸	49.4	50.6	573	100.0
대학원졸	49.2	50.8	64	100.0
가구소득($\chi^2=10.9$)				
60% 미만	50.0	50.0	91	100.0
60-80% 미만	52.2	47.8	179	100.0
80-100% 미만	49.8	50.2	149	100.0
100-120% 미만	56.6	43.4	139	100.0
120-140% 미만	58.3	41.7	68	100.0
140-160% 미만	37.3	62.7	59	100.0
160% 이상	43.5	56.5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1.0$)				
첫째아	48.7	51.3	425	100.0
둘째아 이상	52.2	47.8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분만 시기의 임신주수 또는 재태주수(gestational age)는 산전관리의 적합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산출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조산

(preterm birth) 및 미숙아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산은 임신주수가 37주 미만의 출산을 의미하며 한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19~49세 여성 811명의 분만 시의 임신주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임신주수는 38.5주로 나타났다. 평균 임신주수는 25세 미만에서 39.0주, 25~29세에서 38.6주, 30~34세에서 38.5주, 35~39세에서 38.4주, 40~44세에서 38.6주로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 시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임신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출산 시 여성의 연령에 따른 평균 임신주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위에 따른 평균 임신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는데,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는 초산인 경우(38.6주)보다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평균 임신주수는 38.4주로 상대적으로 다소 짧게 나타났다.

〈표 6-20〉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

(단위: 주, 명)

구 분	평균 주수	사례수	F/T
전체	38.5	811	
출산 시 모의 연령(전체)			
18-25세 미만	39.0	62	F=2.2*
25-30세 미만	38.6	207	
30-35세 미만	38.5	338	
35-40세 미만	38.4	183	
40-45세 미만	38.6	22	
조사 대상아 출생 순위(전체)			
첫째아	38.6	425	T=1.5
둘째아 이상	38.4	386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산후관리

산후관리(postnatal care 또는 postpartum care)는 산욕기라고 부르는 출산 후 약 6주간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소영, 이상림, 조성호, 최인선, 201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권고안(WHO 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에 따르면 산후 건강관리는 모성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생아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WHO, 2014).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19~49세 여성 811명의 산후 기간에 진찰을 받은 비율(산후 수진율)은 94.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신 중의 산전 수진율이 100%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출산 시 여성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산후 수진율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후 수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추가로, 첫째아 출산의 경우는 산후 수진율이 95.5%였으나 둘째아 이상인 경우의 산후 수진율은 92.9%로 2.6%p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6-21〉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94.3	5.7	811	100.0
지역($\chi^2=.1$)				
동부	94.3	5.7	654	100.0
읍면부	94.0	6.0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83.4	16.6	62	100.0
25-30세 미만	93.0	7.0	207	100.0
30-35세 미만	95.4	4.6	338	100.0
35-40세 미만	97.2	2.8	183	100.0
40-45세 미만	93.7	6.3	22	100.0
교육($\chi^2=15.1$)				
고졸이하	88.2	11.8	174	100.0
대졸	95.7	4.3	573	100.0
대학원졸	97.8	2.2	64	100.0
가구소득($\chi^2=16.3^*$)				
60% 미만	86.6	13.4	91	100.0
60-80% 미만	92.7	7.3	179	100.0
80-100% 미만	94.2	5.8	149	100.0
100-120% 미만	95.4	4.6	139	100.0
120-140% 미만	98.3	1.7	68	100.0
140-160% 미만	97.2	2.8	59	100.0
160% 이상	97.3	2.7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2.4$)				
첫째아	95.5	4.5	425	100.0
둘째아 이상	92.9	7.1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권고안(WHO 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WHO, 2013)에서는 산후 진찰이 필요한 시기를 출산 후 3일, 7~14일, 6주 후로 권고하며 총 3회 이상의 산후 진찰을 권고하고 있다(WHO, 2013).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19~49세 여성 중 산후 진찰을 받은 765명을 대상으로 평균 산후 수진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산후 수진 횟수는 2.3회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시 모의 연령이 18~24세 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산후 약 2.2회의 진찰을 받은 것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응답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2.4회)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2.1회) 약 0.3회 적게 산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HO의 권고안을 감안할 때 산후 진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22〉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평균 산후 수진 횟수

(단위: 회, 명)

구 분	평균 횟수	사례수	F/T
전체	2.3	765	
지역			
동부	2.4	617	T=1.998*
읍면부	2.1	148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2.24	52	
25-30세 미만	2.31	192	F=.105
30-35세 미만	2.35	322	
35-40세 미만	2.26	178	
40-45세 미만	2.41	20	
교육			
고졸이하	2.4	153	F=.256
대졸	2.3	548	
대학원졸	2.4	63	
가구소득			
60% 미만	2.3	79	
60-80% 미만	2.1	166	
80-100% 미만	2.1	141	F=1.294
100-120% 미만	2.6	133	
120-140% 미만	2.4	67	
140-160% 미만	2.5	57	
160% 이상	2.4	123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2.31	405	T=-.101
둘째아 이상	2.32	359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우울은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과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으로 구분된다. 산후우울감은 산후우울증의 가장 약한 형태로 분만 후 50-70%의 산모에서 경증의 산후우울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9). 산후우울감은 대체로 분만 후 2~4일 내에 시작되어 4일째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10일이 지난 후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19~49세 여성 811명을 대상으로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34.8%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아의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산모의 38.0%가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 경험한 것에 비해 둘째아 이상의 산모는 31.4%만이 산후우울감을 경험하여 차이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산인 산모에 비해 초산인 산모가 더욱 우울감을 경험하다는 선행연구(Newport, Hostetter, Arnold & Stowe,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초산모와 특히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출산 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집단(42.8%)을 중심으로 산후우울 관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23〉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34.8	65.2	811	100.0
지역($\chi^2=2.0$)				
동부	36.0	64.0	654	100.0
읍면부	30.1	69.9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chi^2=5.3$)				
18-25세 미만	35.3	64.7	62	100.0
25-30세 미만	38.6	61.4	207	100.0
30-35세 미만	35.5	64.5	338	100.0
35-40세 미만	28.3	71.7	183	100.0
40-45세 미만	42.8	57.2	22	100.0
교육($\chi^2=.5$)				
고졸이하	32.8	67.2	174	100.0
대졸	35.6	64.4	573	100.0
대학원졸	33.8	66.2	64	100.0
가구소득($\chi^2=7.5$)				
60% 미만	32.4	67.6	91	100.0
60-80% 미만	40.0	60.0	179	100.0
80-100% 미만	34.8	65.2	149	100.0
100-120% 미만	38.3	61.7	139	100.0
120-140% 미만	35.3	64.7	68	100.0
140-160% 미만	23.7	76.3	59	100.0
160% 이상	30.5	69.5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4.0^*$)				
첫째아	38.0	62.0	425	100.0
둘째아 이상	31.4	68.6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하고 분만 이후 1년 이내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19~49세의 여성 중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전체	6.8	93.2	283	100.0
지역($\chi^2=.0$)				
동부	6.8	93.2	235	100.0
읍면부	6.7	93.3	47	100.0
출산 시 모연령($\chi^2=2.4$)				
18-25세 미만	6.0	94.0	22	100.0
25-30세 미만	10.2	89.8	80	100.0
30-35세 미만	5.5	94.5	120	100.0
35-40세 미만	6.0	94.0	52	100.0
40-45세 미만	0.0	100.0	9	100.0
교육($\chi^2=2.0$)				
고졸이하	8.8	91.2	57	100.0
대졸	6.9	93.1	204	100.0
대학원졸	0.0	100.0	22	100.0
가구소득($\chi^2=2.4$)				
60% 미만	6.3	93.7	29	100.0
60-80% 미만	5.7	94.3	71	100.0
80-100% 미만	7.1	92.9	52	100.0
100-120% 미만	7.9	92.1	53	100.0
120-140% 미만	11.9	88.1	24	100.0
140-160% 미만	0.0	100.0	14	100.0
160% 이상	6.6	93.4	38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3$)				
첫째아	7.6	92.4	161	100.0
둘째아 이상	5.7	94.3	12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응답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지 않은 40~44세 여성(0.0%)과 대학원 졸업 여성(0.0%) 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음 출산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적절한 검사와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소영, 임지영, 2017).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하고 분만 이후 1년 이내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19~49세 여성 283명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 및 상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여성은 총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이나 상담을 받은 기관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상담소(19.4%), 정신보건센터(10.7%), 산후조리원(7.1%), 산부인과(6.9%), 보건소(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5〉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여성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	산부 인과	정신건강 의학과	정신보건 센터	한의원	심리상담 소	산후조리 원	기타	합계
전체	2.8	6.9	50.3	10.7	-	19.4	7.1	2.8	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수유

이 절에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2018년 9월 2일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조사 시점 기준으로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 및 기혼 여성(19~49세) 811명을 대상으로 아이에 대한 수유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와 분만 방법과 임신 결과, 그리고 산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는 1건의 미혼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권고한다. 특히 신생아 초기 완전 모유수유율과 출생 후 1시간 이내의 모유수유를 중요한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이소영 외, 2018).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91.8%는 모유수유를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8.2%는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관계부처합동, 2021)에서는 영유아 대상 중점과제로 2030년까지 출생 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 실천율 77.6%와 출생 후 12개월 모유수유 실천율 45.0%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모유수유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유수유율에 있어서의 여성의 특성별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에 있어서 첫째아 출산 모의 모유수유율이 둘째아 이상 출산 모의 모유수유율보다 1.8%p 높게 나타났다.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율은 5.2~19.2%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산모인 경우(5.2%)와 출산 시 연령이 40~44세인 경우(9.5%) 다른 집단에 비해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한 경험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26〉 최근 3년 내 출산한 여성(19~49세)의 모유수유 경험

(단위: %, 명)

구 분	모유수유 경험 있음	출생 후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모유수유 경험 없음	합계	
		모유수유 함	모유수유 안함	사례수			
전체	91.8	16.2	83.8	744	8.2	811	100.0
지역($\chi^2=.4$)							
동부	92.0	16.5	83.5	602	8.0	654	100.0
읍면부	90.6	15.0	85.0	143	9.4	157	100.0
출산 시 모연령($\chi^2=2.1$)							
18-25세 미만	93.6	17.1	82.9	58	6.4	62	100.0
25-30세 미만	91.9	18.7	81.3	190	8.1	207	100.0
30-35세 미만	92.5	16.0	84.0	312	7.5	338	100.0
35-40세 미만	90.1	14.1	85.9	165	9.9	183	100.0
40-45세 미만	89.2	9.5	90.5	19	10.8	22	100.0
교육($\chi^2=4.8$)							
고졸이하	88.2	14.6	85.4	153	11.8	174	100.0
대졸	92.5	18.0	82.0	530	7.5	573	100.0
대학원졸	95.2	5.2	94.8	61	4.8	64	100.0
가구소득($\chi^2=11.3$)							
60% 미만	93.4	17.9	82.1	85	6.6	91	100.0
60-80% 미만	92.0	17.4	82.6	165	8.0	179	100.0
80-100% 미만	86.6	12.8	87.2	129	13.4	149	100.0
100-120% 미만	94.6	18.2	81.8	131	5.4	139	100.0
120-140% 미만	97.0	12.8	87.2	66	3.0	68	100.0
140-160% 미만	94.4	11.3	88.7	55	5.6	59	100.0
160% 이상	89.1	19.2	80.8	113	10.9	126	100.0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chi^2=.8$)							
첫째아	92.6	14.0	86.0	393	7.4	425	100.0
둘째아 이상	90.8	18.7	81.3	351	9.2	386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모유수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9~49세 여성 87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와 모유수유가 끝난 19~49세 여성 658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 시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와 실제 중단 시기와의 차이는 4.5개월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를 중단할 예정인 시기는 평균 9.1개월인 반면, 실제 중단한 시기는 평균 4.6개월로 큰 차이가 있었다. 조사 응답 여성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와 실제 모유수유 중단 시기와의 차이는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에 따른 실제 모유수유 중단 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위에 따른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는 첫째아 출산인 경우(8.9개월)보다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9.4개월) 중단 예정 시기가 0.5개월 정도 늦추어지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아의 출생 순위에 따른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인 경우(3.9개월)보다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5.3개월) 실제 중단 시기가 1.4개월 정도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27〉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단위: 개월, 명)

구 분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사례수	F(t)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	사례수	F(t)
전체	9.1	87		4.6	658	
지역						
동부	9.2	70	T=.1	4.5	532	T=-.9
읍면부	9.0	17		4.9	126	
출산 시 모연령						
18-25세 미만	10.0	8	F=2.0	4.1	50	F=1.3
25-30세 미만	10.2	16		4.6	174	
30-35세 미만	10.6	31		4.3	281	
35-40세 미만	6.8	29		5.2	136	
40-45세 미만	8.3	2		4.2	17	
교육						
고졸이하	11.2	16	F=1.9	4.3	138	F=.7
대졸	8.4	61		4.7	469	
대학원졸	10.6	10		4.1	51	
가구소득						
60% 미만	8.4	10	F=0.6	5.6	75	F=1.6
60-80% 미만	9.8	19		4.7	146	
80-100% 미만	10.7	16		4.2	114	
100-120% 미만	9.3	10		4.5	121	
120-140% 미만	7.4	10		4.2	56	
140-160% 미만	6.4	5		3.4	50	
160% 이상	9.1	16		4.8	96	
조사대상아 출생 순서						
첫째아	8.9	44	T=-.4	3.9	350	T=-4.4***
둘째아 이상	9.4	43		5.3	308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한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 811명을 대상으로 출생아에 대한 모유수유 양상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에 26.0%였다가 생후 2주에는 44.8%, 생후 3주에는 45.3%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3주에 최고점에 이르다가 5개월에는 20.1%에서 6개월에는 5.2%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완전모유수유율은 10개월부터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14개월까지 지속되었다. 인공유(조제분유 및 우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후 1주에 8.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후 4개월에 50.3%로 최고점에 이르고 점차 감소한다.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와 인공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합하면 인공유를 수유하는 비율은 생후 1주에 74.1%에서 생후 2주에 55.2%로 감소했다가 4주에는 55.7%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생후 2개월에는 63.1%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생후 1주에는 모유수유가 잘 되지 않아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식은 생후 3개월부터 나타났고 생후 6개월에 모유와 보충식을 함께하는 경우는 14.4%로 생후 3개월(0.4%), 생후 4개월(1.3%), 생후 5개월(4.3%)과 비교할 때 급증하였다. 생후 6개월 시의 수유 양상을 보면, 인공유+보충식이 5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모유+보충식(14.4%), 인공유(13.1%), 모유+인공유+보충식(9.8%), 모유+인공유(6.3%), 완전 모유수유(5.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후 6개월 부터는 인공유+보충식이 수유 양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공유+보충식은 생후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후 18~24개월에는 90.6%에 달한다.

〈표 6-28〉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 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 인공유	인공유 (우유)	모유 + 보충식	인공유 (우유) +보충 식	보충식	모유+ 인공유 (우유)+ 보충식	모유 + 우유	합계	
생후1주	26.0	65.4	8.7	-	-	-	-	-	811	100.0
생후2주	44.8	44.8	10.4	-	-	-	-	-	807	100.0
생후3주	45.3	41.6	13.0	-	-	-	-	-	804	100.0
생후4주	44.3	40.3	15.4	-	-	-	-	-	801	100.0
1개월	40.8	41.3	17.9	-	-	-	-	-	796	100.0
2개월	36.9	30.0	33.1	-	-	-	-	-	778	100.0
3개월	30.9	26.9	41.2	0.4	0.4	-	0.1	-	757	100.0
4개월	25.9	16.3	50.3	1.3	5.4	0.1	0.7	-	735	100.0
5개월	20.1	10.7	36.6	4.3	23.4	-	4.9	-	708	100.0
6개월	5.2	6.3	13.1	14.4	51.1	0.0	9.8	-	675	100.0
7개월	3.1	1.6	7.6	14.1	65.9	1.0	6.7	-	651	100.0
8개월	1.5	0.8	4.1	14.8	70.9	1.6	6.3	-	631	100.0
9개월	1.1	0.7	3.4	13.7	73.9	2.0	5.1	-	617	100.0
10개월	0.6	1.1	2.6	12.6	75.4	2.0	5.6	-	580	100.0
11개월	0.7	0.5	1.9	11.0	80.3	2.5	3.0	-	512	100.0
12개월	0.9	-	1.8	9.5	79.1	2.3	6.4	-	333	100.0
13개월	0.6	-	0.1	3.0	85.7	5.5	5.2	-	359	100.0
14개월	0.5	-	-	2.2	86.9	5.5	4.9	-	386	100.0
15~17개월	-	-	-	1.3	87.8	6.6	4.3	-	387	100.0
18~24개월	-	-	-	1.2	90.6	5.9	2.3	-	362	100.0

주: 1) 보충식은 이유식과 유아식을 포함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본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제6장 임신과 출산 건강은 생식 건강과 피임, 난임,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수유 실태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성인(19~49세) 남녀의 최근 1년간 생식 건강과 관련된 증상의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4%가 경험하였는데, 대처 방식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54.7%는 병의원을 방문했고 26.2%는 약국을 방문한 반면, 전체 응답자의 21.7%는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을 경험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로 ‘금방 회복될 것 같아서(80.4%)’,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8.0%)’, ‘시간이 부족해서(6.5%)’ 순으로 응답되었다. 생식 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생식 건강 관련 증상 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29.8%p 높게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증상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하거나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생식 건강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임과 관련해서는 피임 경험, 피임 지식을 얻은 경로, 피임 방법, 피임에 대한 결정권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완료한 성인 남녀의 83.8%는 생애 기간 동안 피임 경험이 있었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 96.4%가 피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 및 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53.9%는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28.3%는 대부분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피임에 대한 지식 획득의 경로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등 언론 매체 59.4%, 학교(교육) (45.6%),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32.4%), 병의원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 시설(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는 피임 도구로는 콘돔 (41.5%), 질외사정(20.9%), 월경주기(18.5%), 남성의 반영구 피임술 (8.7%)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과 관련 결정의 주도권에 관해 조사한 결과, ‘나와 상대방이 함께(62.0%)’, ‘주로 내가 (23.6%)’, 를 응답하였으며 14.4%는 ‘주로 상대방이’를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피임 관련 조사 결과 피임 지식의 획득 경로의 경우 정보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 등 언론 매체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누가 주로 하는지의 주도권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는 30.3%가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고 8.5%만이 주로 상대방이 피임에 관해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6.6%만이 피임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성과 재생산권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난임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17.2%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임 경험률은 증가하여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난임 검사를 받은 경우는 48.4%로 나타났고 여성만 받은 경우는 10.5%로 나타났으며 남성만 받은 경우는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난임을 경험한 경우의 60.9%가 난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있어서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난임 경험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은 여성의 65.7%는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과정에서의 힘들었던 점으로는 정신적인 고통과 고립감(40.9%), 신체적 어려움(26.6%), 경제적 부담(2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19~49세 미혼 및 기혼 여성을 모두 산전관리를 받았는데, 초진 시기는 평균 임신 5.3주로 나타났다. 65.6%가 임신 5~8주 사이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관

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방문한 평균 횟수는 13.4회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5회 이하의 산전 수진을 받은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분만 후 산후 기간에 진찰을 받은 비율(산후 수진율)은 94.3%로 나타났고, 평균 산후 수진 횟수는 2.3회로 나타났다.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34.8%로 낮게 나타났는데,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후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산한 여성은 모두 산전관리를 받았으나, 출생 순위가 늦을수록 산전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방문이 늦어지며 산전관리의 횟수도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전관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나 첫째아 출산 시기와 비교해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전관리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후 수진율은 94.3%로 산전 수진율(100%)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산후 수진율이 낮게 나타났고, 출산 시 모의 연령이 18~24세 인 경우는 평균 2.2번 정도의 산후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3일, 7~14일, 6주 후로 권고하며 총 3회 이상의 산후 진찰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을 감안할 때 산후 진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WHO, 2013). 적절한 산전 산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91.5%는 모유 수유를 하였고,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경우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와 모유

수유가 끝난 경우의 실제 모유수유 중단 시기와의 차이는 4.5개월로 나타났다.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에 26.0%였다가 생후 2주에는 44.8%, 생후 3주에는 45.3%로 점차 높아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개월에는 5.2%로 급격하게 낮아졌고 낮은 수준으로 14개월까지 지속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권고하고 있다(이소영 외, 2018).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91.8%는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에 26.0%에서 증가하여 생후 3주에 45.3%로 최고점에 이르다가 6개월에는 5.2%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관계부처합동, 2021)에서는 출생 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 실천율 77.6%와 출생 후 12개월 모유수유 실천율 45.0%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유수유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자녀 양육

제1절 부부의 가사·육아 분담

제2절 미취학 자녀 돌봄

제3절 초등 학령기 자녀 돌봄

제4절 양육비용

제5절 소결

제 7 장 자녀 양육

이 장에서는 자녀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부부의 가사·육아분담 정도, 미취학 자녀 돌봄실태, 초등 학령기 자녀 돌봄실태, 미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돌봄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 문화 개선은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주재선 외, 2020). 따라서 가족 내에서 가사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양육비 부담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 분담 실태는 젠더적 관점에서 얼마나 평등적인가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남편의 가사 및 양육 태도가 부부만족도, 가족관계, 아동발달 등 가족 전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가정 내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남성의 가사분담 정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지현, 최영준, 2021). 코로나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담이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미취학 자녀 및 초등 학령기 자녀의 돌봄은 부부의 일·가정양립과 아동의 전인적 발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영유아 시기와 초등학령기 시기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고 공보육 공급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유아기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실 수요자의 경우 오후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위한 공적돌봄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공적돌봄 이용율도 약 11%내외에 불과하다(김은정, 이희현, 이혜숙, 임성은, 오신휘, 2021). 이처럼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돌봄환경은 영유아기 돌봄환경과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둔 가구의 돌봄에 따른 어려움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돌봄지원 정책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바가 큰 만큼 아동돌봄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양립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일·가정양립지원 측면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 결과 현재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부모의 노동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가족 및 친인척, 사설 돌보미와 같은 사적자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김송이, 이혜수, 임밖네, 2018). 이밖에도 한부모 가구, 장애아 가구, 저소득 가구, 조손 가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양육지원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취약가구의 경우 공적 돌봄지원에서 누락될 경우 사적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공백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가구는 경제적 빈곤을 경험함과 동시에 돌봄 자원 부족에 따라 아동들이 상당히 열악한 양육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유해미, 2020).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적자원을 활용하는 비용과 사교육 등을 위한 비용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만혼화 현상과 청년층의 취업

난이 가중되면서 미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가구 내 가사·양육에 대한 부부간 분담정도, 자녀돌봄을 위한 자원활용 실태, 부모의 자녀부양책임 시기, 미혼자녀의 양육비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절마다 또는 분석 문항에 따라 분석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2절에서는 부부간 양육과 가사분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절대적 비교와 해당 분담수준에 대한 부부간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분담수준과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애초에 가사분담에 대한 문항은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로 남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육아분담문항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하였다. 3절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돌봄자원 활용실태를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희망하는 돌봄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와 희망하는 서비스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된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초등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돌봄자원 활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기 자녀양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구특성에 따라 돌봄자원 활용 유형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절에서는 경제적인 자녀부양 시기에 대한 인식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비용을 조사하여, 학령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절 부부의 가사·육아 분담

1. 가사분담 실태

가사분담 실태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로 남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만해서 조사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의 가사활동에 쓴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7-1>은 본인과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 가사활동에 쓴 시간을 분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주말에 가사일을 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약 2시간(123.0분)정도 가사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보다 다소 긴 2시간 40분 내외(161.0분)의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평일과 주말에 평균적으로 각각 176분, 207분의 가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각각 56분, 103분으로 여성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각자의 배우자의 가사활동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일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취업자 취업자보다 가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평일과 주말에 투입되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가사시간 비교

(단위: 분(표준편차), 명)

구분	평일		주말		사례수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	배우자	
전체	123.0 (87.7)	108.2 (97.5)	161.0 (94.4)	140.8 (103.7)	7,496
지역					
동부	122.3	107.8	159.8	140.3	6,156
읍면부	126.1	110.3	166.9	143.1	1,340
성별					
남자	55.6	182.2	102.9	205.4	3,298
여자	176.0	50.1	206.7	90.0	4,197
연령					
19-24세	128.4	77.2	153.4	114.9	67
25-29세	125.7	91.3	150.9	122.8	484
30-34세	119.7	105.0	151.7	138.0	1,173
35-39세	124.4	116.7	165.1	152.0	1,850
40-44세	119.4	115.8	160.0	149.8	2,067
40-49세	126.9	98.9	166.9	127.0	1,855
교육					
고졸이하	133.7	100.0	169.4	129.4	2,037
대졸	120.4	110.2	159.0	144.0	4,959
대학원졸	105.0	122.6	146.7	155.1	499
취업여부					
취업	93.0	129.9	142.5	159.8	5,557
비취업	209.2	46.0	214.1	86.3	1,9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2〉는 응답자와 배우자의 가사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사 일을 총 100%로 볼 때 각자가 분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는 개인의 범주별 평균값이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평균 본인의 가사분담비율은 83.2%이며 배우자의 분담율은 약 20.2%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가사분담율은 약 40.3%이며 배우자의 가사분담율은 약 60.0%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서 가사분담 비율에 대한 응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가사분담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배우자의 가사분담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취업자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의 가사분담 비율이 각각 56.8%와 45.5%로 약 9%의 차이가 있으나 비취업자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의 분

담비율이 각각 85.9%, 17.9%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가사일을 월등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2〉 가사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배우자	사례수
전체	64.3	38.9	7,496
지역(f=.0)			
동부	64.3	38.9	6,156
읍면부	64.4	38.8	1,340
성별(f=9702.7****)			
남자	40.3	60.0	3,298
여자	83.2	20.2	4,197
연령(f=6.3****)			
19-24세	68.5	33.1	67
25-29세	66.4	35.3	484
30-34세	63.5	38.1	1,173
35-39세	63.4	39.2	1,850
40-44세	62.6	41.1	2,067
40-49세	67.0	37.7	1,855
교육(f=25.6****)			
고졸이하	67.9	36.8	2,073
대졸	63.3	39.3	4,959
대학원졸	59.9	42.5	499
취업여부(f=1903.2****)			
취업	56.8	45.5	5,557
비취업	85.9	17.9	1,939
가구소득(f=.3)			
60% 미만	63.9	39.8	611
60-80% 미만	65.1	39.0	1,215
80-100% 미만	64.0	38.6	1,464
100-120% 미만	63.9	38.6	1,428
120-140% 미만	64.8	38.4	853
140-160% 미만	64.1	38.9	668
160% 이상	64.5	39.3	1,258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4) f값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값만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사활동에 쓰이는 시간 조사, 분담비율 조사에 이어 이와 같은 현재의 분담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약 8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약 65.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자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사분담률을 비교했을 때 취업자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의 분담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취업자의 경우 가사분담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에 따른 만족도 결과로 이해된다.

〈표 7-3〉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만족하 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1+2)	만족 (3+4)	합계
전체	3.8	20.2	68.7	7.3	24.0	76.0	7,496 100.0
지역($\chi^2=1.7$)							
동부	3.8	20.2	68.5	7.5	24.0	76.0	6,156 100.0
읍면부	4.0	20.0	69.5	6.5	24.0	76.0	1,340 100.0
성별($\chi^2=641.5^{***}$)							
남자	0.8	9.4	80.2	9.7	10.2	89.8	3,298 100.0
여자	6.2	28.7	59.7	5.4	34.9	65.1	4,197 100.0
연령($\chi^2=121.2^{***}$)							
19-24세	0.5	16.3	79.9	3.3	16.9	83.1	67 100.0
25-29세	1.2	17.4	72.3	9.1	18.6	81.4	484 100.0
30-34세	2.3	16.6	69.0	12.1	18.9	81.1	1,173 100.0
35-39세	3.7	18.8	69.6	8.0	22.4	77.6	1,850 100.0
40-44세	4.1	22.3	67.4	6.3	26.3	73.7	2,067 100.0
40-49세	5.4	22.4	67.8	4.4	27.8	72.2	1,855 100.0
교육($\chi^2=39.1^{***}$)							
고졸이하	5.0	23.1	66.4	5.5	28.1	71.9	2,037 100.0
대졸	3.3	19.1	69.7	7.9	22.4	77.6	4,959 100.0
대학원졸	4.1	18.8	68.3	8.8	22.9	77.1	499 100.0
취업여부($\chi^2=163.9^{***}$)							
취업	3.1	17.4	71.3	8.3	20.4	79.6	5,557 100.0
비취업	5.9	28.3	61.3	4.5	34.2	65.8	1,939 100.0
가구소득($\chi^2=18.2$)							
60% 미만	2.9	20.7	69.1	7.2	23.6	76.4	611 100.0
60-80% 미만	4.7	21.0	67.0	7.4	25.6	74.4	1,215 100.0
80-100% 미만	3.5	20.5	70.0	5.9	24.1	75.9	1,464 100.0
100-120% 미만	3.9	18.7	69.3	8.1	22.6	77.4	1,428 100.0
120-140% 미만	2.8	21.1	68.4	7.7	23.9	76.1	853 100.0
140-160% 미만	4.0	21.0	68.6	6.3	25.1	74.9	668 100.0
160% 이상	4.1	19.4	68.2	8.3	23.6	76.4	1,258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육아분담 실태

육아분담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육아분담의 경우에도 가사분담 실태분석과 동일하게 육아시간, 육아분담비율,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였다. <표 7-4>는 평일과 주말 육아활동에 쓴 시간을 분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주말에 육아활동에 더 긴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를 기준으로 평일에는 200.6분(3시간 20.6분)정도 육아에 활용을 하고 주말에는 321.0분(5시간 21분)을 육아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부 지역보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육아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말에는 그 차이가 평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일수록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젊은 연령의 경우 영유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육아시간이 평일 주말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 육아시간 비교

(단위: 분(표준편차), 명)

구분	평일		주말		사례수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	배우자	
전체	200.6 (159.2)	190.9 (164.0)	321.0 (172.9)	306.9 (181.1)	5,099
지역					
동부	202.3	192.8	327.7	313.6	4,175
읍면부	192.8	182.1	291.0	276.4	925
성별					
남자	98.4	297.5	262.4	362.2	2,398
여자	291.4	96.2	373.1	257.7	2,701
연령					
19-24세	374.3	187.9	438.2	303.2	40
25-29세	332.7	208.2	402.0	335.6	237
30-34세	276.1	226.4	389.9	366.3	804
35-39세	212.5	204.0	348.0	329.7	1,595
40-44세	160.8	175.1	285.1	283.8	1,652
40-49세	133.0	155.2	239.5	238.4	771
교육					
고졸이하	202.5	179.0	302.4	271.6	1,179
대졸	200.6	193.3	326.2	316.5	3,561
대학원졸	194.9	205.5	330.6	327.1	360
취업여부					
취업	142.8	226.5	291.9	324.3	3,664
비취업	348.3	99.9	395.4	262.5	1,4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5〉는 응답자와 배우자의 육아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육아 일을 총 100%로 볼 때 각자가 분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는 개인의 범주별 평균값이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평균 본인의 육아분담비율은 약 78.1%이며 배우자의 분담율은 약 22.7%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평균 본인의 육아분담율은 약 43.5%이며 배우자의 육아분담율은 약 56.5%라고 응답하였다. 가사분담비율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서 육아분담 비율에 대한 응답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사활동에 비해서 육아활동에 대한 남성의 분담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5〉 육아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배우자	사례수
전체	61.8	38.8	5,099
지역(f=.0)			
동부	61.9	38.9	4,175
읍면부	61.8	38.6	925
성별(f=6028.3***)			
남자	43.5	56.5	2,398
여자	78.1	22.7	2,701
연령(f=11.7***)			
19-24세	71.2	29.1	40
25-29세	70.3	29.9	237
30-34세	63.9	36.3	804
35-39세	61.8	38.7	1,595
40-44세	60.8	40.2	1,652
40-49세	59.1	42.1	771
교육(f=4.9**)			
고졸이하	63.5	37.6	1,179
대졸	61.5	39.0	3,561
대학원졸	59.8	40.5	360
취업여부(f=1486.6***)			
취업	54.9	45.6	3,664
비취업	79.6	21.2	1,435
가구소득(f=.6)			
60% 미만	62.6	38.4	380
60-80% 미만	62.8	37.9	934
80-100% 미만	61.7	38.8	1,007
100-120% 미만	61.3	39.5	969
120-140% 미만	60.9	39.7	536
140-160% 미만	61.8	38.8	423
160% 이상	61.8	38.7	86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자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의 육아분담 비율이 각각 54.5%와 46.0%로 약 9%의 차이가 있으나 비취업자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의 분담비율이 각각 79.3%, 21.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육아일을 월등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사

일 보다 비취업자의 배우자 육아분담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사활동의 경우 비취업자의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반면 육아에 대한 부담은 가사보다는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이 낮을 수록 응답자의 육아분담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린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자녀에 대한 육아의 경우 더욱 여성에게 부과되는 경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7-6〉은 현재 응답자와 배우자의 육아분담비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남성 응답자의 약 87.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약 68.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다소 낮고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활동과 육아활동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자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가 취업한 경우 배우자와의 부담율도 평등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7-6〉 육아분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1+2)	만족 (3+4)	합계	
전체	3.1	19.6	70.4	6.9	22.7	77.3	5,099	100.0
지역($\chi^2=2.7$)								
동부	2.9	19.4	70.7	6.9	22.4	77.6	4,175	100.0
읍면부	3.7	20.5	68.8	6.9	24.3	75.7	925	100.0
성별($\chi^2=298.1^{***}$)								
남자	0.9	11.3	78.9	8.8	12.3	87.7	2,398	100.0
여자	5.0	27.0	62.8	5.2	32.0	68.0	2,701	100.0
연령($\chi^2=44.8^{***}$)								
19-24세	0.9	33.7	61.9	3.5	34.6	65.4	40	100.0
25-29세	1.6	29.1	61.3	8.0	30.7	69.3	237	100.0
30-34세	2.6	17.7	70.3	9.4	20.3	79.7	804	100.0
35-39세	3.1	19.2	69.9	7.8	22.4	77.6	1,595	100.0
40-44세	3.2	19.5	71.5	5.8	22.7	77.3	1,652	100.0
40-49세	3.7	19.2	72.5	4.5	23.0	77.0	771	100.0
교육($\chi^2=27.5^{***}$)								
고졸이하	3.8	23.9	67.1	5.2	27.7	72.3	1,179	100.0
대졸	3.0	18.2	71.4	7.4	21.2	78.8	3,561	100.0
대학원졸	1.7	19.7	71.2	7.4	21.4	78.6	360	100.0
취업여부($\chi^2=111.6^{***}$)								
취업	2.7	16.4	73.1	7.9	19.0	81.0	3,664	100.0
비취업	4.1	28.0	63.6	4.3	32.1	67.9	1,435	100.0
가구소득($\chi^2=39.2^{**}$)								
60% 미만	3.7	25.5	63.3	7.5	29.2	70.8	380	100.0
60-80% 미만	3.0	19.3	70.5	7.1	22.4	77.6	934	100.0
80-100% 미만	3.0	20.1	71.4	5.5	23.1	76.9	1,007	100.0
100-120% 미만	3.2	18.5	72.8	5.4	21.8	78.2	969	100.0
120-140% 미만	3.2	19.2	69.0	8.6	22.4	77.6	536	100.0
140-160% 미만	2.6	24.1	67.7	5.6	26.7	73.3	423	100.0
160% 이상	2.9	16.1	71.7	9.3	19.0	81.0	85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미취학 자녀 돌봄

이 절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구당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 사례를 모두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을 단위로 자료를 재구조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이용 희망 서비스와 실제 이용 서비스

〈표 7-7〉은 미취학 아동이 1순위로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0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18.4%)이용, 본인(51.5%)이 돌보기를 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민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희망 비율이 올라가고 본인이 돌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낮아지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6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유치원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만 5세, 6세 유아기에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통의 누리과정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7〉 영유아기 연령별 이용 희망서비스 1순위

(단위: 명,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전체
합계	365 (100.0)	349 (100.0)	423 (100.0)	418 (100.0)	486 (100.0)	579 (100.0)	390 (100.0)	3,010 (100.0)
국공립어린이집	67 (18.4)	128 (36.7)	165 (39.0)	176 (42.1)	133 (27.4)	136 (23.5)	72 (18.5)	877 (29.1)
직장어린이집	14 (3.8)	11 (3.2)	17 (4.0)	13 (3.1)	17 (3.5)	17 (2.9)	10 (2.6)	99 (3.3)
가정민간어린이집	35 (9.6)	92 (26.4)	141 (33.3)	107 (25.6)	78 (16.0)	59 (10.2)	41 (10.5)	553 (18.4)
기타어린이집	1 (0.3)	1 (0.3)	4 (0.9)	5 (1.2)	4 (0.8)	0 (0.0)	3 (0.8)	18 (0.6)
국공립유치원	2 (0.5)	1 (0.3)	6 (1.4)	34 (8.1)	95 (19.5)	153 (26.4)	133 (34.1)	424 (14.1)
사립유치원	1 (0.3)	4 (1.1)	9 (2.1)	22 (5.3)	87 (17.9)	128 (22.1)	69 (17.7)	320 (10.6)
반일제이상학원	2 (0.5)	7 (2.0)	7 (1.7)	17 (4.1)	21 (4.3)	23 (4.0)	19 (4.9)	96 (3.2)
기타사설학원	1 (0.3)	0 (0.0)	2 (0.5)	0 (0.0)	3 (0.6)	3 (0.5)	4 (1.0)	13 (0.4)
본인	188 (51.5)	83 (23.8)	53 (12.5)	32 (7.7)	30 (6.2)	29 (5.0)	24 (6.2)	439 (14.6)
배우자	4 (1.1)	1 (0.3)	3 (0.7)	0 (0.0)	0 (0.0)	2 (0.3)	1 (0.3)	11 (0.4)
친정부모님 (장인장모님)	24 (6.6)	11 (3.2)	11 (2.6)	3 (0.7)	8 (1.6)	11 (1.9)	1 (0.3)	69 (2.3)
시부모님 (부모님)	2 (0.5)	1 (0.3)	0 (0.0)	2 (0.5)	1 (0.2)	2 (0.3)	2 (0.5)	10 (0.3)
기타친인척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1 (0.0)
민간돌보미	9 (2.5)	1 (0.3)	1 (0.2)	1 (0.2)	0 (0.0)	6 (1.0)	2 (0.5)	20 (0.7)
아이돌보미(정부)	14 (3.8)	8 (2.3)	1 (0.2)	3 (0.7)	6 (1.2)	4 (0.7)	8 (2.1)	44 (1.5)
방문교육교사	1 (0.3)	0 (0.0)	3 (0.7)	3 (0.7)	3 (0.6)	5 (0.9)	1 (0.3)	16 (0.5)

주: 반일제이상 학원에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8〉은 미취학 아동이 1순위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0세의 경우 84.7%가 본인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0세아의 희망 이용 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18.4%), 본인(51.5%)으로 조사된 결과를 고려할 때, 시설이용을 원하지만 본인이 돌보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세아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5.5%에 불과해 희망하는 비율 9.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세아의 경우 국공립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 1세와 만 2세의 경우에도 희망과 달리 가정·민간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2세와 만 3세의 경우 가정·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각각 64.5%, 62.4%로 매우 높게 조사되어 해당 연령대를 위한 국공립 시설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 4세~6세의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설공급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표 7-8〉 영유아기 연령별 실제 이용서비스 1순위

(단위: 명,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전체
합계	365 (100.0)	349 (100.0)	423 (100.0)	418 (100.0)	486 (100.0)	579 (100.0)	390 (100.0)	3,010 (100.0)
국공립어린이집	1 (0.3)	44 (12.6)	67 (15.8)	73 (17.5)	77 (15.8)	84 (14.5)	51 (13.1)	397 (13.2)
직장어린이집	1 (0.3)	4 (1.1)	13 (3.1)	12 (2.9)	10 (2.1)	8 (1.4)	7 (1.8)	55 (1.8)
가정민간어린이집	20 (5.5)	135 (38.7)	273 (64.5)	261 (62.4)	180 (37.0)	151 (26.1)	89 (22.8)	1,109 (36.8)
기타어린이집	0 (0.0)	1 (0.3)	5 (1.2)	4 (1.0)	4 (0.8)	4 (0.7)	4 (1.0)	22 (0.7)
국공립유치원	0 (0.0)	0 (0.0)	2 (0.5)	11 (2.6)	56 (11.5)	102 (17.6)	86 (22.1)	257 (8.5)
사립유치원	0 (0.0)	1 (0.3)	3 (0.7)	34 (8.1)	133 (27.4)	210 (36.3)	136 (34.9)	517 (17.2)
반일제이상학원	0 (0.0)	2 (0.6)	2 (0.5)	3 (0.7)	9 (1.9)	10 (1.7)	10 (2.6)	36 (1.2)
기타사설학원	0 (0.0)	1 (0.3)	1 (0.2)	2 (0.5)	0 (0.0)	4 (0.7)	4 (1.0)	12 (0.4)
본인	309 (84.7)	142 (40.7)	42 (9.9)	14 (3.3)	16 (3.3)	3 (0.5)	2 (0.5)	528 (17.5)
배우자	7 (1.9)	2 (0.6)	6 (1.4)	1 (0.2)	0 (0.0)	1 (0.2)	0 (0.0)	17 (0.6)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17 (4.7)	13 (3.7)	4 (0.9)	2 (0.5)	1 (0.2)	0 (0.0)	0 (0.0)	37 (1.2)
시부모님(부모님)	2 (0.5)	2 (0.6)	1 (0.2)	1 (0.2)	0 (0.0)	1 (0.2)	0 (0.0)	7 (0.2)
기타친인척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민간돌보미	4 (1.1)	1 (0.3)	2 (0.5)	0 (0.0)	0 (0.0)	0 (0.0)	0 (0.0)	7 (0.2)
아이돌보미(정부)	3 (0.8)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4 (0.1)
방문교육교사	0 (0.0)	1 (0.3)	1 (0.2)	0 (0.0)	0 (0.0)	1 (0.2)	0 (0.0)	3 (0.1)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1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긴급한 상황의 경우 돌봄제공자

다음의 표는 평소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사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누가 주로 돌보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약 46.6%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친정부모님이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시부모님이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로 친정부모님이 돌보는 경우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나 영아기 일수록 부모나 친정부모님, 시부모님이 돌보는 비율이 높으며 유아기 일수록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7-9〉 영유아기 연령별 긴급돌봄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전체
합계	365 (100.0)	349 (100.0)	423 (100.0)	418 (100.0)	486 (100.0)	579 (100.0)	390 (100.0)	3,010 (100.0)
본인	8 (2.2)	27 (7.7)	61 (14.4)	46 (11.0)	89 (18.3)	150 (25.9)	122 (31.3)	503 (16.7)
배우자	116 (31.8)	127 (36.4)	153 (36.2)	139 (33.3)	135 (27.8)	145 (25.0)	85 (21.8)	900 (29.9)
친정부모님 (장인장모님)	138 (37.8)	104 (29.8)	120 (28.4)	131 (31.3)	140 (28.8)	149 (25.7)	86 (22.1)	868 (28.8)
시부모님 (부모님)	71 (19.5)	62 (17.8)	54 (12.8)	59 (14.1)	73 (15.0)	59 (10.2)	40 (10.3)	418 (13.9)
기타친인척	17 (4.7)	19 (5.4)	18 (4.3)	11 (2.6)	28 (5.8)	34 (5.9)	15 (3.8)	142 (4.7)
민간돌보미	4 (1.1)	1 (0.3)	2 (0.5)	4 (1.0)	0 (0.0)	1 (0.2)	1 (0.3)	13 (0.4)
아이돌보미 (정부)	2 (0.5)	0 (0.0)	4 (0.9)	5 (1.2)	2 (0.4)	3 (0.5)	1 (0.3)	17 (0.6)
형제자매	3 (0.8)	3 (0.9)	8 (1.9)	14 (3.3)	16 (3.3)	31 (5.4)	30 (7.7)	105 (3.5)
아이혼자	0 (0.0)	0 (0.0)	0 (0.0)	0 (0.0)	2 (0.4)	2 (0.3)	3 (0.8)	7 (0.2)
기타	6 (1.6)	6 (1.7)	3 (0.7)	9 (2.2)	1 (0.2)	5 (0.9)	7 (1.8)	37 (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돌봄 만족도와 양육의 어려움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87.8%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응답자는 84.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돌봄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자의 경우 만족한다(만족함, 매우 만족함)고 응답한 비율은 82.1%로 비취업자의 응답비율 86.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자와 비취업자가 각각 5.7%,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가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어 큰 불만은 없으나 크게 만족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 서비스 공급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7-10〉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1+2)	만족 (3+4)	합계	
전체	0.4	15.0	79.5	5.1	15.4	84.6	3,010	100.0
지역($\chi^2=2.0$)								
동부	0.4	15.3	79.0	5.3	15.7	84.3	2,443	100.0
읍면부	0.2	13.9	81.3	4.6	14.1	85.9	567	100.0
성별								
남자	0.0	12.2	79.3	8.5	12.2	87.8	82	100.0
여자	0.4	15.1	79.5	5.1	15.5	84.5	2,928	100.0
연령								
19-24세	0.0	8.9	91.1	0.0	8.9	91.1	45	100.0
25-29세	0.9	13.0	79.7	6.5	13.9	86.1	231	100.0
30-34세	0.4	14.4	80.2	5.1	14.8	85.2	792	100.0
35-39세	0.3	15.5	78.3	5.8	15.9	84.1	1,274	100.0
40-44세	0.3	16.8	78.7	4.1	17.2	82.8	582	100.0
40-49세	0.0	9.3	88.4	2.3	9.3	90.7	86	100.0
교육								
고졸이하	0.0	19.6	75.8	4.5	19.6	80.4	728	100.0
대졸	0.5	13.8	80.2	5.4	14.3	85.7	2,112	100.0
대학원졸	0.0	10.0	85.9	4.1	10.0	90.0	170	100.0
취업여부($\chi^2=20.6^{***}$)								
취업	0.1	17.8	76.4	5.7	17.9	82.1	1,372	100.0
비취업	0.5	12.7	82.1	4.7	13.2	86.8	1,638	100.0
가구소득								
60% 미만	0.7	20.7	77.6	1.0	21.4	78.6	295	100.0
60-80% 미만	0.0	10.3	84.9	4.8	10.3	89.7	662	100.0
80-100% 미만	0.5	16.0	79.9	3.6	16.5	83.5	613	100.0
100-120% 미만	0.4	16.5	76.7	6.4	16.9	83.1	515	100.0
120-140% 미만	0.0	17.4	76.6	5.9	17.4	82.6	304	100.0
140-160% 미만	0.9	12.7	80.8	5.7	13.5	86.5	229	100.0
160% 이상	0.5	14.8	76.0	8.7	15.3	84.7	392	100.0
영유아 자녀수								
1명	0.2	15.2	78.6	6.0	15.5	84.5	1,662	100.0
2명	0.4	14.7	80.9	3.9	15.1	84.9	1,222	100.0
3명	1.8	13.2	81.6	3.5	14.9	85.1	114	100.0
4명	0.0	33.3	33.3	33.3	33.3	66.7	12	100.0
자녀연령($\chi^2=10.1$)								
0세	0.5	16.2	78.1	5.2	16.7	83.3	365	100.0
1세	0.3	15.8	78.5	5.4	16.0	84.0	349	100.0
2세	0.7	15.4	78.3	5.7	16.1	83.9	423	100.0
3세	0.5	13.6	80.4	5.5	14.1	85.9	418	100.0
4세	0.4	12.3	81.9	5.3	12.8	87.2	486	100.0
5세	0.0	16.4	79.1	4.5	16.4	83.6	579	100.0
6세	0.3	15.6	79.5	4.6	15.9	84.1	390	100.0
이용서비스								
국공립시설	0.4	12.3	81.7	5.6	12.7	87.3	709	100.0
민간시설	0.3	14.8	80.1	4.8	15.1	84.9	1,696	100.0
부모돌봄	0.6	19.6	74.9	5.0	20.2	79.8	545	100.0
친인척개별돌봄	0.0	8.9	78.6	12.5	8.9	91.1	56	100.0
기타	0.0	50.0	50.0	0.0	50.0	50.0	4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7-11>에 따르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에 따른 어려움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시간관리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조사되었다. 반면에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에 따른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점, 명)

구 분	어려움정도 (7점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2.70	1.47	3,010
2)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3.09	1.63	3,010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2.38	1.45	3,010
4)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3.35	1.66	3,010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3.10	1.65	3,010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4.34	1.74	3,01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7-12>와 같다. 동부 거주자, 여성응답자의 경우, 영유아 자녀수가 많은 경우,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돌보는 경우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4.36, 비취업자의 경우 4.31로 취업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시간관리와 일·생활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3.54로 조사되어 비취업자의 3.1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12〉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단위: 점(표준편차), 명)

구 분	육아가사 에 대한 배우자 갈등	육아가사 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생활습관 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육아가사 에 따른 일·생활균 형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	사례수
전체	2.70 (1.47)	3.09 (1.64)	2.38 (1.45)	3.35 (1.66)	3.10 (1.65)	4.34 (1.74)	3,010
지역							
동부	2.70	3.11	2.40	3.36	3.13	4.39	2,443
읍면부	2.67	3.00	2.32	3.27	2.97	4.09	567
성별							
남자	2.43	2.80	2.39	3.13	3.13	3.82	82
여자	2.70	3.09	2.38	3.35	3.10	4.35	2,928
연령							
19-24세	2.40	3.29	1.87	3.16	3.13	4.09	45
25-29세	2.67	3.21	2.12	3.27	3.06	4.28	231
30-34세	2.62	3.12	2.22	3.34	2.96	4.44	792
35-39세	2.78	3.11	2.45	3.40	3.19	4.35	1,274
40-44세	2.66	2.98	2.57	3.35	3.12	4.28	582
40-49세	2.62	2.69	2.59	2.93	3.02	3.86	86
교육							
고졸이하	2.75	3.20	2.47	3.35	3.48	4.34	728
대졸	2.66	3.04	2.36	3.34	3.01	4.31	2,112
대학원졸	2.90	3.21	2.21	3.46	2.64	4.64	170
취업여부							
취업	2.77	2.91	2.46	3.54	3.10	4.36	1,372
비취업	2.64	3.23	2.31	3.19	3.10	4.31	1,638
가구소득							
60% 미만	2.41	3.29	2.38	3.35	3.70	4.27	295
60-80% 미만	2.68	3.14	2.36	3.18	3.21	4.21	662
80-100% 미만	2.72	3.19	2.37	3.29	3.16	4.38	613
100-120% 미만	2.74	3.11	2.44	3.36	3.07	4.33	515
120-140% 미만	2.86	3.02	2.38	3.58	3.04	4.42	304
140-160% 미만	2.72	2.75	2.37	3.41	2.85	4.35	229
160% 이상	2.73	2.89	2.37	3.47	2.59	4.45	392
영유아 자녀수							
1명	2.63	2.95	2.31	3.26	3.00	4.18	1,662
2명	2.73	3.20	2.50	3.36	3.18	4.47	1,222
3명	3.32	3.87	2.24	4.21	3.45	5.00	114
4명	2.33	3.33	2.33	5.00	5.33	5.67	12
자녀연령							
0세	2.55	3.27	1.79	3.50	2.89	4.65	365
1세	2.84	3.24	2.16	3.47	2.96	4.57	349
2세	2.70	3.11	2.23	3.36	2.97	4.50	423
3세	2.78	3.12	2.44	3.32	3.13	4.35	418
4세	2.65	2.94	2.50	3.27	3.10	4.17	486
5세	2.74	3.02	2.64	3.30	3.23	4.16	579
6세	2.60	2.98	2.70	3.27	3.32	4.09	39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초등 학령기 자녀 돌봄

이 절에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구당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3절과 같이 해당 아동 사례를 모두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 단위로 자료를 재구조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이용 희망 서비스와 실제 이용 서비스

초등학교 재학자녀의 돌봄을 위해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와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였다. <표 7-13>은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서 1순위로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저학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과 방과후 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고학년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23.6%로 조사되었으며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방과후 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민간 학원이나 사설공부방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의 경우에는 해당비율이 56.4%까지 증가하여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2학년의 경우에도 민간학원 및 사설공부방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37.0%, 36.8%로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이용비율을 합하면 해당 비율이 1학년의 경우 46.3%, 2학년의 경우 43.6%로 학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민간시설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7-13〉 초등 학생자녀 방과후 이용 희망서비스 1순위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합계	378 (100.0)	397 (100.0)	402 (100.0)	380 (100.0)	370 (100.0)	282 (100.0)	2,209 (100.0)
초등돌봄교실	84 (22.2)	69 (17.4)	39 (9.7)	32 (8.4)	22 (5.9)	14 (5.0)	260 (11.8)
방과후학교	91 (24.1)	104 (26.2)	102 (25.4)	93 (24.5)	88 (23.8)	44 (15.6)	522 (23.6)
지역아동센터	6 (1.6)	7 (1.8)	9 (2.2)	15 (3.9)	7 (1.9)	7 (2.5)	51 (2.3)
다함께돌봄센터	9 (2.4)	9 (2.3)	3 (0.7)	11 (2.9)	9 (2.4)	5 (1.8)	46 (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 (0.5)	1 (0.3)	5 (1.2)	8 (2.1)	11 (3.0)	9 (3.2)	36 (1.6)
복지관주민센터	9 (2.4)	16 (4.0)	13 (3.2)	10 (2.6)	16 (4.3)	14 (5.0)	78 (3.5)
민간학원시설공부방	140 (37.0)	146 (36.8)	180 (44.8)	181 (47.6)	167 (45.1)	159 (56.4)	973 (44.0)
본인	25 (6.6)	23 (5.8)	30 (7.5)	20 (5.3)	26 (7.0)	13 (4.6)	137 (6.2)
배우자	0 (0.0)	2 (0.5)	0 (0.0)	2 (0.5)	3 (0.8)	0 (0.0)	7 (0.3)
친정부모님(장인, 장모님)	2 (0.5)	9 (2.3)	7 (1.7)	2 (0.5)	4 (1.1)	6 (2.1)	30 (1.4)
시부모님(부모님)	4 (1.1)	2 (0.5)	3 (0.7)	2 (0.5)	5 (1.4)	2 (0.7)	18 (0.8)
친인척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민간돌보미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0)
아이돌보미(정부)	0 (0.0)	1 (0.3)	1 (0.2)	1 (0.3)	2 (0.5)	2 (0.7)	7 (0.3)
방문교육교사	4 (1.1)	8 (2.0)	9 (2.2)	3 (0.8)	10 (2.7)	7 (2.5)	41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7-14〉는 초등학교 재학자녀가 현재 1순위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12.2%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23.6%가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 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학원 및 사설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1학년의 경우 51.7%이며 6학년의 경우에는 73.5%에 이른다. 앞서 이용희망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간학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돌봄공백 해소 등의 이유로 민간학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14〉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실제 이용서비스 1순위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합계	377 (100.0)	397 (100.0)	400 (100.0)	381 (100.0)	371 (100.0)	279 (100.0)	2,205 (100.0)
초등돌봄교실	46 (12.2)	31 (7.8)	17 (4.3)	6 (1.6)	11 (3.0)	7 (2.5)	118 (5.4)
방과후학교	89 (23.6)	81 (20.4)	71 (17.8)	75 (19.7)	74 (19.9)	37 (13.3)	427 (19.4)
지역아동센터	4 (1.1)	7 (1.8)	8 (2.0)	8 (2.1)	6 (1.6)	5 (1.8)	38 (1.7)
다함께돌봄센터	3 (0.8)	5 (1.3)	0 (0.0)	2 (0.5)	0 (0.0)	0 (0.0)	10 (0.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0.3)	0 (0.0)	0 (0.0)	1 (0.3)	1 (0.3)	0 (0.0)	3 (0.1)
복지관주민센터	1 (0.3)	0 (0.0)	2 (0.0)	3 (0.5)	2 (0.8)	2 (0.5)	10 (0.7)
민간학원시설공부방	195 (51.7)	239 (60.2)	272 (68.0)	252 (66.1)	249 (67.1)	205 (73.5)	1,412 (64.0)
본인	25 (6.6)	25 (6.3)	19 (4.8)	19 (5.0)	16 (4.3)	14 (5.0)	118 (5.4)
배우자	0 (0.0)	0 (0.0)	0 (0.0)	0 (0.0)	1 (0.3)	0 (0.0)	1 (0.0)
친정부모님(장인, 장모님)	5 (1.3)	3 (0.8)	1 (0.3)	2 (0.5)	0 (0.0)	1 (0.4)	12 (0.5)
시부모님(부모님)	0 (0.0)	1 (0.3)	1 (0.3)	0 (0.0)	1 (0.3)	2 (0.7)	5 (0.2)
친인척	1 (0.3)	0 (0.0)	0 (0.0)	0 (0.0)	0 (0.0)	1 (0.4)	2 (0.1)
민간돌보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문교육교사	7 (1.9)	5 (1.3)	9 (2.3)	9 (2.4)	7 (1.9)	3 (1.1)	40 (1.8)
형제자매	0 (0.0)	0 (0.0)	0 (0.0)	1 (0.3)	1 (0.3)	1 (0.4)	3 (0.1)
아이혼자	0 (0.0)	0 (0.0)	0 (0.0)	1 (0.3)	2 (0.5)	1 (0.4)	4 (0.2)
기타	0 (0.0)	0 (0.0)	0 (0.0)	2 (0.5)	0 (0.0)	0 (0.0)	2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긴급한 상황의 경우 돌봄 제공자

다음의 표는 평소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사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누가 아동을 주로 돌보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약 44.9%가 본인(23.2%)이나 배우자(21.7%)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16.6%는 친정부모님이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시부모님이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로 친정부모님이 돌보는 경우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제자매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아이혼자 있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령기 아동의 경우 어린나이인 점을 고려하여 아이혼자 방치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정기적인 돌봄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7-15〉 초등학교 자녀 학년별 긴급돌봄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합계	379 (100.0)	398 (100.0)	401 (100.0)	380 (100.0)	368 (100.0)	281 (100.0)	2,207 (100.0)
본인	101 (26.6)	95 (23.9)	91 (22.7)	79 (20.8)	85 (23.1)	61 (21.7)	512 (23.2)
배우자	89 (23.5)	98 (24.6)	100 (24.9)	66 (17.4)	73 (19.8)	53 (18.9)	479 (21.7)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76 (20.1)	80 (20.1)	64 (16.0)	61 (16.1)	48 (13.0)	38 (13.5)	367 (16.6)
시부모님(부모님)	47 (12.4)	47 (11.8)	42 (10.5)	41 (10.8)	35 (9.5)	21 (7.5)	233 (10.6)
기타친인척	18 (4.7)	16 (4.0)	22 (5.5)	14 (3.7)	18 (4.9)	10 (3.6)	98 (4.4)
민간돌보미	0 (0.0)	2 (0.5)	0 (0.0)	0 (0.0)	0 (0.0)	0 (0.0)	2 (0.1)
아이돌보미(정부)	1 (0.3)	0 (0.0)	2 (0.5)	0 (0.0)	0 (0.0)	0 (0.0)	3 (0.1)
형제자매	30 (7.9)	44 (11.1)	51 (12.7)	83 (21.8)	74 (20.1)	67 (23.8)	349 (15.8)
아이혼자	15 (4.0)	11 (2.8)	22 (5.5)	35 (9.2)	32 (8.7)	29 (10.3)	144 (6.5)
기타	2 (0.5)	5 (1.3)	7 (1.7)	1 (0.3)	3 (0.8)	2 (0.7)	20 (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돌봄 만족도와 양육의 어려움

초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돌봄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79.8%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는 8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기 자녀에 비해 현재 돌봄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1+2)	만족 (3+4)	합계	
전체	0.8	19.3	76.3	3.6	20.0	80.0	2,210	100.0
지역($\chi^2=8.4^*$)								
동부	0.9	19.5	76.5	3.1	20.4	79.6	1,766	100.0
읍면부	0.4	18.3	75.5	5.8	18.7	81.3	444	100.0
성별								
남자	0.0	20.2	72.8	7.0	20.2	79.8	104	100.0
여자	0.8	19.2	76.5	3.5	20.0	80.0	2,105	100.0
연령								
25-29세	0.0	14.0	73.9	12.1	14.0	86.0	32	100.0
30-34세	0.3	27.0	71.4	1.3	27.3	72.7	127	100.0
35-39세	0.9	17.2	77.4	4.6	18.0	82.0	654	100.0
40-44세	0.8	18.2	77.5	3.5	19.0	81.0	967	100.0
40-49세	0.7	23.1	73.6	2.6	23.8	76.2	429	100.0
교육								
고졸이하	0.9	22.0	74.8	2.3	22.9	77.1	629	100.0
대졸	0.8	18.1	77.1	4.0	18.8	81.2	1,457	100.0
대학원졸	0.3	19.4	74.7	5.5	19.8	80.2	124	100.0
취업여부($\chi^2=5.8$)								
취업	0.9	21.0	74.4	3.7	21.9	78.1	1,203	100.0
비취업	0.7	17.2	78.6	3.6	17.8	82.2	1,007	100.0
가구소득								
60% 미만	0.4	22.4	70.9	6.3	22.8	77.2	234	100.0
60-80% 미만	1.0	20.2	74.7	4.1	21.3	78.7	357	100.0
80-100% 미만	0.4	19.8	77.0	2.8	20.2	79.8	422	100.0
100-120% 미만	1.0	22.8	73.9	2.3	23.8	76.2	393	100.0
120-140% 미만	1.2	17.3	79.2	2.2	18.5	81.5	237	100.0
140-160% 미만	1.2	15.6	78.7	4.5	16.8	83.2	194	100.0
160% 이상	0.5	15.2	80.0	4.3	15.7	84.3	373	100.0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1명	0.9	18.8	77.2	3.0	19.8	80.2	1,230	100.0
2명	0.5	18.7	76.0	4.8	19.2	80.8	868	100.0
3명	0.9	31.6	65.9	1.6	32.5	67.5	102	100.0
4명	0.0	0.0	100.0	0.0	0.0	100.0	9	100.0
학년								
1학년	0.8	21.5	73.5	4.2	22.3	77.7	379	100.0
2학년	0.5	17.3	77.9	4.2	17.9	82.1	398	100.0
3학년	1.1	17.8	77.7	3.4	18.9	81.1	401	100.0
4학년	0.8	21.8	72.8	4.5	22.7	77.3	381	100.0
5학년	0.6	17.9	78.6	2.8	18.5	81.5	369	100.0
6학년	0.7	19.5	77.6	2.2	20.2	79.8	281	100.0
방과후 이용 서비스								
학교돌봄	0.8	15.7	78.7	4.8	16.5	83.5	546	100.0
지역돌봄	0.5	12.3	83.7	3.6	12.8	87.2	62	100.0
민간학원	0.5	18.4	77.8	3.3	18.9	81.1	1,411	100.0
부모	3.2	35.8	58.5	2.5	39.0	61.0	120	100.0
친인척개별돌봄	0.0	40.6	54.8	4.6	40.6	59.4	63	100.0
기타	17.8	49.3	32.9	0.0	67.1	32.9	8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학년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모가 돌보는 경우, 친인척개별돌봄의 경우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해당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7-17>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 양육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에 따른 어려움’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시간관리와 일·생활양립의 어려움’, ‘생활습관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순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기와 달리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민간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에 따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영아기와 달리 학업, 취미 등 생활습관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예체능 경험 욕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7-17>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점, 명)

구 분	어려움정도 (7점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2.52	1.422	2,210
2)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2.80	1.532	2,210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3.18	1.589	2,210
4)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3.28	1.609	2,210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3.46	1.733	2,210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3.93	1.734	2,21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양육과 가사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읍면부 거주자, 여성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25~29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한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경우 ‘양육과 가사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가 많은 경우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어려움’ 정도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7-18〉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단위: 점(표준편차), 명)

구 분	육아가사에 대한 배우자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생활습관에 대한 자녀 와의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균형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	사례수
전체	2.52 (1.42)	2.80 (1.53)	3.18 (1.59)	3.28 (1.61)	3.46 (1.73)	3.93 (1.73)	2,210
지역							
동부	2.49	2.76	3.14	3.28	3.49	3.90	1,766
읍면부	2.62	2.93	3.32	3.31	3.35	4.06	446
성별							
남자	1.89	2.84	3.01	3.48	3.61	3.72	104
여자	2.55	2.80	3.19	3.28	3.46	3.94	2,105
연령							
25-29세	2.82	3.17	3.11	3.80	3.26	4.71	32
30-34세	2.32	2.84	3.30	3.43	3.81	3.99	127
35-39세	2.53	2.84	3.14	3.27	3.48	3.95	654
40-44세	2.53	2.76	3.14	3.28	3.36	3.89	967
40-49세	2.53	2.78	3.29	3.25	3.57	3.93	429
교육							
고졸이하	2.55	3.01	3.30	3.44	3.85	4.14	629
대졸	2.50	2.71	3.15	3.22	3.32	3.86	1,457
대학원졸	2.66	2.73	2.96	3.29	3.23	3.77	124
취업여부							
취업	2.56	2.71	3.22	3.54	3.48	4.10	1,203
비취업	2.47	2.91	3.13	2.98	3.44	3.73	1,007
가구소득							
60% 미만	2.04	3.07	3.32	3.43	4.32	4.14	234
60-80% 미만	2.68	3.13	3.24	3.29	3.83	3.98	357
80-100% 미만	2.51	2.87	3.20	3.14	3.43	3.84	422
100-120% 미만	2.48	2.74	3.13	3.27	3.39	3.88	393
120-140% 미만	2.62	2.59	3.24	3.37	3.39	4.10	237
140-160% 미만	2.75	2.80	3.29	3.47	3.17	3.94	194
160% 이상	2.53	2.42	2.97	3.23	2.88	3.80	373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1명	2.50	2.74	3.14	3.13	3.36	3.78	1,230
2명	2.56	2.83	3.21	3.42	3.51	4.05	868
3명	2.53	2.98	3.47	3.93	4.17	4.68	102
4명	1.49	4.68	2.32	4.84	4.84	5.84	9
자녀학년							
1학년	2.50	2.84	2.88	3.25	3.39	4.01	379
2학년	2.56	2.81	3.07	3.21	3.36	3.91	398
3학년	2.49	2.84	3.13	3.36	3.42	3.92	401
4학년	2.57	2.82	3.25	3.35	3.57	3.99	381
5학년	2.56	2.77	3.44	3.37	3.60	3.96	369
6학년	2.42	2.66	3.38	3.12	3.43	3.78	281
방과후 이용 서비스							
학교돌봄	2.54	2.86	3.23	3.30	3.47	4.06	546
지역돌봄	2.71	3.09	3.05	3.80	4.06	4.33	62
민간학원	2.51	2.76	3.16	3.25	3.41	3.88	1,411
부모	2.56	2.90	3.21	3.12	3.47	3.74	120
친인척개별돌봄	2.25	2.71	3.31	3.75	3.98	4.11	63
기타	2.84	2.15	3.57	3.20	3.77	3.79	8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양육비용

이 절에서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가구의 대표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부모)로서 자녀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실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양육비용을 분석하였다. 양육비용 분석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자녀 연령에 따른 지출비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자녀연령의 경우,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시기 자녀에 대한 비용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편의상 각 시기의 분석대상 가구를 해당 시기의 자녀만 있는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 자녀양육 지원시기

자녀유무,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는 본인의 자녀양육 지원 정도 및 계획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자녀양육지원시기는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51.5%가 대학졸업때까지라고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24.2%가 취업 때까지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13.9%에 불과하여 약 86.1%는 최소한 대학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혼인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라고 응답한 사례는 각각 7.7%, 2.7%로 조사되었다.

〈표 7-19〉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314	100.0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1,295	13.9
대학 졸업때까지	4,799	51.5
취업 때까지	2,254	24.2
혼인 때까지	718	7.7
언제까지라도	247	2.7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부양 책임시기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20〉과 같다. 지역이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다. 19~24세, 25~29세 그룹의 경우 취업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혼인상태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취업때까지 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이나 기혼의 경우 20.3%로 나타났다. 반면 혼인때까지, 언제까지라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혼이 미혼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취업때까지 라고 응답한 비율과 혼인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7-20〉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명)

구 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대학 졸업때까지	취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합계	
전체	13.9	51.5	24.2	7.7	2.7	9,314	100.0
지역($\chi^2=4.3$)							
동부	13.9	51.8	23.8	7.7	2.7	7,732	100.0
읍면부	13.9	50.2	25.9	7.7	2.2	1,582	100.0
성별($\chi^2=16.7^{**}$)							
남자	14.3	50.8	26.0	6.6	2.3	3,122	100.0
여자	13.7	51.9	23.3	8.3	2.8	6,192	100.0
연령 ($\chi^2=162.4^{***}$)							
19-24세	10.0	50.5	32.6	4.9	1.9	1,319	100.0
25-29세	12.2	50.6	27.8	7.3	2.1	1,823	100.0
30-34세	14.6	50.3	23.2	8.3	3.6	1,511	100.0
35-39세	16.8	50.8	19.9	9.0	3.4	1,460	100.0
40-44세	17.4	53.5	18.5	7.9	2.7	1,568	100.0
40-49세	12.3	53.2	23.6	8.6	2.3	1,634	100.0
교육($\chi^2=141.4^{***}$)							
고졸이하	20.0	44.9	24.5	8.0	2.6	2,697	100.0
대졸	11.3	54.1	24.4	7.5	2.6	6,208	100.0
대학원졸	12.8	56.0	19.2	8.6	3.4	409	100.0
혼인상태($\chi^2=129.8^{***}$)							
미혼	12.4	51.3	28.4	5.9	2.0	4,496	100.0
기혼	15.3	51.7	20.3	9.4	3.2	4,818	100.0
취업여부($\chi^2=10.1^*$)							
취업	14.1	52.4	23.7	7.4	2.4	5,802	100.0
비취업	13.6	50.0	25.0	8.3	3.1	3,512	100.0
가구소득($\chi^2=106.5^{***}$)							
60% 미만	16.0	50.9	25.4	5.5	2.3	2,487	100.0
60-80% 미만	16.0	52.5	21.2	7.9	2.4	1,423	100.0
80-100% 미만	15.1	53.1	21.8	7.4	2.6	1,466	100.0
100-120% 미만	11.6	52.1	23.6	9.8	2.9	1,286	100.0
120-140% 미만	13.0	51.1	26.5	6.7	2.7	789	100.0
140-160% 미만	14.0	50.4	24.4	9.3	1.9	616	100.0
160% 이상	8.9	50.1	27.2	10.0	3.9	1,2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양육비용

자녀양육비 및 생활지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구 내 양육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당자녀에 대한 관련 비용을 조사하였다. 비용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조부모를 통한 자녀 돌봄비용, 친인척을 통한 자녀 돌봄비용, 비혈연자에 의한 자녀돌봄비용, 기타비용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위에서 정의된 교육비, 돌봄비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아동별로 각각 조사하였다.

〈표 7-21〉은 가구특성별로 자녀 1인당 보호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자녀1인당 월 지출비용은 평균 72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동부 거주자, 응답자 연령이 많은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수가 적은 경우 1인당 자녀에 대한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1〉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자녀1인당 월 지출 비용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72.1	49.0	4,055
지역			
동부	75.1	51.1	3,314
읍면부	58.7	34.7	741
성별			
남자	60.5	46.4	174
여자	72.6	49.0	3,881
연령			
19-24세	36.9	21.0	35
25-29세	57.0	37.2	189
30-34세	57.9	36.2	510
35-39세	65.1	39.0	951
40-44세	75.3	42.8	1,142
40-49세	83.9	62.7	1,227
교육			
고졸이하	60.7	35.8	1,320
대졸	75.7	45.8	2,509
대학원졸	99.5	103.1	226
취업여부			
취업	76.0	52.5	2,254
비취업	67.3	43.7	1,801
가구소득			
60% 미만	46.1	27.2	451
60-80% 미만	52.9	26.0	682
80-100% 미만	65.6	35.1	749
100-120% 미만	71.8	39.0	730
120-140% 미만	77.4	38.9	443
140-160% 미만	82.8	41.0	333
160% 이상	108.3	79.0	667
지원 자녀수			
1명	75.9	57.1	1,470
2명	72.0	42.8	2,126
3명	63.2	47.1	406
4명	43.4	22.8	46
5명	31.0	13.2	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세부항목 중 어린이집·유치원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 등), 돌봄비용(조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비혈연 돌봄), 기타비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22〉와 같다. 다섯 가지 항목 중 기타비용을 제외하면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당 총 지출금액이 높은 경우와 응답자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세부 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표준편차),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사례수
전체	2.8 (7.2)	5.7 (16.7)	26.0 (34.6)	2.7 (14.0)	34.9 (21.3)	4,052
지역						
동부	3.0	5.8	28.0	2.8	35.5	3,312
읍면부	2.1	5.3	16.8	2.4	32.2	740
성별						
남자	1.8	3.9	15.6	8.1	31.2	174
여자	2.9	5.8	26.5	2.5	35.1	3,878
연령						
19-24세	2.3	2.4	0.6	0.9	30.8	35
25-29세	4.0	0.1	6.5	5.9	40.5	189
30-34세	5.0	0.2	9.5	5.1	38.1	510
35-39세	5.4	1.2	21.6	4.5	32.4	951
40-44세	2.1	3.7	34.8	2.2	32.5	1,142
40-49세	0.3	14.3	31.9	0.4	37.1	1,225
교육						
고졸이하	1.8	7.4	17.6	0.9	33.0	1,317
대졸	3.3	4.8	29.0	3.3	35.3	2,509
대학원졸	2.8	6.1	41.3	7.2	42.0	226
취업여부						
취업	2.6	6.6	27.4	4.6	34.8	2,253
비취업	3.0	4.6	24.2	0.4	35.1	1,799
가구소득						
60% 미만	1.6	3.2	11.6	0.5	29.2	450
60-80% 미만	3.2	3.0	16.6	0.2	29.8	682
80-100% 미만	2.8	4.9	23.1	0.8	34.2	747
100-120% 미만	3.2	5.9	25.8	2.8	34.2	730
120-140% 미만	2.7	6.2	29.2	3.5	35.7	443
140-160% 미만	2.8	6.8	30.6	6.4	36.2	333
160% 이상	2.9	9.9	44.4	6.6	44.5	667
지원 자녀수						
1명	3.9	4.1	22.6	4.8	40.5	1,470
2명	2.3	6.5	29.0	1.8	32.4	2,126
3명	1.5	7.8	24.1	0.6	29.2	406
4명	2.2	2.8	13.2	0.0	25.1	46
5명	0.0	4.6	3.9	0.5	27.0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 영유아 지출비용

영유아자녀의 지출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지출금액은 60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 72만 1000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비용을 제외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중에서 사교육비가 8만 90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유치원비는 평균 7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유치원 추가 교육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나 공교육비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사교육비와 돌봄비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사교육 비용은 각각 9만 1000원과 8만 7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돌봄비용은 12만원과 1만 1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수가 많을수록 1인당 총 지출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영유아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비용

(단위: 만원(표준편차),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인당 지원금	사례수
전체	7.1 (10.8)	0.1 (0.8)	8.9 (20.3)	6.1 (21.7)	38.3 (20.8)	60.6 (38.4)	1,261
지역							
동부	7.5	0.1	9.4	6.2	38.9	62.1	1,037
읍면부	5.6	0.1	6.4	5.8	35.8	53.7	224
성별							
남자	5.2	0.0	4.3	19.7	32.0	61.2	46
여자	7.2	0.1	9.1	5.6	38.6	60.6	1,215
연령							
19-24세	2.7	0.0	0.7	1.0	29.7	34.2	30
25-29세	4.4	0.0	4.7	6.3	42.8	58.1	164
30-34세	5.7	0.0	7.1	5.7	40.2	58.8	425
35-39세	8.8	0.1	10.6	6.8	37.1	63.4	450
40-44세	10.0	0.2	13.7	6.5	34.7	65.2	162
40-49세	7.6	0.2	12.0	4.1	33.5	57.3	31
교육							
고졸이하	6.8	0.0	4.6	2.9	36.9	51.2	283
대졸	7.4	0.1	9.8	6.5	38.5	62.3	888
대학원졸	5.4	0.0	13.4	13.1	41.1	73.0	90
취업여부							
취업	7.9	0.1	9.1	12.0	38.5	67.6	583
비취업	6.5	0.1	8.7	1.1	38.2	54.6	678
가구소득							
60% 미만	4.4	0.0	3.5	0.5	34.4	42.9	138
60-80% 미만	6.5	0.1	5.2	0.4	33.1	45.3	276
80-100% 미만	7.2	0.0	6.8	2.2	38.7	54.9	222
100-120% 미만	8.4	0.1	11.8	7.5	38.2	66.0	234
120-140% 미만	8.4	0.1	11.0	9.1	37.1	65.7	122
140-160% 미만	8.0	0.0	6.6	15.2	42.6	72.5	84
160% 이상	7.2	0.2	16.7	15.8	47.6	87.5	187
지원 영유아수							
1명	7.2	0.1	8.4	7.7	42.2	65.5	799
2명	7.1	0.1	10.1	3.6	31.9	52.9	430
3명	5.6	0.1	5.1	1.0	26.9	38.7	28
4명	19.1	0.0	0.3	0.0	27.0	46.4	4

주: 총액은 기타항목에 지출된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항목은 본 표에 제시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초등학생 지출비용

초등학생 자녀의 항목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인당 지출금액은 78만 5000원으로 전체 평균인 72만 1000원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중 사교육비가 42만 7000원으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1인당 45만 5000원을 지출하는 반면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1인당 29만 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와 달리 비취업인 경우 돌봄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4〉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금액

(단위: 만원(표준편차), 명)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총액	사례수
전체	2.7 (8.4)	42.7 (31.1)	2.1 (10.8)	31.1 (17.9)	78.5 (43.1)	692
지역						
동부	2.9	45.5	2.1	32.0	82.5	570
읍면부	1.5	29.5	1.9	26.7	59.7	122
성별						
남자	1.0	20.3	3.8	25.6	50.7	37
여자	2.8	44.0	2.0	31.4	80.1	654
연령						
19-24세	-	-	-	-	-	-
25-29세	0.7	19.3	6.8	27.1	53.9	10
30-34세	1.6	27.5	1.8	31.5	62.5	37
35-39세	2.4	41.1	3.0	28.4	74.9	185
40-44세	3.1	45.7	2.1	33.4	84.4	316
40-49세	2.5	43.5	0.4	29.4	75.8	143
교육						
고졸이하	1.8	28.8	1.2	28.9	60.7	196
대졸	3.0	47.7	2.4	31.7	84.9	454
대학원졸	3.0	53.3	2.4	33.9	92.6	41
취업여부						
취업	2.6	43.7	3.6	30.6	80.5	395
비취업	2.7	41.4	0.0	31.6	75.8	297
가구소득						
60% 미만	1.3	20.1	1.4	27.2	50.0	102
60-80% 미만	2.1	32.3	0.0	26.7	61.2	108
80-100% 미만	3.1	40.2	0.3	29.1	72.7	118
100-120% 미만	2.6	42.9	1.0	31.7	78.2	121
120-140% 미만	2.2	46.3	2.7	30.4	81.6	73
140-160% 미만	3.6	52.9	10.1	33.4	100.1	56
160% 이상	4.0	67.6	3.2	39.3	114.1	114
지원 초등자녀수						
1명	2.7	45.2	2.3	33.8	84.0	361
2명	2.8	40.7	1.7	28.3	73.5	302
3명	2.2	31.6	2.6	25.6	61.9	29

주: 총액은 기타항목에 지출된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항목은 본 표에 제시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중고등학생 지출비용

중고등학생 자녀의 항목별 지출현황은 <표 7-25>와 같다. 1인당 지출 금액은 91만 9천원으로 전체 평균 72만 10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도 50만 6000원으로 영유아가구, 초등학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 학생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가구와 마찬가지로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의 사교육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초등학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금액과 총 지출비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금액

(단위: 만원(표준편차), 명)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총액	사례수
전체	4.6 (13.0)	50.6 (59.0)	0.0 (1.5)	36.6 (24.9)	91.9 (78.1)	445
지역						
동부	4.2	54.9	0.1	37.0	96.2	373
읍면부	6.7	28.0	0.0	34.4	69.1	72
성별						
남자	2.0	23.4	0.0	31.6	57.1	19
여자	4.7	51.8	0.0	36.8	93.4	426
연령						
19-24세	-	-	-	-	-	-
25-29세	0.0	30.0	0.0	20.0	50.0	1
30-34세	0.0	0.0	0.0	80.0	80.0	0
35-39세	3.1	34.9	1.0	36.0	74.9	19
40-44세	3.7	43.5	0.0	34.4	81.6	157
40-49세	5.3	56.0	0.0	37.9	99.2	267
교육						
고졸이하	2.5	35.3	0.0	31.7	69.5	171
대졸	6.3	53.4	0.1	37.7	97.5	250
대학원졸	2.8	131.2	0.0	60.4	194.4	24
취업여부						
취업	4.4	51.4	0.1	37.6	93.4	304
비취업	5.1	49.0	0.0	34.6	88.7	141
가구소득						
60% 미만	0.9	17.8	0.0	27.6	46.3	59
60-80% 미만	2.6	37.8	0.0	30.9	71.4	70
80-100% 미만	4.4	44.2	0.0	34.3	83.0	72
100-120% 미만	4.6	49.6	0.2	34.9	89.4	79
120-140% 미만	4.2	59.1	0.0	40.6	103.9	53
140-160% 미만	8.2	52.6	0.0	33.9	94.6	33
160% 이상	8.2	86.9	0.0	50.7	145.8	79
지원 중고등자녀수						
1명	4.5	56.9	0.1	41.8	103.2	170
2명	4.8	47.3	0.0	33.4	85.5	264
3명	2.1	34.0	0.0	34.1	70.2	11

주: 총액은 기타항목에 지출된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항목은 본 표에 제시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라. 대학생 이상 자녀 지출비용

만19세 이상 자녀를 편의상 대학생 이상 자녀로 구분하고 해당 자녀에 대한 지출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지출총액은 73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 비해 사교육비는 2만 8000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공교육비는 28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공교육비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기타(용돈, 의료, 교통, 통신등)비용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영유가 가구, 초등학생가구, 중고등학생 가구의 경우 1인당 지출액은 응답자가 취업인 경우 더 높게 조사된 반면 대학생 가구의 경우 비취업자의 지출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26〉 대학생 이상 자녀 1인당 세부 항목별 지출비용

(단위: 만원(표준편차), 명)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총액	사례수
전체	28.0 (28.0)	2.8 (11.6)	0.0 (0.0)	42.8 (27.3)	73.6 (46.1)	321
지역						
동부	28.7	3.0	0.0	43.4	75.2	256
읍면부	25.2	1.9	0.0	40.3	67.4	65
성별						
남자	20.7	0.4	0.0	34.2	55.4	13
여자	28.3	2.9	0.0	43.2	74.4	308
연령						
19-24세	14.7	0.0	0.0	36.1	50.8	6
25-29세	17.5	0.0	0.0	14.0	31.5	0
30-34세	-	-	-	-	-	-
35-39세	57.0	0.0	0.0	79.0	136.0	0
40-44세	20.0	0.8	0.0	35.7	56.5	24
40-49세	28.9	3.0	0.0	43.5	75.4	291
교육						
고졸이하	25.4	2.0	0.0	38.5	65.9	204
대졸	32.7	4.6	0.0	49.8	87.0	109
대학원졸	31.6	0.0	0.0	56.8	88.5	8
취업여부						
취업	27.5	1.9	0.0	39.9	69.3	224
비취업	29.1	5.0	0.0	49.5	83.6	97
가구소득						
60% 미만	22.9	1.1	0.0	33.9	57.8	42
60-80% 미만	25.8	3.0	0.0	34.8	63.5	33
80-100% 미만	28.0	4.9	0.0	51.3	84.2	55
100-120% 미만	31.3	1.2	0.0	42.3	74.8	57
120-140% 미만	29.5	0.3	0.0	43.4	73.2	42
140-160% 미만	25.0	6.1	0.0	43.5	74.6	32
160% 이상	30.2	3.6	0.0	45.3	79.1	59
대학생 이상 지원 자녀수						
1명	30.1	4.2	0.0	46.5	80.8	141
2명	26.8	1.8	0.0	40.3	68.9	170
3명	19.3	0.3	0.0	32.1	51.7	10

주: 총액은 기타항목에 지출된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항목은 본 표에 제시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자녀양육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녀연령에 따라 양육환경 및 지출항목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관련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해 국공립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만0세의 경우 시설이용을 원하지만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해당 연령에 대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현재 돌봄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기보다 낮아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이용을 희망하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등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돌봄 이외에 활용하고 있는 사교육은 학습 및 예체능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마을돌봄을 통한 공적 서비스 확대는 아동의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질 좋은 프로그램제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모두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이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소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며 추가출산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 내 양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 부양시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86.1%가 최소한 대학 졸업때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최소한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도 24.2%에 달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책임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 때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부모세대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자녀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구 내 아동 1인당 지출 금액은 월평균 약 72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고등학령기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한 공교육비와 용돈 및 통신비 등을 포함한 기타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계층격차가 교육격차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8장

일과 일·생활 균형

제1절 경제활동

제2절 시간활용과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제3절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제4절 소결

제 8 장 일과 일·생활 균형

이 장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과 생활에 관하여 살펴보려 한다. 최근 들어 일·가정 양립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는 일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보다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적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고, 2018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도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씩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개인의 여가 활용 등 가정에서의 생활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나, 가정 내부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성이 주로 가정에서의 일(육아 및 가사)을 도맡아 해 온 경향이 있고, 게다가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가정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 사용 경향을 산출해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노동시간이 1.3배 긴 것에 비하여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의 7.4배, 그리고 육아시간도 남편의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김지민, 2018).

9) 이진한. (2021. 8. 4.). “돈보다 여가 워라벨 확고한 MZ세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55658>에서 2021. 12. 10. 인출.; 차창희. (2021. 8. 21.). “승진 욕심 없고요, 편하고 싶습니다.” MZ세대 워라벨에 밀린 ‘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08846>에서 2021. 12. 10. 인출.

이러한 경향은 가정 이외에 직장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2020년 24.5%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¹⁰⁾ 남성의 육아휴직은 무엇보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사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박미진, 2017), 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장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자리에 대한 사항을 파악한다. 먼저 일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의 취업여부, 주당 근로시간, 직종, 업종, 직장유형,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시간제 여부, 노동 시간 의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과 여가, 가정 생활 등을 병행하는 데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일, 육아 및 가사, 여가, 자기 계발, 필수 시간(식사·수면 등) 등의 생활시간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들 시간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5개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 중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배우자(남편)의 사용 여부도 함께 파악하여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비교할 것이다.

10) 고용노동부. (2021. 2. 10.).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37에서 2021. 12. 10. 인출.

제1절 경제활동

1. 취업 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응답자의 취업 여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의 68.6%가 일하고 있었고, 3.7%는 실업 상태, 27.7%는 비경제활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취업률이 여자보다 매우 높았으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는 여자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취업 비율이 높은 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는 미혼에서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8-1〉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

구분				(단위: %, 명)	
	취업	실업(구직중)	비경제활동	합계	
전체	68.6	3.7	27.7	14,149	100.0
성별($\chi^2=775.0^{***}$)					
남자	79.0	3.5	17.4	7,117	100.0
여자	58.0	3.8	38.1	7,032	100.0
혼인상태($\chi^2=366.8^{***}$)					
미혼	61.5	6.4	32.1	6,049	100.0
기혼	73.9	1.6	24.5	8,099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미만, 40시간 초과로 분류하였다. 결과를 보면, 40시간이 49.1%, 40시간을 넘어서는 비율이 34.8%, 40시간미만이 16.0%로 나타났다. 40시간 미만과 40시간 노동은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비율은 남자에게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2〉 응답자(19~49세)의 주당근로시간

구분				(단위: %, 명)	
	40시간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합계	
전체	16.0	49.1	34.8	9,704	100.0
성별($\chi^2=940.8^{***}$)					
남자	8.1	46.9	45.0	5,624	100.0
여자	27.0	52.2	20.8	4,080	100.0
혼인상태($\chi^2=5.4$)					
미혼	17.0	49.0	33.9	3,719	100.0
기혼	15.4	49.2	35.4	5,98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직종 및 업종

응답자의 직종은 관리·전문직(군인),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장치·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직종별 비율을 보면, 관리·전문직(군인) 26.8%, 사무직 26.5%, 서비스·판매직 25.0%, 농림어업 1.3%, 기능·장치·단순노무직 20.5%로 분포하였다. 관리·전문직(군인), 사무직은 여성과 기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서비스·판매직은 여자와 미혼에서 높았으며,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남자와 미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농림어업은 남자와 기혼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응답자(19~49세)의 직종

구분						(단위: %, 명)	
	관리·전문 (군인)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장치· 단순노무	합계	
전체	26.8	26.5	25.0	1.3	20.5	9,704	100.0
성별($\chi^2=681.9^{***}$)							
남자	23.4	23.9	21.6	1.8	29.3	5,624	100.0
여자	31.4	30.1	29.6	0.6	8.4	4,080	100.0
혼인상태($\chi^2=53.2^{***}$)							
미혼	24.1	24.7	28.0	1.2	22.0	3,719	100.0
기혼	28.4	27.5	23.0	1.4	19.6	5,98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업종은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금융·전기·운수·통신, 교육·행정·사회복지 등 서비스업(기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1.5%, 광업·제조업 17.5%, 건설업 7.0%, 도소매·숙박업 22.4%, 금융·전기·운수·통신 11.8%, 교육·행정·사회복지 등 서비스업(기타)이 39.9%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금융·전기·운수·통신은 남자와 기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건설업은 남자와 기혼에서, 도소매·숙박업은 여자와 미혼에서, 교육·행정·사회복지 등 서비스업(기타)은 여자와 미혼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4〉 응답자(19~49세)의 업종

(단위: %, 명)

구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금융·전기·운수·통신	교육·행정·사회복지 등 서비스업(기타)	합계	
전체	1.5	17.5	7.0	22.4	11.8	39.9	9,704	100.0
성별($\chi^2=664.3^{***}$)								
남자	2.0	22.0	9.7	19.9	14.6	31.8	5,624	100.0
여자	0.9	11.2	3.2	25.7	7.9	51.1	4,080	100.0
혼인상태($\chi^2=69.5^{***}$)								
미혼	1.4	16.6	6.1	26.1	9.7	40.2	3,719	100.0
기혼	1.5	18.0	7.5	20.1	13.1	39.7	5,98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직장 유형 및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은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체(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비율을 보면,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28.4%, 중소기업 43.7%, 개인사업체(기타) 27.9%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남자와 기혼에서 높고, 중소기업은 남자와 미혼에서 높으며, 개인사업체(기타)는 여자와 기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8-5〉 응답자(19~49세)의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체 (기타)	합계	
전체	28.4	43.7	27.9	9,704	100.0
성별($\chi^2=49.3^{***}$)					
남자	29.1	45.7	25.2	5,624	100.0
여자	27.4	40.9	31.6	4,080	100.0
혼인상태($\chi^2=41.6^{***}$)					
미혼	25.7	47.7	26.6	3,719	100.0
기혼	30.1	41.2	28.8	5,98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가족종사자, 상용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비율은 자영업·가족종사자 14.2%, 상용직 근로자 60.9%, 임시·일용직 근로자 20.2%, 특수형태 근로자 4.6%로 분포하였다. 자영업·가족종사자, 상용직 근로자는 남자와 기혼에서 높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여자와 미혼에서 높으며, 특수형태 근로자는 여자와 기혼에서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8-6〉 응답자(19~49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자영업· 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	합계	
전체	14.2	60.9	20.2	4.6	9,704	100.0
성별($\chi^2=211.1^{***}$)						
남자	14.4	66.0	15.5	4.2	5,624	100.0
여자	14.0	54.0	26.8	5.2	4,080	100.0
혼인상태($\chi^2=379.1^{***}$)						
미혼	8.8	57.6	29.2	4.3	3,719	100.0
기혼	17.6	63.0	14.6	4.7	5,98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정규직 및 시간제 여부

정규직 및 시간제 여부는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일 경우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72.4%는 정규직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은 남자와 기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비정규직은 여자와 미혼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응답자(19~49세)의 정규직 여부

구분				(단위: %, 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전체	72.4	27.6	7,876	100.0	
성별($\chi^2=209.9^{***}$)					
남자	78.6	21.4	4,579	100.0	
여자	63.8	36.2	3,297	100.0	
혼인상태($\chi^2=197.9^{***}$)					
미혼	63.9	36.1	3,232	100.0	
기혼	78.3	21.7	4,644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응답자의 일이 시간제인 경우는 12.1%로 나타났으며, 여자와 미혼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는 남자와 기혼일 경우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8〉 응답자(19~49세)의 시간제 여부

구분			(단위: %, 명)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2.1	87.9	7,876	100.0
성별($\chi^2=316.4^{***}$)				
남자	6.6	93.4	4,579	100.0
여자	19.8	80.2	3,297	100.0
혼인상태($\chi^2=45.9^{***}$)				
미혼	15.1	84.9	3,232	100.0
기혼	10.0	90.0	4,644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5. 지난주 노동 시간 의향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지난주 노동 시간 의향은 ①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 ②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③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④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었음, ⑤일하는 시간 줄이고 싶었음의 5가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었다로 70.3%, 다음은 일하는 시간 줄이고 싶었다는 응답으로 17.6%, 그 이외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었다는 응답,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다는 응답은 각각 2.7% 5.3%, 4.1%로 분포하였다.

전체 비율의 경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 이외 비율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특징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는 있지만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타 연령대보다 특징적이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다는 응답과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대학원졸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에서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혼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일 및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경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8-9〉 응답자(19~49세)의 지난주 노동 시간 의향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전체	2.7	5.3	4.1	70.3	17.6	9,704 100.0
지역($\chi^2=4.0$)						
동부	2.7	5.4	4.2	70.2	17.5	7,980 100.0
읍면부	2.9	4.5	3.6	71.0	18.0	1,724 100.0
성별($\chi^2=20.0^{**}$)						
남자	2.3	5.7	3.7	70.4	17.9	5,624 100.0
여자	3.3	4.6	4.7	70.3	17.1	4,080 100.0
연령($\chi^2=187.7^{***}$)						
19-24세	3.9	7.1	10.3	66.0	12.7	942 100.0
25-29세	1.7	6.5	5.4	68.7	17.6	1,608 100.0
30-34세	1.5	5.1	2.7	72.2	18.5	1,568 100.0
35-39세	2.7	4.4	3.4	69.7	19.8	1,801 100.0
40-44세	3.2	4.5	2.6	70.9	18.9	1,968 100.0
45-49세	3.4	5.1	3.3	72.4	15.8	1,816 100.0
교육($\chi^2=86.2^{***}$)						
고졸이하	3.7	5.1	6.8	67.9	16.5	2,614 100.0
대졸	2.3	5.2	3.3	71.3	17.8	6,517 100.0
대학원졸	2.4	5.9	1.4	70.2	20.0	573 100.0
혼인상태($\chi^2=128.2^{***}$)						
미혼	3.0	6.7	6.5	68.3	15.5	3,719 100.0
기혼	2.5	4.3	2.6	71.6	18.9	5,985 100.0
가구소득($\chi^2=235.8^{***}$)						
60% 미만	5.3	7.5	8.4	65.8	13.0	1,722 100.0
60-80% 미만	2.8	5.8	4.2	70.5	16.7	1,285 100.0
80-100% 미만	2.9	5.3	3.9	69.5	18.4	1,569 100.0
100-120% 미만	2.2	3.9	3.1	72.3	18.5	1,523 100.0
120-140% 미만	1.2	4.4	3.7	72.9	17.8	1,045 100.0
140-160% 미만	1.8	4.6	2.2	71.3	20.2	846 100.0
160% 이상	1.7	4.5	2.0	71.8	20.0	1,713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①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 ②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④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었음, ⑤일하는 시간 줄이고 싶었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시간활용과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1. 생활시간 배분 현황 및 적절성

가. 생활시간 배분 현황

응답자의 생활시간 배분은 일, 육아, 가사, 여가, 자기계발 등 기타, 필수시간(식사·수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주말에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일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분석한다. 다만, 학생의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며, 육아시간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묻고 있으므로 미혼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 시간에 응답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육아시간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여가활동은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 포함), 의무적 활동 시간(육아·가사 시간 등), 자기계발 등에 투입한 시간, 필수시간(생존에 필요한 시간으로 수면, 식사 등 포함)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먼저 평일의 시간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 8.9시간, 육아 3.4시간, 가사 1.6시간, 여가 3.9시간, 기타시간 1.5시간, 필수시간은 9.1시간으로 분포하였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일하는 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1.1시간 많지만, 육아와 가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3.2시간, 1.4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육아시간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고, 기타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미혼의 여가, 기타시간이 기혼보다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육아, 가사, 여가, 기타시간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에서 많이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 여가, 기타시간이 많은 경향이 있고, 필수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말의 시간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 1.6시간, 육아 5.4시간, 가사 2.1시간, 여가 6.6시간, 기타시간 1.9시간, 필수시간은 10.2시간으로 분포하였다. 평일의 시간과 비교하면, 일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하였고, 그 만큼 여가 시간과 육아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필수시간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일하는 시간은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많고,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시간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평일에 비하여 격차는 조금 감소하였다. 육아시간은 평일과 유사하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고, 자기계발 등 기타 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특성도 평일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과 여가시간이 많아졌고, 미혼의 여가, 기타 시간이 기혼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육아, 가사, 기타시간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 여가, 기타시간이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8-10〉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배분 현황: 평일

(단위: 시간)

구분	일	육아	가사	여가	기타	필수시간
전체	8.9	3.4	1.6	3.9	1.5	9.1
지역						
동부	8.9	3.4	1.6	3.9	1.5	9.1
읍면부	8.8	3.2	1.6	3.7	1.3	9.2
성별						
남자	9.3	1.6	0.9	3.8	1.5	9.1
여자	8.2	4.8	2.3	4.1	1.4	9.1
연령						
19-24세	7.7	5.7	0.9	4.9	2.7	9.6
25-29세	9.1	5.5	1.2	4.1	2.2	9.3
30-34세	9.2	4.6	1.6	3.5	1.3	9.0
35-39세	9.2	3.5	1.9	3.1	0.8	8.9
40-44세	9.1	2.7	1.9	3.6	0.9	8.9
45-49세	9.0	2.3	2.0	4.2	1.0	9.1
교육						
고졸이하	8.9	3.4	1.8	4.3	1.3	9.3
대졸	8.8	3.3	1.5	3.8	1.6	9.1
대학원졸	8.9	3.3	1.6	3.1	1.2	8.9
혼인상태						
미혼	8.6	3.2	0.9	4.6	2.4	9.4
기혼	9.1	3.4	2.1	3.4	0.8	8.9
취업여부						
취업	9.1	2.4	1.3	3.0	0.9	8.9
비취업	6.8	5.8	2.2	5.9	2.8	9.6
가구소득						
60% 미만	8.5	4.0	1.6	4.7	1.9	9.4
60-80% 미만	8.9	3.7	1.8	4.0	1.4	9.2
80-100% 미만	8.9	3.4	1.7	3.9	1.4	9.1
100-120% 미만	8.8	3.1	1.6	3.6	1.4	9.0
120-140% 미만	9.0	3.1	1.5	3.6	1.3	9.1
140-160% 미만	9.0	3.0	1.4	3.6	1.3	9.0
160% 이상	9.0	3.1	1.4	3.5	1.4	8.9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학생의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며, 육아시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응답하므로 미혼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응답할 수 있음.

4) 여가활동은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 포함), 의무적 활동 시간(육아·가사 시간 등), 자기계발 등에 투입한 시간, 생존에 필요한 시간(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8-11〉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배분 현황: 주말

(단위: 시간)

구분	일	육아	가사	여가	기타	필수시간
전체	1.6	5.4	2.1	6.6	1.9	10.2
지역						
동부	1.5	5.5	2.1	6.6	2.0	10.1
읍면부	2.2	4.9	2.2	6.1	1.7	10.3
성별						
남자	1.9	4.4	1.5	7.0	2.1	10.3
여자	1.3	6.2	2.8	6.1	1.7	10.0
연령						
19-24세	1.5	6.6	1.1	7.7	3.3	10.6
25-29세	1.6	6.8	1.6	7.4	2.7	10.4
30-34세	1.5	6.5	2.1	6.3	1.8	10.1
35-39세	1.6	5.8	2.6	5.2	1.2	9.9
40-44세	1.8	4.8	2.5	5.7	1.3	9.9
45-49세	1.9	4.0	2.7	7.0	1.4	10.1
교육						
고졸이하	2.3	5.1	2.3	6.6	1.6	10.2
대졸	1.4	5.4	2.0	6.6	2.1	10.2
대학원졸	1.2	5.6	2.3	5.9	1.8	9.9
혼인상태						
미혼	1.7	3.6	1.3	7.9	2.9	10.5
기혼	1.6	5.4	2.7	5.6	1.2	9.9
취업여부						
취업	1.8	4.9	2.0	6.6	1.6	10.2
비취업	0.7	6.6	2.3	6.5	2.7	10.1
가구소득						
60% 미만	2.0	5.5	2.0	7.0	2.2	10.4
60-80% 미만	1.9	5.3	2.2	6.2	1.7	10.2
80-100% 미만	1.8	5.3	2.2	6.3	1.8	10.1
100-120% 미만	1.5	5.2	2.2	6.3	2.0	10.0
120-140% 미만	1.2	5.3	2.1	6.6	2.0	10.2
140-160% 미만	1.5	5.3	2.1	6.7	1.8	10.1
160% 이상	1.4	5.7	1.9	6.7	2.0	1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학생의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며, 육아시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응답하므로 미혼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응답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생활시간 적절성

앞서 살펴본 생활시간(일, 육아, 가사, 여가, 기타, 필수시간) 중 각각의 시간(평일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려 한다.

먼저 전체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평일 일하는 시간은 매우 부족 0.4%, 부족 5.1%, 적당 63.4%, 충분 24.0%, 매우 충분 7.1%로 분포하여, 94.5%의 응답자가 일하는 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평일 육아시간은 매우 부족 2.2%, 부족 20.4%, 적당 56.9%, 충분 16.7%, 매우 충분 3.8%로 분포하여 77.4%의 응답자가 육아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평일 가사시간은 매우 부족 1.5%, 부족 15.0%, 적당 70.9%, 충분 11.0%, 매우 충분 1.5%로 분포하여, 83.4%의 응답자가 현재의 가사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평일 여가시간은 매우 부족 4.8%, 부족 20.0%, 적당 51.4%, 충분 20.5%, 매우 충분 3.4%로 분포하여, 75.3%의 응답자가 여가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평일 기타시간은 매우 부족 10.8%, 부족 30.8%, 적당 50.0%, 충분 7.5%, 매우 충분 0.8%로 분포하여, 58.3%의 응답자가 평일 기타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하였다. 평일 필수시간은 매우 부족 1.7%, 부족 16.5%, 적당 62.4%, 충분 17.4%, 매우 충분 2.0%로 분포하여, 81.8%의 응답자가 현재 필수시간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고 하였다.

생활시간의 전체 경향을 부족한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기타시간이 제일 부족하고, 여가, 육아, 필수, 가사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대체로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생활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8-12〉 응답자(19~49세)의 생활시간 적절성(평일기준)

(단위: %, 명)

생활시간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일	0.4	5.1	63.4	24.0	7.1	10,590 100.0
육아	2.2	20.4	56.9	16.7	3.8	5,342 100.0
가사	1.5	15.0	70.9	11.0	1.5	14,149 100.0
여가	4.8	20.0	51.4	20.5	3.4	14,149 100.0
기타	10.8	30.8	50.0	7.5	0.8	14,149 100.0
필수	1.7	16.5	62.4	17.4	2.0	14,149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율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동부에서는 부족, 읍면부에서는 충분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일하는 시간이 충분한 경향이 있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일하는 시간이 충분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충분하고,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의 일하는 시간이 충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3〉 응답자(19~49세)의 일하는 시간 적절성(평일기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0.4	5.1	63.4	24.0	7.1	10,590 100.0
지역($\chi^2=9.0$)						
동부	0.5	5.3	63.5	23.8	6.9	8,741 100.0
읍면부	0.4	4.0	63.1	24.5	8.0	1,849 100.0
성별($\chi^2=61.5^{***}$)						
남자	0.5	4.1	62.0	25.8	7.6	6,188 100.0
여자	0.4	6.5	65.5	21.4	6.2	4,402 100.0
연령($\chi^2=89.2^{***}$)						
19-24세	0.4	6.8	69.5	18.4	4.9	1,838 100.0
25-29세	0.3	5.0	61.7	25.7	7.3	1,690 100.0
30-34세	0.3	3.8	63.7	23.8	8.4	1,523 100.0
35-39세	0.8	4.2	61.3	26.1	7.6	1,772 100.0
40-44세	0.5	5.0	61.8	25.5	7.2	1,952 100.0
45-49세	0.3	5.3	62.7	24.4	7.3	1,816 100.0
교육($\chi^2=40.5^{***}$)						
고졸이하	0.6	6.8	59.7	25.1	7.9	2,748 100.0
대졸	0.4	4.5	65.0	23.3	6.8	7,282 100.0
대학원졸	0.7	4.3	61.4	26.5	7.1	560 100.0
혼인상태($\chi^2=43.7^{***}$)						
미혼	0.5	5.8	65.7	21.6	6.3	4,712 100.0
기혼	0.4	4.5	61.6	25.9	7.7	5,879 100.0
취업여부($\chi^2=136.5^{***}$)						
취업	0.5	5.0	61.9	25.0	7.6	9,581 100.0
비취업	0.1	6.1	78.3	13.7	1.7	1,009 100.0
가구소득($\chi^2=89.9^{***}$)						
60% 미만	0.9	7.7	64.7	21.1	5.6	1,972 100.0
60-80% 미만	0.3	4.9	64.6	22.9	7.3	1,384 100.0
80-100% 미만	0.4	5.2	63.1	23.8	7.5	1,698 100.0
100-120% 미만	0.5	4.8	61.7	26.3	6.8	1,655 100.0
120-140% 미만	0.0	3.5	64.6	25.1	6.8	1,132 100.0
140-160% 미만	0.3	4.2	61.5	27.6	6.4	905 100.0
160% 이상	0.4	4.0	63.4	23.4	8.8	1,844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학생의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므로 일하는 시간에 응답할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육아시간

육아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에서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적당 및 충분하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부에서는 부족과 매우 충분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 간 차이를 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의 육아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는 육아시간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충분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타 연령대에서는 적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연령대에서 육아시간이 부족한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수준 간의 비율 차이도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육아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이들의 표본이 매우 작은 것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육아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적당하다는 비율이 낮고 부족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충분한 비율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에서는 비교적 높지만, 매우 충분한 비율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로시간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육아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4〉 응답자(19~49세)의 육아시간 적절성: 평일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2.2	20.4	56.9	16.7	3.8	5,342	100.0
지역($\chi^2=9.6^*$)							
동부	2.2	20.0	57.4	16.9	3.5	4,376	100.0
읍면부	1.7	22.2	54.8	16.1	5.2	967	100.0
성별($\chi^2=333.2^{***}$)							
남자	3.7	27.6	56.7	10.3	1.6	2,447	100.0
여자	0.8	14.3	57.1	22.1	5.6	2,895	100.0
연령($\chi^2=160.5^{***}$)							
19-24세	0.0	21.3	56.3	15.9	6.4	51	100.0
25-29세	2.4	16.8	49.3	20.8	10.7	254	100.0
30-34세	1.6	20.8	48.1	23.4	6.1	825	100.0
35-39세	2.4	19.0	55.6	18.5	4.5	1,655	100.0
40-44세	2.4	21.5	59.7	14.3	2.1	1,743	100.0
45-49세	1.7	21.8	64.9	10.4	1.2	814	100.0
교육($\chi^2=4.6$)							
고졸이하	2.4	21.4	56.4	16.5	3.3	1,291	100.0
대졸	2.0	19.9	57.3	16.8	3.9	3,677	100.0
대학원졸	2.3	21.7	55.1	16.1	4.8	374	100.0
혼인상태							
미혼	0.0	79.9	12.3	7.9	0.0	8	100.0
기혼	2.2	20.3	57.0	16.7	3.8	5,334	100.0
취업여부($\chi^2=456.6^{***}$)							
취업	2.8	26.3	55.8	12.7	2.4	3,827	100.0
비취업	0.6	5.5	59.8	27.0	7.2	1,515	100.0
가구소득($\chi^2=42.4^*$)							
60% 미만	1.3	20.4	57.2	16.8	4.3	489	100.0
60-80% 미만	1.8	17.1	59.4	18.2	3.4	963	100.0
80-100% 미만	2.1	18.2	57.6	18.2	3.9	1,039	100.0
100-120% 미만	2.5	20.6	59.0	14.6	3.4	997	100.0
120-140% 미만	2.1	23.8	54.4	14.5	5.3	547	100.0
140-160% 미만	3.8	21.4	54.7	16.3	3.8	433	100.0
160% 이상	2.0	23.9	53.4	17.3	3.4	873	100.0
주당근로시간($\chi^2=244.5^{***}$)							
40시간 미만	0.4	13.3	65.6	17.4	3.4	564	100.0
40시간	0.8	24.1	58.5	14.0	2.6	1,875	100.0
40시간 이상	6.5	34.6	48.1	8.9	1.9	1,387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육아시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응답하므로 미혼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응답할 수 있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가사시간

가사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가사시간이 충분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사시간도 충분한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가사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경향의 명확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상일 경우, 그 이외의 구간에 비하여 가사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5〉 응답자(19~49세)의 가사시간 적절성: 평일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1.5	15.0	70.9	11.0	1.5	14,149 100.0
지역($\chi^2=4.0$)						
동부	1.6	15.0	70.9	11.0	1.5	11,738 100.0
읍면부	1.1	15.2	71.1	11.0	1.6	2,410 100.0
성별($\chi^2=250.3^{***}$)						
남자	2.3	18.2	69.8	8.4	1.2	7,117 100.0
여자	0.7	11.9	72.1	13.5	1.8	7,032 100.0
연령($\chi^2=84.5^{***}$)						
19-24세	2.1	16.9	71.6	8.1	1.4	2,430 100.0
25-29세	1.1	13.4	74.3	9.8	1.4	2,318 100.0
30-34세	1.4	14.4	71.5	10.9	1.8	2,077 100.0
35-39세	2.2	15.1	68.2	12.3	2.2	2,358 100.0
40-44세	1.5	15.7	69.3	12.2	1.3	2,578 100.0
45-49세	0.9	14.5	70.9	12.5	1.2	2,387 100.0
교육($\chi^2=18.8^*$)						
고졸이하	1.7	13.4	72.4	11.2	1.4	3,914 100.0
대졸	1.5	15.5	70.5	11.0	1.6	9,561 100.0
대학원졸	1.4	18.5	68.3	9.8	1.9	673 100.0
혼인상태($\chi^2=65.4$)						
미혼	1.4	14.2	74.2	9.1	1.2	6,049 100.0
기혼	1.6	15.7	68.5	12.4	1.8	8,099 100.0
취업여부($\chi^2=208.9^{***}$)						
취업	1.8	17.2	70.6	9.3	1.2	9,704 100.0
비취업	1.0	10.4	71.7	14.6	2.3	4,445 100.0
가구소득($\chi^2=108.0^{***}$)						
60% 미만	1.1	10.7	75.9	11.2	1.2	2,902 100.0
60-80% 미만	1.9	15.6	69.4	12.0	1.1	2,087 100.0
80-100% 미만	1.3	16.6	68.9	11.7	1.5	2,348 100.0
100-120% 미만	1.8	14.7	70.4	10.6	2.5	2,147 100.0
120-140% 미만	1.1	17.1	68.8	11.3	1.6	1,379 100.0
140-160% 미만	1.8	16.8	68.4	11.6	1.5	1,083 100.0
160% 이상	1.8	16.8	71.1	8.7	1.6	2,202 100.0
주당근로시간($\chi^2=185.3^{***}$)						
40시간 미만	.9	12.8	72.2	12.9	1.2	1,556 100.0
40시간	1.0	15.1	73.5	9.1	1.2	4,766 100.0
40시간 이상	3.2	22.0	65.6	8.1	1.0	3,3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여가시간

여가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비율 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여가시간 부족이 눈에 띄며,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30대에서 40대 초반에서 여가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보인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미혼자와 비취업자보다 기혼자와 취업자의 여가시간이 부족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로 하였을 때 60% 미만의 경우 여가시간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여가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6〉 응답자(19~49세)의 여가시간 적절성: 평일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4.8	20.0	51.4	20.5	3.4	14,149 100.0
지역($\chi^2=3.1$)						
동부	4.6	20.1	51.4	20.5	3.4	11,738 100.0
읍면부	5.4	19.4	51.3	20.5	3.4	2,410 100.0
성별($\chi^2=51.8^{***}$)						
남자	3.6	19.2	52.8	20.7	3.7	7,117 100.0
여자	5.9	20.8	49.9	20.3	3.1	7,032 100.0
연령($\chi^2=833.4$)						
19-24세	1.8	9.7	52.0	29.5	7.0	2,430 100.0
25-29세	3.2	15.0	53.7	23.9	4.2	2,318 100.0
30-34세	6.8	23.2	49.6	18.1	2.3	2,077 100.0
35-39세	8.5	29.1	47.8	13.3	1.4	2,358 100.0
40-44세	5.1	25.6	51.4	15.9	2.0	2,578 100.0
45-49세	3.4	17.6	53.5	22.2	3.4	2,387 100.0
교육($\chi^2=77.9^{***}$)						
고졸이하	4.3	18.4	50.9	22.1	4.4	3,914 100.0
대졸	4.6	20.4	51.6	20.3	3.2	9,561 100.0
대학원졸	8.9	24.3	51.3	14.2	1.3	673 100.0
혼인상태($\chi^2=1209.7^{***}$)						
미혼	1.6	10.4	54.1	28.1	5.9	6,049 100.0
기혼	7.1	27.2	49.3	14.8	1.6	8,099 100.0
취업여부($\chi^2=704.0^{***}$)						
취업	5.7	23.5	52.3	16.7	1.8	9,704 100.0
비취업	2.8	12.3	49.2	28.8	6.9	4,445 100.0
가구소득($\chi^2=276.7^{***}$)						
60% 미만	2.8	12.7	51.8	27.5	5.1	2,902 100.0
60-80% 미만	4.5	20.5	52.4	19.5	3.1	2,087 100.0
80-100% 미만	5.3	21.1	52.6	17.6	3.3	2,348 100.0
100-120% 미만	5.8	22.2	49.6	19.1	3.2	2,147 100.0
120-140% 미만	5.0	21.2	52.4	19.0	2.4	1,379 100.0
140-160% 미만	4.5	24.7	47.4	20.5	2.9	1,083 100.0
160% 이상	5.9	22.5	51.5	17.4	2.6	2,202 100.0
주당근로시간($\chi^2=366.7^{***}$)						
40시간 미만	4.7	18.0	51.9	21.8	3.5	1,556 100.0
40시간	3.9	19.9	55.6	18.7	1.9	4,766 100.0
40시간 이상	8.5	31.2	47.9	11.4	0.9	3,3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5) 기타시간

자기계발 등의 기타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보다 읍면동,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40대 초반,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보다 기혼,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의 기타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기타시간이 부족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로 했을 때, 60% 미만의 경우 기타시간이 비교적 충분한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외 구간인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로시간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기타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필수시간

필수시간을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보다 읍면부, 여자보다 남자, 기혼보다 미혼,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경우 필수시간이 충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연령대 및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필수시간이 충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당근로시간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필수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7〉 응답자(19~49세)의 기타시간 적절성: 평일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10.8	30.8	50.0	7.5	0.8	14,149 100.0
지역($\chi^2=45.2^{***}$)						
동부	10.0	30.8	50.8	7.5	0.9	11,738 100.0
읍면부	14.4	31.2	46.2	7.5	0.7	2,410 100.0
성별($\chi^2=28.3^{***}$)						
남자	10.0	29.5	52.0	7.8	0.8	7,117 100.0
여자	11.5	32.2	48.1	7.3	0.9	7,032 100.0
연령($\chi^2=691.7^{***}$)						
19-24세	5.7	20.7	59.5	12.2	1.9	2,430 100.0
25-29세	7.8	25.0	55.4	10.4	1.3	2,318 100.0
30-34세	13.9	31.6	46.2	7.3	1.0	2,077 100.0
35-39세	15.7	38.7	40.9	4.3	0.4	2,358 100.0
40-44세	13.4	35.2	45.6	5.5	0.3	2,578 100.0
45-49세	8.3	33.7	52.3	5.5	0.2	2,387 100.0
교육($\chi^2=28.1^{***}$)						
고졸이하	10.0	31.8	50.3	7.1	0.8	3,914 100.0
대졸	10.8	30.5	50.0	7.9	0.9	9,561 100.0
대학원졸	14.8	30.7	49.8	4.7	0.1	673 100.0
혼인상태($\chi^2=1071.0^{***}$)						
미혼	5.2	21.8	60.3	11.1	1.6	6,049 100.0
기혼	14.9	37.6	42.4	4.8	0.3	8,099 100.0
취업여부($\chi^2=437.1^{***}$)						
취업	12.2	33.9	48.1	5.3	0.4	9,704 100.0
비취업	7.5	24.3	54.2	12.3	1.8	4,445 100.0
가구소득($\chi^2=231.8^{***}$)						
60% 미만	6.8	23.9	59.3	8.9	1.1	2,902 100.0
60-80% 미만	11.2	35.0	46.2	6.8	0.8	2,087 100.0
80-100% 미만	12.1	31.8	46.8	8.3	1.0	2,348 100.0
100-120% 미만	12.3	33.3	45.5	8.2	0.7	2,147 100.0
120-140% 미만	9.9	32.4	50.0	7.4	0.3	1,379 100.0
140-160% 미만	12.3	31.5	51.1	4.3	0.7	1,083 100.0
160% 이상	12.2	31.4	48.8	6.6	1.0	2,202 100.0
주당근로시간($\chi^2=287.6^{***}$)						
40시간 미만	9.4	28.6	53.7	7.6	.7	1,556 100.0
40시간	9.5	31.6	53.1	5.4	.4	4,766 100.0
40시간 이상	17.4	39.5	38.6	4.2	.4	3,3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8-18〉 응답자(19~49세)의 필수시간 적절성: 평일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합계
전체	1.7	16.5	62.4	17.4	2.0	14,149 100.0
지역($\chi^2=14.8^{**}$)						
동부	1.9	16.5	62.7	17.0	1.9	11,738 100.0
읍면부	1.0	16.7	61.1	19.0	2.2	2,410 100.0
성별($\chi^2=68.6^{***}$)						
남자	1.0	15.2	63.6	18.1	2.1	7,117 100.0
여자	2.5	17.8	61.2	16.7	1.8	7,032 100.0
연령($\chi^2=587.8^{***}$)						
19-24세	0.7	9.3	60.2	25.1	4.7	2,430 100.0
25-29세	1.3	14.1	58.9	22.9	2.8	2,318 100.0
30-34세	2.7	20.6	58.1	17.4	1.1	2,077 100.0
35-39세	2.5	21.8	62.6	12.2	.9	2,358 100.0
40-44세	2.2	18.8	65.8	12.1	1.0	2,578 100.0
45-49세	0.9	15.0	68.2	14.8	1.1	2,387 100.0
교육($\chi^2=25.1^{**}$)						
고졸이하	1.2	15.9	62.6	18.5	1.8	3,914 100.0
대졸	1.9	16.6	62.4	17.1	2.0	9,561 100.0
대학원졸	2.9	19.1	62.2	14.5	1.4	673 100.0
혼인상태($\chi^2=733.1^{***}$)						
미혼	0.9	10.4	60.8	24.4	3.5	6,049 100.0
기혼	2.4	21.1	63.7	12.1	0.8	8,099 100.0
취업여부($\chi^2=418.4^{***}$)						
취업	2.0	19.3	63.2	14.3	1.2	9,704 100.0
비취업	1.1	10.5	60.7	24.0	3.6	4,445 100.0
가구소득($\chi^2=197.2^{***}$)						
60% 미만	1.1	10.1	63.7	22.3	2.8	2,902 100.0
60-80% 미만	1.5	17.6	62.7	16.0	2.2	2,087 100.0
80-100% 미만	1.6	16.4	64.2	16.5	1.3	2,348 100.0
100-120% 미만	1.8	18.9	60.0	17.3	2.1	2,147 100.0
120-140% 미만	2.3	18.1	61.7	16.7	1.2	1,379 100.0
140-160% 미만	2.4	19.1	60.3	16.1	2.1	1,083 100.0
160% 이상	2.2	19.4	62.6	14.2	1.6	2,202 100.0
주당근로시간($\chi^2=267.7^{***}$)						
40시간 미만	1.7	15.5	61.0	18.7	3.0	1,556 100.0
40시간	1.7	15.5	66.4	15.5	1.0	4,766 100.0
40시간 이상	2.5	26.3	59.9	10.6	.6	3,3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에 대해 7개의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숫자가 클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점 19.0%, 2점 22.6%, 3점 17.1%, 4점 17.2%, 5점 13.3%, 6점 7.0%, 7점 3.8%로 분포하였다. 4점이 중앙이므로 4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어렵다고 한 비율은 24.1%,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한 비율은 58.7%로 어렵지 않은 응답이 어렵다고 한 비율의 2.4배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비율의 큰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일·생활 균형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어렵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 기혼의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9〉 응답자(19~49세)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19.0	22.6	17.1	17.2	13.3	7.0	3.8	9,704	100.0
지역($\chi^2=13.2^*$)									
동부	18.9	22.6	16.9	17.0	13.3	7.3	3.9	7,980	100.0
읍면부	19.1	22.4	18.1	18.5	13.3	5.2	3.4	1,724	100.0
성별($\chi^2=197.5^{***}$)									
남자	21.9	24.1	17.4	17.0	11.5	5.3	2.8	5,624	100.0
여자	15.0	20.4	16.7	17.6	15.7	9.2	5.3	4,080	100.0
연령($\chi^2=479.1^{***}$)									
19-24세	30.6	26.5	13.8	13.4	10.1	4.6	1.0	942	100.0
25-29세	28.4	26.9	15.7	13.4	8.5	5.0	2.2	1,608	100.0
30-34세	21.2	21.2	17.3	16.6	11.4	7.7	4.6	1,568	100.0
35-39세	14.7	18.5	17.4	18.4	17.7	7.4	5.9	1,801	100.0
40-44세	12.2	21.1	19.4	19.0	15.2	8.3	4.8	1,968	100.0
45-49세	14.2	23.7	17.2	20.1	14.5	7.4	2.9	1,816	100.0
교육($\chi^2=22.5^*$)									
고졸이하	20.3	22.7	16.5	17.9	12.3	6.5	3.9	2,614	100.0
대졸	18.4	22.9	17.5	16.8	13.6	6.9	3.8	6,517	100.0
대학원졸	18.9	18.0	16.0	19.0	15.2	9.2	3.7	573	100.0
혼인상태($\chi^2=876.6^{***}$)									
미혼	31.3	26.6	15.0	13.5	8.0	4.0	1.5	3,719	100.0
기혼	11.3	20.1	18.4	19.5	16.6	8.8	5.3	5,985	100.0
가구소득($\chi^2=207.1^{***}$)									
60% 미만	27.2	23.6	16.5	14.7	9.5	5.4	3.0	1,722	100.0
60-80% 미만	19.5	23.9	16.0	19.2	13.1	5.4	2.9	1,285	100.0
80-100% 미만	18.5	21.8	17.8	18.9	14.1	5.2	3.7	1,569	100.0
100-120% 미만	14.2	22.5	19.8	15.5	15.0	8.3	4.7	1,523	100.0
120-140% 미만	15.0	20.9	19.1	19.3	14.4	7.3	4.1	1,045	100.0
140-160% 미만	15.7	22.5	14.1	17.8	15.6	9.1	5.2	846	100.0
160% 이상	19.0	22.5	15.8	16.8	13.3	8.9	3.8	1,713	100.0
주당근로시간($\chi^2=118.0^{***}$)									
40시간 미만	21.4	25.0	15.1	16.2	12.9	6.0	3.4	1,556	100.0
40시간	20.5	23.6	17.4	17.6	12.0	6.1	2.9	4,766	100.0
40시간 이상	15.7	20.0	17.7	17.2	15.4	8.7	5.2	3,3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이 소절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상기 제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혼인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혼인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출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만이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및 출산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출산 당시와 현재의 시간적인 불일치(mismatch)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변수를 제외한다. 즉, 앞서 살펴본 특성 변수 중 성별, 혼인상태를 비롯하여 지역, 취업여부, 가구소득은 제외하고,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하지만, 셋째 이상의 경우는 표본수가 100명 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 일한 여성 중 75.0%, 둘째 자녀는 67.2%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특성을 보면, 3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대졸이 타 범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표 8-20〉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전체	75.0	67.2
연령		
19-24세	44.2	-
25-29세	76.5	49.8
30-34세	86.3	79.1
35-39세	80.2	73.8
40-44세	74.9	67.7
45-49세	60.9	59.3
교육	($\chi^2=39.8^{***}$)	($\chi^2=30.6^{***}$)
고졸이하	56.3	45.6
대졸	78.5	72.9
대학원졸	77.6	67.8
합계	1,166 (100.0)	60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육아휴직 제도 이용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기혼 여성은 첫째 자녀 49.4%, 둘째 자녀 40.3%로 나타났으며, 세부특성별로는 20대 후반 및 3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표 8-21〉 육아휴직제도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전체	49.4	40.3
지역	($\chi^2=5.8^*$)	($\chi^2=4.1^*$)
동부	50.9	42.1
읍면부	40.6	31.8
연령		($\chi^2=47.2^{***}$)
19-24세	57.6	53.5
25-29세	76.5	68.8
30-34세	73.6	52.7
35-39세	60.2	36.6
40-44세	46.4	25.3
45-49세	16.7	-
교육	($\chi^2=19.3^{***}$)	($\chi^2=23.4^{***}$)
고졸이하	33.5	19.9
대졸	51.9	45.2
대학원졸	53.5	42.6
합계	1,110 (100.0)	593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연속 이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이용한 비율은 이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자녀 91.2%, 둘째 자녀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쓸 수 있는 회사는 대부분 연속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본수가 적은 20대 초반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두 제도를 연속으로 이용한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연속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전체	91.2	86.6
연령	($\chi^2=30.8^{***}$)	($\chi^2=12.6^*$)
19-24세	100.0	73.0
25-29세	97.0	96.1
30-34세	95.2	91.9
35-39세	95.5	85.1
40-44세	85.6	75.2
45-49세	73.8	-
교육	($\chi^2=3.9$)	($\chi^2=1.8$)
고졸이하	97.6	93.9
대졸	90.9	86.5
대학원졸	87.3	80.9
합계	549 (100.0)	239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용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비율은 첫째 자녀 25.2%, 둘째 자녀 24.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생 순위와 관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8-23〉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전체	25.2	24.2
연령	($\chi^2=234.7^{***}$)	($\chi^2=105.5^{***}$)
19-24세	12.9	17.2
25-29세	30.1	23.9
30-34세	42.2	34.9
35-39세	33.5	33.4
40-44세	24.7	27.7
45-49세	11.7	13.0
교육	($\chi^2=187.9^{***}$)	($\chi^2=127.0^{***}$)
고졸이하	12.0	11.6
대졸	31.0	30.7
대학원졸	39.8	38.2
합계	3,983 (100.0)	2,545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응답자의 경제활동과 일·생활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었고(68.6%), 그 중 절반 정도는 주 40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업종은 교육·행정·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상용직(60.9%)과 정규직(72.4%)의 비율이 높으며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자는 현재 일하는 시간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생활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일 8.9시간, 육아 3.4시간, 가사

1.6시간, 여가 3.9시간, 자기 계발 등 기타시간 1.5시간, 필수시간은 9.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은 일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타시간 이외의 시간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생활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 육아, 가사의 경우는 적당하였으나, 기타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2/3는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해당 자녀 출산 경험 여성의 약 2/3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보다 이용률이 낮았다. 반면,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은 해당 자녀 출산 경험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특히 둘째 자녀는 약 40%의 여성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연속으로 이용한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직장에서는 대부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 환경인 것을 시사한다. 다만,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한 여성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전히 이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남편)의 출산휴가 이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9장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주거 실태

제1절 청년기 주거독립 실태

제2절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

제3절 소결

제 9 장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주거 실태

이 장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세대간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간 관계는 주로 도덕과 규범의 틀에서 관찰되어 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상당히 견고한 도덕적 영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역할은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 결혼 및 주거독립의 지연 등 이른바 청년기 연장은 부모의 부양 책임 규범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부모 세대의 자녀부양책임 장기화는 자신의 부모세대 부양 책임은 물론 노후 준비 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본 조사의 응답자가 보고한 부모와의 관계는 규범에 따른 획일적인 양상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양상에 가까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부모와의 동거형태 및 부모와의 자원 이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우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정리된 동거여부 및 자원 이전 실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20대, 30대, 40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생애 시기의 성격을 의존, 자립, 연대 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제1절 청년기 주거독립 실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Furstenberg, 2010).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행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싱글에서 파트너 관계(partnership) 또는 부모상태(parentthood)로, 그리고 부모집을 떠나 독립적 거주로의 이행이 생애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성인됨이란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성인의 역할을 떠맡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성인기 이행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거나 이행발생률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어 왔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부모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정서적,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성인됨이라면, 성인기로의 이행 지연과 곤란은 부모에 대한 의존이 확대되는 현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거에서 두드러지는데, 주거자립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동거기간 연장이나 부모집으로의 복귀, 부모의 주거자금지원 등과 같이 부모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부모란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부모라고 여기는 사람을 부모로 파악하여, 친부모와 양부모 등 다양한 부모지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와 부모 사이의 혈연관계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1. 부모의 존재와 동거 여부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모의 존재유형을 파악한다. 다음 표는 응답자에게 현재 부모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있는 비율은 74.9%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는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17.5%,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8%는 현재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부재는 대부분 부모의 사망에 기인한다. 응답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모의 사망을 겪을 개연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부모가 부재하게 된다. 또한 중고령자의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체로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가 어머니가 부재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 조사에서 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7.5%인데 반해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연령집단별 부모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19-24세 중 부모가 모두 있는 사람의 비율은 93.3%이지만, 25-29세는 89.6%, 30-34세는 84.5%, 35-39세는 77.9%로 점차 감소했으며, 40대 초반과 후반에서는 각각 63.3%, 43.3%로 나타났다.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감소하고, 어머니만 있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가 늘어났다. 19-24세 연령집단에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와 어머니만 있는 경우는 각각 0.4%와 4.8%를 차지했지만, 35-39세에는 2.1%와 16.7%로 높아졌고, 45-49세에는 13.9%와 37.6%를 차지한다. 40대 후반이 되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 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고졸이하에서는 부모 모두 부재하는 경우가 8.9%, 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25.3%, 아버지만 있는 경우가 4.6%를 차지하여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존재 유형의 차이는 미혼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저연령층이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9-1〉 부모 존재 여부

(단위: %, 명)

구 분	모두 없음	어머니만 있음	아버지만 있음	모두 있음	합계	
전체	4.2	17.5	3.3	74.9	14,149	100.0
지역($\chi^2=30.8^{**}$)						
동부	4.0	16.9	3.3	75.8	11,738	100.0
읍면부	5.3	20.6	3.4	70.7	2,410	100.0
성별($\chi^2=25.305^{**}$)						
남자	3.4	17.0	3.5	76.0	7,117	100.0
여자	5.0	18.0	3.2	73.8	7,032	100.0
연령($\chi^2=2471.1^{***}$)						
19-24세	0.4	4.8	1.5	93.3	2,430	100.0
25-29세	1.1	7.1	2.2	89.6	2,318	100.0
30-34세	1.4	11.0	3.1	84.5	2,077	100.0
35-39세	2.1	16.7	3.3	77.9	2,358	100.0
40-44세	5.8	26.4	4.5	63.3	2,578	100.0
45-49세	13.9	37.6	5.3	43.3	2,387	100.0
교육($\chi^2=634.1^{***}$)						
고졸이하	8.9	25.3	4.6	61.2	3,914	100.0
대졸	2.4	14.5	2.8	80.3	9,561	100.0
대학원졸	2.9	16.1	2.7	78.3	673	100.0
혼인상태($\chi^2=719.2^{***}$)						
미혼	1.8	9.7	2.3	86.1	6,049	100.0
기혼	6.0	23.4	4.1	66.6	8,099	100.0
취업여부($\chi^2=38.5^{**}$)						
취업	4.5	18.5	3.6	73.4	9,704	100.0
비취업	3.7	15.5	2.7	78.2	4,44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표 9-2〉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표 9-3〉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와 한 부모만 있는 경우로 구분

하여 동거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9-2〉에 따르면, 19-49세 성인남녀 중 29.9%는 부모와 동거하고, 70.1%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가 21.7%, 어머니와 동거는 6.6%, 아버지와 동거는 1.6%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도 부모의 존재여부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까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연령이 상승하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가구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령과 더불어, 결혼, 취업 등도 주거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2〉 부모와의 동거여부

(단위: %, 명)

구 분	부모와 동거	모와 동거	부와 동거	비동거	합계	
전체	21.7	6.6	1.6	70.1	13,554	100.0
지역						
동부	21.3	6.6	1.6	70.5	11,271	100.0
읍면부	23.5	6.2	1.9	68.4	2,283	100.0
성별						
남자	23.8	7.7	2.1	66.4	6,872	100.0
여자	19.4	5.4	1.1	74.0	6,682	100.0
연령						
19-24세	59.7	12.1	3.7	24.4	2,420	100.0
25-29세	37.3	8.9	2.3	51.5	2,293	100.0
30-34세	15.2	5.1	1.7	78.0	2,047	100.0
35-39세	6.4	3.9	0.3	89.4	2,309	100.0
40-44세	4.4	3.9	0.5	91.3	2,429	100.0
45-49세	3.4	5.2	1.2	90.2	2,056	100.0
교육						
고졸이하	17.9	9.4	2.8	69.8	3,565	100.0
대졸	24.1	5.8	1.3	68.8	9,335	100.0
대학원졸	6.5	1.9	0.3	91.3	653	100.0
혼인상태						
미혼	47.9	12.8	3.4	35.9	5,938	100.0
기혼	1.2	1.7	0.2	96.8	7,616	100.0
취업여부						
취업	16.1	5.9	1.5	76.5	9,272	100.0
비취업	33.7	8.0	1.9	56.4	4,28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구체적으로, 19-24세의 비동거율은 24.4%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동거율이 상승하여 40대 연령집단에서는 비동거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 25-29세, 30-34세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취업, 결혼 등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주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35.9%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데 반해, 기혼자의 96.8%가 부모와 비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47.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도 각각 12.8%와 3.4%를 차지한다. 또한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적으로는 도시(동부) 거주자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비율이 농촌(읍면부) 거주자보다 높았다. 남성의 부모 비동거율은 66.4%, 여성의 부모 비동거율은 74.0%를 차지하여,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부모 양친의 존재여부에 따라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부 또는 모만 있는 응답자의 경우 부모 동거율은 18.8%이고, 부모 모두 있는 경우의 부모 동거율은 27.7%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19-24세와 25-29세에서는 부모가 모두 있을 때 부모와 동거율이 더 높았지만, 30-34세 이후에는 부모가 모두 있을 때 부모와의 동거율이 더 낮았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혼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있을 때 부모와의 동거율이 더 높았지만, 기혼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있을 때 부모와의 동거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있는가와 상관없이, 도시거주자는 부모와의 동거율이 농촌 거주자에 비해 낮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와의 동거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9-3〉 부모존재유형에 따른 부모동거여부

(단위: %, 명)

구 분	부모 한 명만 있는 경우				부모 모두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비동거	합계		부모와 함께	부 또는 모와 함께	합계		
전체	18.8	81.2	2,952	100.0	27.7	8.2	67.1	10,602	100.0
지역									
동부	18.2	81.8	2,374	100.0	27.0	6.4	67.5	8,897	100.0
읍면부	21.3	78.7	578	100.0	31.5	5.9	65.0	1,705	100.0
성별									
남자	25.7	74.3	1,460	100.0	30.2	7.9	64.3	5,412	100.0
여자	12.1	87.9	1,492	100.0	25.0	13.0	70.0	5,190	100.0
연령									
19-24세	72.0	28.0	153	100.0	63.8	15.0	24.2	2,267	100.0
25-29세	42.6	57.4	215	100.0	41.1	8.6	50.9	2,078	100.0
30-34세	25.4	74.6	291	100.0	17.8	3.9	78.5	1,756	100.0
35-39세	14.3	85.7	472	100.0	8.0	2.1	90.4	1,836	100.0
40-44세	11.6	88.4	797	100.0	6.5	1.4	92.7	1,632	100.0
45-49세	11.7	88.3	1,023	100.0	6.7	6.7	92.0	1,033	100.0
교육									
고졸이하	19.3	80.7	1,169	100.0	26.7	9.6	64.5	2,396	100.0
대졸	19.0	81.0	1,656	100.0	29.3	3.6	66.1	7,679	100.0
대학원졸	11.5	88.5	126	100.0	8.0	7.7	92.0	527	100.0
혼인상태									
미혼	59.2	40.8	727	100.0	54.5	8.0	35.2	5,211	100.0
기혼	5.6	94.4	2,225	100.0	1.7	3.6	97.9	5,391	100.0
취업여부									
취업	17.3	82.7	2,146	100.0	20.9	8.6	74.6	7,126	100.0
비취업	22.9	77.1	806	100.0	41.6	11.3	51.6	3,476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청년기 주거 독립과정: 회고적 정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응답자의 현재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 즉 주거독립여부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생애과정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만 15세 무렵의 주거형태와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집을 떠난 시점과 이유, 추후 부모집으로 돌아온 경험 유무 및 이유, 결혼 전과 후의 주거형태 변화 등을 다룬다. 이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또는 성장기)을 만 15세 무렵으로 정의한다.

우선 어린시절 주로 살았던 곳이 도시인가 농촌인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 응답자의 79%가 어린시절 도시(동부)에 살았고, 8.8%는 읍부, 12.2%는 면부에 살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린시절에도 동부에 산 경우가 86.0%로 나타났으나, 현재 읍부와 면부에 사는 사람이 과거에도 읍부 또는 면부에 살았던 비율은 66.0%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집단에 비해 20대와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은 도시에서 성장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표 9-4〉 만 15세 무렵에 살았던 지역의 동, 읍, 면 구분

(단위: %, 명)

구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전체	79.0	8.8	12.2	13,927	100.0
지역					
동부	86.0	5.7	8.3	11,578	100.0
읍면부	44.0	24.3	31.7	2,349	100.0
성별					
남자	79.1	8.5	12.4	7,081	100.0
여자	78.8	9.2	12.0	6,845	100.0
연령					
19-24세	83.1	8.7	8.3	2,399	100.0
25-29세	83.5	8.3	8.3	2,283	100.0
30-34세	83.6	7.7	8.8	2,010	100.0
35-39세	81.3	8.0	10.7	2,316	100.0
40-44세	75.4	9.1	15.5	2,552	100.0
45-49세	68.1	11.1	20.8	2,367	100.0
교육					
고졸이하	70.2	11.0	18.9	3,787	100.0
대졸	82.0	8.2	9.8	9,471	100.0
대학원졸	85.9	5.2	8.9	669	100.0
혼인상태					
미혼	82.6	8.3	9.1	6,014	100.0
기혼	76.2	9.3	14.6	7,91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린시절(만 15세 무렵) 부모와 함께 살았는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98.3%가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응답했다. 적어도 청소년기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0.8%가 양친과 함께 살았고, 7.5%는 부모 중 한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1.7%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절 부모 동거유형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연령 등과 관련이 없었고, 오직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즉 고졸이하의 경우 부모 모두와 함께 살았던 비율이 83.1%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은 비중도 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미성년기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9-5〉 만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 분	양친과 동거	한 부모와 동거	비동거	합계	
전체	90.8	7.5	1.7	14,149	100.0
지역($\chi^2=3.3$)					
동부	90.9	7.5	1.6	11,738	100.0
읍면부	90.5	7.4	2.1	2,410	100.0
성별($\chi^2=4.6$)					
남자	90.4	7.9	1.6	7,117	100.0
여자	91.3	7.0	1.7	7,032	100.0
연령($\chi^2=20.7^*$)					
19-24세	90.3	8.2	1.5	2,430	100.0
25-29세	90.4	8.1	1.5	2,318	100.0
30-34세	91.2	6.9	1.9	2,077	100.0
35-39세	92.5	6.5	1.1	2,358	100.0
40-44세	90.8	7.1	2.1	2,578	100.0
45-49세	90.0	8.0	2.0	2,387	100.0
교육($\chi^2=418.2^{***}$)					
고졸이하	83.1	13.1	3.9	3,914	100.0
대졸	93.7	5.5	0.9	9,561	100.0
대학원졸	95.9	3.7	0.3	673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어린시절 가족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매긴 주관적인 계층지위 점수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계층지위 점수와 미래 10년 후의 계층점수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응답자의 15세 무렵 본인 가족의 계층지위 점수는 평균 4.85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어린 시절 계층지위 점수가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 시절 계층점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 집단 별로 보면, 고졸이하는 4.30, 대졸은 5.03, 대학원졸은 5.39로 나타나, 현재의 학력계층과 어린 시절 주관적 계층점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6〉 시점별 주관적 계층 점수

(단위: 점)

구 분	15세 계층점수	현재계층점수	10년후 계층점수
전체	4.85	5.37	6.42
지역			
동부	4.90	5.40	6.44
읍면부	4.59	5.24	6.31
성별			
남자	4.79	5.33	6.42
여자	4.90	5.41	6.42
연령			
19-24세	5.21	5.50	6.49
25-29세	5.00	5.38	6.52
30-34세	4.88	5.39	6.59
35-39세	4.86	5.34	6.53
40-44세	4.69	5.34	6.37
45-49세	4.46	5.26	6.05
교육			
고졸이하	4.30	4.96	6.11
대졸	5.03	5.50	6.53
대학원졸	5.39	5.88	6.69
혼인상태			
미혼	4.98	5.31	6.30
기혼	4.75	5.41	6.51
취업여부			
취업	4.78	5.38	6.46
비취업	4.99	5.36	6.32

주: 1(최하)에서 10(최상)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의 계층점수 평균은 어린 시절의 주관적 계층점수 평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년 후 계층점수 전망치는 현재의 계층점수 평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평균값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로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층점수의 평균치를 통해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현재의 계층지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하는 경향과 더불어, 현재보다 미래의 지위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평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만 18세 이후 주거 독립 경험

이하에서는 만 18세 이후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만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 자체를 주거 독립으로 간주하고 서술한다. 따라서 비동거, 주거독립, 떨어져 살기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현재의 주거형태가 아닌 과거의 주거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하의 내용은 모두 지난 경험에 대한 정보를 회고적으로 수집한 결과이다.

다음 표는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있는가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과거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현재 만 19-49세 성인 남녀의 78.3%는 독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거독립 시점의 과거 나이는 20세 미만이 18.5%, 20-24세가 27.6%, 25-29세가 20.4%, 30-34세가 9.2%, 35세 이상이 2.6%로 나타났다.

18세 이후 독립경험 여부는 응답자의 현재 나이에 영향을 받는 종단적 성격의 정보이다. 현재 연령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관찰기간이 짧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현재 19-24세의 66.8%가 독립한 경험이 없었고, 25-29세는 33.6%가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30-34세는 15.3%, 35-39세는 5.9% 만이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9-7〉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 및 독립한 나이

(단위: %, 명)

구 분	독립한 적 없음	독립한 적 있음	독립한 시기(과거 나이)					합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전체	21.7	78.3	18.5	27.6	20.4	9.2	2.6	14,094	100.0
지역									
동부	22.3	77.7	17.8	26.4	21.0	9.7	2.8	11,693	100.0
읍면부	18.6	81.4	21.6	33.6	17.7	6.6	1.8	2,400	100.0
성별									
남자	24.0	76.0	18.4	25.8	18.5	10.1	3.3	7,088	100.0
여자	19.3	80.7	18.6	29.5	22.4	8.3	2.0	7,006	100.0
연령									
19-24세	66.8	33.2	15.5	17.8	0.0	0.0	0.0	2,424	100.0
25-29세	33.6	66.4	20.8	31.6	14.1	0.0	0.0	2,314	100.0
30-34세	15.3	84.7	20.5	29.4	25.4	9.3	0.0	2,070	100.0
35-39세	5.9	94.1	19.0	26.8	29.0	17.4	2.0	2,354	100.0
40-44세	4.2	95.8	18.4	29.2	26.1	16.5	5.7	2,566	100.0
45-49세	4.0	96.0	17.2	31.4	28.5	11.3	7.5	2,366	100.0
교육									
고졸이하	22.7	77.3	16.4	36.0	15.9	6.2	2.8	3,876	100.0
대졸	22.5	77.5	18.6	24.4	21.8	10.2	2.5	9,545	100.0
대학원졸	4.7	95.3	29.3	24.6	26.0	12.5	3.0	673	100.0
혼인상태									
미혼	48.9	51.1	16.9	23.8	7.0	2.2	1.2	6,028	100.0
기혼	1.4	98.6	19.6	30.4	30.5	14.4	3.7	8,066	100.0
취업여부									
취업	16.0	84.0	19.6	28.9	21.8	10.5	3.2	9,664	100.0
비취업	34.2	65.8	16.0	24.8	17.5	6.2	1.3	4,430	100.0

주: 1) 여기에서 '독립'은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것을 의미함(군입대 제외).

2) 부모가 없었던 사례는 제외하고 계산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 조사에서 40-44세 연령집단은 독립 경험이 없는 비율이 4.2%에 불과했고, 45-49세 연령집단은 독립한 적 없는 비율이 4.0%로 나타났다. 두 5세 간격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미미한 것을 통해, 대략 40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주거독립 이행을 마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40-44세 연령집단이 주거 독립을 경험한 과거 연령은 20세 미만이 18.4%, 20-24세가

29.2%를 차지하여 24세까지 약 50%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34세, 35세 이상에 독립한 경우도 각각 16.5%와 5.7%를 차지하여, 30세 이후에 독립한 비율도 약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 독립여부와 독립시기 패턴은 우리나라 성인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 비율이 높았다. 독립시기도 남성보다 조금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48.9%가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미혼의 특징과 더불어 미혼자 집단에 아직 독립을 경험하지 않은 19-24세 및 25-29세 등 저연령집단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독립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결혼을 해서”(36.4%)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28.0%), 직장(20.9%)을 이유로 독립한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학, 취업, 결혼 등이 부모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게 되는 주된 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학교나 직장 때문인 경우보다 결혼이나 독립 자체를 위해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면서 주거독립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은 결혼하기 전에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집을 떠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해보면, 미혼 응답자의 경우 학교 때문인 경우(45.9%), 직장 때문인 경우(28.5%), 독립하고 싶어서(14.3%) 등이 주거

독립의 이유로 나타났다. 결혼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독립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50.4%)를 차지했고, 학교(21.1%), 직장(18.0%), 독립자체를 원해서(4.6%) 등이 독립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9-8〉 부모로부터 독립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28.0	2.8	20.9	36.4	7.3	3.9	0.7	11,037	100.0
지역($\chi^2=80.3^{***}$)									
동부	27.8	2.6	19.7	37.5	7.8	3.8	0.8	9,084	100.0
읍면부	29.2	3.6	26.5	31.2	5.0	4.0	0.4	1,953	100.0
성별($\chi^2=482.9^{***}$)									
남자	31.4	3.8	24.2	26.4	9.2	4.5	0.6	5,384	100.0
여자	24.8	1.9	17.9	45.9	5.5	3.3	0.8	5,653	100.0
연령($\chi^2=1315.1^{***}$)									
19-24세	59.2	2.1	15.1	4.5	11.9	6.0	1.2	805	100.0
25-29세	41.4	3.5	23.8	14.9	9.7	5.8	0.9	1,536	100.0
30-34세	31.7	2.6	21.6	32.4	7.7	3.4	0.6	1,753	100.0
35-39세	24.7	2.5	19.4	42.6	6.7	3.2	0.9	2,215	100.0
40-44세	21.5	3.0	19.7	44.6	6.6	4.1	0.5	2,458	100.0
45-49세	15.4	2.8	23.4	50.3	5.2	2.5	0.5	2,270	100.0
교육($\chi^2=1439.3^{***}$)									
고졸이하	4.9	4.4	32.0	38.6	12.0	7.7	0.4	2,997	100.0
대졸	35.3	2.2	17.1	36.2	5.9	2.5	0.8	7,399	100.0
대학원졸	51.5	2.2	12.8	28.1	2.8	1.9	0.7	641	100.0
혼인상태($\chi^2=2544.0^{***}$)									
미혼	45.9	3.7	28.5	0.0	14.3	6.7	1.0	3,082	100.0
기혼	21.1	2.4	18.0	50.4	4.6	2.8	0.6	7,955	100.0
취업여부($\chi^2=58.5^{***}$)									
취업	27.6	3.0	22.3	34.8	7.7	3.8	0.7	8,122	100.0
비취업	29.1	2.3	17.2	40.6	6.2	3.9	0.7	2,915	100.0

주: 1) ①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 ② 취업준비를 해야 해서 ③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④ 결혼을 해서 ⑤ 독립하고 싶어서 ⑥ 집안사정이 있어서 ⑦ 기타
 2) 여기에서 '독립'은 만 18세 이후 부모로부터 6개월 이상 떨어져 산 것을 의미함(군입대 제외).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만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전체의 78.3%)만을 대상으로, 그 경험이 일시적이었는가, 지속적이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만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이후 다시 부모와 6개월 이상 함께 산 적이 있는지 경험 여부와 다시 함께 산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우선 만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적이 있는 사람의 78.2%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비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1.8%는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도시일수록, 여성일수록, 현재 연령이 높거나 기혼일수록 부모와의 재동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농촌거주자이거나 남성이거나 현재 연령이 낮은 경우는 만 18세 이후 부모와의 비동거가 지속적인 주거 독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주거분리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표에서 재동거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학교 졸업이나 이직에 따라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63.9%)이 주된 이유였다. 그 외 혼자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4.7%), 떨어져 사는 것이 힘들어서(8.0%), 가사, 자녀돌봄 등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6.5%), 부모를 돌보기 위해(5.8%)의 순으로 부모와 다시 동거한 이유가 조사되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24세와 25-29세에서는 부모와의 재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재동거의 이유 중에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더 규범적이라고 생각한 데 따른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40-44세, 45-49세에서는 부모와 재동거 비율이 각각 18.0%, 15.3%로 낮았으며, 재동거의 이유에서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부모와 다시 동거 여부 및 다시 동거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부모와 다시 동거함							다시 동거 안함	합계	
	동거 함	다시 동거한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1.8	63.9	14.7	8.0	6.5	5.8	1.1	78.2	11,037	100.0
지역($\chi^2=72.0^{***}$)										
동부	20.3	62.7	15.1	8.5	7.3	5.2	1.3	79.7	9,084	100.0
읍면부	29.0	67.8	13.5	6.2	4.1	8.0	0.4	71.0	1,953	100.0
성별($\chi^2=44.3^{***}$)										
남자	24.5	64.0	15.3	6.9	5.7	7.5	0.6	75.5	5,384	100.0
여자	19.3	63.8	14.1	9.2	7.5	3.8	1.6	80.7	5,653	100.0
연령($\chi^2=240.3^{***}$)										
19-24세	31.3	56.1	23.9	10.8	4.7	0.4	4.0	68.7	805	100.0
25-29세	32.9	69.0	17.0	8.2	1.8	2.7	1.2	67.1	1,536	100.0
30-34세	24.0	70.0	14.9	8.1	3.6	2.8	0.6	76.0	1,753	100.0
35-39세	19.8	67.4	13.1	7.2	5.3	6.3	0.7	80.2	2,215	100.0
40-44세	18.0	61.2	10.8	8.2	11.0	8.7	0.2	82.0	2,458	100.0
45-49세	15.3	53.9	11.7	5.9	14.2	13.6	0.8	84.7	2,270	100.0
교육($\chi^2=76.7^{***}$)										
고졸이하	16.2	35.4	25.4	11.6	10.8	15.5	1.2	83.8	2,997	100.0
대졸	24.0	70.8	12.3	7.2	5.2	3.4	1.0	76.0	7,399	100.0
대학원졸	22.8	74.1	8.5	5.4	8.6	2.9	0.4	77.2	641	100.0
혼인상태($\chi^2=568.9^{***}$)										
미혼	36.9	64.9	18.4	9.0	1.2	5.1	1.4	63.1	3,082	100.0
기혼	16.0	63.0	11.4	7.0	11.3	6.5	0.8	84.0	7,955	100.0
취업여부($\chi^2=5.7^*$)										
취업	21.2	66.7	12.3	6.8	6.9	6.8	0.4	78.8	8,122	100.0
비취업	23.4	56.6	20.8	11.0	5.5	3.4	2.7	76.6	2,915	100.0

주: 1) ① 학업종료, 직장이동 등 부모의 집과 다시 가까워져서 ② 혼자 사는 데 드는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이 부담스러워서 ③ 떨어져 사는 것이 힘들어서(안전, 외로움 등) ④ 가사, 자녀돌봄 등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⑤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돌보기 위해 ⑥ 기타

2) '부모와 다시 동거'는 만 18세 이후 부모와 6개월 이상 떨어져 산 이후 다시 부모와 6개월 이상 함께 산 경우를 의미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첫 결혼 전후 주거의 변화

결혼은 우리나라 성인이 부모로부터 주거독립하는 주된 계기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독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은 모두 이미 초혼을 경험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음 표는 결혼 전에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기혼자들 중 결혼 전에 혼자 산 사람의 비율은 26.4%이고 부모와 함께 산 사람의 비율은 61.4%로 나타났다. 비혼 파트너와 함께 산 경우는 1.9%로 조사되었다. 결혼 직전의 동거형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 전 혼자 산 사람의 비율이 34.8%이고 부모와 함께 산 사람의 비율이 54.5%이지만, 여성은 20.1%가 혼자 살았고 66.5%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응답했다.

〈표 9-10〉 첫 결혼 전 함께 산 사람 (복수응답)

(단위: %)

구 분	혼자	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척	애인	친구 등	룸메이트
전체	26.4	61.4	29.4	1.7	1.9	3.1	1.0
지역							
동부	26.1	62.0	30.5	1.6	1.6	2.6	1.0
읍면부	27.7	58.3	24.3	1.8	2.9	5.3	1.0
성별							
남자	34.8	54.5	20.6	1.2	1.8	3.4	1.4
여자	20.1	66.5	36.0	2.0	1.9	2.8	0.7
연령							
19-24세	34.5	58.0	25.3	3.2	1.3	2.3	0.0
25-29세	29.1	60.3	27.4	1.3	3.9	2.7	0.6
30-34세	26.7	62.2	26.6	1.8	2.9	2.8	1.1
35-39세	26.9	60.7	26.9	1.2	2.4	3.3	1.3
40-44세	28.0	60.9	28.5	2.0	1.2	2.8	1.0
45-49세	23.3	62.3	34.8	1.6	1.1	3.4	0.9
교육							
고졸이하	26.6	56.5	28.2	2.4	2.9	5.1	1.1
대졸	25.3	64.7	30.3	1.4	1.5	2.2	0.9
대학원졸	37.0	50.2	25.6	0.7	0.9	2.9	2.1
취업여부							
취업	28.3	59.8	27.6	1.7	1.8	3.2	1.1
비취업	21.1	65.9	34.5	1.7	2.0	2.9	0.7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는 0.1%에 불과하여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결혼 전 거주주택의 점유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가 6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18.6%, 전세가 10.3%를 차지했다. 결혼 전 남성의 56.4%, 여성의 69.3%가 부모나 친척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남성의 1.6%, 여성의 0.7%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표 9-11〉 첫 결혼 직전 거주하던 집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 분	부모/친척 무상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무보증금 월세	사글세	직장 무상	합계	
전체	63.8	1.1	10.3	18.6	1.5	0.6	4.2	8,098	100.0
지역($\chi^2=29.3^{***}$)									
동부	64.4	1.1	10.6	18.1	1.3	0.6	4.0	6,653	100.0
읍면부	61.0	0.9	8.8	20.9	2.4	1.1	5.0	1,445	100.0
성별($\chi^2=179.7^{***}$)									
남자	56.4	1.6	11.9	21.5	1.5	0.9	6.2	3,466	100.0
여자	69.3	0.7	9.1	16.4	1.5	0.4	2.7	4,632	100.0
연령($\chi^2=110.4^{***}$)									
19-24세	56.7	0.0	5.5	31.9	4.4	0.9	0.6	75	100.0
25-29세	63.3	0.7	5.2	24.6	2.0	1.0	3.1	503	100.0
30-34세	63.6	0.8	9.4	21.1	1.2	0.3	3.6	1,208	100.0
35-39세	63.1	0.9	9.8	20.1	1.9	0.1	4.1	1,928	100.0
40-44세	63.3	1.6	11.3	17.4	1.4	0.9	4.0	2,245	100.0
45-49세	65.3	1.0	11.6	15.0	1.1	0.9	5.1	2,140	100.0
교육($\chi^2=134.1^{***}$)									
고졸이하	59.6	0.6	8.5	23.9	2.1	1.0	4.4	2,362	100.0
대졸	66.7	1.3	10.6	15.8	1.2	0.4	3.9	5,206	100.0
대학원졸	53.8	1.2	15.1	21.9	1.1	1.2	5.9	530	100.0
취업여부($\chi^2=50.7^{***}$)									
취업	62.0	1.1	11.1	18.9	1.4	0.7	4.8	5,983	100.0
비취업	68.7	1.0	8.1	17.7	1.7	0.4	2.4	2,115	100.0
가구소득($\chi^2=166.1^{***}$)									
60% 미만	58.2	0.9	7.7	25.8	3.1	0.9	3.4	891	100.0
60-80% 미만	68.0	0.4	7.6	17.5	2.0	1.0	3.4	1,304	100.0
80-100% 미만	65.8	1.4	8.0	19.4	1.5	0.6	3.3	1,546	100.0
100-120% 미만	63.5	0.9	10.8	18.3	0.9	0.7	5.0	1,484	100.0
120-140% 미만	60.7	1.0	11.9	19.3	1.3	0.8	5.0	883	100.0
140-160% 미만	64.2	1.7	13.1	16.7	0.8	0.4	3.1	691	100.0
160% 이상	62.9	1.4	14.5	14.5	0.9	0.2	5.5	1,299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점유형태가 임대인 경우는 전세보다는 월세의 비중이 높았다. 고연령층에 비해 3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고학력층에 비해 저학력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는 결혼 후 첫 주택의 점유형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세(49.5%), 자가(24.9%)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15.1%)와 부모집 무상(7.3%)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세와 자가를 합한 비율이 74.4%를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시점에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해 큰 규모의 자원이 동원되는 것이 우리나라 결혼의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결혼 첫 주택의 점유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이거나 현재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층이거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가의 비중이 높았고 임대 중에서는 전세의 비중이 높았다.

지금까지 현재의 주거형태 및 과거의 주거이력을 통해, 청년기 주거 독립과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 및 기혼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표 9-12〉 첫 결혼 후 첫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 분	부모/친척 무상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무보증금 월세	사글세	직장 무상	합계	
전체	7.3	24.9	49.5	15.1	0.9	0.4	1.9	8,098	100.0
지역($\chi^2=101.5^{***}$)									
동부	6.4	24.5	51.5	14.8	0.8	0.4	1.6	6,653	100.0
읍면부	11.3	26.6	40.3	16.4	1.5	0.5	3.4	1,445	100.0
성별($\chi^2=7.1$)									
남자	6.8	25.3	50.5	14.4	0.8	0.4	1.9	3,466	100.0
여자	7.6	24.6	48.8	15.6	1.0	0.4	2.0	4,632	100.0
연령($\chi^2=153.1^{***}$)									
19-24세	14.0	15.9	18.2	48.9	3.1	0.0	0.0	75	100.0
25-29세	9.9	21.8	46.7	17.9	1.9	0.2	1.6	503	100.0
30-34세	5.6	27.4	48.7	15.6	0.9	0.3	1.6	1,208	100.0
35-39세	5.7	25.2	51.7	14.5	0.6	0.3	1.9	1,928	100.0
40-44세	6.6	26.9	49.1	14.0	0.6	0.5	2.3	2,245	100.0
45-49세	9.5	22.1	50.2	14.7	1.2	0.5	1.8	2,140	100.0
교육($\chi^2=447.9^{***}$)									
고졸이하	10.3	18.5	41.4	25.7	1.7	0.7	1.6	2,362	100.0
대졸	6.3	27.7	52.2	11.0	0.6	0.3	1.9	5,206	100.0
대학원졸	2.8	25.8	59.2	8.3	0.2	0.0	3.7	530	100.0
취업여부($\chi^2=20.3^{**}$)									
취업	7.0	25.2	50.4	14.4	0.8	0.4	1.8	5,983	100.0
비취업	8.1	23.8	47.0	17.2	1.2	0.5	2.2	2,115	100.0
가구소득($\chi^2=497.8^{***}$)									
60% 미만	8.0	15.9	36.0	34.4	2.9	1.0	1.7	891	100.0
60-80% 미만	8.2	23.2	48.7	15.6	1.3	0.6	2.4	1,304	100.0
80-100% 미만	7.7	24.9	46.3	17.6	1.1	0.5	1.9	1,546	100.0
100-120% 미만	7.3	25.6	52.5	12.2	0.4	0.1	1.9	1,484	100.0
120-140% 미만	6.4	24.1	55.9	10.6	0.2	0.4	2.5	883	100.0
140-160% 미만	6.5	29.4	52.9	9.0	0.4	0.4	1.4	691	100.0
160% 이상	6.3	30.0	53.9	8.0	0.2	0.1	1.6	1,299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

여기에서는 함께 살지 않는 비동거 부모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는 연락빈도, 경제적 자원, 돌봄(시간) 자원의 이전 양태를 의미한다.

1. 부모와의 연락빈도와 친밀한 관계

다음 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연락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9-49세 비동거부모를 둔 성인남녀의 22.3%가 비동거 부모와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연락하는 경우는 29.0%,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5.2%로 나타났다. 7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동거 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는 응답은 각각 13.1%와 6.8%를 차지하였고 일 년에 서너 번 연락을 하거나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2.0%와 1.5%로 나타났다. 연락빈도 측면에서 보면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는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비동거부모와의 연락빈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서너번 연락하는 여성은 전체의 60.9%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20.0%p가 높았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24세와 25-29세는 일주일에 여러 번 연락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연락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의 부모 연락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연락을 하는 비율은 고졸이하의 경우 68.1%로 나타나 대졸 및 대학원졸의 79.5%에 비해 10.0%p가 낮았다. 미혼자와 기혼자는 부모와의 연락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 부모와 연락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3〉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구 분	매일	일주일 에 서너번	일주일 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세번 정도	한달에 한번정 도	일년에 서너번 정도	거의 또는 전혀 연락안함	합계	
전체	22.3	29.0	25.2	13.1	6.8	2.0	1.5	9,555	100.0
지역($\chi^2=3.9$)									
동부	22.4	28.9	25.3	13.0	6.7	2.1	1.5	7,992	100.0
읍면부	22.1	29.1	25.0	13.6	7.4	1.7	1.2	1,563	100.0
성별($\chi^2=469.8^{***}$)									
남자	14.6	26.3	29.7	16.2	9.2	2.6	1.5	4,592	100.0
여자	29.5	31.4	21.1	10.3	4.7	1.6	1.5	4,963	100.0
연령($\chi^2=353.0^{***}$)									
19-24세	28.0	33.0	20.7	7.9	4.3	2.2	3.9	618	100.0
25-29세	29.1	33.5	21.3	8.3	4.8	1.6	1.4	1,192	100.0
30-34세	28.9	28.9	23.9	10.2	5.3	1.7	1.1	1,597	100.0
35-39세	22.9	29.1	26.5	12.9	6.0	1.8	0.8	2,068	100.0
40-44세	17.8	28.3	26.8	16.0	7.9	2.2	1.1	2,222	100.0
45-49세	15.1	25.4	27.3	17.4	9.9	2.7	2.2	1,858	100.0
교육($\chi^2=224.0^{***}$)									
고졸이하	19.5	25.8	22.8	15.4	9.5	3.4	3.6	2,512	100.0
대졸	23.1	30.3	26.1	12.5	5.8	1.5	0.8	6,447	100.0
대학원졸	25.4	27.2	26.9	10.4	7.3	2.5	0.4	597	100.0
혼인상태($\chi^2=58.9^{**}$)									
미혼	23.3	30.8	24.8	10.1	6.1	2.3	2.7	2,182	100.0
기혼	22.0	28.4	25.4	14.0	7.1	2.0	1.1	7,373	100.0
취업여부($\chi^2=158.5^{***}$)									
취업	20.2	27.9	26.9	14.2	7.5	2.1	1.2	7,121	100.0
비취업	28.6	32.1	20.3	10.0	4.8	1.9	2.2	2,434	100.0
가구소득($\chi^2=124.7^{**}$)									
60% 미만	22.4	29.8	23.4	10.9	7.4	2.7	3.4	2,193	100.0
60-80% 미만	23.0	26.6	26.9	13.7	6.6	2.2	1.1	1,567	100.0
80-100% 미만	21.9	30.2	25.7	12.7	7.0	1.5	1.0	1,618	100.0
100-120% 미만	22.3	27.9	24.7	15.1	7.3	1.9	0.9	1,459	100.0
120-140% 미만	18.6	32.2	25.5	14.1	7.1	1.8	0.7	833	100.0
140-160% 미만	22.0	28.2	26.9	13.8	6.5	1.7	0.8	655	100.0
160% 이상	24.5	28.1	25.5	13.7	5.5	1.9	0.8	1,23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응답자가 일상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의 범위를 파악한 결과이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등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 또는 친족과 애인, 친구, 동료 등 비가족을 모두 포함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친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상이나 고민을 나누는 사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친구로서 59.6%가 응답했다. 그 다음은 애인이나 배우자로서 53.8%를 차지했다. 어머니는 39.8%, 형제자매는 29.5%, 아버지는 14.2%, 직장동료는 1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나 어머니의 비중이 낮아지고 배우자(파트너),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및 수평적인 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는 친구가 74.8%, 어머니가 63.4%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와 일상적 경험이나 고민을 나누는다는 응답은 19-24세에서도 29.0%에 불과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정서적인 친밀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응답자 중 친밀한 사람으로 어머니를 응답한 사람은 27.6%, 아버지를 응답한 사람은 6.2%에 불과했고, 배우자나 애인을 응답한 사람은 71.5%를 차지했다.

부모와의 연락빈도와 친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는 연령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일상적 경험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구를 중심으로 일상적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여, 비동거 부모와 일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9-14〉 일상적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는 대상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없음	애인이나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전체	2.6	53.8	14.2	39.8	3.2	29.5	3.2	59.6	12.2
지역									
동부	2.6	53.7	14.3	40.1	3.2	29.4	3.2	59.6	11.9
읍면부	2.6	54.1	13.9	38.0	3.4	30.0	3.2	60.0	13.8
성별									
남자	3.9	51.3	17.4	31.6	1.0	22.4	3.0	58.8	15.0
여자	1.4	56.2	11.0	48.0	5.5	36.6	3.4	60.5	9.4
연령									
19-24세	1.9	14.6	29.0	63.4	0.1	31.2	2.2	74.8	4.6
25-29세	2.6	37.3	23.8	53.8	0.2	33.1	2.8	66.5	10.8
30-34세	3.5	58.4	15.0	43.2	0.5	25.3	3.2	56.5	14.1
35-39세	2.5	74.5	8.6	34.1	1.2	27.0	2.7	54.6	13.8
40-44세	2.2	71.5	6.2	27.6	4.1	28.9	4.1	51.7	16.2
45-49세	3.3	65.8	3.4	17.9	12.6	30.8	4.2	53.7	13.8
교육									
고졸이하	4.0	48.3	9.4	31.1	5.7	28.7	3.5	56.1	11.0
대졸	2.2	54.5	16.3	43.6	2.2	30.0	3.1	61.3	12.5
대학원졸	1.4	74.3	13.2	35.6	3.3	25.8	2.8	56.2	15.8
혼인상태									
미혼	4.0	16.5	24.6	54.5	0.1	32.6	2.4	71.5	10.5
기혼	1.6	81.6	6.5	28.8	5.5	27.1	3.8	50.8	13.5
취업여부									
취업	2.5	59.0	12.2	34.6	3.3	27.8	3.3	58.3	17.5
비취업	2.9	42.2	18.6	51.1	3.1	33.0	3.0	62.6	0.7
가구소득									
60% 미만	5.3	29.8	15.2	39.3	2.2	25.2	3.0	63.5	10.0
60-80% 미만	2.7	58.6	11.0	34.8	3.1	28.8	3.0	54.2	11.5
80-100% 미만	2.2	58.1	11.3	35.5	3.2	27.6	2.8	59.1	11.1
100-120% 미만	1.5	64.1	13.5	38.9	3.7	30.1	3.6	60.1	11.6
120-140% 미만	2.0	60.6	13.6	43.5	3.5	33.0	3.2	56.5	15.1
140-160% 미만	1.3	60.7	19.2	43.7	4.8	33.1	3.9	62.7	16.4
160% 이상	1.7	58.4	17.9	46.2	3.1	33.1	3.5	60.3	13.8

주: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경제적 자원과 돌봄의 지원 경험 및 지원 규모

다음 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등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험과 가사일이나 병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당시 지난 1년을 관찰기간으로 하여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동거부모를 둔 19-49세 성인남녀의 19.7%가 정기적으로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83.2%는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8%가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가사일이나 병간호 등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비동거부모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 비율이 22.1%인 반면, 여성은 17.4%였다.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한 경험은 여성이 86.6%, 남성이 79.6%로서 여성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비율도 여성이 31.2%, 남성이 26.2%로 여성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24세의 경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경험 비율은 5.4%, 비정기적 경제적 지원 경험 비율은 42.3%, 돌봄 지원 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연령이 높은 45-49세의 경우에는 31.5%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88.1%와 38.9%가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진다. 고졸이하는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이 17.4%에 불과했으나, 대졸은 19.6%, 대학원졸은

30.7%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지원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제공한 비율과 돌봄제공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비율은 미혼이 17.7%, 기혼이 20.3%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관찰된다. 취업자의 정기적 지원 비율이 22.6%인 반면 비취업자의 정기적 지원비율은 11.0%에 불과했으나, 비정기적인 지원 경험은 취업자 85.9%, 비취업자 75.4%로 모두 높았다. 돌봄제공경험은 28.9%와 28.5%로 차이가 없었다.

〈표 9-15〉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정기적/비정기적 경제적 자원과 돌봄 지원 경험

(단위: %, 명)

구 분	부모에게 정기적 현금, 현물 지원 여부			부모에게 비정기적 현금, 현물 지원 여부			부모에게 돌봄 지원 여부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전체	19.7	80.3		83.2	16.8		28.8	71.2	
지역									
동부	19.7	80.3	0.0	82.9	17.1	4.5*	28.7	71.3	0.1
읍면부	19.8	80.2		85.0	15.0		29.2	70.8	
성별									
남자	22.1	77.9	33.1**	79.6	20.4	82.5***	26.2	73.8	28.9**
여자	17.4	82.6		86.6	13.4		31.2	68.8	
연령									
19-24세	5.4	94.6	337.1***	42.3	57.7	967.4***	21.6	78.4	185.1***
25-29세	11.6	88.4		73.4	26.6		22.6	77.4	
30-34세	14.1	85.9		84.5	15.5		22.9	77.1	
35-39세	19.1	80.9		89.0	11.0		25.7	74.3	
40-44세	22.7	77.3		89.4	10.6		32.8	67.2	
45-49세	31.5	68.5		88.1	11.9		38.9	61.1	
교육									
고졸이하	17.4	82.6	54.4**	78.0	22.0	71.9**	25.2	74.8	26.9**
대졸	19.6	80.4		84.7	15.3		29.7	70.3	
대학원졸	30.7	69.3		88.8	11.2		34.1	65.9	
혼인상태									
미혼	17.7	82.3	7.4**	65.0	35.0	670.8***	24.8	75.2	22.2**
기혼	20.3	79.7		88.6	11.4		30.0	70.0	
취업여부									
취업	22.6	77.4	153.7***	85.9	14.1	141.1***	28.9	71.1	0.1
비취업	11.0	89.0		75.4	24.6		28.5	71.5	
가구소득									
60% 미만	11.8	88.2	267.7	64.0	36.0	801.6***	23.5	76.5	64.5**
60-80% 미만	15.8	84.2		84.4	15.6		26.0	74.0	
80-100% 미만	19.4	80.6		87.7	12.3		29.3	70.7	
100-120% 미만	19.2	80.8		88.5	11.5		31.8	68.2	
120-140% 미만	24.4	75.6		91.5	8.5		33.9	66.1	
140-160% 미만	26.6	73.4		92.2	7.8		33.0	67.0	
160% 이상	32.8	67.2		93.4	6.6		31.9	68.1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비동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또는 현물)을 지원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금액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전체의 19.7%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정기적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월간 10만 원 미만이 14.5%, 10만~20만 원 미만이 30.0%, 20만~30만 원 미만이 20.6%를 차지했다. 30만~50만 원 미만이 20.3%이고, 50만~70만 원 미만이 7.7%, 70만 원 이상이 6.9%를 차지한다. 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그 규모가 월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5.1%를 차지하고,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은 30만 원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남성은 30만 원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서, 남성이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기적 지원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9-16〉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미만	2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70만원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14.5	30.0	20.6	20.3	7.7	6.9	1,880	100.0
지역($\chi^2=12.3^*$)								
동부	13.5	30.0	21.6	20.6	7.5	6.7	1,571	100.0
읍면부	19.4	29.7	15.2	19.3	8.7	7.7	309	100.0
성별($\chi^2=24.6^{***}$)								
남자	14.3	28.0	19.0	20.5	9.7	8.5	1,015	100.0
여자	14.7	32.2	22.5	20.1	5.5	5.0	865	100.0
연령($\chi^2=51.0^{**}$)								
19-24세	23.5	11.5	20.4	24.0	13.9	6.6	33	100.0
25-29세	11.7	25.8	15.7	29.1	9.7	8.0	139	100.0
30-34세	18.7	26.4	18.9	19.4	12.4	4.1	225	100.0
35-39세	13.8	31.8	20.3	17.4	7.2	9.4	395	100.0
40-44세	15.5	31.5	18.5	19.3	7.7	7.6	503	100.0
45-49세	12.6	30.8	24.4	21.3	5.5	5.4	585	100.0
교육($\chi^2=8.6$)								
고졸이하	13.1	31.9	21.1	20.7	7.2	5.9	436	100.0
대졸	14.9	29.8	21.0	19.7	7.4	7.2	1,261	100.0
대학원졸	15.3	26.6	16.2	24.0	11.1	6.7	183	100.0
혼인상태($\chi^2=42.0^{***}$)								
미혼	13.4	22.3	17.7	22.6	13.0	11.0	385	100.0
기혼	14.8	31.9	21.3	19.8	6.4	5.8	1,495	100.0
취업여부($\chi^2=27.5^{***}$)								
취업	14.2	29.0	20.1	20.5	8.4	7.8	1,611	100.0
비취업	16.4	35.8	23.6	19.3	3.8	1.1	269	100.0
가구소득($\chi^2=109.1^{***}$)								
60% 미만	17.6	29.0	18.6	19.1	10.9	4.7	258	100.0
60-80% 미만	21.3	32.4	19.5	15.1	7.9	3.8	248	100.0
80-100% 미만	16.0	37.7	17.6	19.4	5.2	4.1	313	100.0
100-120% 미만	18.3	29.7	20.5	19.6	6.2	5.8	280	100.0
120-140% 미만	9.6	33.3	24.2	20.0	8.4	4.7	203	100.0
140-160% 미만	9.1	32.9	21.7	22.3	3.5	10.6	174	100.0
160% 이상	9.4	20.3	22.6	25.0	10.1	12.5	404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비동거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또는 현물)을 지원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금액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정기적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월간 10만원 미만이 67.2%, 10만원~20만원 미만이 24.3%를 차지하고, 20만원~30만원 미만은 5.0%, 30만원~50만원 미만은 2.5%이고, 50만원~70만원 미만은 0.4%, 70만원 이상이 0.5%를 차지한다.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그 규모가 월간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91.5%, 월간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96.5%로 나타나,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규모는 정기적인 지원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17〉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67.2	24.3	5.0	2.5	0.4	0.5	1,542	100.0
지역($\chi^2=8.4$)								
동부	66.2	25.4	4.8	2.5	0.5	0.6	1,299	100.0
읍면부	72.7	18.7	5.9	2.7	0.0	0.0	242	100.0
성별($\chi^2=13.2^*$)								
남자	71.0	20.8	4.7	2.7	0.5	0.4	797	100.0
여자	63.2	28.1	5.3	2.3	0.4	0.6	744	100.0
연령($\chi^2=21.7$)								
19-24세	59.7	40.3	0.0	0.0	0.0	0.0	18	100.0
25-29세	69.0	26.9	0.5	3.6	0.0	0.0	110	100.0
30-34세	71.5	20.6	5.2	2.8	0.0	0.0	174	100.0
35-39세	68.8	22.5	6.0	1.7	0.3	0.7	328	100.0
40-44세	65.0	25.4	6.6	1.8	0.5	0.7	413	100.0
45-49세	66.4	24.8	4.1	3.4	0.8	0.6	498	100.0
교육($\chi^2=28.2^{**}$)								
고졸이하	68.8	24.2	3.8	3.1	0.1	0.0	340	100.0
대졸	67.6	24.2	5.2	2.0	0.3	0.6	1,050	100.0
대학원졸	61.0	25.2	5.7	4.5	2.5	1.1	152	100.0
혼인상태($\chi^2=5.9$)								
미혼	71.0	20.3	4.1	3.5	0.9	0.2	294	100.0
기혼	66.3	25.3	5.2	2.3	0.3	0.6	1,248	100.0
취업여부($\chi^2=2.1$)								
취업	67.6	23.9	5.0	2.6	0.4	0.5	1,316	100.0
비취업	65.1	26.8	4.9	1.9	0.4	0.9	225	100.0
가구소득($\chi^2=103.9^{***}$)								
60% 미만	74.2	20.8	2.4	1.9	0.7	0.0	194	100.0
60-80% 미만	78.0	18.1	1.3	2.2	0.5	0.0	185	100.0
80-100% 미만	75.1	17.3	4.3	3.3	0.0	0.0	252	100.0
100-120% 미만	73.8	20.5	3.4	2.1	0.2	0.0	217	100.0
120-140% 미만	66.7	24.9	6.9	1.5	0.0	0.0	179	100.0
140-160% 미만	56.8	28.8	8.0	5.2	1.2	0.0	151	100.0
160% 이상	53.2	34.3	7.4	2.2	0.7	2.3	364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을 모두 합하여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률과 지원금액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나머지 86.7%는 크고 작은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42.8%를 차지하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24.1%, 20만원~30만원 미만이 8.5%로 나타났다. 3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11.5%이다. 이처럼 19-49세 성인남녀는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지원규모는 월간 20만원 미만(연간 24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혀 지원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지만, 일단 지원한다면 여성보다 더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19-24세부터 40-44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험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0-44세의 경우에도 월간 1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42.1%, 10만원~20만원 미만을 지원한 경우가 28.2%를 차지하여,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가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상위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모 지원 금액의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160%이상 집단은 월간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비율이 12.1%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80~100% 집단에서 월간 50만원 이상의 규모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표 9-18〉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여부 및 지원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13.3	42.8	24.1	8.5	7.0	2.4	2.1	9,555	100.0
지역($\chi^2=38.3^{***}$)									
동부	13.8	41.5	24.2	8.8	7.2	2.3	2.1	7,992	100.0
읍면부	10.7	49.1	23.2	6.6	5.9	2.5	2.1	1,563	100.0
성별($\chi^2=101.4^{***}$)									
남자	15.7	39.9	23.2	7.8	7.7	2.9	2.8	4,592	100.0
여자	11.0	45.4	24.8	9.1	6.3	1.8	1.5	4,963	100.0
연령($\chi^2=1465.6^{***}$)									
19-24세	55.2	33.8	4.4	2.5	2.9	0.7	0.4	618	100.0
25-29세	24.2	43.3	17.4	6.2	6.2	1.7	1.1	1,192	100.0
30-34세	12.4	47.4	23.6	7.5	5.4	2.6	1.1	1,597	100.0
35-39세	7.7	46.7	26.8	7.6	6.2	2.6	2.4	2,068	100.0
40-44세	6.5	42.1	28.2	9.2	8.3	2.7	3.0	2,222	100.0
45-49세	7.3	37.9	27.3	12.7	9.4	2.6	2.8	1,858	100.0
교육($\chi^2=204.0^{***}$)									
고졸이하	18.1	45.3	20.3	7.0	5.7	2.0	1.5	2,512	100.0
대졸	12.0	42.7	25.1	8.6	7.1	2.2	2.2	6,447	100.0
대학원졸	6.0	32.3	28.3	12.4	11.0	5.9	4.2	597	100.0
혼인상태($\chi^2=809.8^{***}$)									
미혼	30.8	34.2	15.5	6.8	7.1	2.9	2.8	2,182	100.0
기혼	8.1	45.3	26.6	9.0	7.0	2.2	1.9	7,373	100.0
취업여부($\chi^2=364.3^{***}$)									
취업	10.0	42.1	25.3	9.2	7.8	2.9	2.7	7,121	100.0
비취업	22.8	44.8	20.4	6.2	4.5	0.8	0.5	2,434	100.0
가구소득($\chi^2=1757.8^{***}$)									
60% 미만	33.1	42.6	13.3	4.6	3.8	1.7	0.9	2,193	100.0
60-80% 미만	11.6	55.1	19.9	5.9	5.0	1.6	0.8	1,567	100.0
80-100% 미만	8.5	48.1	26.3	8.1	6.0	1.7	1.2	1,618	100.0
100-120% 미만	7.1	45.1	29.7	8.3	6.2	1.8	1.8	1,459	100.0
120-140% 미만	5.6	38.7	30.5	11.9	9.0	2.6	1.7	833	100.0
140-160% 미만	4.3	32.8	31.6	12.7	11.3	3.2	4.1	655	100.0
160% 이상	3.4	25.5	30.6	14.7	13.7	5.5	6.6	1,23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경제적 자원과 돌봄의 수혜 경험 및 수혜 규모

다음 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및 돌봄 수혜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경험률 면에서 볼 때, 부모로부터 자원이나 돌봄을 제공받은 경험률은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률은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률은 62.5%로 나타났다. 가사일이나 병간호 등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1.4%로 조사되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은 19-24세와 같이 20대 초반이거나 대학재학 중에 한정된 경험인 것으로 보인다. 19-24세의 43.2%가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5-29세는 그 비율이 9.9%에 불과했고, 그 이외의 연령집단에서는 모두 2~3% 수준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비율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체로 50~60%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30대와 4대 초반은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출산, 주거비용 마련 등이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은 경험은 20대와 30대 연령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경험률 자체는 12~15%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30-34세 연령집단의 경우 15.5%가 부모로부터의 가사일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녀돌봄이나 가사일 등의 도움을 받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앞에서 고졸이하 하는 부모에게 지원한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표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지원 수혜율도 낮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지원 수혜율은 3.3%, 비정기적인 지원 수혜율은 50.4%, 돌봄수혜율은 8.2%로 나타났다. 경제적 하위계층에서는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 자원 및 돌봄 자원의 교환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기적인 지원수혜율은 높지만, 비정기적인 지원 수혜율과 돌봄수혜율은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구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가구소득 100% 미만에 비해 가구소득 100% 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본인 부모와 주고받은 비정기적인 자원과 돌봄자원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9-19〉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비정기적 경제적 자원과 돌봄 수혜 경험

(단위: %, 명)

구 분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현물 수혜 여부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인 현금, 현물 수혜 여부			부모로부터 돌봄 수혜 여부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전체	6.1	93.9		62.5	37.5		11.4	88.6	
지역									
동부	6.8	93.2	40.8**	63.3	36.7	12.1**	11.6	88.4	1.822
읍면부	2.6	97.4		58.6	41.4		10.3	89.7	
성별									
남자	7.0	93.0	12.2**	57.6	42.4	89.8***	7.6	92.4	123.8***
여자	5.3	94.7		67.0	33.0		14.8	85.2	
연령									
19-24세	43.2	56.8		53.9	46.1		12.0	88.0	
25-29세	9.9	90.1		57.5	42.5		13.3	86.7	
30-34세	3.6	96.4	1686.9***	65.7	34.3	132.3***	15.5	84.5	139.5***
35-39세	2.7	97.3		69.5	30.5		14.9	85.1	
40-44세	2.1	97.9		65.0	35.0		9.0	91.0	
45-49세	2.0	98.0		55.0	45.0		5.2	94.8	
교육									
고졸이하	3.3	96.7	65.5**	50.4	49.6	214.1***	8.2	91.8	40.7**
대졸	7.5	92.5		66.5	33.5		12.2	87.8	
대학원졸	3.0	97.0		69.8	30.2		15.6	84.4	
혼인상태									
미혼	18.8	81.2	797.2***	48.3	51.7	244.8***	8.5	91.5	23.3**
기혼	2.3	97.7		66.7	33.3		12.2	87.8	
취업여부									
취업	3.5	96.5	318.3***	60.8	39.2	36.0**	10.6	89.4	16.3**
비취업	13.6	86.4		67.6	32.4		13.6	86.4	
가구소득									
60% 미만	17.4	82.6		52.2	47.8		8.9	91.1	
60-80% 미만	4.2	95.8		61.3	38.7		11.3	88.7	
80-100% 미만	2.5	97.5	641.4***	61.1	38.9	186.1***	10.9	89.1	32.7**
100-120% 미만	2.2	97.8		65.8	34.2		11.3	88.7	
120-140% 미만	2.3	97.7		69.4	30.6		12.8	87.2	
140-160% 미만	1.9	98.1		70.1	29.9		12.5	87.5	
160% 이상	2.5	97.5		71.7	28.3		15.0	85.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또는 현물)을 지원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금액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수혜 비율은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정기적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월간 10만원 미만이 19.6%, 10만원~20만원 미만이 8.4%, 20만원~30만원 미만이 5.0%를 차지했다. 30만원~50만원 미만이 11.8%이고, 50만원~70만원 미만이 18.9%, 70만원 이상이 36.3%를 차지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경제적 수혜 규모가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33.0%인 반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67.0%였고,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55.2%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은 30만원 미만의 비중이 41.1%이고 50만원 이상의 비중이 47.3%이지만, 남성은 30만원 미만의 비중이 26.3%이고 50만원 이상의 비중이 61.7%로 나타났다. 남성은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수혜 규모가 여성보다 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수혜 금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월 7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19-24세의 경우 56.4%, 25-29세 29.6%, 30-34세 19.9%로 나타나서,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일단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원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9-20〉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수혜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19.6	8.4	5.0	11.8	18.9	36.3	582	100.0
지역($\chi^2=33.5^{***}$)								
동부	18.1	7.1	5.1	11.7	19.9	38.0	542	100.0
읍면부	39.5	24.6	2.6	13.2	5.7	14.4	40	100.0
성별($\chi^2=19.9^{**}$)								
남자	17.9	5.3	3.1	12.0	21.7	40.0	321	100.0
여자	21.8	12.1	7.2	11.6	15.5	31.8	262	100.0
연령($\chi^2=191.6^{***}$)								
19-24세	7.2	1.7	2.0	11.7	21.0	56.4	267	100.0
25-29세	16.9	6.8	8.4	13.0	25.3	29.6	118	100.0
30-34세	36.2	12.5	4.0	10.5	16.9	19.9	58	100.0
35-39세	37.4	20.4	6.8	15.3	14.6	5.4	56	100.0
40-44세	41.0	22.6	5.8	16.0	7.2	7.5	47	100.0
45-49세	38.0	18.7	12.8	0.0	8.6	22.0	37	100.0
교육($\chi^2=23.2^*$)								
고졸이하	25.3	6.5	8.8	15.0	22.2	22.2	83	100.0
대졸	18.0	8.3	4.0	11.4	18.6	39.7	482	100.0
대학원졸	38.3	18.3	12.7	9.0	12.3	9.4	18	100.0
혼인상태($\chi^2=153.0^{***}$)								
미혼	11.5	3.6	2.8	11.9	24.2	46.0	410	100.0
기혼	38.9	19.7	10.2	11.5	6.5	13.3	172	100.0
취업여부($\chi^2=110.5^{***}$)								
취업	30.3	12.5	6.4	15.7	21.9	13.2	252	100.0
비취업	11.5	5.2	3.9	8.9	16.7	53.9	330	100.0
가구소득($\chi^2=235.6^{***}$)								
60% 미만	10.9	3.2	2.8	12.6	24.3	46.2	381	100.0
60-80% 미만	18.0	21.0	9.4	8.5	13.9	29.2	66	100.0
80-100% 미만	48.2	18.4	9.8	14.3	2.7	6.7	41	100.0
100-120% 미만	75.6	2.2	2.4	1.5	5.9	12.4	32	100.0
120-140% 미만	48.3	29.6	11.9	0.0	5.0	5.1	19	100.0
140-160% 미만	33.5	39.3	2.0	13.6	3.4	8.3	13	100.0
160% 이상	11.0	12.0	15.8	23.8	13.3	24.1	30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비동거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현금(또는 현물)을 지원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수혜 금액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수혜 비율은 전체의 62.5%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정기적 수혜의 규모를 살펴보면, 월간 10만 원 미만이 73.7%, 10만~20만 원 미만이 16.3%, 20만~30만 원 미만이 4.8%를 차지했다. 30만~50만 원 미만은 2.6%이고, 50만~70만 원 미만이 1.4%, 70만 원 이상이 1.2%를 차지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혜 규모가 월 20만 원 미만(연간 240만 원)인 경우가 전체의 90.0%를 차지하고, 월 20만 원 이상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수혜에 비하여 비정기적인 수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21〉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비정기적인 경제적 수혜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73.7	16.3	4.8	2.6	1.4	1.2	5,972	100.0
지역($\chi^2=11.3^*$)								
동부	73.5	16.3	4.7	2.7	1.5	1.4	5,056	100.0
읍면부	75.3	16.1	5.4	2.2	0.6	0.4	916	100.0
성별($\chi^2=32.6^{***}$)								
남자	76.5	13.6	4.3	3.0	1.3	1.4	2,646	100.0
여자	71.5	18.5	5.2	2.3	1.4	1.1	3,326	100.0
연령($\chi^2=190.7^{***}$)								
19-24세	64.8	12.2	5.9	7.0	4.6	5.6	334	100.0
25-29세	72.8	15.5	4.4	3.4	3.0	0.9	686	100.0
30-34세	69.3	17.0	6.2	3.5	2.1	1.9	1,049	100.0
35-39세	74.9	16.9	5.0	2.1	0.7	0.5	1,437	100.0
40-44세	75.5	17.4	3.8	1.8	0.6	0.9	1,445	100.0
45-49세	77.7	15.1	4.3	1.7	0.4	0.8	1,022	100.0
교육($\chi^2=41.2^{***}$)								
고졸이하	79.7	13.4	4.0	2.0	0.4	0.5	1,267	100.0
대졸	72.2	17.1	5.0	2.6	1.6	1.4	4,289	100.0
대학원졸	71.2	17.2	4.4	4.2	1.5	1.5	416	100.0
혼인상태($\chi^2=81.1^{***}$)								
미혼	76.0	10.6	4.5	3.4	3.5	2.1	1,053	100.0
기혼	73.3	17.5	4.8	2.4	0.9	1.0	4,919	100.0
취업여부($\chi^2=53.9^{***}$)								
취업	76.0	15.6	4.1	2.2	1.0	1.1	4,327	100.0
비취업	67.9	18.1	6.5	3.7	2.3	1.6	1,645	100.0
가구소득($\chi^2=146.2^{***}$)								
60% 미만	75.7	11.7	4.5	3.6	2.9	1.6	1,144	100.0
60-80% 미만	76.9	15.0	4.4	1.7	1.6	0.5	960	100.0
80-100% 미만	78.1	15.5	3.1	1.2	1.1	1.0	988	100.0
100-120% 미만	73.2	17.8	6.0	2.3	0.4	0.3	961	100.0
120-140% 미만	75.6	15.6	5.0	2.8	0.3	0.7	578	100.0
140-160% 미만	67.5	20.4	5.6	2.9	1.1	2.6	459	100.0
160% 이상	65.5	21.3	5.6	4.0	1.3	2.4	88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비동거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을 모두 합하여 경험률과 지원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이는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 13.3%보다 22.0%p가 높은 것이다. 즉 19-49세의 성인남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험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규모를 보면, 10만 원 미만이 44.5%를 차지하고, 10만 원~20만 원 미만이 10.2%, 20만 원~30만 원 미만이 3.1%로 나타났다. 3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는 전체의 7.0%이다. 비동거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수혜 금액의 분포는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 미만에 치우쳐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수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6%를 차지하여 여성의 4.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19-24세와 35-39세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 비율이 각각 69.7%,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24세는 부모지원의 규모가 없거나 월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반면, 50만 원 이상이 37.9%를 차지하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인다. 19-24세의 부모지원이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상태(재학 또는 취업 여부)는 물론 부모-자녀 관계가 동질적이지 않고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35-39세는 부모의 지원 수혜율은 70.3%로 매우 높지만 지원규모는 월 10만 원 미만이 51.2%를 차지하는 정도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30대 후반의 성인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수혜자의 경제적 필요보다는 부모-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9-22〉 지난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 경험 여부와 수혜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구 분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합계	
전체	35.3	44.5	10.2	3.1	2.1	1.7	3.2	9,555	100.0
지역($\chi^2=66.7^{***}$)									
동부	34.3	44.6	10.3	3.1	2.2	1.9	3.7	7,992	100.0
읍면부	40.4	44.0	9.6	3.0	1.9	0.6	0.6	1,563	100.0
성별($\chi^2=143.9^{***}$)									
남자	40.0	42.2	7.6	2.6	2.0	1.8	3.8	4,592	100.0
여자	30.9	46.7	12.5	3.6	2.2	1.6	2.6	4,963	100.0
연령($\chi^2=1984.1^{***}$)									
19-24세	30.6	20.4	3.2	2.6	5.4	8.9	29.0	618	100.0
25-29세	38.7	39.3	8.7	3.0	3.2	3.3	3.9	1,192	100.0
30-34세	32.7	45.6	11.4	4.0	2.4	1.6	2.2	1,597	100.0
35-39세	29.7	51.2	12.1	3.8	1.8	0.9	0.5	2,068	100.0
40-44세	34.2	48.6	11.8	2.5	1.6	0.6	0.7	2,222	100.0
45-49세	44.2	42.7	8.3	2.5	1.0	0.4	0.9	1,858	100.0
교육($\chi^2=307.6^{***}$)									
고졸이하	48.1	39.2	7.0	2.3	1.5	0.9	1.1	2,512	100.0
대졸	30.8	46.2	11.2	3.3	2.2	2.0	4.2	6,447	100.0
대학원졸	29.7	48.3	12.2	3.8	3.3	1.4	1.3	597	100.0
혼인상태($\chi^2=940.4^{***}$)									
미혼	44.5	31.3	4.1	2.1	2.6	4.9	10.5	2,182	100.0
기혼	32.5	48.4	12.0	3.4	1.9	0.7	1.0	7,373	100.0
취업여부($\chi^2=447.7^{***}$)									
취업	37.9	45.6	9.6	2.6	1.9	1.2	1.3	7,121	100.0
비취업	27.6	41.5	11.7	4.6	2.8	3.1	8.6	2,434	100.0
가구소득($\chi^2=811.1^{***}$)									
60% 미만	41.5	34.3	5.0	2.4	2.8	4.3	9.7	2,193	100.0
60-80% 미만	36.7	46.3	9.5	2.9	1.6	1.6	1.5	1,567	100.0
80-100% 미만	37.7	47.8	9.8	2.1	1.0	0.7	0.9	1,618	100.0
100-120% 미만	33.4	48.1	12.1	4.0	1.6	0.4	0.5	1,459	100.0
120-140% 미만	30.2	51.9	10.8	4.0	2.1	0.4	0.6	833	100.0
140-160% 미만	29.4	46.5	15.1	3.9	2.2	0.9	2.0	655	100.0
160% 이상	27.8	45.9	15.2	3.9	3.6	1.3	2.3	1,231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다음 표는 응답자 본인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의 현재 생계가 어렵고 미래 노후생활 자원도 부족하다는 6.1%, 현재 생계는 감당하지만 미래 노후생활 자원은 부족하다는 25.0%를 차지했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문제는 없지만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는 없다는 40.4%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미래의 생활자원도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할 여유도 있다는 응답은 26.0%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부모의 현재 또는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으며, 유사한 규모의 또 다른 응답자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여 본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나머지 40%는 부모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연령집단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다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 간의 차이는 현재 부모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 여부와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졸이하이거나 가구소득 100% 미만 집단에서는 본인 부모의 현재와 미래 노후 생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원졸 이상이거나 가구소득 100% 이상 집단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고 여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3〉 부모의 현재 경제적 상황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전체	6.1	25.0	40.4	26.0	2.5	13,554	100.0
지역($\chi^2=19.6^{**}$)							
동부	5.8	24.9	40.1	26.6	2.6	11,271	100.0
읍면부	7.3	25.5	41.9	23.2	2.1	2,283	100.0
성별($\chi^2=22.0^{**}$)							
남자	6.6	25.5	40.1	25.0	2.9	6,872	100.0
여자	5.6	24.5	40.7	27.1	2.1	6,682	100.0
연령($\chi^2=750.2^{***}$)							
19-24세	3.6	21.0	34.5	33.7	7.1	2,420	100.0
25-29세	4.7	22.9	38.0	32.3	2.1	2,293	100.0
30-34세	4.0	21.0	43.7	29.0	2.2	2,047	100.0
35-39세	5.3	26.7	42.7	23.8	1.5	2,309	100.0
40-44세	7.3	27.3	44.1	20.4	0.9	2,429	100.0
45-49세	11.9	31.5	39.4	16.1	1.1	2,056	100.0
교육($\chi^2=586.2^{***}$)							
고졸이하	11.8	31.4	38.0	15.7	3.0	3,565	100.0
대졸	4.1	22.9	41.4	29.0	2.5	9,335	100.0
대학원졸	2.4	19.6	38.3	38.9	0.7	653	100.0
혼인상태($\chi^2=266.0^{***}$)							
미혼	5.4	24.0	35.7	30.7	4.1	5,938	100.0
기혼	6.6	25.8	44.0	22.3	1.3	7,616	100.0
취업여부($\chi^2=102.0^{***}$)							
취업	6.3	25.7	41.8	24.3	1.9	9,272	100.0
비취업	5.6	23.5	37.2	29.8	3.9	4,282	100.0
가구소득($\chi^2=476.0^{***}$)							
60% 미만	10.5	25.9	36.2	24.4	3.1	2,732	100.0
60-80% 미만	7.3	29.0	41.8	19.3	2.6	1,993	100.0
80-100% 미만	6.8	28.3	41.4	21.5	1.9	2,248	100.0
100-120% 미만	4.9	24.8	43.1	24.8	2.4	2,071	100.0
120-140% 미만	3.3	26.8	40.6	27.0	2.3	1,314	100.0
140-160% 미만	4.7	22.3	43.1	28.3	1.6	1,055	100.0
160% 이상	2.0	17.3	39.1	38.5	3.2	2,141	100.0

주: 1) ① 현재 생계가 어렵고 미래(노후) 생활 자원도 부족하다 ② 현재 생계는 감당하지만 미래(노후) 생활 자원은 부족하다 ③ 현재 생계와 미래(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지만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가 없다 ④ 현재 생계와 미래(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가 있다 ⑤ 잘 모르겠다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만 18세 이후 부모와의 비동거 경험, 현재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및 돌봄 등의 이전 실태 등을 살펴 보았다.

현재 19-49세 응답자의 95.8%에게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있으며,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있는 응답자의 70.1%는 부모 중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주거 독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 시점의 특성은 부모와 함께 살았던 상태에서부터 따로 사는 상태로 이행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만 18세 이후 30대 중반까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라 주거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생애 사건을 통해 주거가 변화하기 때문에, 주거독립시기는 만 18세부터 30대 후반까지 넓게 퍼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독립 상태에는 실질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주거 독립은 다시 부모와의 재동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거독립을 실질적 자립과 구분할 수 있는 분석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 따르면, 일단 부모집을 떠나 따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78.2%는 현재까지 독립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성격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장 대표적인 주거독립 사유 중 하나가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의 61.4%가 결혼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했다. 혼자 살았다는 응답은 26.4%를 차지했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전 주거형태에서 나타나는 높은 부모동거율에는 미혼 청년집단의 경제적 취약성과 젠더 규범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30대 후반이나 40대에서도 약 4~5%가 부모집을 떠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만혼과 비혼 확산 등은 주거 독립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집단이 부모와 함께 사는 동기에는 단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 그리고 부모(특히 혼자 남은 부모) 돌봄의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비동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독립 비율은 결코 높지 않지만, 일단 따로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거 독립상태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비동거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연령 집단에서만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다. 25-29세에서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9.9%였으며, 취업자의 3.5%, 비취업자의 13.6%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이나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은 대부분 정기적인 것보다는 비정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월평균 10만 원 이내(연간 120만 원 이내)의 규모로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자원 이전 실천이 실질적인 생계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gift)의 형태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험률 면에서 부모로부터의 수혜율 보다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이는 비동거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는 비율 13.3%보다 22.0%p가 높은 것이다. 즉 19-49세의 성인남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험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 실태는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측면에서 비동거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동거부모와의 정서적, 경제적, 돌봄자원 등의 교류는 성별과 계층(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교류와 돌봄 교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이었지만, 경제적 자원 이전 관계는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부모를 지원하는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험이 고학력층에 비해 많지 않고 지원금액의 규모도 작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인기 이행(즉 경제적 독립)의 과정은 전통적인 부모부양책임의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고, 성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성인기 규범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계층적 차이와 성별 차이를 비롯하여, 성인 이행기 과정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10 장

가치관과 인식

제1절 성역할 태도

제2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제3절 자녀에 대한 태도

제4절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제5절 소결

제 10 장 가치관과 인식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한다. 가치관에 따라 인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한다. 따라서 가치관은 혼인과 출산, 자녀양육과 이주 등의 인구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한국인구학회, 2016, p.39). 가치관이 인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가치관의 작용 기제를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저출산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함께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영향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는 최근의 가치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006년과 2009년, 201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과 출산 관련 의식 및 태도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결혼, 가족, 자녀(출산) 가치관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당위에서 선택으로), 가족관의 변화(전통적인 가치관에서의 탈피, 생명존중 등) 등을 확인하였다. 이 경향은 이후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된다. 결혼의 필요성은 점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느끼고 있고, 자녀도 당위로 접근하여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있다(문정희, 김성순, 2019).

가족 가치관 역시 인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문선희(2012, p.5)는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임병인, 서혜림(2021)

의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경우 결혼의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이 보수적일수록, 성역할 가치관이 진보적인 여성일수록 출산 의지가 높다는 연구(정아름, 2018)도 보고되었다.

성역할 태도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계봉오, 김영미(2016)의 국제비교연구에 의하면 성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적으나 이러한 관계는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조건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성평등주의적 태도 및 취업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 성평등주의와 출산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계봉오, 김영미, 2016, p.110). 따라서 최근의 급격한 성평등 가치관 변화가 출산과 양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가족과 출산 조사는 조사시점 현재의 가치관을 다양한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치관과 인식을 묻는 총 54문항은 13개의 묶음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이 13개의 질문은 다시 성역할 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와 사회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표본은 19-49세로 한정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사례수는 14,149명이다. 자녀의 수 관련 문항 1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 장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가족의 형성, 확대, 소멸 등의 변화와 자녀의 출산, 양육 등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가치관에 초점을 두었다.

제1절 성역할 태도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 혹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 양육 분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10-1>은 총 6개 하위 문항의 분석 결과이다. 6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돈 버는 일과 집안 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③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④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⑤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⑥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표에 제시한 비율은 각 질문에 동의한 비율을 나타내며, 동의 비율은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만19~49세의 조사대상자는 성별로 역할을 구분 지어 분담을 하는 문항(②, ③, ④, ⑥)에는 동의 정도가 낮았고 기존의 성역할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녀가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문항(①, ⑤)에는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는 문항에는 모든 집단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네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집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이 문항에 더 동의하였다(각각 5.4%p, 7.8%p, 12.4%p).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지만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도 역시 읍면부에 거주하는 집단, 남성·기혼·취업 집단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존의 가치관을 조금 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과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은 다른 네 문항에 비해 뚜렷하게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집단별로는 다른 문항과 동일하게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집단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미혼보다 기혼이, 비취업 집단보다 취업 집단이,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존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10-1〉 가족·사회에서의 성역할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사례수
전체	96.4	23.6	30.2	47.0	88.2	62.6	14,149
지역							
동부	96.6	22.7	29.5	46.7	88.3	62.0	11,738
읍면부	95.1	28.1	33.9	48.5	87.7	65.4	2,410
성별							
남자	95.1	27.5	34.3	56.4	84.5	68.0	7,117
여자	97.6	19.7	26.1	37.6	92.0	57.1	7,032
연령							
19-24세	97.9	13.8	19.0	32.9	88.9	54.4	2,430
25-29세	97.6	15.3	23.2	40.1	89.2	58.1	2,318
30-34세	96.8	21.9	29.8	44.5	88.0	61.9	2,077
35-39세	96.4	26.7	34.0	52.2	87.1	63.6	2,358
40-44세	95.4	30.2	36.2	56.0	87.4	68.0	2,578
45-49세	94.2	32.9	38.5	55.6	89.0	68.9	2,387
교육							
고졸이하	94.2	30.6	34.3	50.4	85.6	67.1	3,914
대졸	97.1	21.0	28.6	45.8	89.2	60.6	9,561
대학원졸	97.4	19.7	28.8	46.1	90.0	63.9	673
혼인상태							
미혼	97.3	16.5	21.7	39.5	88.7	56.8	6,049
기혼	95.7	28.9	36.6	52.7	87.9	66.9	8,099
취업여부							
취업	96.1	24.1	31.6	50.1	88.7	63.2	9,704
비취업	97.0	22.5	27.2	40.3	87.2	61.2	4,445
가구소득							
60% 미만	96.5	21.1	28.7	45.0	87.3	61.0	2,902
60-80% 미만	94.8	29.7	33.9	50.7	87.1	65.5	2,087
80-100% 미만	96.0	26.2	31.6	51.0	87.8	64.1	2,348
100-120% 미만	96.4	22.6	30.8	45.8	88.6	64.5	2,147
120-140% 미만	97.4	22.7	28.1	46.4	89.5	61.3	1,379
140-160% 미만	97.1	23.5	29.5	45.4	90.1	60.2	1,083
160% 이상	97.0	20.0	28.3	44.4	89.0	60.3	2,202

주: 1) ①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③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④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⑤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⑥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있는 일이다

2) 표의 비율은 ①~⑥의 각각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함.

3)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양육 분담에 관한 성역할 가치관은 ‘①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②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③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④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의 네 문항으로 파악했다. 표에 제시한 비율은 각 질문에 동의한 비율로,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한다.

〈표 10-1〉의 문항과 같이 〈표 10-2〉 역시 기존의 성별 역할 분담 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자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인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와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차이만 약간 보이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아빠의 양육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두 문항(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동의 54.7%),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동의 61.4%))은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는 문항에 여성(47.9%)보다는 남성(61.3%)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상승하였다. 그리고 미혼(47.9%)보다는 기혼(59.7%), 비취업 집단(51.4%)보다는 비취업(56.2%) 집단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운다’는 문항에는 남성(57.7%)보다는 여성(65.1%)이 더 동의하였고, 취업 집단(60.1%)보다 비취업 집단(64.1%)이 더 동의하고 있었다. 이 외의 집단에서는 두드러진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로 동의하였다.

〈표 10-2〉 자녀 양육 분담에 관한 성역할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전체	91.5	54.7	81.4	61.4	14,149
지역					
동부	91.5	54.1	81.3	61.1	11,738
읍면부	91.8	57.2	82.4	62.7	2,410
성별					
남자	89.2	61.3	79.2	57.7	7,117
여자	93.9	47.9	83.7	65.1	7,032
연령					
19-24세	93.9	44.1	80.5	65.5	2,430
25-29세	91.4	45.3	81.6	63.4	2,318
30-34세	92.7	53.7	82.8	59.2	2,077
35-39세	91.1	57.9	81.7	58.6	2,358
40-44세	90.4	61.6	82.4	60.2	2,578
45-49세	89.9	64.6	79.8	61.0	2,387
교육					
고졸이하	90.4	59.8	77.0	60.0	3,914
대졸	92.1	52.5	82.8	62.1	9,561
대학원졸	90.4	54.8	88.1	59.0	673
혼인상태					
미혼	92.7	47.9	80.8	61.9	6,049
기혼	90.6	59.7	82.0	60.9	8,099
취업여부					
취업	91.3	56.2	81.9	60.1	9,704
비취업	92.0	51.4	80.4	64.1	4,445
가구소득					
60% 미만	92.0	53.4	79.2	61.8	2,902
60-80% 미만	90.7	59.5	81.9	59.0	2,087
80-100% 미만	90.7	55.8	81.5	60.7	2,348
100-120% 미만	92.3	53.2	79.6	61.3	2,147
120-140% 미만	90.8	56.0	83.9	60.0	1,379
140-160% 미만	92.7	55.9	81.5	62.1	1,083
160% 이상	91.7	50.5	84.2	64.1	2,202

주: 1) ① 엄마와 아버지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②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③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④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2) 표의 비율은 ①~④의 각각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함.

3)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이상적인 부부간의 역할 분담의 형태에 대한 응답이다. 부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족의 형태 중 가장 동의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과반수(62.0%)가 ‘두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사와 양육에도 공평하게 참여하는 가족’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그다음은 ‘두 사람 모두 일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줄여 가사·양육에 더 집중하는 가족’으로 26.7%를 차지하였고,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가족’이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가 주목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사·양육을 더 공평하게 분담하기를 원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공평한 분담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기혼의 경우, 동일한 정도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에 비해서는 다른 형태의 분담을 가장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형태를 지지하였으며 (88.7%) 그 안에서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는 형태를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역할을 나누어 직장이나 가사·양육에 집중하기보다 일과 가정 생활을 부부가 모두 조화롭게 영위하기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3〉 이상적인 부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합계	
전체	62.0	26.7	11.0	0.4	14,149	100.0
지역						
동부	62.5	26.1	11.0	0.4	11,738	100.0
읍면부	59.2	29.6	10.8	0.4	2,410	100.0
성별						
남자	58.3	28.8	12.4	0.5	7,117	100.0
여자	65.6	24.6	9.5	0.3	7,032	100.0
연령						
19-24세	75.3	18.2	6.1	0.4	2,430	100.0
25-29세	68.8	23.6	7.5	0.1	2,318	100.0
30-34세	61.8	26.4	11.4	0.4	2,077	100.0
35-39세	54.7	30.5	14.2	0.6	2,358	100.0
40-44세	56.0	30.0	13.6	0.4	2,578	100.0
45-49세	55.5	31.2	12.7	0.5	2,387	100.0
교육						
고졸이하	60.4	26.6	12.8	0.2	3,914	100.0
대졸	63.1	26.2	10.1	0.5	9,561	100.0
대학원졸	54.4	33.4	11.7	0.4	673	100.0
혼인상태						
미혼	70.9	22.2	6.6	0.3	6,049	100.0
기혼	55.3	30.0	14.2	0.5	8,099	100.0
취업여부						
취업	61.7	27.8	10.1	0.4	9,704	100.0
비취업	62.6	24.1	12.8	0.5	4,445	100.0
가구소득						
60% 미만	65.6	24.5	9.4	0.5	2,902	100.0
60-80% 미만	57.3	26.7	15.7	0.3	2,087	100.0
80-100% 미만	60.0	26.6	13.0	0.3	2,348	100.0
100-120% 미만	57.7	29.7	12.2	0.4	2,147	100.0
120-140% 미만	61.3	30.0	8.5	0.2	1,379	100.0
140-160% 미만	65.6	27.3	6.7	0.4	1,083	100.0
160% 이상	66.4	24.2	8.7	0.7	2,202	100.0

주: 1) ① 두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사와 양육에도 공평하게 참여하는 가족, ② 두 사람 모두 일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근무시간을 줄여 가사양육에 더 집중하는 가족, ③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가족, ④ 기타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는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6.4%)’-‘하는 편이 좋다(37.6%)’-‘반드시 해야 한다(8.4%)’-‘하지 않는 게 낫다(5.5%)’-‘모르겠다(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인 ‘하는 편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를 하나로 묶어보면 응답은 46.0%인데, 합쳐서 비교하더라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석상 유의해야 하지만, 하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혼에 비해서 미혼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집단에 비해 비취업 집단이 결혼에 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표 10-4〉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8.4	37.6	46.4	5.5	2.0	14,149	100.0
지역($\chi^2=10.7^*$)							
동부	8.4	37.2	46.7	5.7	2.2	11,738	100.0
읍면부	8.8	39.6	45.3	4.9	1.5	2,410	100.0
성별($\chi^2=729.8^{***}$)							
남자	12.1	44.2	37.5	3.8	2.3	7,117	100.0
여자	4.7	30.8	55.5	7.3	1.7	7,032	100.0
연령($\chi^2=301.9^{***}$)							
19-24세	5.9	30.0	51.9	8.6	3.5	2,430	100.0
25-29세	6.8	36.4	45.6	7.5	3.7	2,318	100.0
30-34세	10.4	37.3	45.5	4.8	2.0	2,077	100.0
35-39세	9.8	39.8	45.1	4.2	1.1	2,358	100.0
40-44세	8.9	41.5	44.6	4.0	1.0	2,578	100.0
45-49세	8.9	40.2	45.8	4.1	1.0	2,387	100.0
교육($\chi^2=113.3^{***}$)							
고졸이하	7.6	34.7	47.7	7.4	2.7	3,914	100.0
대졸	8.3	38.5	46.2	5.0	1.9	9,561	100.0
대학원졸	14.5	41.4	41.6	1.8	0.6	673	100.0
혼인상태($\chi^2=557.7^{***}$)							
미혼	6.0	30.6	51.7	7.9	3.9	6,049	100.0
기혼	10.2	42.8	42.5	3.8	0.7	8,099	100.0
취업여부($\chi^2=186.9^{***}$)							
취업	9.7	39.7	43.9	4.6	2.0	9,704	100.0
비취업	5.6	32.9	51.9	7.5	2.2	4,445	100.0
가구소득($\chi^2=154.5^{***}$)							
60% 미만	6.3	31.8	50.7	7.9	3.3	2,902	100.0
60-80% 미만	9.4	37.7	46.0	5.3	1.6	2,087	100.0
80-100% 미만	9.0	38.7	45.6	5.4	1.3	2,348	100.0
100-120% 미만	9.8	38.8	45.4	4.2	1.9	2,147	100.0
120-140% 미만	8.5	39.1	44.8	6.1	1.5	1,379	100.0
140-160% 미만	8.0	40.3	45.8	4.0	2.0	1,083	100.0
160% 이상	8.4	40.5	44.5	4.4	2.2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내용이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②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③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④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⑥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⑦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의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기존의 가치관(①, ⑤, ⑥, ⑦)과 변화하고 있는 가치관(②, ③, ④)을 담은 내용이다.

분석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비율로 제시하였으며, 동의 비율은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한다.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87.1%)’이다. 가장 동의 비율이 낮은 문항은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28.1%)’로 나타났다. 다른 다섯 문항은 44.6%~58.3%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18.2%p)’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14.7%p)’이었다. 미혼과 기혼의 가치관 차이도 두 문항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이, 비취업 집단에 비해 취업 집단이 기존의 가치관을 나타낸 문항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

〈표 10-5〉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수
전체	45.6	28.1	51.5	44.6	58.3	49.7	87.1	14,149
지역								
동부	45.2	27.8	52.2	45.1	57.5	48.5	86.6	11,738
읍면부	47.7	29.3	48.0	41.7	61.9	55.1	89.7	2,410
성별								
남자	52.9	23.5	49.0	40.8	67.3	51.3	89.3	7,117
여자	38.2	32.6	53.9	48.3	49.1	48.0	84.9	7,032
연령								
19-24세	36.1	29.3	60.4	52.5	48.9	37.3	83.0	2,430
25-29세	41.8	27.0	59.5	50.6	53.5	39.4	81.6	2,318
30-34세	44.9	28.4	51.2	44.1	56.0	44.5	86.2	2,077
35-39세	50.0	28.7	50.4	43.6	63.0	53.3	89.3	2,358
40-44세	50.0	28.4	46.5	40.2	64.1	60.0	90.9	2,578
45-49세	50.4	26.4	41.1	36.6	63.4	62.0	91.4	2,387
교육								
고졸이하	46.3	30.6	53.5	42.1	62.1	56.8	87.7	3,914
대졸	44.8	27.5	51.4	45.5	56.7	46.7	86.8	9,561
대학원졸	53.1	20.6	40.7	45.8	58.5	50.6	88.5	673
혼인상태								
미혼	35.4	29.7	57.7	51.5	52.1	38.7	81.7	6,049
기혼	53.2	26.9	46.8	39.4	62.9	57.9	91.2	8,099
취업여부								
취업	47.2	27.2	50.4	42.9	59.9	50.5	87.5	9,704
비취업	42.0	30.0	53.8	48.2	54.9	47.9	86.4	4,445
가구소득								
60% 미만	40.6	30.3	57.3	48.2	56.5	44.2	82.2	2,902
60-80% 미만	46.7	29.6	49.8	41.8	60.8	53.9	87.8	2,087
80-100% 미만	46.8	25.6	52.1	44.4	60.3	51.9	88.1	2,348
100-120% 미만	47.4	26.6	47.4	40.3	60.1	51.3	89.4	2,147
120-140% 미만	46.2	29.0	50.1	43.5	56.6	52.8	88.4	1,379
140-160% 미만	47.0	27.6	48.1	44.1	59.2	49.9	87.2	1,083
160% 이상	46.8	27.4	51.2	47.6	54.9	46.8	88.9	2,202

주: 1) 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②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③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④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⑥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⑦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2) 표의 비율은 ①~⑦의 각각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함.

3)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결혼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총 9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총 9개의 항목은 ‘① 본인의 경제적 여건, ② 본인의 일과 직장, ③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④ 배우자의 일과 직장, ⑤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 ⑥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⑦ 안정된 주거 마련, ⑧ 자녀계획 일치 여부, ⑨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항에 높게 동의하고 있었다. 모든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3.90점 이상이었다.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4.65)’-‘안정된 주거 마련(4.24)’-‘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4.19)’-‘본인의 경제적 여건(4.18)’-‘본인의 일과 직장(4.17)’-‘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3.96)’-‘자녀계획 일치 여부(3.96)’-‘배우자의 경제적 여건(3.90)’-‘배우자의 일과 직장(3.90)’ 순이었다. 경제적인 여건(①~④, ⑦)이나 가정 내 상황(⑤, ⑥, ⑧)보다 더 중요하게 꼽은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결혼을 결정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경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혼 후의 역할 분담 시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를 더 많이 담당하게 되고, 남성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이 반영된 응답이라 판단된다. 기혼보다는 미혼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에 한하여 미혼(4.61점)보다 더 높게 (4.67점) 나타났다. 비취업 집단이 취업 집단에 비해 경제적인 사항에 중요성을 더 높게 제시하였고,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모든 문항에 평균점수가 높았다.

〈표 10-6〉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례수
전체	4.18	4.17	3.90	3.90	3.96	4.19	4.24	3.96	4.65	14,149
지역										
동부	4.20	4.18	3.91	3.91	3.97	4.19	4.25	3.98	4.65	11,738
읍면부	4.11	4.11	3.85	3.87	3.92	4.15	4.22	3.87	4.60	2,410
성별										
남자	4.28	4.24	3.55	3.55	3.74	4.08	4.19	3.83	4.61	7,117
여자	4.08	4.09	4.26	4.26	4.18	4.30	4.29	4.09	4.69	7,032
연령										
19-24세	4.37	4.31	4.03	4.01	4.18	4.22	4.34	4.00	4.65	2,430
25-29세	4.31	4.24	3.97	3.93	4.05	4.21	4.30	4.03	4.63	2,318
30-34세	4.14	4.11	3.84	3.81	3.95	4.15	4.18	3.93	4.61	2,077
35-39세	4.12	4.11	3.85	3.87	3.86	4.18	4.19	3.94	4.67	2,358
40-44세	4.09	4.12	3.80	3.83	3.84	4.18	4.22	3.93	4.67	2,578
45-49세	4.07	4.11	3.92	3.97	3.87	4.18	4.22	3.94	4.63	2,387
교육										
고졸이하	4.11	4.08	3.87	3.87	3.89	4.12	4.24	3.95	4.60	3,914
대졸	4.21	4.20	3.92	3.92	3.99	4.21	4.25	3.96	4.66	9,561
대학원졸	4.17	4.20	3.86	3.91	3.95	4.24	4.18	3.98	4.74	673
혼인상태										
미혼	4.32	4.26	3.92	3.89	4.07	4.20	4.28	3.96	4.61	6,049
기혼	4.08	4.09	3.89	3.91	3.88	4.18	4.22	3.96	4.67	8,099
취업여부										
취업	4.19	4.19	3.82	3.83	3.91	4.17	4.22	3.94	4.65	9,704
비취업	4.16	4.11	4.08	4.07	4.06	4.24	4.29	4.01	4.64	4,445
가구소득										
60% 미만	4.22	4.17	3.87	3.85	3.98	4.15	4.23	3.95	4.60	2,902
60-80% 미만	4.12	4.10	3.85	3.86	3.87	4.16	4.23	3.92	4.60	2,087
80-100% 미만	4.18	4.16	3.84	3.88	3.95	4.16	4.23	3.93	4.62	2,348
100-120% 미만	4.14	4.12	3.89	3.89	3.94	4.18	4.23	3.98	4.66	2,147
120-140% 미만	4.15	4.17	3.97	3.97	4.01	4.24	4.28	4.01	4.68	1,379
140-160% 미만	4.20	4.21	3.96	3.95	3.98	4.22	4.24	3.97	4.67	1,083
160% 이상	4.24	4.25	3.99	3.99	4.01	4.26	4.27	4.00	4.71	2,202

주: 1) ① 본인의 경제적 여건, ② 본인의 일과 직장, ③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④ 배우자의 일과 직장, ⑤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 ⑥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⑦ 안정된 주거 마련, ⑧ 자녀계획 일치 여부, ⑨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자녀에 대한 태도

이 절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필요한지 묻는 문항,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상적인 자녀의 수, 자녀에 대한 다양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녀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5%,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은 37.2%,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은 27.4%, 모르겠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7%로 아직 판단을 유보한 경우(모르겠다)와 없어도 무관하다고 한 경우에 비해 높았다.

집단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집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들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본인의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19-24세와 25-29세 집단과 미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저히 낮고(19-24세 13.3%, 25-29세 21.1%, 미혼 14.0%)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19-24세 43.1%, 25-29세 36.3%, 미혼 41.8%)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7〉 본인 자녀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30.5	37.2	27.4	4.9	14,149	100.0
지역($\chi^2=16.8^{***}$)						
동부	29.8	37.4	27.9	4.9	11,738	100.0
읍면부	33.8	36.5	25.0	4.8	2,410	100.0
성별($\chi^2=134.6^{***}$)						
남자	32.9	38.3	23.2	5.6	7,117	100.0
여자	28.1	36.2	31.6	4.2	7,032	100.0
연령($\chi^2=1144.0^{***}$)						
19-24세	13.3	35.2	43.1	8.5	2,430	100.0
25-29세	21.1	36.3	36.3	6.4	2,318	100.0
30-34세	27.8	39.5	27.0	5.7	2,077	100.0
35-39세	37.6	37.7	20.6	4.1	2,358	100.0
40-44세	40.7	36.4	20.1	2.7	2,578	100.0
45-49세	41.6	38.7	17.5	2.2	2,387	100.0
교육($\chi^2=45.1^{***}$)						
고졸이하	31.3	36.3	27.1	5.3	3,914	100.0
대졸	29.5	37.8	28.0	4.8	9,561	100.0
대학원졸	40.3	35.5	20.1	4.1	673	100.0
혼인상태($\chi^2=1194.2^{***}$)						
미혼	14.0	36.0	41.8	8.3	6,049	100.0
기혼	42.8	38.2	16.6	2.4	8,099	100.0
취업여부($\chi^2=121.8^{***}$)						
취업	33.0	37.2	25.4	4.4	9,704	100.0
비취업	25.1	37.2	31.8	5.9	4,445	100.0
가구소득($\chi^2=251.5^{***}$)						
60% 미만	21.9	35.1	35.2	7.7	2,902	100.0
60-80% 미만	33.1	36.6	26.0	4.4	2,087	100.0
80-100% 미만	32.3	39.0	24.4	4.3	2,348	100.0
100-120% 미만	34.1	38.7	23.4	3.7	2,147	100.0
120-140% 미만	31.8	37.7	26.7	3.8	1,379	100.0
140-160% 미만	34.0	37.0	24.5	4.5	1,083	100.0
160% 이상	31.3	37.1	27.3	4.3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총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총 8개 문항을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56)’-‘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4.32)’-‘④ 주거 여건(4.29)’-‘② 본인의 안정된 직업(4.25)’-‘③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4.06)’-‘⑥ 배우자의 육아분담(4.04)’-‘⑧ 본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4.03)’-‘⑦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02)’ 순이다. <표 10-6>의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경제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읍면부에 비해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은 제도와 관련된 사항(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본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모든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미혼이 기혼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항목은 기혼집단이 더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취업 집단이 취업 집단에 비해 경제적인 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과 취업 집단은 본인 직업의 안정성을, 그리고 여성과 비취업 집단은 배우자 직업의 안정성에 더 높은 점수를 매겼는데, 이는 취업 남성의 비율이 79.0%, 비취업 여성의 비율이 42.0%로 집단의 규모가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8〉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례수
전체	4.32	4.25	4.06	4.29	4.56	4.04	4.02	4.03	14,149
지역									
동부	4.34	4.25	4.08	4.29	4.57	4.04	4.03	4.03	11,738
읍면부	4.26	4.21	4.01	4.26	4.54	4.02	4.00	3.99	2,410
성별									
남자	4.30	4.35	3.74	4.25	4.53	3.90	3.90	3.86	7,117
여자	4.34	4.14	4.39	4.32	4.60	4.17	4.15	4.19	7,032
연령									
19-24세	4.47	4.42	4.22	4.39	4.55	4.18	4.05	4.19	2,430
25-29세	4.43	4.35	4.16	4.39	4.55	4.12	3.98	4.08	2,318
30-34세	4.33	4.22	4.03	4.26	4.56	4.03	3.99	4.04	2,077
35-39세	4.28	4.19	4.00	4.26	4.57	4.00	4.06	4.00	2,358
40-44세	4.22	4.17	3.95	4.24	4.56	3.95	4.02	3.93	2,578
45-49세	4.21	4.13	4.01	4.19	4.58	3.95	4.02	3.92	2,387
교육									
고졸이하	4.28	4.20	4.06	4.29	4.56	4.01	4.01	3.99	3,914
대졸	4.35	4.27	4.07	4.29	4.56	4.05	4.03	4.04	9,561
대학원졸	4.24	4.18	3.97	4.18	4.56	4.02	4.02	4.03	673
혼인상태									
미혼	4.41	4.37	4.12	4.34	4.53	4.09	3.98	4.08	6,049
기혼	4.26	4.15	4.03	4.25	4.59	3.99	4.05	3.98	8,099
취업여부									
취업	4.30	4.27	3.98	4.27	4.56	4.01	4.00	3.99	9,704
비취업	4.36	4.19	4.25	4.33	4.56	4.09	4.06	4.11	4,445
가구소득									
60% 미만	4.36	4.29	4.08	4.31	4.52	4.05	3.99	4.01	2,902
60-80% 미만	4.28	4.19	4.02	4.25	4.56	3.96	3.98	3.99	2,087
80-100% 미만	4.28	4.20	4.01	4.27	4.56	4.03	3.99	3.97	2,348
100-120% 미만	4.34	4.23	4.06	4.30	4.58	4.06	4.03	4.01	2,147
120-140% 미만	4.30	4.25	4.08	4.31	4.59	4.04	4.08	4.11	1,379
140-160% 미만	4.33	4.26	4.09	4.30	4.58	4.08	4.01	4.06	1,083
160% 이상	4.37	4.29	4.12	4.29	4.59	4.06	4.07	4.07	2,202

주: 1) 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② 본인의 안정된 직업, ③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④ 주거 여건, 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⑥ 배우자의 육아분담, ⑦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⑧ 본인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2)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대상자들은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 2명(6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0.7%에 달했다.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0%(6 케이스)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19-24세(20.5%), 25-29세(13.4%) 연령집단 및 미혼(18.2%)으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거나, 자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은 1.94명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인 경우, 비취업 집단에 비해 취업 집단인 경우 이상적인 자녀의 수의 평균값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0-9〉 이상적인 자녀 수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합계		(단위: %, 명)	
								평균(모름 제외)	
								평균	사례수
전체	0.0	16.1	64.2	9.0	10.7	14,149	100.0	1.94	12,640
지역									
동부	0.0	16.8	64.5	8.4	10.4	11,738	100.0	1.92	10,522
읍면부	0.2	12.7	62.9	12.1	12.1	2,410	100.0	2.01	2,118
성별									
남자	0.1	15.6	64.1	9.6	10.6	7,117	100.0	1.95	6,360
여자	0.0	16.6	64.3	8.4	10.7	7,032	100.0	1.93	6,280
연령									
19-24세	0.0	18.8	56.2	4.5	20.5	2,430	100.0	1.82	1,931
25-29세	0.1	20.2	60.1	6.2	13.4	2,318	100.0	1.84	2,009
30-34세	0.0	19.7	61.8	7.2	11.3	2,077	100.0	1.87	1,842
35-39세	0.1	14.9	68.2	10.2	6.6	2,358	100.0	1.97	2,202
40-44세	0.0	11.9	70.2	11.7	6.2	2,578	100.0	2.02	2,418
45-49세	0.0	11.8	68.2	13.8	6.2	2,387	100.0	2.04	2,238
교육									
고졸이하	0.0	15.7	61.8	11.5	11.0	3,914	100.0	1.97	3,483
대졸	0.1	16.4	64.9	7.8	10.8	9,561	100.0	1.92	8,533
대학원졸	0.0	13.5	68.1	11.1	7.3	673	100.0	1.99	624
혼인상태									
미혼	0.0	19.8	56.7	5.3	18.2	6,049	100.0	1.83	4,950
기혼	0.1	13.3	69.8	11.8	5.0	8,099	100.0	2.00	7,690
취업여부									
취업	0.1	15.5	65.5	9.5	9.4	9,704	100.0	1.95	8,793
비취업	0.0	17.3	61.5	7.8	13.4	4,445	100.0	1.91	3,847
가구소득									
60% 미만	0.0	18.1	58.4	8.6	14.9	2,902	100.0	1.91	2,471
60-80% 미만	0.0	16.9	64.4	8.6	10.0	2,087	100.0	1.92	1,878
80-100% 미만	0.2	15.7	65.1	9.4	9.7	2,348	100.0	1.94	2,121
100-120% 미만	0.0	16.1	65.4	9.9	8.6	2,147	100.0	1.94	1,962
120-140% 미만	0.1	13.3	67.2	9.2	10.3	1,379	100.0	1.97	1,237
140-160% 미만	0.0	14.1	68.2	8.6	9.0	1,083	100.0	1.96	985
160% 이상	0.0	15.6	65.8	8.8	9.8	2,202	100.0	1.94	1,985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문항은 ‘①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②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③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④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⑥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의 6개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비율로 제시하였으며, 동의 비율은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한다.

자녀를 기존의 가치관에서 바라본 ⑤번이나 ⑥번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녀의 성취를 부모의 성취로 생각하거나, 노후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역할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6%로 6개의 문항 중 가장 높아 자녀가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문항의 동의 비율은 90.4%,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문항의 동의 비율은 86.5%로 나타나 자녀를 그 자체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72.6%로 나타난 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⑤, 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①~③)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경제적인 부담의 측면을 나타낸 문항에 더 동의하고 있었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⑥번 문항에 더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19-49세로 한정되어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보다

주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미혼에 비해 기혼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낮은 이유로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혼이 자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10〉 자녀에 대한 태도(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사례수
전체	90.4	94.6	86.5	72.6	41.7	30.3	14,149
지역							
동부	90.2	94.5	86.3	73.4	41.5	29.6	11,738
읍면부	91.4	95.0	87.9	68.9	42.7	33.3	2,410
성별							
남자	91.2	95.0	87.5	69.9	41.2	31.4	7,117
여자	89.6	94.2	85.6	75.4	42.2	29.1	7,032
연령							
19-24세	83.8	91.2	82.2	81.2	43.7	44.9	2,430
25-29세	84.7	91.5	82.7	75.5	39.5	35.4	2,318
30-34세	89.2	93.8	85.6	71.0	39.7	27.3	2,077
35-39세	94.4	96.7	87.8	68.6	38.8	23.0	2,358
40-44세	94.5	96.7	90.4	67.9	42.9	24.2	2,578
45-49세	95.1	97.5	90.2	71.7	45.3	26.7	2,387
교육							
고졸이하	90.6	93.8	86.9	70.8	45.4	33.4	3,914
대졸	90.0	94.7	86.2	73.5	40.7	29.6	9,561
대학원졸	95.1	97.9	90.1	71.8	35.2	21.8	673
혼인상태							
미혼	82.6	90.7	82.0	78.9	40.2	38.6	6,049
기혼	96.2	97.5	89.9	68.0	42.9	24.0	8,099
취업여부							
취업	90.7	94.8	86.9	71.6	41.0	27.9	9,704
비취업	89.7	94.2	85.7	75.0	43.3	35.4	4,445
가구소득							
60% 미만	87.2	92.1	83.6	75.2	39.3	33.7	2,902
60-80% 미만	91.4	94.3	86.9	71.0	41.1	30.9	2,087
80-100% 미만	91.4	94.8	87.1	70.7	42.1	30.4	2,348
100-120% 미만	91.6	96.2	88.4	71.1	43.7	28.9	2,147
120-140% 미만	90.5	95.4	86.9	72.6	39.9	25.7	1,379
140-160% 미만	91.6	95.1	86.1	73.8	42.1	32.5	1,083
160% 이상	90.7	95.7	87.6	73.9	44.1	28.0	2,202

주: 1) ①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②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③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④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⑥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 표의 비율은 ①~⑥의 각각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약간 동의함' 과 '매우 동의함'의 합을 의미함.
 3)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다음은 사회의 안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표이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사회가 안전하다(65.7%)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6.3%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읍면부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동부에 거주하는 집단이 (3.1%p), 여성에 비해 남성이(12.8%p),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혼에 비해 미혼이(3.0%p),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를 안전하게 인식하였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70.1%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57.3% 수준이었다.

그리고 신뢰의 정도를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문항에 신뢰하는 정도로 제시하였으며, 신뢰하는 정도는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의 합을 의미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는 가족이 97.9%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12 참조). 그 뒤를 이어 직장동료(65.1%)-이웃(49.0%) -모르는 사람(4.2%)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순으로 점차 신뢰 정도를 낮게 응답한 것이라 해석된다.

집단별로는 교육수준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과 취업 집단, 기혼 집단, 30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각각의 집단 내 취업 비율이 높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85.0%, 기혼의 73.9%, 30세 이상의 모든 집단의 70% 이상이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이웃에 비해 직장동료와 마주하는 빈도가 더 높아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13〉은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이다. 정부와 국회, 법원/검찰, 언론 모두 낮은 신뢰 정도를 보였다. 그 중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기관은 정부(45.6%)였고, 국회와 법원·검찰은 24.4%로 동일했다. 언론은 가장 낮은 신뢰 정도(19.3%)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11〉 사회의 안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태도				합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전체	4.5	31.8	56.5	7.2	14,149	100.0
지역($\chi^2=11.7^{**}$)						
동부	4.6	31.2	56.9	7.4	11,738	100.0
읍면부	4.1	34.7	54.6	6.6	2,410	100.0
성별($\chi^2=462.7^{***}$)						
남자	4.2	25.7	59.1	11.0	7,117	100.0
여자	4.7	38.0	53.8	3.5	7,032	100.0
연령($\chi^2=127.9^{***}$)						
19-24세	5.8	31.0	54.1	9.1	2,430	100.0
25-29세	5.7	30.5	54.5	9.4	2,318	100.0
30-34세	5.0	30.5	56.7	7.8	2,077	100.0
35-39세	4.5	31.9	56.1	7.4	2,358	100.0
40-44세	2.8	35.4	56.7	5.1	2,578	100.0
45-49세	3.3	31.2	60.7	4.9	2,387	100.0
교육($\chi^2=165.2^{***}$)						
고졸이하	6.0	37.6	50.9	5.6	3,914	100.0
대졸	4.1	29.9	58.4	7.6	9,561	100.0
대학원졸	1.2	25.5	61.7	11.7	673	100.0
혼인상태($\chi^2=116.1^{***}$)						
미혼	4.9	29.7	55.6	9.8	6,049	100.0
기혼	4.1	33.4	57.1	5.3	8,099	100.0
취업여부($\chi^2=6.7$)						
취업	4.6	31.4	57.1	7.0	9,704	100.0
비취업	4.3	32.8	55.2	7.8	4,445	100.0
가구소득($\chi^2=70.4^{***}$)						
60% 미만	5.8	32.4	54.4	7.4	2,902	100.0
60-80% 미만	4.4	33.5	54.6	7.5	2,087	100.0
80-100% 미만	4.4	31.6	57.8	6.2	2,348	100.0
100-120% 미만	4.4	34.1	55.0	6.5	2,147	100.0
120-140% 미만	3.0	32.1	58.9	6.0	1,379	100.0
140-160% 미만	5.3	30.1	57.3	7.3	1,083	100.0
160% 이상	3.5	28.2	59.0	9.3	2,202	100.0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10-12〉 사람에게 대한 신뢰 정도(신뢰함+매우 신뢰함)

(단위: %, 명)

구분	가족	이웃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사례수
전체	97.9	49.0	65.1	4.2	14,149
지역					
동부	97.9	47.2	64.6	4.3	11,738
읍면부	97.9	57.4	67.8	3.5	2,410
성별					
남자	98.0	46.6	66.4	4.3	7,117
여자	97.9	51.4	63.8	4.1	7,032
연령					
19-24세	97.9	37.3	56.2	3.6	2,430
25-29세	97.1	35.7	59.4	3.9	2,318
30-34세	97.9	43.4	63.6	3.7	2,077
35-39세	98.5	52.2	67.7	3.8	2,358
40-44세	98.4	58.9	69.6	4.3	2,578
45-49세	98.0	64.5	73.7	5.6	2,387
교육					
고졸이하	96.5	49.2	62.6	4.3	3,914
대졸	98.5	48.3	65.5	4.1	9,561
대학원졸	98.8	56.9	73.7	5.4	673
혼인상태					
미혼	97.2	38.3	59.8	4.3	6,049
기혼	98.5	56.9	69.1	4.1	8,099
취업여부					
취업	98.0	48.7	68.3	4.2	9,704
비취업	97.9	49.6	58.3	4.1	4,445
가구소득					
60% 미만	95.4	40.1	59.2	3.8	2,902
60-80% 미만	98.2	50.8	63.2	4.0	2,087
80-100% 미만	98.1	50.5	66.6	4.0	2,348
100-120% 미만	98.5	51.1	66.2	4.2	2,147
120-140% 미만	99.1	53.7	69.5	3.9	1,379
140-160% 미만	98.8	50.8	65.9	3.8	1,083
160% 이상	99.2	51.3	68.9	5.4	2,202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이 표의 비율은 각각의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로, '신뢰함'과 '매우 신뢰함'의 합을 의미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10-13〉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신뢰함+매우 신뢰함)

(단위: %, 명)

구분	정부	국회	법원,검찰	언론	사례수
전체	45.6	24.4	24.4	19.3	14,149
지역					
동부	45.7	24.5	31.8	19.0	11,738
읍면부	45.0	23.8	33.0	21.0	2,410
성별					
남자	44.2	22.6	30.7	17.6	7,117
여자	47.0	26.1	33.3	21.0	7,032
연령					
19-24세	44.1	30.2	37.3	21.9	2,430
25-29세	42.6	25.1	35.6	18.4	2,318
30-34세	45.4	24.8	34.2	19.4	2,077
35-39세	45.5	21.8	30.3	17.5	2,358
40-44세	47.3	22.7	28.7	19.1	2,578
45-49세	48.4	21.7	26.5	19.5	2,387
교육					
고졸이하	40.3	22.5	30.3	22.4	3,914
대졸	47.0	25.0	32.7	18.3	9,561
대학원졸	56.2	26.7	32.5	16.4	673
혼인상태					
미혼	45.1	26.6	35.0	20.0	6,049
기혼	45.9	22.7	29.8	18.9	8,099
취업여부					
취업	45.1	23.0	30.7	18.3	9,704
비취업	46.7	27.3	34.9	21.5	4,445
가구소득					
60% 미만	45.4	25.2	32.3	20.3	2,902
60-80% 미만	45.1	24.5	31.8	20.9	2,087
80-100% 미만	46.6	24.4	31.2	19.9	2,348
100-120% 미만	43.6	22.8	31.3	17.5	2,147
120-140% 미만	45.3	23.3	32.2	20.2	1,379
140-160% 미만	49.3	24.9	35.2	18.3	1,083
160% 이상	45.6	25.1	31.6	17.7	2,202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이 표의 비율은 각각의 기관을 신뢰하는 정도로, '신뢰함'과 '매우 신뢰함'의 합을 의미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가치관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지하기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을 구분하여 각 성별에 부여하고 수행하거나, 가족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가족과 관련된 일이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문항(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23.6%),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8.4%) 등)에 동의하기보다 변화된 가치관을 나타내는 문항(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96.4%),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6.4%) 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포함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역시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변화된 가치관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된 가치관은 연령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존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변화된 가치관을 더 많이 지지하였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기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주는 그 자체로의 즐거움과 자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중시하고 있었고 자녀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노후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모습은 적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몇 명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12,640명 전체의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평균 1.94명이었는데, 2015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25명(2015)-2.16명(2018)-1.98명(2021)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남녀도 동일하였다. 미혼남성은 1.96명(2015)-1.88명(2018)-1.85명(2021)으로 줄어들었고, 미혼여성은 1.98명(2015)-1.83명(2018)-1.80명(2021)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의 전반적 감소와 더불어, 미혼이 기혼에 비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 가치관에서 나타난 연령별 차이는 자녀 가치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인 자녀의 필요성 문항에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19-24세의 43.1%가 없어도 무관하다 응답한 데 비해 45-49세는 17.5%만이 없어도 무관하다 응답하였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맞이하게 될 젊은 연령층의 가치관 변화가 인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여 볼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시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4.65/5점 만점)였고, 그 뒤로 주거, 소득 등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족관계나 역할분담 등도 높게 나타났다. 출산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56/5점 만점)이었고, 그 뒤로 경제적인 여건과 일·가정 양립 여건이 뒤를 이었다.

가치관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기에 이 지점의 정책적 개입은 어렵다 판단된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은 가치관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

적인 여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더 많은 사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 계봉오, 김영미. (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대학교 산업협력단.
- 고용노동부. (2021. 2. 10.).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37에서 2021. 12. 10.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 김미옥, 박점미, 홍주은, 반민경. (2021).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의 관련성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3), 169-176.
- 김민영, 한규은. (2021). 생활 요인이 난임 여성의 2년 이내 출산 횟수에 미치는 영향.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309-314.
- 김새롬. (2021). (기획)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국제적 정책 추세와 한국에 주는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가을), 16-26.
- 김성희, 이가연, 전해정. (2021). 난임 커플의 난임 스트레스와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문화, 33, 37-69.
- 김송이, 이혜수, 임밖네. (2018).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이희현, 이혜숙, 임성은, 오신휘.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현, 최영준. (2021). 코로나19시기 가족관계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01-132.

- 대한민국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9). 산과학(6판). 파주: 군자출판사.
-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 <https://ksog.org/public/index.php>에서 2021. 10. 30. 인출.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문정희, 김성순. (2019).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설희, 류세양. (2021). 초산모의 모유수유 이행 구조모형.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3), 184-196.
- 박미진. (2017). 성평등 인센티브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효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4, 37-78.
- 박은정·유해미. (2020).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포럼, 63(10). 6-15.
- 박한송, 이도은, 윤인애, 서효원, 서주희. (2021).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질적 연구에 대한 보고 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34(1), 15-33.
- 백미록. (2021). 경기도 재생산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70), 243-268.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정희, 이주석, 김태홍. (2021). 모유수유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관한 연구: 2013~2017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1), 21-30.
-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infertility>에서 2021. 10. 30. 인출.
- 신창우, 이삼식, 박종서. (2011).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 DB구축.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하영, 김문정. (2021).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에

- 미치는 영향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3(2), 504-514.
- 여성가족부. (2021).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가희. (2021).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보건사회연구*, 41(2), 141-156.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오수영, 손인숙. (2021).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 지표에 대한 고찰.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1), pp.1-9.
- 이소영, 이상림, 조성호, 최인선. (2015).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임지영. (2017). 산후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진한. (2021. 8. 4.). “돈보다 여가” 워라벨 확고한 MZ세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55658>에서 2021. 12. 10. 인출.
- 이흥탁. (1994). *인구학-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임병인,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 정아름. (2018).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37(3), 147-174.

- 조성호, 김지민. (2018).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재선, 이동선, 송치선, 박건표, 이진숙, 박송이, 양준영. (2020). 2020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 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1-14.
- 차창희. (2021. 8. 21.). “승진 욕심 없고요, 편하고 싶습니다.” MZ세대 워라벨에 밀린 ‘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08846/>에서 2021. 12. 10. 인출.
- 최재희. (2021). 고위험 임부의 임신스트레스, 태아 애착, 사회적 지지가 산전우울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계명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19).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 10. 18.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vw_cd=MT_ZTITLE&list_id=A2_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1. 11. 10.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 한국인구학회. (편). (2016). 인구대사전. 「인구대사전」 전면개정연구·편집위원회, (사)한국인구학회.
- 한규은, 김민영. (2021). 난임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 신체활동 강도를

- 중심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3). 197-203.
- 황란희. (2021). 임부의 우울에 임신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디지털 융복합연구, 19(5), 469-477.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muka, J. I., Onyechi, T. G., Asogwa, F. O., & Agu, A. O. (2021). Couples' social characteristics, family planning, and unwanted pregnancy risk: Evidence from two Niger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African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 25(3), 51-59.
- Chabbert, M., Panagiotou, D., & Wendland, J. (2021). Predictive factors of women's subjective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9(1), 43-66.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 Gomez, A. M., Arteaga, S., & Freihart, B. (2021). Structural Inequity and Pregnancy Desires in Emerging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2.
- Hajizadeh, K., Vaezi, M., Meedya, S., Mohammad Alizadeh Charandabi, S., & Mirghafourvand, M. (2020). Respectful maternity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childbirth experience in Iranian women: 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20(1), 1-8.

- Hajizadeh, M., & Nghiem, S. (2020). Does unwanted pregnancy lead to adverse health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mother and child? Evidence from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4), 457-468.
- Hildingsson, I., Karlström, A., & Larsson, B. (2021). Childbirth experience in women participating in a continuity of midwifery care project. *Women and Birth*, 34(3), e255-e261.
- Ku, J. E., & Kim, G. R. (2021). A Study on Factors on Postpartum Obesity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6), 429-438.
- Kumar, J., & Kumar, S. (2021). A study to evaluate the Infant Nutrition amongst desired and undesired pregn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and Clinical Research*, 4(1), 244-247.
- Lee, E. J., & Park, J. S. (2021). 임신 중 우울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2), 89-101.
- McKelvin, G., Thomson, G., & Downe, S. (2021). The childbirth experience: A systematic review of predictors and outcomes. *Women and Birth*, 34(5), 407-416.
- Newport, D. J., Hostetter, A., Arnold, A., & Stowe, Z. N. (2002).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minimizing infant exposure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 31-44.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 Starrs, A. M., Ezeh, A. C., Barker, G., Basu, A., Bertrand, J. T., Blum, R., et al. (2018).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Lancet* 2018, 391(10140), 2642-2692.

-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s, intentions, and births, *Demography*, 34(3), 343-354.
- Thomson, E., & Hoem, J. M. (1998). Couple childbearing plans and births in Sweden, *Demography*, 35(3), 315-322.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WHO 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97603>



[부록 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준일: 2021년 9월 2일 오전 0시 현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과 출산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가족 구성, 임신·출산의 경험과 건강, 자녀양육, 가족생활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지정통계 조사'로 만 19~49세 성인 남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체 약 1만 가구이며,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지역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귀 닻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표본 가구로서 전국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사회조사팀
044-287-8295, 044-287-8123

조사표 NO.	지역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특성	가처번호	가구번호
			-		

주소 (도로명 기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휴대폰		

방문 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2	___월 ___일 _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3	___월 ___일 _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응답자: 가구 대표 응답자

가구원 및 가족 사항

※ 추가 또는 소독과 지출 등 생활에 같이 하는 가구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항목을 조사합니다(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자녀를 포함).

※ 다만, 비동거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분류하고, 비동거 자녀는 가구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자녀는 개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1. 가구내 개인 조사대상자 (연 19세 이상) 수		2. 가구내 조사대상자 수		3. 가구원 수		4. 비동거 자녀 수		5. 대표 응답자 가구원 번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2
6-1. 가구원 이름	(※조사대상자이름은 응답자, 배우자, 순서로 기록)									
6-2. 가구원 생년월일	(※조사대상자생년월일은 생년월일(YYMMDD)로 기록)									
6-3. 성	남	여	실제 태어난 출생 연월일 (※조사대상: 유력인 경우, 지칭사를 참조하여 양력으로 표시하여 기록)							
6-4. 인명(영리)기준	만 19세 미만									
6-5. 교육수준	6-5-1. 교육수준 (단일, 다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2-3년제) ⑥ 대학원(원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6-6. 50만원 미만 (연 15세 이상)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조사대상: 사별상 의 혼인관계 기준)									
6-7. 경제활동상태 (연 15세 이상)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6-8. 종교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6-9. 국적	① 대한민국 (출생지: 출생지(국적)) ② 대한민국 (귀화, 수반, 인지로 취득한 국적) ③ 외국 (국적) (※조사대상: 국적부도, 저명시 없음)									
6-10. 6-10. 중기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6-11. 대표 응답자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6-12. 6-12. 대표 응답자	① 예 ② 아니오									
6-13. 6-13.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양력	년	월	일	남	세				
2	양력	년	월	일	남	세				
3	양력	년	월	일	남	세				
4	양력	년	월	일	남	세				
5	양력	년	월	일	남	세				
6	양력	년	월	일	남	세				
7	양력	년	월	일	남	세				
8	양력	년	월	일	남	세				
9	양력	년	월	일	남	세				
10	양력	년	월	일	남	세				
11	양력	년	월	일	남	세				
12	양력	년	월	일	남	세				
13	양력	년	월	일	남	세				
14	양력	년	월	일	남	세				
15	양력	년	월	일	남	세				

영역 1. 부모와의 관계

응답자: 모든 개인

※ 다음은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부모나 양부모 상관없이 귀하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세요.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분만 계시면 그 한 분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생존해계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안계신다 ⇨ 문항 10 ② 어머니만 계신다
③ 아버지만 계신다 ④ 두 분 모두 계신다

1-1. 귀하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따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9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와(또는)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하셨습니까?

- ① 매일 ② 일주일에 서 너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⑤ 한 달에 한 번 정도 ⑥ 일 년에 서 너번 정도
⑦ 거의 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다

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어머니와(또는)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린 경우는 현금에 포함하고, 음식 제공은 현물에 포함)

-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4

3-1. 연간 얼마 정도 드렸습니까?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현금: 연간 _____ 만 원
2) 현물: 연간 _____ 만 원

1) 만 원

2) 만 원

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어머니와(또는) 아버지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린 경우는 현금에 포함하고, 음식 제공은 현물에 포함)

-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5

4-1. 연간 얼마 정도 드렸습니까?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현금: 연간 _____ 만 원
2) 현물: 연간 _____ 만 원

1) 만 원

2) 만 원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어머니와(또는) 아버지에게 가사일(청소, 음식준비)이나 병간호,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6

5-1. 월간 또는 연간 며칠 정도 도움을 드렸습니까?

- 1) ① 월간 ② 연간 2) _____ 일

1) 2) 일

영역 2. 동거와 결혼

응답자: 모든 개인

1. 귀하는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으십니까?

- ① 예: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다 → 배우자 등의 가구원번호:
- (동거, 사실혼, 법률혼) **☞ 문항 1-1**
- ② 아니요: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다
-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문항 1-2**

1-1. 귀하는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혼인신고를 하였다 (_____년 _____월) **☞ 문항 2**
-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문항 6**

 년 월

1-2.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응답 후 문항 14로**

- ① 미혼
- ② 이혼
- ③ 별거
- ④ 사별

▶ 법률 혼인 상태인 경우: 혼인신고 하였음 ◀

2.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년 월

3.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결혼식을 하였다 (_____년 _____월)
- ②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년 월

4.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② 결혼식을 한 시점
- ③ 혼인신고를 한 시점
- ④ 기타(ex. 약혼일, 임신일, 부모님께 인사나 말씀드린 날 등) _____: _____년 _____월

 년 월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때, 다음을 얼마나 기대하셨습니다? **☞ 응답후 문항 18로**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 하였음	매우 기대하였음
1)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2)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3)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①	②	③	④

▶ **사실혼 또는 동거하는 경우: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음** ◀

6. 귀하는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언제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년 월

7.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① 결혼식을 하였다 (_____년 _____월) 년 월
 ②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8. 귀하는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관계(혼인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항 8-2**

8-1.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실제 부부관계(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② 결혼식을 한 시점
 ③ 기타(ex. 약혼일, 임신일, 부모님께 인사나 말씀드린 날 등) _____ : _____년 _____월
☞ 응답후 문항 9로

8-2.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실제 부부관계(혼인관계)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결혼식을 안 해서(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② 혼인신고 안 해서 ③ 아이가 없어서
 ④ 재산을 합치지 않아서 ⑤ 서로(또는 한 쪽)의 부모나 가족과 교류가 없어서
 ⑥ 같이 살기는 하지만 혼인과는 관계없는 사이여서
 ⑦ 기타()

9.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분과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다음을 얼마나 기대하였습니까?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 하였음	매우 기대 하였음
1)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2)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3)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①	②	③	④

10. 귀하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혼인신고는 의미 없어서)
 ②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③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④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⑤ 아이,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⑥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⑦ 기타()

412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1. 귀하는 살면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11-1 ② 아니요 ☞ 문항 12

11-1. 귀하가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가족이나 주위에서 권해서
 ②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제도적 제약(상속권 등)과 정책 혜택(복지와 주거 정책 혜택 등)과 서비스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
 ③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이 부담스러워서
 ④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⑤ 함께 사는 상대가 원해서
 ⑥ 기타()

12. 귀하는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까?

- ① 전혀 할 계획이 없다 ②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③ 아마 할 것이다 ④ 확실히 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13. 귀하는 현재 함께 사시는 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이나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1) 정부지원 혜택(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제한	①	②	③	④
2) 병원 방문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역할 제약	①	②	③	④
3)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 요금제 결합 등) 제한	①	②	③	④
4) 주위의 부정적 시선	①	②	③	④

☞ 응답후 문항 18로

▶ 이혼·별거·사별 후 배우자나 동거인 없는 경우 / 미혼으로 혼자 사는 경우 ◀

14. 귀하는 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5. 귀하는 앞으로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
 ②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③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④ (이혼, 사별, 별거 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문항 15-1

☞ 문항 16

☞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문항 18
 ☞ 결혼 경험이 없는 경우 영역 3

▶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

15-1. 귀하는 결혼(재혼)한다면 몇 세에 결혼할 생각이십니까?
 ① 만 _____ 세
 ② 모르겠다

만 세

15-2. 귀하는 결혼(재혼) 한다면 결혼 전에 동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동거 후 결혼을 할 생각임
 ② 아니요,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임

15-3. 귀하는 결혼(재혼)한다면, 다음을 얼마나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임	기대하지 않을 것임	기대할 것임	매우 기대할 것임
1)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2)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3)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①	②	③	④

☞ **응답후 문항 18로**

▶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

16.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동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 문항 16-1
③ 있다	④ 매우 많다	

16-1. 결혼이나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누구와 함께 살 생각이십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혼자
 ② 본인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자녀
 ⑥ 기타(누구 :)

17. 귀하는 만약 결혼하지 않고 산다면, 다음에 대하여 제약을 얼마나 느끼실 것 같습니까?

구분	전혀 제약을 느끼지 않음	제약을 느끼지 않음	제약을 느낌	매우 큰 제약을 느낌
1)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2)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①	②	③	④
3)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①	②	③	④

☞ **응답후 문항 18로**

414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8. 귀하는 지금까지 몇 번 결혼하셨습니다? 법률혼 관계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
부관계(사실혼)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번

번

※ 결혼 횟수가 0인 경우 ☞ 영역 3으로 이동

▶ 과거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

※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귀하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였다고 생각한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이혼,
(이혼 전제)별거, (사실혼)헤어짐,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 응답합니다.

19. 귀하가 결혼 경험이 있으면서 한 번 이상 헤어진 경험이 있으시면, 과거 결혼 경험에 대하여 아래 표에 맞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 결혼하여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분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1) 결혼 시기 (본인 판단 기준)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2) 혼인 신고 유무 ① 했다 ② 안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결혼 종료 시기 (본인 판단 기준)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4) 결혼 종료 형태 ① 이혼 ② 별거(이혼 전제) ③ (사실혼)헤어짐 ④ 사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네 번 이상인 경우 네 번째 결혼, 다섯 번째 결혼 등 최대 열 번째 결혼까지 계속하여 응답합니다.

▶ 이혼·별거·헤어짐(사실혼) 경험이 있는 경우(사별 제외) ◀

※ 과거 경험이 여러 번인 경우 가장 첫째 이혼(헤어짐)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20. 귀하가 이혼(별거한, 헤어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경제적 이유 ② 성격적 이유 ③ 음주, 폭력 ④ 외도
⑤ 자녀 관련 이유 ⑥ 본인 가족이나 상대 가족 관련 갈등 ⑦ 기타()

21. 귀하는 이혼, 별거, 헤어짐 직후에 누구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혼자 ② 본인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자녀 ⑥ 교제 중이던 사람 ⑦ 기타()

22. 귀하는 이혼, 별거, 헤어짐 당시 상대방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셨습니까?

- ① 예, 자녀 있었다 ☞ 문항 22-1 ② 아니요, 자녀 없었다 ☞ 영역 3

22-1. 당시 자녀는 몇 명이었으며, 그 중 미성년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다?

_____명 (미성년 자녀 _____명) ☞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문항 22-2

명 미성년 명

22-2. 당시 미성년 자녀 중 본인과 상대방이 직접 양육하게 된 자녀는 각각 몇 명이었습니다?

1) 본인 _____명 2) 상대방 _____명

1) 본인 명 2) 상대방 명

5-2. 귀하가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임신을 원해서
- ② 나의 건강에 좋지 않아서
- ③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불임) 등의 상태이므로)
- ④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 ⑤ 내가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 ⑥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 ⑦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 ⑧ 임신 중이어서
- ⑨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 ⑩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 ⑪ 기타()

6. 피임과 관련된 결정(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은 누가 하십니까?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주로 내가 ② 나와 상대방이 함께 ③ 주로 상대방이

II. 임신출산 경험에 관한 사항

응답자: 19~49세 여성

7. 귀하는 지금까지 총 몇 번 임신하셨습니다? 현재 임신 중, 과거 유산과 사산을 포함합니다.
 총 _____ 번 임신 ※ 0번인 경우 ☐ 문항 10

 번

◆ 아래의 표에 귀하의 임신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순서	7-1. 임신시기	7-2. 원했던 임신 여부	7-3. 임신 시기의 적절성	7-4. 임신 방법	7-5. 임신 종결 형태	7-6. 임신 종결 시기
		① 원했다 ☐ 문항 7-3 ② 원하지 않았다 ☐ 문항 7-4 ③ 모르겠다 ☐ 문항 7-4	① 원했던 것보다 빨랐 다(비른 정도 _____년) ② 적절했다 ③ 원했던 것보다 늦었 다(늦은 정도 _____년) ④ 모르겠다	① 자연임신 ② 난임시술	① 현재 임신 중 ☐ 문항 9 ② 출생 (남 _____명, 여 _____명) ③ 사산 ④ 출생, 사산 동시 발생 (출생: 남 _____명, 여 _____명) ⑤ 자연유산 ⑥ 인공임신중지(낙태)	① 임신결과의 시기 (시기가: _____년 _____월 _____일) ※ 7-5에서 ② ~ ⑤의 경우 응 답합니다.
첫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두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세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네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다섯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여섯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일곱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여덟 번째	_____년 _____월	<input type="checkbox"/>	_____년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명 딸 <input type="checkbox"/> 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조사원: <문항 7>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을 기입하십시오.(CAPI 자동계산)						
총 임신횟수 =	출생	+ 사산	+ 출생, 사산 동시 발생	+ 자연유산	+ 인공임신중지	+ 현 임신
□ □ 회	□ □ 회	□ 회	□ 회	□ □ 회	□ □ 회	□ 회

8. 귀하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가?

(CAPI 자동계산)

※ 분기(출가), 사망한 자녀를 모두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제외합니다. 앞의 임신경험 문항에서 응답한(문항 7-5의 ②출생, ④출생과 사산 동시발생에서 기입한) 출생아수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총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총 □ □ 명 아들 □ 명 딸 □ 명

9. 귀하가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총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② 없다

□ □ 명 아들 □ 명 딸 □ 명

III. 난임(불임)

응답자: 법률혼·사실혼인 여성

10.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와 임신을 하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항 10-1 ② 없다 ☞ 문항 12 ③ 비해당 ☞ 문항 12

10-1.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병원에서 난임(불임) 검사를 받았습니까?

① 나만 받았다 ② 배우자만 받았다
③ 모두 받았다 ④ 모두 받지 않았다 ☞ 문항 12

11. 귀하와 현재의 배우자는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 경험을 포함하고,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함)

① 있다 ☞ 문항 11-1 ② 없다 ☞ 문항 12

11-1.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으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다가?

- ① 경제적 부담 ②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 ③ 배우자 등의 비협조와 무관심 ④ 가족 간 갈등
- ⑤ 사회적 편견 ⑥ 신체적 불편감 또는 고통
- ⑦ 시간 부족 ⑧ 직장(결근, 비협조적 분위기 등)
- ⑨ 기타()

11-2.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시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임신 후 출산하였다 ② 현재 임신 중이다
- ③ 임신되었으나 출산하지 못했다 ④ 임신이 안 되었다
- ⑤ 현재 시술 중이다

II. 영유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돌봄

응답자: 0세-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표 응답자

※ 영유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수를 기입하고, 자녀별로 아래의 문항에 응답합니다.
 ※ **비동거 자녀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유아 자녀가 없으면 <소영역 III. 초등학교 재학 자녀 돌봄>으로 이동합니다.

◆ 영유아 자녀수: _____ 명

영유아 자녀수: _____ 명

3. 귀하는 ()째 자녀를 주간에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조사대상자 가구번호	두번째 조사대상자 가구번호	세번째 조사대상자 가구번호	네번째 조사대상자 가구번호	다섯번째 조사대상자 가구번호
3-1. ()째 자녀는 현재 민으로 몇 살입니까?	()	()	()	()	()
3-2. ()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항)는 무엇입니까? (주된 서비스로 2순위 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1가지 돌봄 서비스(항)만 희망한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	(X)	(X)	(X)	(X)	(X)
3-3. ()째 자녀의 돌봄을 위해 어떤 서비스(항)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된 서비스로 2순위 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1가지 돌봄 서비스(항)만 사용하고 있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	(X)	(X)	(X)	(X)	(X)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가장·민간 어린이집 ④ 기타 어린이집 ⑤ 국공립유치원 ⑥ 사립 유치원 ⑦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⑧ 기타 사설학원 ⑨ 본인 ⑩ 배우자 ⑪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⑫ 시부모님(부모님) ⑬ 기타 친인척 ⑭ 민간돌봄보미(시터) ⑮ 아이돌보미(정부) ⑯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⑰ 아이의 형제자매 ⑱ 아이혼자 ⑲ 기타 () ⑳ 없음	()	()	()	()	()
3-4. ()째 자녀의 현재 돌봄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	()	()	()	()
3-5. ()째 자녀가 평소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평소 돌보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보줄 수 없는 경우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④ 시부모님(부모님) ⑤ 기타친인척 ⑥ 민간돌봄보미(시터) ⑦ 아이돌보미(정부) ⑧ 아이의 형제자매 ⑨ 아이혼자 ⑩ 기타 ()	()	()	()	()	()
4. 귀하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구분				
	← 전혀 어렵지 않다 → 매우 어렵다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 초등 재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표 응답자

III.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를 기입하고, 자녀별로 아래의 문항에 응답합니다.
 ※ 비동거 자녀도 모두 포함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없으면 (소영역 IV 자녀 양육비 및 생활 지원)으로 이동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_____ 명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_____ 명

찾은 재학 조부모가	무단 재학 조부모가	세번째 재학 조부모가	네번째 재학 조부모가	다섯번째 재학 조부모가
가구원번호	가구원번호	가구원번호	가구원번호	가구원번호
()	()	()	()	()
(X)	(X)	(X)	(X)	(X)
(X)	(X)	(X)	(X)	(X)

5. 귀하는 () 재 자녀의 방과 후에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 방과 후 돌봄이 아닌 학기 중 평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5-1. () 재 자녀는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1순위 () 2순위 ()

5-2. () 재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곳)은 누구(어디)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1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희망한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

5-3. () 재 자녀를 방과후에 실제로 누구(어디)에게 맡기십니까? (주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1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사용하고 있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

① 초등돌봄교실 ② 방과후 학교 ③ 지역아동센터 ④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⑥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시설 ⑦ 민간 학원, 사설 공부방, 학습센터 ⑧ 본인 ⑨ 배우자 ⑩ 친정부모님 (장인·장모님)
 ⑪ 시부모님 (부모님) ⑫ 기타 친인척 ⑬ 민간돌보미(시티) ⑭ 아이돌보미(정부) ⑮ 아이돌보미(경부)
 ⑯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⑰ 아이의 형제자매 ⑱ 아이 혼자 ⑲ 없음
 ⑳ 기타 ()

5-4. () 재 자녀의 현재 돌봄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5-5. () 재 자녀가 평소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평소 돌보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볼 수 없는 경우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④ 시부모님(부모님) ⑤ 기타친인척
 ⑥ 민간돌보미(시티) ⑦ 아이돌보미(정부) ⑧ 아이의 형제자매 ⑨ 아이 혼자 ⑩ 기타 ()

6. 귀하는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 →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자녀 양육비 및 생활 지원

응답자: 대표 응답자

7. 귀하는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 현재 귀하가 양육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 명)
 ※ 떨어져 사는 미혼 자녀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양육·지원
자녀수 명

8. 귀하는 (지난 3개월간) 자녀를 위해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자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조사대상 자녀 가구원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둘째 조사대상 자녀 가구원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셋째 조사대상 자녀 가구원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넷째 조사대상 자녀 가구원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다섯 번째 조사대상 자녀 가구원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나이 (가구원 사항 CAPI 연계)	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세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2) 공교육비 (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 후학교 등)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3) 사교육비 (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4) 돌봄비용 1(조부모)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5) 돌봄비용 2(기타 친인척)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6) 돌봄비용 3(비혈연)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7) 기타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 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 신 등)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8) 총액 (CAPI 자동 계산)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만원

영역 6. 일

응답자: 모든 개인

1. 귀하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는 현재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주 직업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의 경제활동 상태를 <가구원 사항>의 경제활동 상태와 동일하게 아래 <문항 1-1>에 기입합니다.
(CAPI 연계)

- 응답자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 모두 비취업 상태라면 <문항 1-1>에 각각 기입하고 <문항 3>으로 이동합니다.

구분	응답자의 현 취업 가구원 번호: <input type="text"/>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의 현 취업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번호: <input type="text"/>
1-1. 경제활동 여부 ※ 가구원사항의 경제활동 상태 응답값 확인(CAPI 연계)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실업(구직 중) ☞ 문항 4 <input type="checkbox"/> ③ 비경제활동 → <input type="checkbox"/> 1-1-1. 현재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항 3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실업(구직 중) ☞ 문항 4 <input type="checkbox"/> ③ 비경제활동 → <input type="checkbox"/> 1-1-1. 현재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항 3
1-2. 평소에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1-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1-4. 직종	①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1-5. 업종	①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② 광업·제조업 ③ 건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금융 및 보험업 ⑦ 교육서비스업 ⑧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⑪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⑫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⑭ 기타(부동산,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예술 등)	①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② 광업·제조업 ③ 건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금융 및 보험업 ⑦ 교육서비스업 ⑧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⑪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⑫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⑭ 기타(부동산,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예술 등)
1-6. 직장 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보보호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보보호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
1-7. 종사상 지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문항 1-10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항 1-10 <input type="checkbox"/>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문항 1-10
1-8. 정규직 여부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비정규직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비정규직

426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구분	응답자의 현 취업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의 현 취업
	가구원 번호: [] []	동거여부: [] 가구원 번호: [] []
1-9. 시간제 여부 (사주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① 예 [] ② 아니요 []	① 예 [] ② 아니요 []
1-10. 사주 노동시간 의향 (대리 응답할 경우 배우자 문항은 응답하지 않음-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 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었음 [] ⑤ 일하는 시간 줄이고 싶었음 []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음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었음 [] 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었음 []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었음 [] ⑤ 일하는 시간 줄이고 싶었음 []
1-11. 현 직장에 취업한시기(사업시작)	[] [] [] [] 년 [] [] 월	[] [] [] [] 년 [] [] 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 제공시작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레미콘 및 화물 지입차량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전 A/S기사 등과 같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2. 귀하는 일과 여가 활동, 가정생활 등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							→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현재 비취업 상태이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

3.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문항 1-1. ③비경제활동 응답자만 응답합니다.

- | | | |
|-----------|-----------------------------------|------------------|
| ① 육아 | ② 가사 |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
| ④ 입시학원 통학 | 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
| ⑥ 취업준비 | ⑦ 진학준비 | ⑧ 심신장애로 일할 수 없었음 |
| ⑨ 군입대 대기 | ⑩ 쉬었음 | ⑪ 기타() |

▶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응답 ▶

4. 귀하는 다음 활동을 평일과 주말에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그 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비해당	시간		시간 적절성(평일기준)				
		평일	주말	매우 부족	부족	적당	충분	매우 충분
1) 일(통근시간포함)	9	[]시간 []분	[]시간 []분	[]	[]	[]	[]	[]
2) 육아 (0세-초등학교 자녀 양육)	9	[]시간 []분	[]시간 []분	[]	[]	[]	[]	[]
3) 가사		[]시간 []분	[]시간 []분	[]	[]	[]	[]	[]
4) 여가		[]시간 []분	[]시간 []분	[]	[]	[]	[]	[]
5) 자기개발 등 기타		[]시간 []분	[]시간 []분	[]	[]	[]	[]	[]
6) 필수시간 (식사·수면 등)		[]시간 []분	[]시간 []분	[]	[]	[]	[]	[]

주 1) 일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란에 '9'로 입력, 학생의 경우 공교육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합니다.

2) 자녀가 없거나 중학생 이상일 경우, 비해당 란에 '9'로 입력. <영역 5>의 문항 2에서 본인의 육아 시간과 일치하도록 응답합니다.

3) <영역 5>의 문항 1에서 본인의 가사 시간과 일치하도록 응답합니다.

4) 여가활동은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 포함), 의무적 활동 시간(육아·가사 시간 등), 자기개발 등에 투입한 시간, 생존에 필요한 시간(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합니다.

5. 귀하는 현재까지 몇 번의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 회

※ 일자리 캘린더: 일자리 지속 기간을 선으로 연결하여, 일자리 변동 횟수를 계산합니다.

연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취업여부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업여부																

6. 귀하는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회 이상일 경우 같은 양식으로 계속 이어서 응답합니다. (첫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로 지속될 경우, 동일한 항목은 CAPI 연계,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직업 질문에서 6-1 일자리 종료시기 문항은 "9999년 99월", 6-6 퇴직 시 임금 문항은 "99999만원"으로 입력함)

구분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네 번째 일자리	다섯 번째 일자리	여섯 번째 일자리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① 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6-1. 일자리 시작 및 종료 시기 일자리 시작: _____년 _____월 일자리 종료: _____년 _____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6-2. 직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⑧ 장차기제조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3. 종사상자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4. 정규직 여부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5. 직종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지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6. 월 임금(수입)	입사 시 임금(수입)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퇴사 시 임금(수입)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432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5.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음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3)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4)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5)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①	②	③	④

6.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본인의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일과 직장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의 일과 직장	①	②	③	④	⑤
5) 공평한 가사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	①	②	③	④	⑤
6)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①	②	③	④	⑤
7) 안정된 주거 마련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계획 일치 여부	①	②	③	④	⑤
9)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①	②	③	④	⑤

IV.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태도

1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	①	②	③	④
2) 이웃	①	②	③	④
3) 직장동료(비취업자의 경우 가상의 동료)	①	②	③	④
4) 모르는 사람	①	②	③	④

13.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2) 국회(입법기관)	①	②	③	④
3) 법원, 검찰(사법기관)	①	②	③	④
4) 언론(TV방송사, 신문사)	①	②	③	④

[부록 2]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표

〈부표 5-1〉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평균	
전체(2015)	4.4	18.8	41.2	21.8	9.9	3.9	11,009	100.0	2.3
전체(2018)	4.8	21.3	41.2	21.3	8.0	3.5	11,207	100.0	2.2
전체(2021)	9.9	26.2	39.2	16.8	5.5	2.4	4,630	100.0	1.9
연령($\chi^2=927.8^{***}$)									
19-29세	37.6	35.4	18.5	6.1	1.1	1.3	407	100.0	1.0
30-34세	18.9	39.7	31.0	8.5	1.6	0.3	716	100.0	1.3
35-39세	6.9	30.0	41.2	14.8	5.7	1.5	1,032	100.0	1.9
40-44세	4.9	20.2	44.5	19.4	7.7	3.4	1,193	100.0	2.2
45세이상	3.1	18.4	43.8	24.1	6.9	3.6	1,282	100.0	2.2
출생아수($\chi^2=9,912.5^{***}$)									
0명	76.4	18.4	4.0	0.4	0.6	0.3	600	100.0	0.3
1명	0.0	75.8	17.4	5.4	1.1	0.2	1,390	100.0	1.3
2명	0.0	2.3	71.7	19.6	5.2	1.2	2,129	100.0	2.3
3명	0.0	0.2	4.4	55.4	24.6	15.4	511	100.0	3.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6)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외. (201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2〉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방법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2015	자연 임신	98.5	99.2	99.4	99.6	100.0	100.0
	난임 시술	1.5	0.8	0.6	0.4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22	8,455	3,925	1,520	428	102
2018	자연 임신	97.8	98.6	98.9	98.7	99.2	98.8
	난임 시술	2.2	1.4	1.1	1.3	0.8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1	8,289	7,537	1,284	387	90
2021	자연 임신	96.5	97.5	97.8	97.6	99.0	99.1
	난임 시술	3.5	2.5	2.2	2.4	1.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72	2,959	1,144	365	110	3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3〉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결과

(단위: 회, %, 명)

구분	임신 결과 평균 횟수						총임신 횟수 평균	평균 임신 유지율	전체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임신 중지	현임신			
2018	1.72	0.00	0.00	0.27	0.16	0.03	2.18	85.7	11,207
2021	1.71	0.00	0.00	0.25	0.11	0.03	2.11	87.7	4,172
지역									
동부	1.69	0.01	0.00	0.25	0.10	0.04	2.08	87.7	3,422
읍면부	1.83	0.01	0.00	0.24	0.14	0.03	2.25	87.6	750
연령									
19-29세	1.21	0.00	0.00	0.14	0.10	0.18	1.64	89.7	254
30-34세	1.35	0.01	0.00	0.17	0.03	0.11	1.66	90.0	581
35-39세	1.69	0.01	0.00	0.21	0.09	0.03	2.02	89.5	961
40-44세	1.84	0.00	0.00	0.29	0.14	0.00	2.27	86.3	1,135
45-49세	1.90	0.01	0.00	0.29	0.14	0.00	2.34	86.3	1,242
교육									
고졸이하	1.84	0.10	0.00	0.27	0.19	0.02	2.33	85.5	1,378
대졸	1.66	0.01	0.00	0.23	0.08	0.04	2.01	88.8	2,570
대학원졸	1.54	0.10	0.00	0.27	0.04	0.05	1.91	89.1	225
초혼연령									
24세이하	2.04	0.01	0.00	0.24	0.21	0.03	2.52	87.0	782
25-29세	1.78	0.01	-	0.22	0.10	0.03	2.14	89.1	1,990
30-34세	1.50	0.00	-	0.27	0.06	0.05	1.89	87.2	1,114
35세이상	1.22	0.00	-	0.35	0.09	0.03	1.69	82.4	287
취업여부									
취업	1.71	0.01	0.00	0.24	0.12	0.03	2.1	87.6	2,280
비취업	1.72	0.00	0.00	0.26	0.10	0.04	2.13	87.9	1,892
출생아수									
0명	0.00	0.00	0.00	0.55	0.23	0.55	1.33	-	142
1명	1.00	0.01	0.00	0.21	0.07	0.04	1.33	88.3	1,390
2명	1.97	0.01	0.00	0.24	0.10	0.01	2.33	89.9	2,129
3명 이상	3.07	0.01	0.00	0.28	0.23	0	3.59	89.3	511
가구소득									
60% 미만	1.55	0.01	0.00	0.24	0.14	0.06	2.00	86.1	484
60-80% 미만	1.67	0.01	0.00	0.23	0.11	0.05	2.07	88.6	686
80-100% 미만	1.72	0.01	0.00	0.27	0.12	0.02	2.15	86.8	770
100-120% 미만	1.75	0.01	0.00	0.24	0.10	0.03	2.12	88.5	735
120-140% 미만	1.81	0.01	0.00	0.29	0.12	0.03	2.26	86.6	458
140-160% 미만	1.75	0.01	0.00	0.2	0.09	0.04	2.09	88.8	353
160% 이상	1.74	0.01	0.00	0.24	0.08	0.02	2.09	88.4	686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8) 평균임신유지율은 각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횟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의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40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부표 5-4〉 원한 임신 여부(기혼 여성(19-49세))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원했다	80.2	85.6	71.5	59.5	54.1	46.2	84.3
원하지 않았다	17.4	13.0	26.1	38.6	43.6	51.5	11.6
모르겠다	2.5	1.5	2.5	1.9	2.3	2.3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72	2,959	1,144	365	110	35	1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5〉 임신 시기의 적절성(기혼 여성(19-49세))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원했던 것보다 빨랐다	15.0	8.7	6.4	3.2	1.4	4.5	1.6
적절했다	75.0	80.1	77.5	76.2	80.8	77.0	76.4
원했던 것보다 늦었다	9.9	11.1	15.6	18.3	17.8	18.5	22.0
모르겠다	0.1	0.2	0.6	2.3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44	2,531	818	217	59	16	1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6〉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빠른 정도(기혼 여성 19-49세)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1년	85.1	81.0	79.1	46.5	100.0	100.0	100.0
2년	12.5	15.6	15.4	53.5	0.0	0.0	0.0
3년이상	2.5	3.4	5.5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02	219	52	7	1	1	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7〉 원하는 임신 시기보다 실제 임신 시기의 늦은 정도(기혼 여성 19-49세)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1년	34.6	33.1	24.4	38.9	45.8	65.2	21.7
2년	25.5	32.6	35.6	24.4	29.5	34.8	37.4
3년이상	40.0	34.3	40.0	36.7	24.6	0.0	4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3	280	128	40	11	3	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8〉 기혼 여성(19-49세)의 출생아 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평균
전체(2015)	7.1	24.4	55.9	12.6	11,009	100.0	1.75
전체(2018)	6.9	26.4	53.3	13.4	11,207	100.0	1.75
전체(2021)	12.9	30.0	46.0	11.1	4,630	100.0	1.57
지역($\chi^2=55.9^{***}$)							
동부	3.7	33.8	51.6	10.9	3,422	100.0	1.54
읍면부	2.0	31.0	48.4	18.6	750	100.0	1.71
연령($\chi^2=988.0^{***}$)							
19-29세	44.5	38.0	14.8	2.7	407	100.0	0.76
30-34세	26.3	41.0	27.8	5.0	716	100.0	1.12
35-39세	9.3	33.5	46.6	10.6	961	100.0	1.60
40-44세	6.6	24.8	55.6	13.0	1,193	100.0	1.77
45-49세	4.3	23.5	56.6	15.6	1,282	100.0	1.86
교육($\chi^2=86.6^{***}$)							
고졸이하	10.3	27.9	45.7	16.1	1,498	100.0	1.71
대졸	13.8	30.7	46.6	8.9	2,869	100.0	1.51
대학원졸	18.7	35.1	40.7	5.5	263	100.0	1.33
초혼연령($\chi^2=695.5^{***}$)							
24세이하	6.2	22.3	47.7	23.9	826	100.0	1.96
25-29세	10.5	25.7	52.8	11.1	2,171	100.0	1.65
30-34세	16.7	37.8	40.4	5.2	1,258	100.0	1.35
35세이상	29.9	46.5	21.6	2.0	375	100.0	0.96
취업여부($\chi^2=30.8^{***}$)							
취업	15.7	28.2	46.3	9.9	2,608	100.0	1.51
비취업	9.4	32.4	45.6	12.6	2,022	100.0	1.64
가구소득($\chi^2=118.6^{***}$)							
60% 미만	17.7	40.2	31.3	10.8	549	100.0	1.38
60-80% 미만	11.2	33.1	45.5	10.1	748	100.0	1.56
80-100% 미만	13.3	30.0	46.0	11.2	860	100.0	1.57
100-120% 미만	13.5	28.0	48.2	10.3	834	100.0	1.57
120-140% 미만	13.0	24.0	48.6	14.3	508	100.0	1.66
140-160% 미만	13.8	25.6	48.7	12.0	391	100.0	1.60
160% 이상	9.6	28.2	52.0	10.2	741	100.0	1.64

주: 1) 가구소득은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7)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외. (201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9〉 기혼 여성(19-49세) 출생 코호트별 출생아 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평균
전체(2015)	7.1	24.4	55.9	12.6	11,009	100.0	1.75
전체(2018)	6.9	26.4	53.3	13.4	11,207	100.0	1.75
전체(2021)	12.9	30.0	46.0	11.1	4,630	100.0	1.57
출생코호트($\chi^2=872.6^{***}$)							
1970년대생	4.9	23.2	57.0	15.0	1,947	100.0	1.84
1980년대생	12.5	33.8	44.0	9.7	2,003	100.0	1.52
1990년 이후	40.9	40.3	16.1	2.7	611	100.0	0.81
출생코호트($\chi^2=414.3^{**}$)							
1970년대생	4.9	23.2	57.0	15.0	1,947	100.0	1.82
1980년 이후	19.2	35.3	37.5	8.0	2,614	100.0	1.3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록 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원 명단

1. 조사 관리

성명	담당 업무	소속
조남주 팀장	조사 관리 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팀
정혜란 전문원	조사 관리 실무책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팀
송지은 전문원	데이터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개발관리센터
장보현 수석부장	CAPI 개발 및 관리	한국리서치
박아름 과장	CAPI 개발 및 관리	한국리서치
김아라 과장	CAPI 개발 및 관리	한국리서치
이세정 연구원	CAPI 개발 및 관리	한국리서치

2. 조사원

구분	성명	역할	조사참여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전문조사지도원	김인숙			40년
	김예숙			30년
1(경남팀)	김인숙	전문조사지도원	1981년	40년차
	정경희	조사원	2014년	7년차
	현혜진	조사원	2017년	4년차
	김윤아	조사원	2020년	1년차
	황지영	조사원	2021년	신규
2(경남팀)	김미녀	조사지도원	1999년	22년차
	이갑순	조사원	2006년	15년차
	이혜란	조사원	2011년	10년차
	장성아	조사원	2018년	3년차
	조옥래	조사원	2021년	신규
3(경남팀)	원명숙	조사지도원	2000년	21년차
	김유희	조사원	2005년	16년차
	송미숙	조사원	2003년	18년차
	정현주	조사원	2017년	4년차
	오춘길	조사원	2021년	신규
4(경북팀)	이인화	조사지도원	1993년	28년차
	이태숙	조사원	2017년	4년차
	문영주	조사원	2021년	신규
	이은화	조사원	2021년	신규
5(경북팀)	조정애	조사지도원	2004년	17년차

구분	성명	역할	조사참여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김숙영	조사원	2004년	17년차
	오유정	조사원	2004년	17년차
	현우경	조사원	2019년	2년차
	신채연	조사원	2005년	16년차
6(경북팀)	김진금	조사지도원	2007년	14년차
	정인옥	조사원	2006년	15년차
	민순옥	조사원	2012년	9년차
	이영옥	조사원	2021년	신규
7(전북팀)	이정화	조사지도원	1999년	22년차
	김귀숙	조사원	2015년	6년차
	차수영	조사원	2014년	7년차
	명금임	조사원	2014년	7년차
	정미옥	조사원	2014년	7년차
8(전북팀)	신소정	조사지도원	2002년	19년차
	양미옥	조사원	2011년	10년차
	탁은옥	조사원	2014년	7년차
	차은주	조사원	2014년	7년차
	이효숙	조사원	2021년	신규
9(충청팀)	김예숙	전문조사지도원	1998년	23년차
	박영란	조사원	2009년	12년차
	이다희	조사원	2021년	신규
	김미라	조사원	2021년	신규
	오세정	조사원	2021년	신규
10(충청팀)	방기숙	조사지도원	2001년	20년차
	금경아	조사원	2013년	8년차
	김운선	조사원	2013년	8년차
	김진이	조사원	2020년	1년차
	전정희	조사원	2014년	7년차
11(충청팀)	김계영	조사지도원	1990년	31년차
	심용숙	조사원	2005년	16년차
	이현순	조사원	2012년	9년차
12(전국팀)	최승희	조사지도원	2004년	17년차
	윤경숙	조사원	2005년	16년차
	최향일	조사원	2004년	17년차
	채명숙	조사원	2004년	17년차
	김은주	조사원	2021년	신규
13(전국팀)	김숙경	조사지도원	1997년	24년차
	이란주	조사원	2012년	9년차
	이세진	조사원	2009년	12년차
	강현숙	조사원	2018년	3년차
	허혜령	조사원	2020년	1년차

446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구분	성명	역할	조사참여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14(전국팀)	최영래	조사지도원	2004년	17년차
	박정숙	조사원	2002년	19년차
	김도연	조사원	2005년	16년차
	양정아	조사원	2005년	16년차
	최시현	조사원	2003년	18년차
15(전국팀)	이춘미	조사지도원	2004년	17년차
	김성희	조사원	2008년	13년차
	한봉수	조사원	2007년	14년차
	조영화	조사원	2014년	7년차
	이순인	조사원	2007년	14년차
16(전국팀)	유미의	조사지도원	2001년	20년차
	손귀자	조사원	2008년	13년차
	장윤정	조사원	2015년	6년차
17(전국팀)	김신형	조사지도원	2004년	17년차
	김현정	조사원	2010년	11년차
	김혜숙	조사원	2008년	13년차
	강선희	조사원	2019년	2년차
	임지연	조사원	2021년	신규
18(전국팀)	유희연	1인체계 조사원	2000년	21년차
	황금주	1인체계 조사원	2008년	13년차
19(전국팀)	김영혜	1인체계 조사원	2001년	20년차
	고래희	1인체계 조사원	1989년	32년차
20(전국팀)	최순덕	조사지도원	2001년	20년차
	조지애	조사원	2012년	9년차
	주미경	조사원	2021년	신규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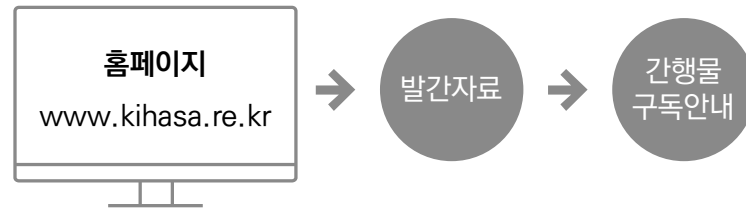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016)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Yes24 <http://www.yes24.com>